

존 로스 한글 성경 번역 14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

## 존 로스의 한글 성경 번역이 한국 교회와 사회문화에 끼친 영향과 과제

- || 일 시 : 2022년 4월 26일(화) 오후 2:00~6:00
- || 장 소 : 새문안교회 언더우드홀(지하 2층)
- || 주 최 : (사)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재)대한성서공회 성경원문연구소
- || 협 력 : 대한예수교장로회 새문안교회
- || 진 행 : Zoom Live (ID: 815 8407 8412 / PW: 345536),  
YouTube Live 동시 진행



# 개 회 사

윤 경 로(사단법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이사장)

오늘 한국의 첫 조직교회인 새문안교회 언더우드홀에서 “존 로스의 한글 성경 번역이 한국 교회와 사회문화에 끼친 영향과 과제”라는 큰 주제의 학술 심포지엄을 갖게 됨을 무척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022년은 성경이 한글로 처음 번역된 쪽복음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간행된 지 140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이러한 기념비적 해를 맞아 대한성서공회 산하 성경원문연구소와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두 기관이 공동으로 오늘 이렇게 학술 심포지엄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귀한 모임의 축사를 맡아 주신 한글학회 권재일 회장님과 이 행사를 갖기까지 애써주신 대한성서공회 김호용 상임이사님과 권의현 사장님 및 실무자님들, 그리고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의 한규무 소장님과 이재근 학회장 및 연구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학술심포지엄의 재정적 지원 및 관련 업무를 지원해 주신 대한성서공회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 귀한 자리를 허락해주신 새문안교회 이상학 담임목사님과 당회원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학술발표회에 발표자와 논찬자로 참여해 주신 여러 교수님들께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먼저 기조발표를 맡아주신 옥성득 교수님(UCLA)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듯 옥 교수님은 한국 기독교의 초기 역사와 한글 성경 번역사에 관한 최고의 학자이십니다. 이런 분을 이번 학술 심포지엄의 기조발표자로 모시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어 유경민 교수(전주대학교)께서 “역대 한국어 성경 번역문 대비를 통한 로스 번역의 언어·문화적 특징 연구” 논문을 발표하십니다. 한글 언어학적인 측면에서의 다른 번역본들과의 비교 검토라 매우 흥미로울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발표에 대한 논찬은 현재 서울대 명예교수이자, 전 국립국어원 원장이셨던 민현식 교수님께서 맡아 주셨습니다. 박형신 교수(남서울대학교)께서 “로스역 한글 성경의 보급과 현재 소장본에 대한 연구”라는 논문을 발표하십니다. 존 로스 전문가이신 박 교수님의 발표에 대한 논찬은 류대영 교수(한동대학교)께서 맡아 주셨습니다. 류대영 교수님 또한 한국 기독교 역사 분야의 최고 전문가의 한 분으로 이와 관련된 여러 논문과 역저를 내신 분이십니다. 마지막 이두희 박사님(대한성서공회 부총무)께서는 “로스의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1882)가 한글 성경 번역에 끼친 영향과 앞으로의 과제”라는 논문을 발표하십니다. 이에 대한 논찬은 이환진 교수(감리교신학대학교)께서 해 주실 것입니다. 향후 한글 성경 번역과 관련된 과제가 제시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학술 심포지엄을 통해 과거를 되돌아볼 뿐만 아니라 오늘을 직시하며 내일을 전망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더욱 밝아질 수 있기를 함께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 환영사

권 의 현(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사장)

존 로스 한글 성경 번역 14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에, 직접 현장에 오셔서 함께해 주신 분들과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조 발표와 본 발표, 그리고 논찬과 사회를 맡아 주신 교수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 로스의 한글 성경은 최초의 한글 성경이라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순 한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고 출판·보급하였다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었으며, 이 성경을 바탕으로 한국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양반 지식인들로부터 ‘천대받던 한글’로 성경을 번역한 것은, 그 당시 조선사회에서는 혁신적인 일이었으며, 한글 문화와 문명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성경은 한글 성경의 문장과 문체에 있어서 하나의 기준이 되면서, 이후에 이루어진 한글 성경의 번역에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140년 전, 혼란과 어두움으로 채워진 이 땅에 존 로스 선교사에 의해 한글 성경이 번역되어 복음의 씨가 뿌려져서 오늘의 한국 교회라는 큰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힘입어 한국 교회는 세계 열방을 향하여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구원의 복음인 성경을 수많은 나라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의 근저에는 존 로스와 동역자들의 노력과 희생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872년 존 로스 선교사가 스코틀랜드를 떠나서 미국과 일본을 거쳐서 중국까지 온 거의 반년에 걸친 긴 여정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매우 다른 어려운 길이었습니디. 그 당시로서는 땅 끝이라고 여겼던 만주까지 와서 중국어를 배우며 선교를 했을 뿐만 아니라, 아직 선교의 문이 열려 있지 않았던 또 다른 땅 끝이었던 조선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말을 배우고 한글로 성경을 번역 출간하였습니다.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는 곳, 선교사가 들어가면 죽는 쇠국의 나라 조선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사람이 들어갈 수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해서 들여보내야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노고와 도전을 우리는 잊을 수 없습니다.

최초의 한글 성경 번역과 출판 140주년을 기념하면서, 본 공회에서는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와 함께 이를 기념하는 학술 심포지엄을 마련하였습니다. 존 로스 목사와 그 동역자들이 번역·보급한 한글 성경의 가치를 한 번에 모두 다 찾아내서 밝힌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서 그 의의를 또 새롭게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금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심포지엄을 위해서 새문안교회에서 장소뿐만 아니라 온라인 중계를 위한 편의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축사

권재일(한글학회 제61대 회장,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코로나 감염병으로 우리의 일상은 물론 종교 활동, 학술 활동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와 대한성서공회가 학술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마음 깊이 축하합니다. 더욱이 한글 성경 번역 14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회의라서 더욱 뜻깊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축하 말씀을 올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글은 세종대왕께서 글자 모르는 백성들이 쉽게 글자 생활하도록 창제하였습니다. 한문 서적들을 한글로 번역하거나 새로 책을 지어 백성들이 다양한 정보를 누리게 하였으며, 한글로 문학 활동을 하여 한국 문학의 아름다움을 펼쳤습니다. 이처럼 한글은 한국 문화, 한국 민족의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글이 국문, 곧 나라 글자로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은 1894년으로, 훈민정음이 창제된 지 450년이 지나서이니 참으로 때늦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앞서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여 백성들에게 삶의 진리를 깨우친 역사가 있었으니, 바로 1882년 3월 존 로스 목사가 중심이 되어 번역한 최초의 한글 성경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입니다. 한글 성경은 한국 교회에 복음을 널리 펼치고 신앙을 단단하게 다지는 소임을 다했음은 물론이고 한편으로는 글자 생활에 한글 사용을 정착시키고 체계가 잡혀 있지 않던 국어 표기법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에도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한글 성경은 당시의 표기·음운·어휘·문장의 특징을 고스란히 안고 있어 그 국어학적 의미는 참으로 크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글 성경 번역이 한글문화와 한국 기독교 발전을 위해 펼친 높은 정신을 받들고 계승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뜻에서 오늘 학술회의 주제를 “존 로스의 한글 성경 번역이 한국 교회와 사회문화에 기친 영향과 과제”로 삼은 것은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 발행 140돌을 맞이하여 매우 뜻깊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저희 한글학회는 1908년에 창립하여 일제강점기를 거쳐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글맞춤법통일안을 만들고, 표준말을 사정하고, 큰사전을 편찬하면서 우리말·우리글을 가꾸고 지켜 왔습니다. 한글 성경 번역 역시 우리말·우리글을 가꾸고 지켜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글학회를 대신하여 저는 오늘 학술회의가 한글 성경 번역의 한글 보급 정신을 계승하여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귀중한 행사로 자리매김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이번 학술회의를 마련하신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와 대한성서공회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발표와 토론에 참여하신 모든 선생님들의 정성 깊은 노고에 고마운 말씀을 올립니다.



## 일 정 표

시 간	내 용	
사회: 호재민(대한성서공회 총무)		
14:00-14:30	개회기도: 이상학(새문안교회 담임목사)	
	개회사: 윤경로(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이사장, 전 한성대학교 총장)	
	환영사: 권의현(대한성서공회 사장)	
	축 사: 권재일(한글학회 제61대 회장,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사회: 이재근(한국기독교역사학회 회장, 광신대학교 교수)		
14:30-15:00	<b>기조발표: 존 로스와 한국 개신교</b> <b>-로스의 첫 한글 복음서 출판 140주년에 부쳐-</b> 옥성득(UCLA 교수)	
15:00-15:30	<b>제1발표: 역대 한국어 성경 번역문 대비를 통한 로스 번역의 언어·문화적</b> <b>특징 연구</b> 유경민(전주대학교 교수)	
15:30-15:40	<b>제1논찬:</b> 민현식(서울대학교 명예교수)	
15:40-15:50	휴 식	
15:50-16:20	<b>제2발표: 로스역 한글 성경의 보급과 현재 소장본에 대한 연구</b> 박형신(남서울대학교 교수)	
16:20-16:30	<b>제2논찬:</b> 류대영(한동대학교 교수)	
16:30-17:00	<b>제3발표: 로스의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1882)가 한글 성경 번역에 끼친</b> <b>영향과 앞으로의 과제-누가복음 20~24장을 중심으로-</b> 이두희(대한성서공회 부총무)	
17:00-17:10	<b>제3논찬:</b> 이환진(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	
17:10-17:20	휴식	
17:20-17:35	<b>종합토론:</b> 좌장 한규무	논찬에 대한 답변 (각 5분씩)
17:35-18:00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소장, 광주대학교 교수)	질의응답

\*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방법** : 현장 참석자는 질문지를 작성하여 안내석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Zoom 회의실에 들어오신 분들은 채팅방에 질문을 남겨 주시면 수합 정리하여 전달하겠습니다./  
 단, 유튜브 채널에서는 질문을 받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 례

	개회사 / 윤경로	3
	환영사 / 권의현	4
	축 사 / 권재일	5
기조발표	존 로스와 한국 개신교-로스의 첫 한글 복음서 출판 140주년에 부쳐- / 옥성득	9
제1발표	역대 한국어 성경 번역문 대비를 통한 로스 번역의 언어·문화적 특징 연구 / 유경민	33
제1논찬	「역대 한국어 성경 번역문 대비를 통한 로스 번역의 언어·문화적 특징 연구」 토론문 / 민현식	55
제2발표	로스역 한글 성경의 보급과 현재 소장본에 대한 연구 / 박형신	61
제2논찬	「로스역 한글 성경의 보급과 현재 소장본에 대한 연구」 토론문 / 류대영	87
제3발표	로스의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1882)가 한글 성경 번역에 끼친 영향과 앞으로의 과제-누가복음 20~24장을 중심으로- / 이두희	91
제3논찬	「로스의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1882)가 한글 성경 번역에 끼친 영향과 앞으로의 과제」 토론문 / 이환진	123
종합토론	좌장: 한규무	



# 존 로스와 한국 개신교

## -로스의 첫 한글 복음서 출판 140주년에 부쳐-

옥성득(UCLA 아시아언어문화학과 한국기독교 석좌교수)

- I. 개척 선교사 로스
- II. 선교 학자 로스
- III. 성서 번역자 로스
  - 1. 한글 소책자
  - 2. 한글 성경
- IV. 성서 주석자 로스
- V. 맺음말: 로스 역본의 유산

올해 4월은 로스(John Ross 羅約翰, 1842~1915) 목사가 첫 한글 복음서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를 발행한 지 140주년이 되는 시점이다. 한국 개신교 역사의 첫 장에 등장하는 로스의 삶과 사역이 굽이치는 카이로스의 한 전환점을 돌아가는 오늘 한국 교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로스에게는 네 가지 면이 있다. 1) 만주 선교와 한국 선교를 개척한 열정적인 목회 선교사, 2) 선교 방법론, 타종교 신학, 한국어, 한국사, 중국사 관련 저서만 7권 이상을 출판한 학자 선교사, 3) 10년 만에 첫 한글 신약전서를 완역 발행한 천재적인 성서 번역 선교사, 그리고 4) 한국에서도 널리 사용된 여러 권의 주석서를 쓴 성서 주석 선교사였다. 로스의 이런 다양한 모습을 한국 교회와 관련하여 살펴보되, 성서 번역자로서의 모습을 집중 조명해 보려고 한다.

### I. 개척 선교사 로스

로스는 1872년부터 1910년까지 스코틀랜드연합장로교회 해외선교부 만주선교회의 첫 선교사로서 38년간 봉사했다. 한국은 1회 1887년 9월에 서울을 방문했지만, 한국 개신교 출발과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를 처음 본격적으로 연구한 그레이슨(James H. Grayson 김정현) 교수는 로스를 만주의 첫 선교사뿐만 아니라 ‘한국의 첫 선교사’로 지칭했다. 미국 선교사들이 1884~85년 서울에 오기 전 고려문에서 의주 상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글

복음서를 번역하여, 첫 한국인들 세례자와 첫 ‘자생적인 신앙 공동체’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존 로스는 1842년 7월 6일 켈릭어(Gaelic)를 사용하는 북 스코틀랜드의 작은 농어촌 라리키(Rariche)에서 중산층 유지였던 양복업자 휴 로스와 교사였던 캐더린 스터랜드의 8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1865년 에든버러 소재 연합장로교회의 신학교에 입학했고, 졸업 후 하이랜드와 동 스코틀랜드 도서 지역에서 목회하면서 1868년부터 해외 선교에 뜻을 두었다. 그는 이중 언어(켈릭어와 영어)를 사용하고, 국제적인 무역항 부근에서, 신화와 전설이 살아 있는 농민과 어민 문화 속에 생활하고, 독립적이고 선교 열정이 강한 교단에서 목회하면서, 언어와 문화에 대한 감각을 익히고 모험심을 기르는 동시에 교단 연합의 필요성을 느꼈다. 그가 40년 이상을 보내게 되는 만주 지역도 중국어·만주어·한국어가 공존하고 인종들이 섞여 살면서 서구 문물에 의해 급변하는 농촌 지역이었고, 여러 장로교회가 사역했으므로, 그가 토착화 선교 방법을 발전시키고 번역 사역에 헌신하고 교회 연합을 강조한 것은 성장 배경과 연관된다고 하겠다.<sup>1)</sup>

로스는 1872년 3월 25일 스튜어트와 결혼하고, 8월 23일 스코틀랜드연합장로교회(The United Presbyterian Church of Scotland) 해외선교부의 중국 선교사로 산둥 체푸[芝罘 Chefoo]에 도착했다. 4살 위인 매킨타이어(John MacIntyre, 1837~1905) 목사는 독신으로 1872년 1월에 파송되어 있었다. 선배 선교사 스코틀랜드성서공회 총무 윌리엄슨(Alexander Williamson 韋廉臣, 1829~1890) 목사는 로스에게 산둥의 농민들이 대거 이주해서 정착하고 있던 만주에 가서 선교를 개척하기를 권했다. 동시에 1866년 한국 선교를 도모하다가 평양에서 사망한 토마스(Robert J. Thomas, 1839~1866) 목사의 비극을 말하면서, 자신이 1867년 가을 만주의 봉황성과 고려문을 방문하고 그에 대한 정보를 수소문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만주에서 토마스의 유지를 이어 조선 선교도 시도해 볼 것을 권했다.

로스는 1872년 10월 만주의 개항장인 잉커우[營口]항 뉴장[牛莊 Newchwang]으로 가서 첫 겨울을 보내면서 한문과 중국어를 배웠다. 로스는 1873년 3월 아들 드러몬드를 낳은 아내가 사망하는 슬픔을 맛보았다. 1869년에 도착한 아일랜드장로교회의 헌터(Joseph M. Hunter) 의사가 그를 위로했다. 아내를 만주 선교의 개척자인 잉글랜드장로교회의 번즈(William C. Burns, 1815~1868) 목사 무덤 옆에 묻고 로스는 만주 선교에 평생을 헌신하기로 작정했다. 내지 개척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J. Hudson Taylor, 1832~1905)를 좋아했던 로스는, 테일러 목사의 영적 스승이었던 번즈가 녹슬어서 못 쓰게 된 칼날이 아니라 너무 많이 써서 없어진 칼날의 생애를 산 것에 감동을 받았다. 로스는 성자 번즈의 제자로 잉코우장로교회(1872)에 이어 심양 동광장로교회(1889)를 세웠다. 로스는 식자층의 영향력을 중시했기 때문에 사서삼경 공부부터 시작했고 설교에 유교 고전을 인용했다.<sup>2)</sup> 지역 순회 전도 여행을 통해, 현지 언어와 문화를 존중하면서, 대화와 토론을 중시하는 청담(淸談)의 방법을 채택하고, 현지인에 의한 자전의 방법을 수용했다. 이는 이후 네비어스(John L. Nevius)의 3자 방법과 통합되면서 네비어스-로스 방법으로 발전하게 되고, 1891년 한국 장로회선교회의 공식 선교 방법론으로 채택된다.

1) James H. Grayson, "The Legacy of John Ross," *International Bulletin of Missionary Research* (Oct. 1999): 167-168; 김정현, 『羅約翰(John Ross) 한국의 첫 선교사』 (대구: 계명대출판부, 1982), 19-27.

2) Mrs. Dugald Christie, "Pioneer: The Rev. John Ross, Manchuria", *Life & Work* 5 (1934), 76.

1874년 10월 9일 로스는 10월 잉커우항을 출발하여 첫 번째 고려문(Corean Gate, 柵門) 여행에 나섰다. 고려문은 한중 국경 지역의 작은 마을로, 의주에서 120리 거리에 있는 청과 조선의 무역이 허락된 유일한 장소였다. 고려문은 1년에 네 차례(음력 3~6월, 8월 3주간, 9~10월 6주간, 12월) 개방되었다. 의주 상인은 산삼 등을 팔고, 면·차·설탕·사치품 등을 수입했다. 로스는 이 첫 방문에서 한국인 상인들을 만났으나, 그들의 관심사는 영국산 면제품이지 기독교 복음이 아닌 것을 발견했다. 다만 한 50대 상인에게 한문 신약전서와 번즈 목사가 번역한 소책자 『正道啓蒙』(Peep of Day, 1864) 한 권씩을 주었다.<sup>3)</sup> 그를 통해 한국인은 [f]를 [p]로 발음한다는 것과 대원군이 쇄국정책을 강화한 것을 들었다.<sup>4)</sup> 로스로부터 이 책을 받은 의주 상인은 바로 백홍준(白鴻俊, 1848~1893)의 아버지였다. 그가 가져온 신약과 『正道啓蒙』을 백홍준과 그의 친구들이 돌려가며 읽다가, 4~5년 후 1879년 세례를 받고 첫 개신교인이 되었다.



번즈, 『정도계몽』(1864)

1876년 초 로스는 셴양[瀋陽] 선교지부를 개척했다. 이때 한국인 소년을 하인으로 고용했는데, 그는 어릴 때 가출하여 만주로 와서 11년을 살았기 때문에 한국어를 잊어버린 상태였다. 그러나 로스는 그를 통해 한글 자모 몇 개를 배울 수 있었다. 그는 이것을 적은 종이를 가지고 1876년 4월 말에 제2차 고려문 방문에 나섰다.<sup>5)</sup> 로스는 한국어를 가르쳐 줄 어학 교사를 채용하고 한글 성경을 번역할 조사를 구할 목적을 가졌다. 로스는 한국인들을 만나 한국어 자모를 익혔다. 한국인 하인의 노력으로 압록강에서 배가 전복되어 상품을 잃고 무일푼이 된 의주 청년을 만나, 두 달 치 월급을 주고 어학 교사로 고용했다. 그러나 3일간 함께 여행하던 청년은, 여러 한국인을 만나고 국경 주둔 병사들의

의 심문을 받자, 대원군이 신미양요(辛未洋擾, 1871) 이후 세운 척화비 내용처럼 양인과 통하다가 붙잡혀 화를 당할까 두려워 밤에 몰래 도망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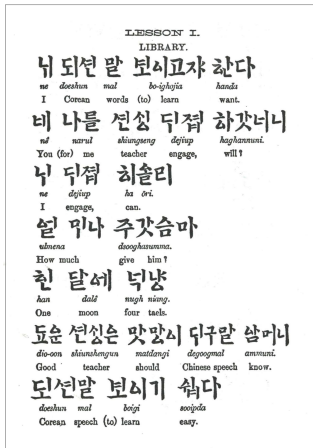
로스는 다른 사람을 물색할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몇 달간 한국어를 가르쳐 줄 사람을 겨우 구할 수 있었다. 로스는 학식 있는 이응찬(李應贊, ?~1883)을 만났는데 비록 그가 술과 아편을 했지만, “그를 붙잡아 두는 것이 얼마나 불확실한가를 알았기 때문에 돈을 아끼지 않고” 한 달에 녀냥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했다.<sup>6)</sup> 두 사람은 셴양에 가서 함께 한국어

3) 여러 책에서 『訓兒眞言』이나 『正道戒命』 등으로 잘못 기술했으나 『正道啓蒙』으로 바로잡는다. 번즈(賓為霖)의 『正道啓蒙』(1864)은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의 생애를 소개하는 책으로 원저는 영국 아동문학자 모르티머(Favell L. Mortimer, 1802~78)가 쓴 Peep of Day(초판 1836)이다. 번즈는 원저의 문답체를 소설처럼 서술체로 바꾸고 한문으로 번안했다. 즉 중국 전통 소설처럼 짧은 이야기를 연속하여 이야기하는 episodic 구성이 특징인 선교 소설로서, 작가는 전지적 관점으로 성경 이야기에 자신의 해석을 추가하여 서술했다.(黎子鵬, “晚清基督教文學：《正道啓蒙》(1864)의中國小說敘事特徵”, 『道風：基督教文化評論』 35 (2011), 279-.

4) John Ross, “Visit to the Corean Gate”, *Chinese Recorder and Missionary Journal* [hereafter CRMJ] (Nov. Dec. 1875), 471-472.

5) John Ross, “Corean Version of the New Testament: How I came to Make it, Part II”, *United Presbyterian Magazine* (May 1, 1883), 208.

6) John Ross, “To the Corean Gate”, *United Presbyterian Missionary Record* [hereafter UPMR] (Jan. 1877), 355-357; John Ross, *Corean Primer* (Shanghai: Presbyterian Printing Press, 1877), 6.



**Corean Primer(1877) 제1과**

를 공부했고, 그 결과물이 한국어 교재인 *Corean Primer*(1877)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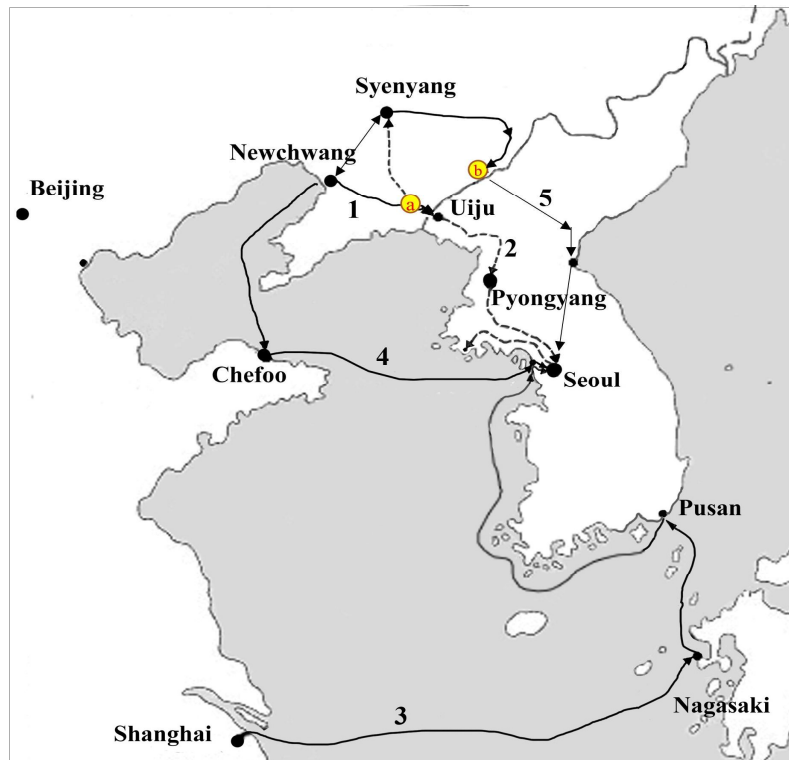
1879년 한국인 4명이 처음으로 잉코우장로교회에서 로스의 동역자이자 매제인 매킨타이어 목사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김양선 목사는 이들이 김진기·백홍준·이응찬·이성하라고 밝혔으나, 1차 자료로 확인되는 이름은 백홍준과 이응찬이다. 1880년에 잉코우 뉴장에 예수교를 배우는 한인들의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었다. 안식년 휴가로 본국에 가 있던 로스는 이 소식을 듣고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매킨타이어는 글을 아는 4명의 한국인에게 세례를 주었다. 이들은 놀라운 추수를 약속하는 첫 열매들이다. 비록 지금 한국은 서양 국가들과의 접촉을 철저히 막고 있지만 쇠국은 곧 무너질 것이다. 또 한국인은 중국인보다 천성적으로 꾸미지 않고 종교성이 많으므로, 그들에게 기독교가 전파되면 신속하게 퍼질 것이다. ... 작년에 글을 아는 4명의 한국인이 세례를 받았고, 기독교의 본질과 교리를 탐구하는 11명이 더 있으며, 동일한 수의 다른 사람들이 자기 민족을 위해 성경과 기독교 서적을 준비하는 문서사업을 위해 7~8일이 걸리는 우리 선교지부까지 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므로 바로 여기에 기독교회를 향해 열려있는 새 민족, 새 나라, 새 언어가 있다.<sup>7)</sup>

변경 도시 의주에서 압록강과 고려문은 새 진리를 수용하려면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문지방을 건너자 쇠국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한반도의 머리 백두산의 신화가 유유히 흐르다가 의주 부근에서 자유의 머리카락처럼 갈라지는 압록강은 새 종교와 문명을 연결하는 역사의 강이었다. 1780년 박지원이 그 강을 건너며 천주교와 유학의 만남을 목상했지만, 백 년 후 장돌뱅이 백홍준과 서상륜은 개신교를 수용했다. 한국의 갈릴리와 같은 변경 의주에서 자라 서울 양반들로부터 천대받던 상인들은 이미 국경 무역을 통해 ‘자립적인 신흥 중산층’으로 성장하고 있었고 서양 문화에 개방적이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복음을 자발적으로 수용했다. 그들은 국법이나 목숨보다 성경에서 발견한 속죄 구원의 진리가 더 소중했기에 잉코우까지 천 리 길을 걸어가 신앙을 고백했다.

그리고 마침내 1887년 9월 27일 서북 출신 세례교인 13명(백홍준·서상륜·서경조·정공빈·최명오 등)과 서울의 노춘경으로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 목사가 한국의 첫 장로교회인 새문안교회를 조직할 때, 로스는 서울을 방문해서 자신이 번역한 성서의 열매를 감격스럽게 바라보았다. 백홍준은 1893년 12월 폐병으로 사망할 때까지 의주에서 첫 전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위해 핍박을 견디며 복음을 전했다. 1890년 처음으로 세 명의 조사를 임명했을 때 평안도 지역은 백홍준, 황해도는 최명오, 경기도는 서상륜이 맡았는데 모두 로스의 제자였다.

7) John Ross, “Manchuria Mission”, *United Presbyterian Mission Report* (Oct. 1, 1880), 333-334.



1. 로스의 고려문(a) 방문(1874, 1876)
2. 서상륜의 권서 행로(1882-83)
3. 알렌의 입국(1884)
4. 로스의 서울 방문과 새문안교회 조직(1887. 9)
5. 마페트와 게일의 전도 여행(서울-의주-선양-한인촌 b-함흥-원산, 1891. 2-5)

1891년 2월 25일 서울을 떠나 의주를 거쳐 선양의 로스 목사를 만난 후 함흥과 원산을 거쳐 5월 말에 서울에 돌아온 마페트(Samuel A. Moffett) 목사는 의주에 약 30명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을 보고, 로스의 사역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0년 동안 복음에 대해 들어 왔기 때문에 복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곳은 로스 목사가 사역한 중심지이며, 지금 로스 목사는 이곳에 권서를 두고 있는데, 그는 국경을 따라 성경을 반포해 왔습니다. 이곳 의주에 있는 우리의 전도사 백 씨(백홍준)는 로스의 첫 개종자 중 한 명으로 17년 전에 예수교인이 되었으며, 이곳 출신으로 15년 전에 예수교인이 된 우리의 서울 전도사 서상륜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sup>8)</sup>

마페트는 백홍준의 안내로 선양을 방문하고 내려오는 길에는 압록강 대안 지안[集安]을 중심으로 하는 한인촌 28개 마을로 가서 한국인 신자들을 조사했다.<sup>9)</sup> 한인촌의 상황은 백홍준 등의 조사가 목회하던 의주와 달리 로스에게 세례를 받은 100명 중에 대부분이 신앙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쌀 신자로 남거나 흩어진 것을 발견했다. 1892년 의주를 방문하고 3개월 머물면서 추가 조사를 통해 마페트는 다음과 같이 부정적으로 말했다.

8) S. A. Moffett to F. F. Ellinwood, March 25, 1891.

9) S. A. Moffett to F. F. Ellinwood, May 21, 1891.

저는 의주에서 3개월 동안 지내면서 우리 사역의 상황에 대해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의심할 여지없이 세례를 받은 사람 대부분이 그저 세속적 이익을 추구하고, 30명 이상 가운데 절반이 복음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교인이 된 증거를 보여주는 자는 10명이 되지 않고, 이들 중 일부는 조롱을 견딜 용기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진리를 굳게 붙잡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5-6명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큰 위로가 됩니다.<sup>10)</sup>

신자 가운데 20% 정도만 알곡이었다. 1896년에도 마페트는 “몇 년 전 저는 만주와 한국 국경 사이의 ‘한인촌’에 ‘수천 명의 기독교인’이 있다는 세간에 떠돌던 거짓 소문이 신문 지상에 실린 것을 발견했습니다.”<sup>11)</sup>라고 하여, 한인촌 전도의 과장된 선교 결과를 비판했다. 선교 초기에 발생하는 쪽정이 신자 문제로 인해 네비어스-로스의 3자 정책은 절실했다. 그러나 압록강 양안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반포 사업을 하던 만주 뉴짱의 영국성서공회 총무 터리(Robert T. Turley) 목사는 1897~98년 강계에서 의주까지 압록강을 따라 몇 주일간 내려가면서 세례받기를 원하는 600명이 넘는 가장들의 이름을 명부에 기록할 수 있었다.<sup>12)</sup> 터리는 이것이 로스 역본을 반포한 결과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조사가 없던 한인촌의 상황은 소문과 달리 일시적인 쌀 신자가 많았으며, 강계-위원-초산-벽동-의주로 연결되는 마을에는 신실한 구도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한국교회사에서 로스 역본의 반포 결과를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평가한 부분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성경을 반포만 하면 교회가 성장하지 못한다. 가르치고 돌보고 세워주는 목회자의 역할도 중요하다. 또한 선교사에 의한 복음의 ‘전래’보다 한국인의 자발적인 복음의 ‘수용’을 지나치게 강조한 민족교회론이 주류를 형성했다. 이제 민족사관과 선교사관을 통합하는 시각이 필요하다. 로스로 인해 개종한 의주와 소래에 있던 한국인 수세자와 미국 선교사가 서울에서 만나 첫 장로교회(새문안교회)를 조직한 1887년 9월 27일, 첫 감리교회(정동제일교회)가 시작된 1887년 10월 9일에 한국 개신교가 공식 출발했다. 로스와 백홍준과 서상륜 계열과 더불어 미국 선교사인 언더우드와 스크랜턴(Mary f. Scranton)과 아펜젤러(Henry G. Appenzeller) 계열을 아우르는 통합적 사관으로 초기 역사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 II. 선교 학자 로스

19세기 후반에 대학과 신학교를 졸업한 많은 개신교 선교사들이 동아시아에 파송되면서 선교의 기초가 되는 동아시아의 언어·문화·역사·종교를 연구하는 학자 선교사들이 등장했다. 이들의 문헌 연구와 선교인류학적 현지 조사 연구가 오늘날 중국학·일본학·한국학의 기초가 되었다. 로스는 중국과 한국의 언어와 역사와 종교를 깊이 연구하여 여러 저술을 남겼

10) S. A. Moffett to F. F. Ellinwood, September 6, 1892.

11) S. A. Moffett to F. F. Ellinwood, May 4, 1896.

12) Robert Turley, “Rev. John Ross, D. D. of Manchuria, Pioneer Translator of the New Testament into Korean”, *Korea Mission Field* (Nov. 1915), 315.

다. 어학에서는 *Manchurian Primer*(1876), *Corean Primer*(1877)와 이를 개정한 *Korean Speech*(1882), 역사에서는 청 왕조의 역사인 *The Manchus*(1891)와 만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사인 *History of Corea*(1879)를 출판했으며(이 두 저서로 1894년 3월 글래스고우대학교에서 명예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사후에 *The Origin of the Chinese People*(1916)이 간행되었다. 선교학에서는 *Old Wang: The First Chinese Evangelist in Manchuria*(1899)에 이어 그의 주저인 *Mission Methods in Manchuria*(1903, 2판 1908)을 저술했고, 종교학 분야에서는 *The Original Religion of China*(1909)를 저술하여 원시 중국 종교에 유일신론이 있음을 주장했다.

로스의 *History of Corea*(1879)는 영어로 된 최초의 한국사 통사였다. 그는 만주나 한국을 야만 지역으로 보는 중화사상에 반대하고, 만주나 한국을 고유문화를 지닌 인종이 거주하고 중국사에 큰 영향을 준 중요한 세력으로 보았다. 그는 이 책을 쓰기 위해 수백 권의 한문 서적을 조사했으며 사마광의 『자치통감』 등을 기초 자료로 활용했고, 조선 정부에서 발행된 서적들과 달레의 『한국교회사』(1874) 등 프랑스에서 발행된 책을 이용했다. 역사를 다룬 9개 장에서 고대사를 6개 장에 걸쳐 서술하면서 만주족의 영향을 강조했다. 10~14장은 한국의 풍습·종교·정부·언어·지리 등을 소개했는데, 미래 선교사를 위한 정보 제공 차원이었다. 로스의 한국사는 그리피스(William E. Griffis)의 *Corea the Hermit Nation*(1882)에 영향을 주었다. 그리피스의 책은 이후 1911년까지 9판까지 보완되면서 한국에 관한 가장 권위 있는 영어 입문서가 되었고 선교사들의 교과서가 되었으나, 일본과 한국을 하나로 보는 일본 식민사관을 수용한 편견을 지녔다. 반면 로스의 한국사는 만주의 영향력을 지나치게 강조한 약점이 있었다. 그러나 만주 고토에 관한 관심과 만주족과의 상호 관계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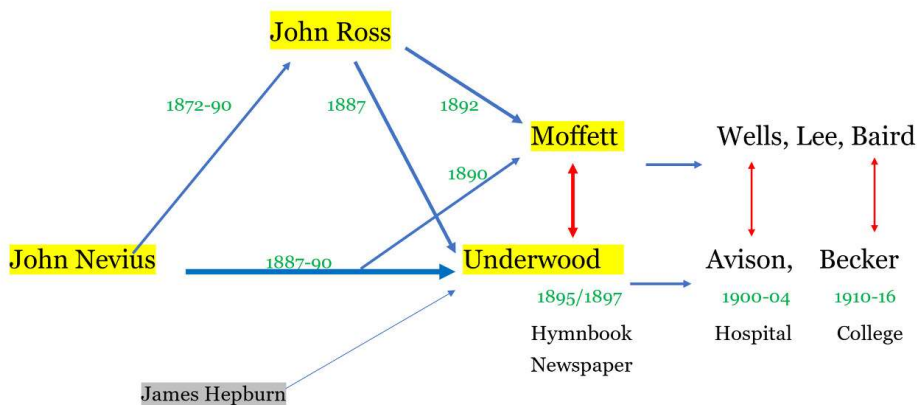
*Mission Methods in Manchuria*(1903)는 로스의 대표작으로 1874년 3명의 겨자씨 같은 신자로 출발한 만주장로교회가 30년 후 30,000명의 큰 나무로 성장한 만주의 사도행전 이야기이다. 1903년은 반기독교운동인 의화단 사건으로 교회가 핍박을 받고 지하 교회까지 생기던 위기 시점이었다. 민족주의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만주 교회의 활로를 모색해야 했고, 로스는 그 시대적 과제에 진지하게 응답했다.

이 책은 한국 선교에도 수용된 로스의 선교 방법을 설명한다. 그것은 토착 교회 설립을 위한 3자 정책(자급·자전·자치)인 ‘네비어스 방법’을 만주 현지에 적용한 ‘로스 방법’이었다. 로스는 네비어스를 존경하고 1887년 9월 서울을 방문하고 새문안교회 조직을 목격한 후 돌아오는 길에 산동의 체푸에서 네비어스를 만나 그의 선교 방법론을 배웠다. 1890년 네비어스 부부가 서울에 와서 일주일 동안 네비어스 방법을 강의했다. 그 때 참석했던 마페트는 1891년 게일과 함께 선양의 로스를 방문하고 로스 방법으로 성장하는 만주 교회에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이를 평양과 원산에 적용했다. 따라서 1891년 한국장로교회가 공식적으로 채택된 토착 교회 방법론은 ‘네비어스-로스 방법’이었다.

다시 말하면, 한국에서 채택 발전한 네비어스 방법은 서울의 네비어스-로스-언더우드 방법, 평양의 네비어스-로스-마페트 방법이다. 전자는 언더우드가 일본의 헵번(James C. Hepburn) 의사로 대변되는 기독교 문명론을 추가하면서 네비어스 방법을 수정하고 기구주

의(institutionalism)를 수용하고 점차 그 노선에 있던 북감리회와 연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 노선으로 1897년에 「그리스도신문」을 발행하고, 1904년에 세브란스병원(에비슨 원장)을 설립했으며, 장감 연합으로 1916년에 연희전문학교(베커 부교장)를 설립했다. 반면 평양에서는 마페트를 중심으로 서울의 문명론, 기구론, 간접 선교론을 비판하고 그리스도 중심의 영성주의(리 목사), 1인 의사의 소규모 병원(웰즈 의사), 기독교 지도자 양성 대학(베어드 교장) 노선으로 갔다. 평양에서는 로스의 원리를 따라 선교사와 조사들이 좀 더 넓은 지역을 순회 전도하는 자전, 지역 교인들에게 좀 더 많은 주도권을 주었고, 이는 교회의 급성장으로 이어졌으며,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일으켰고, 1910년대에는 그 불길을 만주 지역으로까지 확산시켰다. 이 두 노선의 계보도를 그리면 다음과 같다.

### Nevius-Ross Method 계보도



로스 방법은 다음과 같은 목표와 특징을 가졌다. 1) 중국을 근대화(서구화)하려는 기독교 문명론을 배제하지 않았지만 중국적인 토착 교회를 세운다. 2) 선교사는 교구 담당 목사와 달리 대도시에 거점을 두고 넓은 지역 교회들을 순회하며 감독한다. 3) 선교의 목표는 자급·자전·자치하는 토착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4) 신생 교회에게는 십자가의 도, 회개, 중생의 복음이 중요하므로 성서비평이나 신학적 논쟁점은 소개하지 않는다. 5) 토착인 전도인과 목회자 선별 기준은 지적 수준보다 열정과 영성을 중시한다. 6) 전도 대상은 민중이 우선이나 교육받은 중산층도 중요하므로 유불선에 대한 이해를 중시한다. 7) 선교 초기에는 교육보다 전도에 치중한다. 8) 효과적인 전도 방법은 대중 설교이며 회중과의 토론을 설교에 활용한다. 9) 성경 말씀에 능력이 있으므로 성경 번역과 반포가 중요하다. 10) 타종교에 대해 성취론적 태도를 취한다. 공격적, 배타적인 태도 대신 타종교의 진리와 계시의 흔적을 접촉점으로 수용한다. 전족, 일부다처, 제사 등도 일방적 비판보다 그 긍정성을 옹호하는 열린 자세를 유지한다. 특히 제사는 조상 ‘숭배’가 아닌 ‘추모’로 보며, 일부다처자의 세례도 용인한다.(그러나 1890년 상해선교사대회가 제사 금지와 일부다처자 세례 반대를 결정하자 그 정책을 따랐다.) 11) 타 교회와의 협력과 일치를 추구한다. 로스는 서간도와 압록강 주변에 있는 한국인 개종자들을 1892년 한국에 있는 미국 북장로회 선교회에 넘겨주었다. 만주 지



역은 스코틀랜드장로교회와 아일랜드장로교회가 양분하고 협력한 결과 급성장했다.

로스는 1908년 증보판에서 제16장 “교회를 시험하다”를 추가했다. 로스는 이 장에서 만주에서 토착적이고 자립적인 중국장로교회를 수립하려고 시행한 자급·자전·자치의 선교방법이 1899~1901년의 의화단 봉기(Boxer Uprising 義和團起義)와 1904~05년의 러일전쟁을 거치면서 오히려 그 유효성과 타당성이 입증되었다고 정리한다. 곧 반외세 민족운동과 제국주의 침략의 ‘불 세레’ 속에서 ‘네비어스 방법’을 만주 상황에 적응시킨 ‘로스 방법’으로 세운 토착적인 만주 교회가 핍박을 인내와 사랑으로 이기고 신앙을 지키고 정금같이 다시 태어나 1907년 대부흥을 맞이하게 되었다. 한국 교회도 평양을 중심으로 로스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급성장했다.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만주 교회를 보면서 영적으로 각성했고 대기근과 전염병과 나라가 망해가는 위기 속의 한국인들은 세기말적 종말의식 속에서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초월적인 힘을 갈망하게 되면서 1907년 대부흥을 경험했다. 한국 교회는 그 부흥에서 얻은 성령의 능력과 위로로 1910년대의 핍박기를 견디는 동시에, 일제의 정교분리 담론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항일민족운동을 지속하는 양면성을 견지할 수 있었다. 만주와 한국의 두 교회가 아시아에서 유래 없는 성장을 기록하고 핍박을 견디고 현실에 참여한 점에서 네비어스-로스 방법의 정당성을 증명해 주었다고 하겠다. 네비어스-로스 방법은 롤랜드 알렌(Rolland Allen)의 방법과 더불어 오늘 선교 현장에서 토착적인 교회를 설립하는 방법으로 계속 연구되고 있다.

### Ⅲ. 성서 번역자 로스

조선 정부의 쇄국정책으로 인해 한반도 안에 들어가서 전도할 수 없었던 로스는 1877년 한글 신약전서를 번역하고, 1882년 족복음부터 1887년 신약전서까지 완간하고, 한국인 권서를 통해 이를 반포함으로써 미래의 선교 사역을 준비하는 차선책을 선택했다. 만주에서 장사하는 한국인 상인 가운데 한문에 능한 자를 고용하여 번역하게 하고, 선양에 문광서원(文光書院)을 설치하여 상하이와 요코하마에서 주조한 한글 자모로 인쇄하고 출판한 후, 권서를 통해 반포하도록 했다. 본토 말로 번역된 성경 자체의 능력과 토착인에 의한 자전을 신뢰했기 때문이었다.

로스본 번역 과정은 다음 5기로 나눌 수 있다.<sup>13)</sup> 준비기에서 초벌 번역을 하고, 첫 복음서를 출판한 후 신약 전체 출판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로스는 누가, 요한복음을 먼저 출판해서 그 반응을 살펴본 후, 수정 작업을 하면서 단권이나 합권을 발간하다가 1887년에 신약전서를 출판했다. 1891년 마태복음을 출판했지만, 1887년부터 번역은 중단했으므로, 1876-86년의 11년간 로스는 신약전서를 완역했다.

제1기는 준비기로서 1876-77년이다. 로스는 이때 한국어를 배우면서 문법을 정리하고, 한

13) 필자는 『대한성서공회사 1』(대한성서공회, 1993)과 『한국기독교와 역사 1』(기독교문사, 1989)에서 4기로 나누었으나, 본고에서는 제4기를 더 나누어 복음서 두 권의 개정기를 4기로, 이후를 5기로 나누어서, 전체 5기로 서술한다.

국어 회화서를 발간하고, 실험적인 소책자 번역을 하면서 어휘집을 만들고 적절한 성경 용어를 선택하면서 복음서 일부를 실험적으로 번역했다. 한국인 번역자는 이응찬이었다.

제2기는 초역기로서 1877년부터 로스가 첫 안식년 휴가를 떠나는 1879년 4월 10일까지다. 로스는 이응찬·서상륜·백홍준 등에게 한문 문리본(文理本) 신약전서를 저본으로 주고 마태복음부터 로마서까지 초역하도록 했다. 로스는 이 초고를 들고 스코틀랜드성서공회에 찾아가 한글 복음서 출판비 지원을 받았다. 로스는 이 기간에 한국 역사와 문화도 공부해서 *History of Corea, Ancient and Modern* 원고를 완성하여 1879년 스코틀랜드에서 출판했다.

제3기는 매킨타이어의 초역 완성기로 1879년 4월부터 1881년 8월까지 로스가 스코틀랜드에 있을 때, 잉코우의 매킨타이어가 신약 전체 초고를 완성했다. 매킨타이어는 이응찬으로부터 한국어를 배우면서 *Corean Grammar*와 *Analysis of Sentence* 등을 정리했다. 1879년에 신약 전체 번역 초고가 만들어졌고, 1880년에는 조선 정부에서 발행한 언해본을 참고하면서 번역을 검토했다. 1881년에는 이응찬과 최성균 등 번역 조사에게 그리스어 본문의 뜻을 풀이해 주면서 토론을 통해 본문을 수정했다. 따라서 많은 문장이 문리본보다 더 정확한 번역이 되었다. 또한 천주교회가 만든 『韓佛字典』(1880)과 유학 경전의 언해본을 참고하여 평안도 사투리를 서울말로 수정하고<sup>14)</sup> 『2,500단어 어휘집』도 만들었다. 무엇보다 매킨타이어는 1879년 4명의 한국인에게 세례를 주고 이들을 훈련하기 위해 『예수성교문답』과 『예수성교요령』을 번역하게 하고 함께 공부했는데, 이 두 책은 1881년 로스가 돌아와서 출판하게 된다.

제4기는 첫 복음서인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개정기이다. 로스는 안식년 휴가를 마치고 만주로 돌아와서 선양에 문광서원을 설치한 1881년 9월부터 1882년 봄에 초고를 놓고 수정 작업을 하여 첫 복음서인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출판했다. 로스는 1877년 이후 5년간 여러 차례 수정한 초벌 원고를 놓고 조사들과 함께 최종 본문을 확정하고 1881년 말에 인쇄에 들어갔다. God의 번역어로 ‘하느님’을 사용하던 시기였다. 먼저 매킨타이어가 초역한 『예수성교문답』과 『예수성교요령』을 다듬어서 1881년에 출판했는데, 복음서를 인쇄하기 전에 실험적으로 출판한 소책자였다. 이를 바탕으로 두 복음서를 1882년 3월과 5월에 출판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 출신 학자가 수정에 참여하여 의주말을 서울말로 고쳤다. 이 두 권의 단권 복음서는 스코틀랜드성서공회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가사키의 톰슨(John A. Thomson) 총무에게 1,000부씩을 보내어 부산에서 판매했다. 그 이후 판본의 출판과 반포는 런던의 영국성서공회가 지원했고, 서상륜·류춘천 등은 BFBS의 지원을 받아 반포했다.

제5기는 신약의 완역기이다. 기간은 1882년 여름부터 로스가 선양에서 신약전서 『예수성교전서』를 완역하는 1886년 가을까지로, 매킨타이어의 초고와 출판한 두 복음서를 또 다른 서울 출신 학자의 도움을 받아 서울말로 수정하면서, 나머지 복음서와 서신서를 번역하고 출판을 병행했다. 1883년에는 사도행전까지 최종 원고를 완성했으며, 1884년부터 서신서 번역에 들어가서 1886년 가을에 요한계시록까지 번역했다. 1883년 9월 제1번역자 이응찬이 콜레라로 사망하여 타격이 컸다. 1884년에는 임오군란으로 인해 의주로 좌천된 서울의 보수

14) 서울말로 수정하는 노력은 1881년보다 1882년에 더 많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일부 단어만 수정하였다.

파 무관과 또 다른 한인촌의 학자가 번역에 참여했다.

평안도 사투리를 해결하기 위해, 1882년 7월에 세례를 받은 서울의 전직 관리, 복음서~고린도서를 개정 번역한 서울 학자, 임오군란으로 좌천된 서울의 보수파 군인들과 서울 출신의 양반, 서간도 한인촌 학자는 이름을 알 수 없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한 자들이었다. 의주, 한인촌, 서울 출신의 상인과 학자들이 참여함으로써 로스 역본은 짧은 기간에 상당한 수준의 번역을 할 수 있었다. 다만 서울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일부 수정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평안도 사투리가 많이 남아 있어서 이후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로스의 번역 원칙은 ① 저본은 한문 문리본, 영어 개역본(1881)으로 하되 본문의 최종 권위는 옥스퍼드대학교가 펴낸 새로운 본문 비평판 그리스어 신약전서(1881)로 한다. 따라서 요한복음 8장 간음한 여인 부분은 생략한다. ②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민중어를 사용한다. 되도록이면 한자어가 아닌 고유 한국어를 사용한다. 예를 들면 태초 → 처음, 독생자 → 외아들, 유월절 → 넘느절, 의인 → 옳은자, 예언 → 미리말함, 기도하다 → 빌다 등으로 한다. 이 원칙에 따라 상제 대신 하나님(하느님)을 사용하며, 그 단어 앞이나 뒤에 한 칸을 띄우는 변형된 대두법으로써 그 단어에 존칭을 더한다. ③ 직역을 원칙으로 하되 한국어답게 하고 한국어 관용어구를 존중한다. 따라서 ‘바늘 눈’이 아니라 ‘바늘 귀’로 한다. ④ 동아시아인의 종교성을 존중한다. 따라서 요한복음 1장 1절의 로고스를 유불선 세 종교가 추구해 온 도(道)로 번역한다. ⑤ 평안도 방언으로 초벌을 했으나, 서울말로 수정한다. 이후 서울 출신 관리와 학자들을 동원하여 수정했으나 대폭적인 변화는 없었다. ⑥ 생소한 용어는 음역한다. 따라서 ‘강명편’을 부록으로 넣어, 사밧일(안식일), 밤팀레(세례) 등을 설명한다. 성서공회는 성경에 어떤 부록을 다는 것도 반대하지만, 기독교를 처음 접하는 이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아무런 책이나 참고 도서가 없으므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끝에 용어를 간단히 해설한다.

번역 방법은 제4기의 경우 ① 한국인 제1번역자가 한문 문리본에서 초역, ② 로스가 그리스어 성경 참고하면서 이응찬과 2차 번역, ③ 제1번역자가 정서, ④ 로스와 이응찬 수정, ⑤ 로스가 그리스어 신약, 성구사전, 메이어의 주석을 참고하면서 어휘 대조 통일하여 최종 원고 작성하고, 식자공에게 넘겨 인쇄했다.

## 1. 한글 소책자

제1기-4기에 번역 출판된 한글 소책자들을 먼저 살펴보자. 성경 번역과 달리 이런 책자들에는 서문이 있어서 편집자가 가진 한국어 인식과 어학적 체계를 이해할 수 있다. 또한 1879~1881년 한국 선교에 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첫 한국인 개신교 개종자를 만든 로스와 매킨타이어의 선교 신학을 알 수 있는 부분도 있다.

**Corean Primer, 1877년:** 로스는 이응찬과 대화하면서 한국어를 배운 과정을 정리하여, 1877년 상하이에 있는 장로회선교회 활판소를 통해 최초의 한국어 회화 입문서인 영한판 *Corean Primer*를 출판했다. 1876년 강화도조약과 부산항의 개항으로 한국 선교의 문이 열리

기 시작하고 중국과 일본에서 한국 선교론이 대두될 때, 로스는 한국에 파송될 미래의 영미 선교사, 상인, 외교관을 위해서 한글 문장과 그 영어 발음과 영어 번역문을 함께 실어 한국어 기초를 배울 수 있게 했다.<sup>15)</sup> 로스는 한국어가 음성문자인 한글로 기록되어 있고, 아름답고 간단해서 누구나 쉽게 빨리 익힐 수 있다고 보았다.<sup>16)</sup> 이 책은 로스가 그 전해에 만든 *Mandarin Primer*와 비슷한 체제로 만들었다.<sup>17)</sup> 언어를 배우는 서재와 집안 생활에서 시작하여 여행, 말, 도보, 여관, 방향, 환전, 매매, 숫자, 단위, 시간, 기후 등 선교사가 전도 여행할 때 실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의 대화를 수록하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도록 한 회화서였다. 제22과 도덕에 이어 마지막 제23과는 ‘영혼’을 다룬다.

육신은 반드시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  
영혼이 지보지 귀한 것이니 벗어나지 못하겠다  
사람은 필경 것 사람  
사람이 변하여 귀신 아니되니  
영혼이 세상 더러움 입었다  
정심이 아니면 옳지 않다 두군 마음  
이를 함에 가이 양심을 어그러치지 않습니다  
어진 마음<sup>18)</sup>

아직 성경이나 기독교 교리는 등장하지 않고, 그 준비에 해당하는 영혼 불멸론, 반귀신론, 영혼의 오염성, 인간 양심론만 한 문장씩 전개하고 있다. 5년 후에 나오는 개정판 *Korean Speech*에서는 좀 더 기독교적인 설명을 추가하게 된다.<sup>19)</sup>

이 책은 중국과 일본에 알려졌고, 일본인 가운데 이 책으로 한국어 회화 공부를 하는 자도 나왔다. 1876년 강화도조약과 함께 한국이 개항되기 시작하자, 중국과 일본에서 조선 선교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되고, 미국 선교부에 건의하면서 자원자들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국 선교 개시가 초읽기에 들어가고 있었다. 한편 이 책을 본 일본의 이동인(李東仁, ?~1881)은 평안도 사투리로 되어 있어서 서울에서는 안 통하는 엉터리 책이라고 했다. 뒷날 로스본 복음서를 보고 천주교 신자로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평안도 사투리가 서울에서 이해되지 않으므로 서울말로 된 수정본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스는 이 문제를 깨달

15) 인쇄할 때 목판으로 한글 문장을 먼저 넣고 그 아래 영어 발음(transliteration)을 적고, 그 아래 한글 각 단어에 대한 영어의 뜻을 적었다. 즉 발음과 어휘를 익히면서 한 문장씩 배우도록 했다. 큰 글씨의 목판 한글 활자 아래 두 줄의 연판 영어 활자를 조판한 기술도 뛰어나다.

16) John Ross, “The Christian Dawn in Korea”, *Missionary Review of the World* [hereafter *MRW*] (April 1890), 243.

17) 책 표지에 “being lessons in Corean on all ordinary subjects, transliterated on the principles of the “Mandarin primer”, by the same author”라고 밝혔고, 이를 서문에서 설명하고 있다.

18) John Ross, *Corean Primer* (Shanghai: Presbyterian Printing Press, 1877), 88-89.

19) John Ross, *Korean Speech with Grammar and Vocabulary* (Shanghai and Hong Kong: Kelly and Walsh; Yokohama: Kelly, 1882).

고 서울 사람을 고용하여 수정, 1882년에 개정판 *Korean Speech*를 냈다.

『예수성교문답』, 1881년: 로스는 신약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동시에 몇 권의 소책자를 한국어로 번역했다. 복음서를 인쇄하기 전에 1881년 9월 문광서원에 설치한 인쇄기로 먼저 소책자 두 권을 실험적으로 출판했다. 그에 앞서 로스는 인쇄 경험자가 없었기 때문에 직접 한글 자모와 음절의 연활자 모형을 직접 만들어 주문했고, 잉크도 직접 제조해서 사용했다.<sup>20)</sup>

식자공과 인쇄공을 훈련한 결과 9월 12일 『예수성교문답』 첫 4쪽을 인쇄하여 영국으로 보냈다. 한글 최초의 개신교 문서인 『예수성교문답』과 『예수성교요령』은 10월 초에 출판했다. 『예수성교문답』은 스코틀랜드연합교회가 사용하던 세례 신청자를 위한 요리 문답서를 요약하고 한국인에게 맞게 수정한 것이었다. 성경의 주요 내용을 담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중심으로 주요 교리를 실었다. 그 첫 부분을 현대어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문: 천지 만물이 어떻게 있느냐?

답: 하나님이 지어낸 것이라.

문: 하나님이 뉘뇨?

답: 영하고 얼굴 없어 보지 못하니, 처음과 마지막이 없고, 능치 앎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총명은 측량없어 알지 못하리라.

문: 하나님이 어느 곳에 있느냐?

답: 천하 각처에 없는 곳이 없느니라.

문: 하나님이 무엇을 아느냐?

답: 사람의 심사와 행사와 숨겨 하는 일과 밝혀 하는 일을 다 아느니라.

문: 하나님이 우리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느냐?

답: 우리를 양육하여 늘 우리를 돌아보니 응당 공경하고 절하리라.

문: 우리 마땅히 다른 신에게 절하라?

답: 다른 것은 귀신이니 우리와 간섭이 없어 가이 절할 것이 없느니라.

문: 어떻게 하나님을 아느냐?

답: 하나님이 주신 성서를 보고 아느니라.

첫 부분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이어서 창세기부터 성경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요약하고 있다. 당시 거의 모든 소책자는 창조론과 유일신론으로 시작하는데, 동아시아에서 기독교 변증론이 가진 첫 번째 접착점이 천지 만물의 창조주였기 때문이었다. 유교의 원시 유일신론을 회복하고 무교나 도교의 귀신론을 배격하고, 경전에 있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논리였다. 한국인들이 성경과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배운 첫 문서인 이 『예수성교문답』은 1892년 서울에서 스크랜턴 부인이 일부 수정하여 『성경문답』으로 출판했다.

20) Robert Turley, “Rev. John Ross, D. D. of Manchuria”, 314.

1892년 말부터 1893년 초까지 4개월간 서울 감리회 여성 병원인 보구여관(保救女館)의 홀(Rosetta S. Hall) 의사는 루이스(Lewis) 양과 함께 병원 대기실과 심방 때 이 요리 문답을 사용하면서 전도했다. 요리 문답 전체를 큰 글씨로 보기 쉽게 종이에 써서 병원 대기실 사방 벽에 붙여 놓았다. 환자들 가운데 글자를 아는 자가 다른 환자들을 위해 읽어 주었다. 한글을 아는 여자는 다섯 명에 한 명이던 시절이었다. 초신자들이 요리 문답서를 배웠는데 전체를 암송하는 여자들도 나왔다. 초기 정동감리교회 여자 신자들은 로스의 요리 문답을 읽으면서 한글을 배웠고, 일부는 전체 책을 외우면서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 *Corean Grammar*(매킨타이어, 1880), 『예수성교문답』(1881), 『예수성교요령』(1881) 등이다.

『예수성교요령』, 1881년: 『예수성교문답』과 함께 1881년 10월에 4쪽의 『예수성교요령』도 발간되었다. 이는 신약전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었다. 이는 1882년 누가복음과 요한 복음을 출판하기 전에 복음서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한국인들이 이 소책자를 먼저 읽고 신약의 대강을 파악한 후 복음서를 읽도록 배려한 것이었다. 그 첫 부분을 현대어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신약전서가 이십칠 편인데, 네 편은 예수의 내력이요, 한 편은 예수 친 제자가 만국 만민에게 전한 일이요, 십일 편은 믿는 사람에게 가르쳐 전한 말이요, 일 편은 장래사를 미리 말한 것이니, 이 책에 문리가 모두 한 가지이니 도무지 예수의 일이라. 이십칠 편 중 네 편은 명 알 복음이니, 다 네 제자 지은 것이요, 이름을 의논할진대 하나는 마태요, 하나는 마코요, 하나는 누가요, 하나는 요한이니, 저들 말한 것이 모두 한 글 같으니라.

예수 처녀 마리아의 몸으로부터 나 점점 자라매, 삼십 세에 이르니 성신의 감동함을 입어 죄 사하는 권세 있으며 귀한 일을 행하며 도를 전하니, 듣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모두 미워하며 망령되이 관에 고하다가, 필경 관에게 죽었더니, 삼일 후에 다시 살아나 사십 일을 제자들과 함께 내왕하다가 그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니, 이는 다 복음에 있느니라.

문 답 문 답 문 답 문 답 문 답 문  
 하느님이 우리로부터 순상관이 있노  
 난 일을 다 아나니라  
 사람의 심사 파행사 파송계 하난일과 발키하  
 하느님이 무어슬 아나노  
 천하 각 처역업슨곳이 업스니라  
 하느님이 어느곳에 있노  
 축방업서 아디못하리라  
 업고능티아느미 업스니 하느님의 총명은  
 하느님이 누구니라  
 하느님이 지은 것은 거시라  
 천다만물이 어드린잇노

『예수성교문답』(1881.10)

75  
 은 주지만 눈물을 가이 짐작할지라 고로 지극히 중하고 지극히  
 귀한 거손 병환인데 금세 상사람들은 미혹에 빠지며 정욕에 열  
 락을 바쳐 육신의 나약한 것만 생각하노 병환의 허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니 엇지가 석하지 아니랴 클어나 하나님  
 세 상사람을 사랑하노 거시 부모가 자식 사랑하노 것 보담 더하  
 기로 독심야를 예수 보너 자괴물을 버림은 전한 제사를  
 들며 만민의 죄를 속히 개하 여스니 고로 병환의 고통을 막고 저할  
 진 뒤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명을 좇추  
 여 본성을 회복하며 마음에 평안케 하며 선한 것을 본바다 하날

Korean Speech(1882)

1881년 10월에는 4복음서의 저자를 “마태, 마코, 누가, 요한”으로 표기했다. 그러나 이듬해 4월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안니”로 수정했다.

***Korean Speech with Grammar and Vocabulary*, 1882년:** 이 책은 1882년에 나왔지만 *Corean Primer*의 개정판이므로 1881년까지의 준비기에 포함해 논의하겠다. 1879년 이후 로스와 매킨타이어의 한국인 개종자들이 배운 기독교 복음의 기본 내용은 위의 두 가지 소책자 외에도, 1882년 가을 경에 출판된 이 책에도 나온다. 그 74~76쪽에 “제30과 영혼”에 대한 설명은 로스가 한국인 구도자들에게 전도한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1877년 *Corean Primer*의 “제23과 영혼”보다 한층 발전된 내용이다. 철자도 평안도 사투리 대신 서울말을 채용하고 있다.

영혼이 육신에 있는 것이 사람이 집에 거함 같으니, 집이 무너지면 사람은 반드시 다시 다른 곳으로 가는 줄은 사람마다 알지니, 이로써 헤아린 즉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 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극히 중하고 지극히 귀한 것은 영혼인데, 지금 사람들은 미혹에 빠지며 정욕에 얽매인 바 되어 육신에 이익되는 것만 생각하고 영혼에 해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니, 어찌 가석하지 않으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기로 독생 아들 예수를 보내어 자기 몸을 버려 온전한 제사를 드려 만민의 죄를 속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영혼의 길을 닦고자 할진대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좇으며, 본성을 회복하며, 마음에 편안케 하며, 선한 것을 본받아,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나라에 나아가 무궁무진한 복을 받으면, 얻지 아름답지 않으랴. 대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속담 말을 의지하여 말하되 “사람이 죽어 귀신이 된다” 하되, 그 실은 사람은 사람이요, 귀신은 귀신이라. 그러므로 귀신에게 절하지 말고 응당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을 섬겨야 구원을 얻느니라.

초기 전도문서나 전도할 때 강조한 것이 영혼 불멸과 영혼 구원이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영혼 불멸에 대한 믿음을 접착점으로 삼아 그리스도의 속죄 구원론을 설명하고, 이어서 기존의 귀신론을 부정했다. 로스는 무교의 귀신론을 부정했을 뿐만 아니라, 무당에 대해서도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예수성교전서』(1887)의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둘째 사망의 지옥에 들어가는 자들 가운데 ‘술객’(개역, 1938)을 ‘무당질’하는 자로 번역했다. 특기할 점은 로스가 *Korean Speech*에서 God을 하나님으로 번역한 것이다. 이는 1881~82년 초에 채택한 하느님이 1882년 후반기에 가면 하나님으로 변하는데, 이 책이 1882년 후반기에 나왔음을 알려준다.

## 2. 한글 성경

1882년(光緒 8년) 3월과 5월에 첫 복음서인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와 『예수성교요안니복음전서』 각 3,000부가 스코틀랜드성서공회 지원으로 출판되었다. 이 쪽복음은 곧바로 서간도 한인촌과 의주에 반포되었다.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 1882년 3월: 1878년 서상륜이 번역하기 시작하여 전직 정부 관리와 의주 청년들이 번역했고, 1879년 로스가 안식년 휴가 때에는 매킨타이어가 이응찬과 최성균 등 4~5명의 한국인과 함께 번역하면서 총 아홉 차례 수정했다. 매킨타이어는 1879~80년 뉴장에 들리는 한국인 상인들이 번역문을 이해하는지 직접 확인하면서 수정했는데, 이는 성경이 한문만을 사용하는 소수의 식자층이 아닌 “오직 대중에게 적합한 것을 목표”로 문체를 조절하는 작업이었다. 그러나 주로 접촉하는 자들이 의주 상인이었으므로 그 대중은 평안도 사투리를 말하는 자에 국한되었다. 매킨타이어는 『한불조년』(1880)을 통해 의주 방언과 서울말이 다른 것을 알게 되었으나, 서북 방언본이 향후에 서울말이나 남부 방언으로 번역될 다른 번역본의 길잡이가 되기를 희망했다.

동시에 그는 팔머(Edwin Palmer)의 그리스어 신약성서를 보면서 직접 수정했다. 로스와 매킨타이어가 이용한 저본은 한문 문리본(文理本 Delegates' Version) 『新約全書 文理』였으나, 다른 한문본과 영어본을 참고하면서 문리본의 의역 부분을 수정했다. 동료 선교사 웹스터(James Webster)는 당시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로스는 한 손에 그리스어 성경을 들고 책상에 앉아 있으며, 개역 영어성경과 한문 역본들이 그 옆에 놓여 있다. 한국인 번역자들이 붓을 들고 바쁘게 작업 중이며, 다른 한 명의 한국인은 옆방에서 활자를 식자하고, 두 명의 중국인은 인쇄기를 작동하고 있다.<sup>21)</sup>

로스는 저본인 문리역이 문장은 수려하나 원문에 충실하지 않은 지나친 의역인 점을 의식했기 때문에, 이용 가능한 한문본인 브리지맨과 컬버트슨 역본의 신약전서(1863)도 참고했다. 동시에 스코틀랜드에서 가지고 온 1881년에 출간된 두 새 역본인 비평본 옥스퍼드판 그리스어 신약 원문과 영어 개역본(RV)과 대조하면서 문리역의 부정확한 부분을 보충했다.<sup>22)</sup>

로스는 이때 서울말로 ‘대폭’ 최종 수정을 했다고 말했지만,<sup>23)</sup> 사실 시간이 없어 상당한 양의 의주 방언을 그대로 둔 채 1881년 12월경에 인쇄에 들어갔다. 한 대뿐인 인쇄기와 서투른 식자공 김청송, 겨울 온도에 얼어붙은 잉크 때문에 제대로 인쇄가 되지 않다가, 3월 중순경에 겨우 3,000부 인쇄를 마쳤다.

디기열어사람이부슬들어우리가운데일운일을기술히디처음으로부터친이보고도를던헌년자우리를준비갓타히엿기로니또뜻히여모둔일을자세이근원을쫓차차례로써괴인데오비노의존전에양달히문괴인볼니보인비의실정을알게히미라(1:1~4)

한지에 인쇄한 51쪽의 쪽복음에 불과했지만, 첫 한글 단권 성서로서 “대리석이나 청동으

21) James Webster, “The Maker of the Manchurian Mission—An Appreciation of the late Rev. John Ross, D. D.”, *Missionary Record of the United and Free Church of Scotland* (1915), 394.

22) 참고, 최성일, “로스역 신약 성서의 특징과 저본에 관한 소고: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Canon & Culture* 4:2 (2010. 10.), 99-132; 정연락, “로스의 누가복음 1882년 역본의 저본에 대한 재고”, 『신학지평』 (2018. 12.), 93-120; 김경연, “존 로스 말코복음(1887)의 대역 중국어 성서 부사의 비교,” 『성경원문연구』 44 (2019. 4.), 164-181.

23) John Ross, “The Christian Dawn in Korea”, 243.



로 된 것보다 훨씬 오래 갈 기념비”였다.<sup>24)</sup> 책 끝에는 부록으로 생소한 단어를 풀이한 강명편이 한 쪽 붙어 있었다.

매약상이었던 김청송은 굵은 손으로 식자를 했지만, 복음서 내용을 마음에 새겨 1882년 3월에 세례를 받고 출판된 누가복음서를 들고 압록강 연안의 한인촌에 권서로 파송되어 수많은 개종자들을 만들었다. 그가 전도한 결과 1884~85년에 한국인 남자 100명이 세례를 받았다. 이 복음서를 들고 1883년 서상륜이 서울에서 전도한 결과 1885년 초에 70명의 신자가 있다고 로스에게 보고했다. 이 복음서를 들고 1883년부터 류춘천이 평양에서 4년간 권서 사역을 했다. 아무 열매가 없었다. 그러나 그의 수고는 1890년 이후 마페트가 이어받았다.

1883년 이 누가복음은 약간의 수정, 곧 일부 단어에서 서울말을 채용하고 오자를 수정한 후 사도행전과 합본으로 출판되었다. 1886년 신약전서 번역을 완성될 때 추가로 일부 수정되었다. 서울 선교사들은 1887년부터 로스역본을 개정하면서 자체 번역을 준비했는데, 아펜젤러가 로스본 누가복음을 개정하여 1890년에 출판했다.

『예수성교요안니복음전서』, 1882년 5월: 이방인의 복음인 누가복음이 먼저 발간되고, 이어 동아시아 종교 문화와 접촉점을 발견할 수 있는 요한복음이 출간되었다. 이 책이 나올 때 한미조약이 체결되었으므로 로스는 한국 선교의 닫힌 고려문이 열린 문이 되어 자신의 번역서들이 바로 들어가기로 기대했다. 로스 역본의 번역 특징을 요한복음 1장 1-3절로 살펴보자.

처음에도가이스되도가 하느님과함께하니도는곳 하느님이라이도가처음에 하느님과함께하미만 물이말무야다지여스니지은비는 하나토말무디안코지오미업넌이라.

아직 띄어쓰기, 가로쓰기, 구두점은 없었으나, 대두법(擡頭法)을 채용하여 ‘하느님’ 앞에 빈 칸을 둠으로써 새로운 예배 대상인 하느님을 소개했다. 로스는 서울에서 출판된 유교 경전의 한글 번역을 참고하는 등 철자법 표준화에 고심했는데, 사라진 음가인 아래아(·)의 표기를 줄인 것도 그 노력의 하나였다. 그 결과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표기했다.

현행 개역개정판과 비교해 보면 처음-태초, 도(道)-말씀, 하느님-하나님 등이 다르게 번역되어 있다. 첫 단어 ‘처음’은 文理本(1855)의 ‘元始’나 구역본(1911)과 개역본(1937)의 ‘태초’와 달리 순우리말이다. 성경은 누구나 읽을 수 있는 민중의 언어로 번역해야 한다는 로스의 번역 원칙 때문이었다. 로스는 의주 상인들에게 번역 원고를 읽어보게 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계속 수정했다.

‘말씀’을 도(道)로 번역했다. 만물의 처음에 도가 있었다는 메시지는 유불선 3교가 추구해 온 도를 구약 히브리어의 다바르(행동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와 신약 그리스어의 로고스(우주를 통치하는 신적 이성)와 동일시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피조물을 통해 드러나지만 동시에 숨어 계신다. 인간 이성을 초월하는 이 현묘한 도와의 신비한 합일을 추구한 도교와 달리 요한복음은 그 “도가 육신을 이루어”(1:14) 우리 가운데 거하며 그가 길(道)이신 예수

24) “Translation and Printing Work”, *UPMR* (Feb. 1, 1882), 34.



『예수성교요안나복음전서』, 1883년 가을: 앞의 두 요한복음 판본과 1장 1-3절을 비교해보자.

처음에도가이스되도가 하나님과함긔하니도난긔 하나님이라이도가처음에 하나님과함긔하미만 물이말미여다지여스니지은바는하나토타말미지안코지으미업나니라.(1883년 판)

1883년 판부터 ㅎ니 → 하니, ㅎ미 → 하미, ㅎ나 → 하나, 업논이라 → 업나나라의 예에서 보듯이 단모음에서는 아래아를 없앴다. 또 1882년 가을 판본대로 ‘하나님’을 채택하되, 하나님 앞에 띄어쓰는 전(前)대두법으로 돌아갔다. 1절에서 도는(1882) → 도난(1883, 2절)으로 예처럼, 아래아(·)가 ‘ㅡ’에서 ‘ㅏ’로 통일되었기 때문에, 하느님 대신 하나님으로 변경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로스는 이를 하늘 + 님의 뜻으로 이해했고 중국어 ‘상제’의 대응어로 보았다. 이 밖에 함게 → 함긔, 말므야마 → 말미여, 말무지 → 말미지, 빗치되야 → 빗치되여(4절)의 예에서 보듯이 단어를 통일하고 서울말로 가깝게 수정했다. 몇 페이지 더 검토가 필요하나 서울말로 수정하려던 로스의 의지가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 면에 14행이던 것을 12행으로 바꾸고, 활자도 크게 하고, 글자 사이의 간격도 늘리고, 절 표시도 한자로 분명하게 하여 읽기에 편하게 했다. 독자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출판 2년 차에 벌써 시작되었다.

로스는 한국 종교의 하느님이 성경의 엘로힘과 동일하다는 열린 타종교 신학을 가지고 있었다. 예수교의 새로운 God을 한국인이 섬겨온 고유의 하느님/하나님으로 번역함으로써 한국 영성사에 대전환점을 찍는다. 한국인의 하느님/하나님이 히브리인의 엘로힘, 그리스인의 테오스, 영미인의 God과 연속성을 지닌다는 이 과격한 주장은 하느님/하나님이 선교사의 가방에 들려 한반도에 수입된 것이 아니라 수천 년간 한국인과 함께 계시고 한국사 속에서 일하셨다는 감격적인 고백이다. 로스는 ‘하늘에 계신 주’로서의 하느님/하나님이 도교의 조화용인 상제나 천로야와 원시 유교의 주재자요 유일신인 상제와 비슷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귀결된 이유는 첫째, 순 한글 용어이므로, 둘째, 중국의 상제나 신처럼 경전 안에 있는 죽은 신이 아니라, 민중의 현재 삶에 살아서 함께 하는 신이므로 더 나은 용어로 보았다. 로스가 상제나 천주나 신 대신 하느님/하나님을 채택함으로써, 한국 개신교는 용어 논쟁을 거친 후 (로스의 유일신 흔적 주장, 계일의 어원적 재해석을 통한 ‘하늘에 계신 크신 유일신’ 주장, 헐버트의 단군신화 재해석을 통한 원시 유일신 신앙의 증명, 그리고 언더우드의 이상 세 가지 수용을 통한 새 용어로 재탄생된) 하느님을 공인 용어로 사용하게 된다. 천주교의 프랑스 신부들은 민간신앙의 하늘님을 알고 있었지만, 제사를 금지하는 보수적인 신학 때문에 한국의 전통 종교를 부정하고 하느님을 미신적인 기도의 대상으로만 간주했다. 그러나 로스는 스코틀랜드장로교회의 진보적 복음주의와 19세기 말의 성취론을 이용하여 동아시아 종교에 있는 부분적인 계시와 진리를 수용했다. 그는 한문 성경에서는 유교와 도교의 원시 유일신 상제(上帝)를 지지했으며, 한글 성경에서는 하느님/하나님을 채택했다. 로스는 1882년 말부터 철자법 변화에 따라 하나님으로 표기를 고정했는데, “하날에 하나님”의 예에서 보듯이 아래아(·)를 ㅏ로 표기한 결과였으며 그 의미

변화는 없었다.

그러나 로스의 번역은 첫 번역본이었으므로 약점도 있었다. 그 결과 1887~90년 서울에서 상임번역자위원회 안에서 로스역본 개정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고, 로스역본을 개정 대신 새 번역본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로스역본의 약점은 평안도 사투리, 맞춤법 오류, 어려운 한자 어투 등이었다. 결국 서울 선교사들의 한국어 실력이 늘면서 새 번역으로 갔다. 오늘의 입장에서 보면 샤머니즘에 대한 오해나 멸시도 있었다.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21:8의 둘째 사망에 처해질 죄인의 목록에서 살인자, 음행자, 우상숭배자와 함께 ‘무당질’하는 자를 넣었는데, 이는 후대에 ‘술객’(개역한글), ‘마술쟁이’(공동번역), ‘점술가’(개역개정), ‘마술쟁이’(새번역)로 번역되었다.

로스는 옥스퍼드대학교 중국학 교수 레그(James Legge)와 교류하고, 최신 사본학과 성서 비평을 반영한 그리스어 개정 신약전서(1881, 옥스퍼드판)를 번역 저본으로 채택하고, 표준 본문의 흠정역(KJV)을 개역한 영어 개역본(RV, 1881)을 참고했다. 로스는 한글 번역본이 최신 원문과 영어 개역본의 첫 번역본인 점을 자부하면서 그 정확한 번역에 심혈을 기울였고, 동시에 그 비평적 사본 읽기를 반영하려고 노력했다. 예를 들면 1882년판 요한복음은 영어 개역본처럼 7장 53절~8장 11절의 간음한 여인 사건을 생략하고 번역하지 않았는데, 그 본문이 “진정성에 대한 증거가 없지 않지만 신빙성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즉 그 본문이 마가복음 16장 8절 이후 부분처럼 초기 사본에는 없고 후대 사본에 첨가되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1883년부터 로스 역본이 영국성서공회 지원으로 출판되면서 공회가 전통적인 표준 본문을 존중할 것을 요구하였으므로, 1883년판 요한복음과 1887년에 완성된 신약전서인 『예수성경전서』에는 간음한 여인 사건 본문이 들어가게 된다. 그 결과 1882년판 요한복음은 한글 성경 역사상 8장 앞부분의 간음한 여인 사건이 없는 유일한 책이 되었다.

로스의 예상대로 첫 한글 복음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선양의 문광서원에서 식자공 김청송은 목판에 글자를 식자하면서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한국 개신교의 다섯 번째 세례교인이 되었다. 그는 이 첫 복음서를 들고 서간도 한인촌에 첫 전도인으로 파송되었으며, 그가 전도한 결과 1884-85년에 100명이 로스에게 세례를 받았다. 서상륜은 1883년 봄에 여섯 번째 개종자로 선양(봉천)에서 로스 목사로부터 세례를 받고 가을에 영국성서공회 첫 권서로 한국에 파송되어 의주를 거쳐 서울까지 걸어서 전도한 결과 1884년에 수십 명의 구도자를 얻었고, 소래에서는 동생 서경조와 함께 첫 교회를 세우고 정기적인 주일예배를 드렸다. 또한 백홍준 등은 의주에서 전도하면서 1884년에 설교당을 열었다. 이처럼 외국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김청송·백홍준·이성하·서상륜 등의 의주 청년들의 붓짐을 통해 복음서가 한국인의 손에 들어갔고 첫 신앙 공동체들이 세워졌다.

과거 선양은 대륙 군대들이 발진한 곳이었다. 당(한족), 금(거란족), 원(몽고족), 청(만주족, 1636년의 병자호란)의 침략군이 모두 선양에서 출발해 고려문을 넘어 압록강을 건너 의주로를 따라 내려왔다. 군대가 물러가면 사대의 사신 행렬이 그 길을 따라 선양으로 북경으로 갔다. 그러나 이제 그 군사로는 천주교에 이어 개신교가 들어오는 종교로가 되었다.

기독교는 번역의 종교이다. 이슬람교가 거룩한 아랍어로 된 코란의 번역을 엄격히 금지하는 근본주의를 고수하는 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한 지역의 본토 말로 번역되는 번역

성, 곧 성육신을 선교의 제1원리로 삼는다. 예수는 한 지역의 말과 문화로 번역되면서 그들의 삶과 피가 되는 동시에, 인간의 죄악성에 도전하는 거룩한 언어와 대안 문화를 창출한다. 다양한 문화의 옷을 입은 ‘번역된 예수’의 모습들이 모여 종말의 우주적 그리스도는 완성되어 간다.

#### IV. 성서 주석자 로스

로스의 번역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그가 쓴 성경 주석서이다. 초기 한국 교회가 처음 읽은 주석서는 그가 참여한 ‘중국선교대회 주석’으로, 1898~99년에 출판된 신약 중 마태복음과 서신서 4권, 1903~06년에 발간된 구약 주석 중 이사야서와 욥기를 그가 집필했다. 이 한문 주석서들은 1920년대까지 한국 목회자들이 성경 공부와 설교에 이용한 책들로 한국 교회 성서 해석에 큰 영향을 주었으므로 향후 그의 주석을 연구하여 한국 신학 사상과 성서 해석사에서 로스가 차지하는 위치를 자리 잡게 해야 할 것이다.<sup>26)</sup>

이들 주석서의 출판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자. 1890년 제2차 상해선교대회에서 1904년에 열릴 중국선교백주년대회를 기념하여 성경 주석(The Conference Commentary) 시리즈를 완간하기로 결의하고, 주석자에 드 보스(Hampden C. Du Bose), 뮌어헤드(William Muirhead), 매켄지(H. L. Mackenzie), 파커(A. P. Parker), 노이에즈(H. V. Noyes)를 임명했으며, 이후 로스, 잭슨(James Jackson), 로이드(L. Lloyd) 등을 추가했다. 1898~99년 미국성교서회 지원으로 상하이의 중국성교서회가 출판했다. 로스는 『馬太』를 파커와 공동으로, 디도서(提多書), 빌레몬서(腓利門書), 야고보서(雅各書), 유다서(猶大書)를 단독으로 주석했다. 1887년까지 한글 신약전서를 완역하면서 철저한 본문 연구를 했기에 가능한 작업이었다. 주석서는 초판 5,000부가 매진되고 약 3년마다 새로운 판이 출간되었다. 그만큼 중국 교인들의 절실한 필요를 충족시켜 주었다.

이 한문 신약 주석서들은 한국에 수입되어 사용되었다. 1911년 민준호가 설립한 동양서원은 첫 과업으로 이 주석 시리즈를 번역하여 3년간 전 21권을 출판했다. 이원공이 『마태복음 주석』을, 민준호·신석구·백남석 등이 서신서 주석들을 번역하고, 한석진이 교열하여 출판했다. 따라서 로스의 주석서는 한국에서 1910~20년대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는 번역 신학으로 유지되어 온 한국 교회 신학계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1890년대 중국의 원로급 선교사들의 사상, 곧 1870년대 신학을 1920년대에 읽고 설교에 사용하는 현실의 반영이기도 했다.

중국 선교 2세기의 문을 연 구약 주석은 1903년 창세기부터 출간하여 1906년 2월 소선지서를 출판함으로써 완성되었다. 로스는 욥기 주석인 『舊約約百註解』와 이사야서 주석인 『舊約以賽亞註釋』을 집필했다. 구약 주석서들은 1911년 한글 『성경전서』가 완간되면서 널리 이용되었는데, 1910년대에 이를 이용했던 사용자가 1판부터 4판까지 장신대 도서관에 기

26) 자세한 서지사항은 박형신, “존 로스의 중국어 성경주석 및 한글 번역본에 대한 역사적 연구”, 『한국 교회사학회지』 58 (2021), 138-168을 보라.

증한 데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사실 1922년부터 클라크(Charles A. Clark), 밀러(Edward H. Miller), 데밍(Charles S. Deming)이 번역하여 조선야소교서회가 출간한 신구약 주석서들도 바로 이 한문 주석 시리즈를 새로 번역한 것이다. 결국 한국 교회는 해방 이전에 중국선교대회 주석서들을 읽었고, 그 가운데 로스의 주석서들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참고로 선교사들은 1900년대에 주로 『카일 델리취 주석』(KEIL & DELITZSCH: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을 참고했다.

성경 주석과 해석, 그리고 그것을 이용한 설교에서 한국 교회가 중국선교대회 주석서들을 그대로 따라갔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로스의 주석서가 구체적으로 설교나 저술에 어떻게 이용되었는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이 주제는 본고의 한계를 넘어서기 때문에, 1920년대 길선주의 룯기 주석은 선교대회 주석과 전혀 내용이 다르며, 길선주 주석에는 유교적 가족 가치가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는 사실만 언급하겠다.

## V. 맺음말: 로스 역본의 유산

존 로스 목사는 1910년 은퇴하고 본국으로 돌아갔으나, 시차로 인해 1910년 에든버러에서 열린 세계선교사대회에 참석하지는 못했다. 대신 그에게 주어진 선교 방법과 복음화 방안에 대한 설문에서, 그는 “선교사의 극소화와 본토인의 극대화”가 세계 선교의 해답이라고 제시했다. 방대한 중국과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렸으나 일본의 식민지가 된 한국을 바라보면, 로스는 3자 원리에 입각한 토착적인 교회만이 성장하고 핍박 속에서도 견딜 수 있다고 믿었다. 3자 원리를 배우고 실천하는 기초에 성경을 읽고 성경을 전하는 본토인 신자가 있었기에, 그는 성경을 번역하고 출판하여 반포했으며, 성경 주석을 썼다. 그가 한국에 준 최초의 한글 복음서와 신약전서는 한국 문화와 한국 기독교에 영원한 금자탑으로 남을 것이다.

1915년 8월 7일 에든버러에서 로스가 사망하자, 그 소식을 들은 만주 선양의 동광교회 교인들은 강단 후벽에 기념 비문을 새겼다. 그 일부분을 보자. “爲道捨身 遠離祖國 三十八春 播道遙瀋 宣布救恩 四方風動 跋涉艱辛 勤艱桓忍 關東一人”(도를 전하기 위해 몸을 던져 멀리 조국을 떠나 38년 세월을 보내셨다. 라오양과 선양에 도를 전파하고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니 사망에서 바람이 일어났다. 산 넘고 물 건너는 매서운 고난을 근면으로 항상 인내 하니 관동 최고의 인물이셨다.) 38년 동안 만주 일대에 성령의 바람을 일으킨 당대 최고의 선생이 로스 박사였다.

로스의 별세 소식에 중국 북영국성서공회 총무 털리(Robert T. Turley)는 로스를 신약의 한글 번역 선구자로 추모했다.<sup>27)</sup> 또한 1880년 런던에서 영국성서공회 라이트(William Wright) 총무를 만나 한글 성경 번역과 출판에 대한 지원을 받아낸 사실도 강조했다. 1882년부터 로스의 성서 사업이 영국성서공회 후원으로 진행되면서 사복음서와 신약전서가 출판되어 한국 교회의 기초가 되었다. 그 결과 1884년 이후 한국에 입국한 선교사들의 70%

27) Robert Turley, “Rev. John Ross, D. D. of Manchuria”, 315-316.

이상이 미국 선교사였고, 일본 요코하마에 소재한 미국성서공회의 루미스(Henry Loomis) 총무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영국성서공회가 담당하는 지역이 되었다. 선교회는 미국이, 성서공회는 영국이 맡게 되면서, 성공회·구세군과 더불어 한국 개신교에 영국적 요소가 일정 부분 들어왔다.

로스는 만주와 조선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38년을 인내하며 전도자의 아름다운 발을 가진 개척 선교사로서 한국 개신교회의 첫 신자들을 만들었다. 그는 중국과 조선의 언어·역사·풍속·문화를 깊이 연구한 선교학자였다. 그는 서구 기독교를 이식하는 문화 제국주의 대신, 전통 종교 문화의 선한 요소를 기독교의 접촉점으로 수용하는 성취론을 지지했다. 비록 전통 종교들이 아벨 골짜기의 해골처럼 말랐으나 성령의 바람이 불면 살아날 것을 믿었다. 비록 중국인과 한국인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과거에 여러 종교를 섬겼으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배에서 생수가 흐를 것을 소망했다. 한 거리의 소가 함께 발을 갈듯이, 그는 유교와 기독교가 동아시아인의 도덕성과 영성의 발을 가는 동역자라고 믿었다. 그는 무엇보다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주석한 성서의 사람이었다.

## 참고문헌

- 김경연, “존 로스 말코복음(1887)의 대역 중국어 성서 부사의 비교”, 『성경원문연구』 44 (2019. 4.).
- 박형신 편, 『존 로스 선교사 자료집 I, II』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19).
- \_\_\_\_\_, “존 로스의 중국어 성경주석 및 한글 번역본에 대한 역사적 연구”, 『한국교회사학회지』 58 (2021).
- 黎子鵬, “晚清基督教文學：《正道啟蒙》(1864) 的中國小說敘事特徵”, 『道風：基督教文化評論』 35 (2011).
- 옥성득, “존 로스, 한국 개신교사의 첫 장을 열다”, 『복음과 상황』 297 (2015. 8.).
- 옥성득·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1』(서울: 대한성서공회, 1993).
- 정연락, “로스의 누가복음 1882년 역본의 저본에 대한 재고”, 『신학지평』 (2018. 12.).
- 최성일, “로스역 신약 성서의 특징과 저본에 관한 소고: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Canon & Culture』 4:2 (2010. 10.).
- Christie, Mrs. Dugald, “Pioneer: The Rev. John Ross, Manchuria”, 『Life & Work』 5 (1934).
- Grayson, James H., “Legacy of John Ross”, 『International Bulletin of Missionary Research』 (October 1999).
- Moffett, Samule Austin to Frank. F. Ellinwood, March 25, 1891.
- Moffett, Samule Austin to F. F. Ellinwood, May 21, 1891.
- Moffett, Samule Austin to F. F. Ellinwood, September 6, 1892.
- Moffett, Samule Austin to F. F. Ellinwood, May 4, 1896.
- Ross, John, “Visit to the Corean Gate”, 『Chinese Recorder and Missionary Journal』 (Nov. Dec. 1875).
- \_\_\_\_\_, “To the Corean Gate”, 『United Presbyterian Missionary Record』 (Jan. 1877).
- \_\_\_\_\_, 『Corean Primer』 (Shanghai: Presbyterian Printing Press, 1877).
- \_\_\_\_\_, “Manchuria Mission”, 『United Presbyterian Mission Report』 (Oct. 1, 1880).
- \_\_\_\_\_, 『Korean Speech, with Grammar and Vocabulary』 (Shanghai and Hong Kong: Kelly and Walsh; Yokohama: Kelly, 1882).

- \_\_\_\_\_, “Corean Version of the New Testament: How I came to Make it, Part II”, *United Presbyterian Magazine* (May 1, 1883).
- \_\_\_\_\_, “The Christian Dawn in Korea”, *Missionary Review of the World* (April 1890).
- Turley, Robert, “Rev. John Ross, D. D. of Manchuria, Pioneer Translator of the New Testament into Korean”, *Korea Mission Field* (Nov. 1915).
- Webster, James, “The Maker of the Manchurian Mission—An Appreciation of the late Rev. John Ross, D. D.”, *Missionary Record of the United and Free Church of Scotland* (1915).



# 역대 한국어 성경 번역문 대비를 통한 로스 번역의 언어·문화<sup>1)</sup>적 특징 연구

유경민(전주대학교 교수)

- I. 머리말
- II. 자료 가공 방법
- III. 로스 번역본의 언어문화적 특징: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 1. 문법 요소의 수정
  - 2. 어휘의 수정
- IV. 로스의 한글 성경과 국한 혼용문 성경의 대비: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 1. 마가복음
  - 2. 누가복음
- V. 맺음말

## I. 머리말

한국에서의 개신교 전파는 우리말로 번역되어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책으로 시작되었다. 그리스도<sup>2)</sup>교보다 먼저 불교와 유교 사상이 이 땅에 들어와 자리를 잡을 때에도 국어로 번역된 경전의 힘이 컸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불경이나 유학서의 언해 작업은 집현전,

1) ‘언어문화’란 언어와 문화가 밀접히 관계되어 있다는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이다. 문화의 개념은 시대와 사회와 지역, 풍습, 예술, 과학, 종교, 일상의 소재들을 포함한다.  
2) 최초의 한국어 성경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J. Ross, 羅約翰, 1882년)에서는 ‘키리쓰도’로, 『신약마가전복음서언해』(이수정, 1885년)에서는 중국어 성경에서 쓴 ‘基督’이라는 한자어를 썼고, 그 위에 ‘크리슈도스’라고 한글 표기를 하였는데 이는 헬라어(고대 그리스어)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기독교’라는 용어는 중국어 성경에서 ‘Jesus Christus’를 음역 표기한 한자를 한국식 한자음으로 읽어 표기한 결과이다. 먼저 번역이 시작된 중국의 가톨릭 성경에서 ‘예수’에 대하여 ‘열소(熱所)’, ‘야소(耶穌)’ 등으로 음역하였듯이,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계리스독(契利士督/키리스도)’, ‘기리스독(基利士督/기리스도)’, ‘기사독(基斯督/기스도)’, ‘기독(基督/기도)’ 등으로 음역과 축약의 과정을 거쳤다. 이후 중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모리슨(R. Morrison, 馬禮遜) 목사는 『耶穌 基利士督 我主敎者新遺詔書』(1814년)에서 ‘基利士督’으로 다른 한자를 사용하여 표기하였고, 이후 중국과 미국 사이에 맺어진 조약문서(1858년)에서 개신교회를 ‘基督敎’라고 표기한 것이 현대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후 한국에서도 ‘그리스도’가 복합어의 한 요소가 될 경우에는 ‘기독교’로 축약되어 쓰이고 있다. 언어는 시간축 위에서 생물처럼 변하지만 고유 명사는 그 정체성과 함께 원형이 지켜져야 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헬라어의 ‘크리스트스’에 대한 음역어로 ‘기독교(교)’ 대신 ‘그리스도(교)’라는 용어를 쓴다.

언문청, 간경도감, 홍문관 등과 같은 기관이 주도한 국가적 사업으로, 훈민정음 창제로 한문으로만 접할 수 있었던 문헌을 대중화시키고자 한 것이었다. 한문을 국가 기관에서 언해한 문장의 형태는 국한 혼용문이었고, 한자 아래에 한글로 음을 달아 표기하는 식이었는데, 한자를 삭제하면 한글문이 된다. 반면 서양에서 개신교 선교사들보다 먼저 이 땅에 들어온 천주교 신부들은 가혹한 박해에 쫓기는 상황에서 경전 번역 작업을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 종교적 특성상 가톨릭 성경은 발췌한 성경 본문에 해석을 붙이는 방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성경 본문 전체를 온전하게 읽어볼 수 있었던 것은 개신교측 성경이었다. 19세기 말 조선은 여전히 종교적으로는 불교, 사회적으로는 유교, 일상적으로는 토tem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한 조선 땅에 한자 표기가 없이 한글로만 작성된 서양의 종교 번역서,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John Ross, 羅約翰, 1882)가 들어왔고, 한문에 대한 문맹(文盲), 혹은 미숙련 집단인 대중들도 문헌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최초의 쪽복음 성경이 갖는 언어문화사적 의의는, 당시에 텍스트 형태로 간행되는 것 중에는 국한 혼용문으로 쓰여진 것이 적지 않았는데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는 한글 전용문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로스(John Ross)는 심양에서 한국어 성경 만들기를 시작하면서 ‘민중의 언어’로 번역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워 한글 전용문 한국어 성경 번역을 추진하였다. 한문이나 국한 혼용문 성경으로 조선 선교를 계획하지 않았던 로스는 민중의 언어가 성경에 반영되기를 바랐고, 그 과정에서 의주 상인들의 언어가 반영되어 단어와 어미를 평안도 방언형으로, 구개음화 이전의 형태로 표기하여 평안도 외의 지역 사람들에게는 낯설고 어려운 텍스트가 되고 말았다. 이에 로스의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는 곧(1890년) 언더우드(Horace Grant Underwood)와 아펜젤러(Henry G. Appenzeller)에 의해 중양어(서울말)로 다시 만들어졌고, 이후 중양어로의 한국어 성경이 끊임없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한국어 성경 번역의 역사는 ‘누가복음’ 번역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조선에서는 사람을 통한 복음보다 자국의 문자로 번역된 책으로 먼저 그리스도교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중국 선교사로 파견되어 한국어 성경의 초기 번역과 한국에서의 선교 방법의 조언자 역할을 담당했던 로스와 네비어스(John L. Nevius)(Nevius Mission Plan)는 한문 학습의 시간이 더 길었던 서양인들이었기에 한국어 성경 번역 과정은 자연스럽게 중역(重譯)되었을 것으로 본다. 한국어 성경 번역에 중국어 성경이 참조된 것은 번역어를 통해 알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시기의 두 나라의 지식 교섭사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갖는 것으로, ‘olive-甘藍나무’, ‘flute-organ-風琴-피리’, ‘천주(天主)-신(神)-상제(上帝)-하나님’ 등과 같은 단어의 정착 문제를 문화와 사상의 유입 과정으로까지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또, 중세 국어 시기의 언해서를 크게 유교 경전 언해서와 불경 언해서로 나누어 볼 때, 유교 경전에 쓰인 어형이 더 고답적인데, 불경 언해는 한문 해독이 어려운 일반 백성까지 고려하여 더 많이 읽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즉 포교의 목적에서 쉬운 어휘를 선별하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특징, 즉 어떤 독자를 상정하는가에 따라 번역어와 문체를 결정하는 것은 개신교 성경 번역 과정에서도 고려되었을 것이기에 한자어를 사용하더라도 중국어 성경에 쓰인 한자어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았고, 한국식 한자어, 즉 우리에게 더 익숙하고 쉬운 한자어를 사용하여 번역하였고, 번역서가 거듭 만들어지면서 어휘 선별도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로스의 한글 성경이 제작된 19세기 말의 조선,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1897년) 국호가 바뀌던 그 시기에 조선에서 만들어지는 문서나 책자의 문체는 국한 혼용문이 더 많은 시기였다. 기미독립선언서가 국한 혼용문으로 작성된 것을 보면 20세기 초까지도 우리의 문자 생활은 국한 혼용문이 더 자연스러웠음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여 필자는 국한 혼용문 성경과 로스의 한글 성경을 대비하여 한자어로 번역된 부분과 고유어로 번역된 부분의 차이<sup>3)</sup>와 그 번역에 반영된 입장의 차이를 들여다본다. 조선 시대의 한글 창제가 한국의 근대화를 촉발시키고 견인할 수 있는 매개였다는 의의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1443년에 창제된 것으로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12월 30일의 기록) 한글은 19세기 말까지도 온전히 중심 문자로서 활용되지 못했다. 그리하여 고종 31년(1894년 11월 21일 조선왕조실록의 기록 <http://sillok.history.go.kr>)에 공문식(公文式) 제14조를 통해 ‘법률 칙령은 모두 국문을 기본으로 하고 한문으로 번역을 붙이거나 국한문을 혼용하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국가 차원의 한글 사용 권장 노력을 표하였다. 이 내용으로 당시 국문보다 한문과 국한 혼용문이 더 익숙한 문자 및 문체였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고구려·백제·신라 시대에도 우리가 쓰던 ‘이두’라는 문자가 있었다고 하지만 한자의 음과 훈을 빌린 것으로 정확하게는 ‘말’을 표기할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문서 작성을 위한 도구였다. 이두는 백성을 직접 대면하며 조정의 시책을 시행하기도 하고, 하정상달(下情上達)의 책임을 지기도 했던 ‘서리(書吏)’들이 주로 사용하는 문자였는데 서리들은 한문을 온전히 알지 못해도 될 수 있는 하급관리였고, 이두는 온전한 한자가 아니라 약체자 중심의 정규화된 표기 수단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종은 ‘이과와 이전의 취재(取才) 때에는 훈민정음 시험을 치르게 하고, 의리(義理)가 통하지 못해도 합자(合字)할 줄 알면 뽑는다(今後 吏科 及 吏典 取才時 訓民正音 竝令 試取 雖不通義理能合字者 取之)’고 하였다[세종 28년(1446년) 12월 26일 조선왕조실록]. 세종은 이렇게 직접 전지(傳旨)를 통해서 훈민정음의 보급에까지 신경을 썼으나 유교의 나라였던 조선시대의 지도층은 여전히 한문 중심의 문자 생활을 하고 있었다. 고종의 칙령(1894년)이 나올 때까지도 현실적으로는 한글 문서 작성은 보편화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었기에 로스의 한글 번역 성경이 갖는 의의가 한글 사용의 역사에서 크지 않을 수 없다.

이후 일제 강점기에는 민족말살정책으로 우리 땅에서 일본어가 국어가 되고, 우리말은 ‘조선어’로 취급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만들어진 한국어 성경은 『新約全書 국한문』(1906)이 아니라 『新約全書 선한문』(1923)이라는 서명으로 출간된다. 이러한 시대 상황과 문화적 요소를 고려하여 어휘를 살펴보는 본 연구의 대비 목록에는 ‘국한문(國漢文)’과 ‘선한문(鮮漢文)’도 포함된다. 활용된 국한 혼용문 성경은 유성준(兪星濬) 역본(1906), 게일(J. S. Gale) 역본(1925), 공인역본(1935)인데 공인역본은 간이 선한문(簡易鮮漢文)본이다. ‘간이’ 선한문은 중국어 성경의 ‘잔문리(淺文理)’본이 ‘문리(文理)’본보다 쉽게 씌어진 것처럼 국한문 혹은 선한문보다 쉽게 표현된 국한 혼용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간이 선한문 계열의 국한 혼용문은 포교를 위해 유학서보다 쉽게 씌어진 중세 불경 언해류와도 닮아 있

3) 한자어를 한글로 표기하였느냐, 한자로 표기하였느냐에 대한 대비 목록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다.4) 한자어의 분포 비율이나 한자 표기 어절 비율 등의 고찰을 통해 일차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문헌의 특징이다.

본고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제시된 3종의 국한 혼용문 성경과 로스 번역본을 대비하는 연구 범위는 마가복음으로 한정하였다. 로스 번역본에 대한 연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1882년에 한글로 번역된 최초의 성경인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 연구를 위해서는 2종의 로스 번역본(1882/1887)과 로스본을 수정한 아펜젤러(1890)<sup>5)</sup>, 그 이후 다시 번역된 언더우드(1895)본과 펜윅(Malcolm C. Fenwick)(1919)본, 이 5종의 한글 번역본을 대비하고 한국어 성경 번역사에서 가장 자유롭게, 자연스러운 문체를 구사한 것으로 평가되는 게일의 국한 혼용문 번역본(1925)을 대비하였다. 대비 텍스트가 보여주는 언어적 차이를 수정과 교체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교체는 차치한다. 수정은 의도적으로 이전 번역본의 어휘 및 문법 요소를 바꾼 것이고, 교체는 집필자가 의도적으로 바꾼 것이라기보다는 ‘·’, ‘ㅏ’와 같이 당시 두 형태가 혼재되어 쓰이는 경우이다. 음운 현상과 관련된 표기의 교체 현상은 현실적으로는 어찌할 바를 몰라 유연하게 표기한 경우들도 있어 보임으로 본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로스 번역본을 중심에 둔 대비 연구를 통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다른 계급의 독자를 상정한 텍스트의 차이가 그 어휘 양상, 특히 한자어의 분포 상황을 통해 확인됨을 설명한다. 각각의 글쓰기 방식이 지향한 독자 계층, 그리고 성경의 편집자가 가지고 있었던 언어 능력 등 번역 성경의 문체가 당대의 문어 사용과 무관하지 않게 만들어졌을 것이라는 가정을 입증하며 언어 현상이 갖는 당대의 시대 문화적 배경과의 상관성을 증명한다. 이를 위해 컴퓨터 전산화를 통해 정확한 통계를 산출하였고, 텍스트가 보여주는 객관적인 지표를 토대로 구체적인 언어 표현과 언어문화적 요소를 정밀하게 설명한다.

4) 중세 국어 시기의 불경 언해의 텍스트 형식은 단일하지 않다. 예를 들면, 『용비어천가』(1445)는 독자를 일반인으로 상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자음을 주음하지 않은 형태로 만들어졌고, 『월인천강지곡』(1449), 『월인석보』(1459), 『법화경 언해』(1463) 등은 일반인들에게 읽혀야 할 경전이기에 때문에 한자음을 주음하였다. 그리스도교의 국한 혼용문 성경은 주음하지 않은 형태로 만들어졌다.

5) 로스 번역팀에서는 1882년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를 내고, 1883년 수정본을 내는 과정에서 이미 많은 어휘와 문법 요소들을 수정하였고, 이후 1887년에 신약이 완성되어 『예수성교전서』가 간행되었다. 1882년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는 한국어 개신교 성경 번역사에서 최초의 한국어 번역 성경으로서의 큰 의의를 갖는 것은 사실이지만 곧 출판이 중지되었다. 아펜젤러가 로스의 여러 누가복음 번역본 중에서 1887년 번역본을 수정의 대상으로 삼았을 것으로 추정하는 근거는 아펜젤러의 『누가복음전』을 로스 번역본들과 장·절별로 대비하여 고찰한 결과이다. 다음 예에서와 같이 그 수용 정도를 볼 수 있다.

(1) 가. 피들이 같오되 사람아 너 말하년 비를 아디 못호노라 말흘 지 달기 우년디라 <1882눅22:60>  
 나. 피들이 같오디 사람아 너 말하난 바를 니 아지 못하노라 하년디 곳 달기 올다라 <1883눅22:60>  
 다. 피들이 같오디 사롬아 네 말하년 바를 니 아지 못호노라 호년디 곳 달기 올더라 <1887눅22:60>  
 라. 피들이 같오디 사롬아 네 말하년 바를 내 아지 못호노라 호년디 곳 뉘이 올더라 <1890눅22:60>

(2) 가. 니 쯔 쫓호여 모든 일을 자세이 근원을 좇차 치레로써 귀한 데오비노의 존전에 양달호문 <1882눅01:03>  
 나. 니가 쯔한 처음으로 모든 일을 자세이 상고호여 치레로써 쫓호고 귀한 티오비노의 합호의 양달호문 <1883눅01:03>  
 다. 니가 쯔한 처음으로 모단 일을 자세이 상고호여 치레로써 쫓호고 귀한 티오비노의 합호의 즐겨양달호문 <1887눅01:03>  
 라. 내가 쯔한 처음으로 모든 일을 쯔세히 상고호야 초레로써 쫓호고 귀한 티오비노의 합하의 즐겨양달호문 <1890눅01:03>

## II. 자료 가공 방법

한국어 성경은 『한국성경대전집』에 수록되어 있는 자료를 직접 입력하였다. 성경의 장과 절을 구분하여 입력하는데, 온라인상에서 다운받은 헬라어 성경이나 영어, 중국어 중역본 성경과 함께 엑셀 소팅 작업을 위해 문자셋은 UTF-8로 생성한다.<sup>6)</sup> 장·절 구분을 마친 텍스트 파일은 원본 서식 유지를 선택하여 엑셀에 붙여넣기 한다. 엑셀에서 본문과 성경 서명과 장·절을 각 셀에 나누어 입력하는데, 이때 VBA 매크로 함수를 설정하여 셀 값을 나누고, 성경 서명의 라벨링도 함수를 사용하여 일괄 정리한 후 전체 합본을 만든다. 엑셀의 자료를 복사하여 hwp 파일로 옮길 때는 <편집>에서 ‘골라 붙이기-유니코드 문서’를 선택하여 붙여넣기 한다. 한자어 자료의 빈도수를 계산하면서는 hwp 파일의 전처리 과정을 마치고, python hanja, scikit-learn, pandas lib를 활용하여 DTM을 만들고, DTM 파일의 한자어 색인 목록과 빈도수를 csv로 convert 저장하였다. 이후 비교 프로세스를 거쳐 중복되는 한자, 단독 출현 한자 등을 구분하여 정렬한다.

한자어가 한자로 표기된 국한 혼용문에서 한자 표기된 목록을 뽑아내는 것은 프로그래밍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한글로 표기된 한자어, 예를 들면, ‘記錄 - 기록’, ‘兒孩 - 으히’ 등과 같은 예는 수작업으로 진행해야 그 정확도를 높힐 수 있다. 현재 형태소분석기로 나와 있는 꼬꼬마(서울대), 한나눔(카이스트) 등의 기능을 접목하여 분석을 시도해도 합용 병서까지는 가려낼 수 있으나 ‘·(아래아)’ 표기는 구분하지 못하여 형태소 분석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엑셀에 한자 표기 한자어 목록을 먼저 뽑아 두고, 그 옆 칸에 한글 전용문에서 그 대응어를 제시하는 것은 수작업으로 진행하였다.

## III. 로스 번역본의 언어문화적 특징: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로스 번역본은 최초의 한글 번역 성경으로서, 서북 방언형을 확인할 수 있는 한글 문헌이라는 의미는 있지만 한국어 번역 성경의 전통이 되지는 못하였다. 이는 이후 번역본들과의 대비를 통해 드러난 계승성을 보면서도 알 수 있지만, 영국성서공회 소속으로 한국지부의 초대 총무였던 켄뮤어(Alexander Kenmure)가 1892년 11월 로스에게 공식적으로 한국어 번역 성경의 출판 중지를 요청한 사실과(옥성득·이만열, 2006: 657) 초기 한국어 공인역 성경 번역을 책임지고 있었던 아펜젤러와 언더우드(이수정의 『신약마가전복음서연히』를 한국어 번역 성경의 모본으로 삼고 영향을 받았다는(이덕주, 2002: 10-13) 역사적 기술을 통해서도

6) 외국어 성경은 온라인상에서 PDF 원문 기반의 Full text 파일을 다운 받아 Editor로 열고, OCR로 변형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PDF를 text파일로 변환하는 작업에서 숫자, 각주 등의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거나 적합한 문자로 다시 입력하는 작업을 거쳐야 텍스트 파일이 완성된다. 성경의 장과 절을 구분하여 입력하는데, 이때 문자셋은 UTF-8로 생성한다.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스 번역본은 시대적, 지역적, 계층적 언어 문화를 가장 잘 반영한 번역 성경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민중의 가독성을 위해 한글만으로, 가까이의 지역민들을 위해 방언형으로 번역했기 때문이다. 공인역본 성경이 나올 때까지의 성경 번역에는 번역자의 입장과 문체 습관이 반영될 수밖에 없음도 간과할 수 없다. 그동안 로스와 관련된 간행물들에 대한 국어학적 접근은 서북(평안) 방언과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직접적 대조 대상이 없는 고찰을 통하여 서북 방언과 중앙어 및 타 지역어와의 차이를 드러내는 과정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같은 내용을 번역한 로스의 번역본과 그것을 수정한 번역본 및 이후의 번역본을 직접적으로, 같은 장절마다 대비하여 살펴보는 것은 그간의 지역어 연구 성과를 보완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한 일이다.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성경 번역 작업은 신학적, 번역학적 이유는 물론 지역적, 언어적 요구 등에 의하여 개역되고 새로 번역되기 때문에 초기 번역본과 그 수정본 및 개정본들의 영향 관계와 각 역본별 특징에 대한 연구는 언어문화사적 접근의 의의가 충분하다.

현대 한국어의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정리하였을 때, 로스본의 전체 분량은 14,203어절이고, 아펜젤러본은 14,232어절이다. 차이가 있으나 어절 단위의 대비가 가능할 정도로 두 번역본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로스본에 대한 아펜젤러의 수정이 어절 단위를 중심으로, 어절 수까지 맞추며 진행된 보수적인 수정이었음을 의미한다. 로스와 아펜젤러의 누가복음을 어절 단위로 대비하고 그 변화 유무를 구체적으로 대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펜젤러본에서 로스본과 다르게 수정된 어절은 모두 5,350어절이다. 전체 대비 37.67%를 차지한다. 수정되지 않은, 즉 로스본의 어절이 그대로 활용된 경우는 8,853어절로 62.33%이다.<sup>7)</sup> 이와 같이 수정되지 않은 부분이 더 많다는 것은 로스본의 기초 본문 어휘와 문장 구조의 영향을 상당히 존중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또, 로스본 1882년 번역본과 1883년 번역본을 대비해 보면 ‘어순의 변화’나 ‘단문 대 복문’과 같은 문장 구조에 대한 수정이 확인되나 로스본을 수정한 아펜젤러본에서는 이러한 수정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 1. 문법 요소의 수정

아펜젤러는 로스 번역본에 대해 방언적 요소를 중심으로 수정하여 문법적 요소에 대한 수정은 많지 않다. 그러나 구문을 달리 인식할 경우 조사의 수정은 필연적이다. 조사의 수정 예는 모두 420개가 확인된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것은 개음절 명사 뒤에 주격 조사 ‘ㅣ’의 추가(253)<sup>8)</sup>와 서술격 조사 ‘ㅣ’의 추가(39)<sup>9)</sup>이다. 주격 조사와 서술격 조사의

7) 이 결과에는 로스본의 글씨를 판독하기 어려운 105어절이 포함되어 있다.

8) ㄱ. 린니와 친척이 쥬 크게 어엿비 네기물 듯고 함씩 즐거워하고 <1887눅01:58>

ㄱ'. 린리와 친척이 쥬ㅣ 크게 어엿비 녀임을 듯고 다 즐거워호고 <1890눅01:58>

ㄴ. 사자 같오디 무셔워 말나 <1887눅02:10>

ㄴ'. 사자ㅣ 같오디 무셔워 말나 <1890눅02:10>

ㄷ. 예수 비로소 갈아치논 디 나이 삼십이니 <1887눅03:23>

ㄷ'. 예수ㅣ 비로소 ㄱ르치논 디 나히 삼십이니 <1890눅03:23>

수정 외에는 처격의 수정이 대부분이다. ‘-여>-에(54),<sup>10)</sup> -게>-의게(16),<sup>11)</sup> -게>-그(21)<sup>12)</sup>’ 등의 수정이 확인된다. 이 중에서 ‘-여>-에’의 수정은 ‘-마당>-마다(2)<sup>13)</sup>’의 예와 함께 방언형의 수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외에 조사 수정의 예로 ‘못들>못희’에서와 같은 ‘을 (씨나-)’ 과 ‘의 (씨나-)’의 교체가 확인된다.<sup>14)</sup>

어미 수정의 예는 모두 96개가 확인된다. 이 중에는 특히 서북 방언의 선어말 어미 ‘-다->-더-’<sup>15)</sup>, ‘-갓->-갯-’<sup>16)</sup>의 수정이 40개로 가장 비율이 높다. 이 외에 존경의 선어말 어미 ‘-사-’를 ‘쥬(主)’에 한정하여 쓰기<sup>17)</sup> 위해 수정한 예들이 눈에 띈다. 방언을 중앙어로 바꾸는 작업을 중심으로, ‘문법 형태의 교체’는 그 종류가 많지 않다는 것이 로스 번역본에 대한 아펜젤러 수정본의 의의라 할 수 있다.

## 2. 어휘의 수정

로스본과 아펜젤러본의 대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어휘 수정의 예는 모두 769개이다. 이들 어휘 수정을 보이는 예들은 ① 서북 방언형을 중앙어 독자들을 위해 수정한 경우<sup>18)</sup> ② 한자어와 고유어의 대응 문제와 관련된 경우 ③ 내용의 전달과 관련하여 번역을 달리한 경우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

- 
- 9) 가. 처녀 마리암의게 님히니 다빛의 일가 요셉의 방문헌 밧 자라 <1887녹01:27>  
 가’. 처녀 마리암의게 림히니 다빛의 일가 요셉의 방문헌 밧 자 | 라 <1890녹01:27>  
 나. 곳 우리 조상 압라함으로 더부러 밧세헌 바라 <1887녹01:73>  
 나’. 곳 우리 조상 압라함으로 더브러 밧셔헌 바 | 라 <1890녹01:73>
  - 10) 가. 부인덜이 이여 그 말을 싱각히고 무덤으로부터 돌아가다 <1887녹24:08>  
 가’. 부인들이 이에 그 말을 싱각히고 무덤으로부터 도라가다 <1890녹24:08>  
 나. 당시여 압페 나아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1887녹02:38>  
 나’. 당시에 압희 나아와 하느님씩 감사하고 <1890녹02:38>
  - 11) 가. 쏘 못사름게 일오샤디 <1887녹09:23>  
 가’. 쏘 못사름의게 닐오샤디 <1890녹09:23>  
 나. 예수 법사와 바리시인에게 일너 같오샤디 <1887녹14:03>  
 나’. 예수 | 법스와 바리시인의게 닐너 곶오샤디 <1890녹14:03>
  - 12) 가. 이여 밧게 나가 통곡허더라 <1887녹22:62>  
 가’. 이에 밧기 나가 통곡허더라 <1890녹22:62>
  - 13) 가. 사름마당 힘써 나아가느니 <1887녹16:16>  
 가’. 사름마다 힘써 나아가느니 <1890녹16:16>  
 나. 한 부자가 이서 자디 옷과 가는 비를 입고 날마당 변화이 열락하고 <1887녹16:19>  
 나’. 한 부자가 잇서 쥬쥬 옷과 가는 비를 님고 날마다 변화이 연락하고 <1890녹16:19>
  - 14) 가. 비를 움겨 못들 조곰 씨나 비 가온디 안져 못사름을 가라치더니 <1887녹05:03>  
 가’. 비 움겨 못희 조곰 씨나 비 가온디 안져 못사름을 그르치더니 <1890녹05:03>
  - 15) 가. 맞춤니 병얼이 되다라 <1887녹01:22>  
 가’. 못춤내 병어리 되더라 <1890녹01:22>
  - 16) 가. 쥬 너의 하나님께 절혀여 호을노 섬기갓다 하니 <1887녹04:08>  
 가’. 쥬 너의 하느님씩 절혀여 흘노 섬기갓다 하니 <1890녹04:08>  
 나. 너희가 시보담 얼마나 귀혀갓느냐 <1887녹12:24>  
 나’. 너희가 시보담 얼마나 귀혀갓느냐 <1890녹12:24>
  - 17) 가. 쥬의 압페셔 더가 크미 되어 청주과 독주를 마시지 은코 티로부터 성신이 차시미 <1887녹01:15>  
 가’. 쥬의 압희셔 더가 큼이 되어 청주과 독주를 마시지 안코 티로부터 성신이 츠매 <1890녹01:15>
  - 18) 『평북방언사전』(김이협, 1981)을 참조하여 방언 여부를 확인하였다. 본고에서는 방언형과 고유어형과 관련된 항목들도 있어 같은 항목에서 다루었다.

## 1) 서북 방언형 및 고어형과 관련된 수정

‘망>매[맷돌]’와 같이 어원이 다른 경우와 ‘귀먹쌍이>귀먹어리’와 같이 형태가 다른 접사가 결합되어 방언형과 중앙어형이 다르게 분화되어 수정된 경우의 예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ㄱ)은 명사, (1ㄴ)은 용언, (1ㄷ)~(1ㅍ)은 부사어의 예이다.

(1) ㄱ. 갈>갈디, 걸금(걸굼)>거름, 곡석(곡석, 곡식)>곡식, 골자군이(고라대기, 골째기, 골채기, 골통이)>골, 광지(광지, 광주리)>광우리, 궁이(궁이)>구유(>마구), 말궁이(말궁이)>물구유, 귀먹쌍이(구먹덩이, 구먹탱이)>귀먹어리, 나가네(나가네, 나가니)>나그네, 더품>거품, 돌식>돌자갈, 들마기(언들매기)>언덕, 몬주(몬주)>몬지, 무삼>무순, 짝군(짝군)>삭군, 엄(엄)>움(>씩), 열음(열음, 열매)>열미, 아(아)>아히, 아밤(아밤)>아바님, 어맘(어맘)>어마님/어마니, 히(해)>것

ㄴ. 고쥬구흐-(cf. 고조곤하-)>긧치-, 나지게 흐->나타나게 흐-, 망질 흐->미갈-, 멧우->메우-, 서늘엽->서늘 흐-, 어드케>엇더케, 어들어기>엇더 흐기,<sup>19)</sup> 업두러치->업디여치-, 일르->늡-, 입부->슈고 흐-, 접퍼 흐->져어 흐-

ㄷ. 갑작이(갑재기)>급작이/급작히, 호올노(호올로, 호올로)>홀노

ㄹ. 가이>가히(5), 경이>경히(1), 자세이>즈세히(2), 친이>친히(1)

ㅍ. 갓가히>갓가이(2), 공연히>공연이(3), 괴괴히>괴괴이(2), 맛당히>맛당이(8), 사사로히>사사로이(1), 이상히>이상이(1)

서북 방언에서는 ‘맷돌’을 ‘망’이라고 하는데 (1ㄴ)의 ‘망질 흐->미갈-’이 이와 관련된 수정의 예이다. (1ㄴ)의 ‘고쥬구흐->긧치-’는 ‘소리 고쥬구흐미>소리 긧치매’와 같이 활용되는 어형으로, ‘고쥬구흐-’(9장 36절)를 분명히 알 수는 없으나 『평북방언사전』에서 확인되는 ‘고조곤하다[고요하다, 적막하다]’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1ㄴ)의 ‘서늘엽-’은 고어형의 ‘서느럽-’과 관련된 형태인데, 당대의 중앙어형인 ‘서늘 흐-’ 형태로 수정되었다.

(1ㄷ)~(1ㅍ)에서는 부사화 접미사 ‘-이’와 ‘-히’의 교체를 볼 수 있는데, (1ㄷ)에서는 ‘-이>-히’의 수정, (1ㅍ)에서는 ‘-히>-이’의 수정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부사화 접사의 교체에서는 뚜렷한 기준과 방향성을 발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부사형의 수정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로스본의 부사형 ‘늘마 + 예(부사격조사)’가 아펜젤러본에서 ‘늡게’로 수정된 예이다. ‘늘마’는 『평북방언사전』의 표제항 ‘늘그막’의 풀이항에서 ‘늡마’로 확인되는 형태이다. 그 구체적인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2) ㄱ. 쏘 너의 친척 이리사벳이 늘마에 아들을 비여스니 볼니 아 비지 못흐던 자가 이제 여섯 달이니 <1887늡01:36>

19) 이 경우는 용례가 많지 않아서 어간을 분석해 내기가 쉽지 않은데, ‘어드렁-’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 김이협(1982)에는 ‘어드렇게’, ‘어드렇다’, ‘어드르니’, ‘어드르다’, ‘어드르다가’, ‘어드르문’, ‘어드르허다’, ‘어드른’, ‘어드른디’, ‘어드룽게’, ‘어드룽다’가 관련 표제항으로 제시되어 있다.



ㄴ. 또 너의 친척 이리사벳이 늙게 아들을 비엿스니 본리 오히려 비지 못하던 자가 이제 여  
숫 들이니 <1890눅01:36>

ㄷ. 네 친척 엘니사벳이 늙어서 아들을 비엿고 본리 슈티히지 못 한다 하던 이가 이제 임  
의 여숫 들이 되엿시니 <번역1900눅01:36>

번역자회에서 공동 번역으로 간행한 『신약전서』(1900) 이후의 번역본에서는 모두 ‘늙어서’  
형태로만 확인된다. 로스본에서는 일상의 구어 발음을 반영하여 ‘늙마’로 표기하였으나 『평  
북방언사전』의 표제어 ‘늙그막’과 관련하여 그 원형이 ‘늙마’인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을 아  
펜젤러본에서 어간 원형 ‘늙-’을 밝히고, 중앙어에서의 활용형을 살려 ‘늙게’로 수정한 것이  
다.

## 2) 한자어와 고유어의 대치

로스본과 아펜젤러본에서 한자어와 고유어의 수정 방향이 정해져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  
로 보인다. ‘한자어>고유어’, ‘고유어>한자어’의 수정의 예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통계  
적으로도 확연한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다.

(3) ㄱ. 계란>알, 근체>니웃, 녀(종)>계집(종), 녀인>썰, 자>사름, 소복(蘇復)ᄒ->ᄒ-(>다시  
완전 ᄒ-)

ㄴ. 가마귀>아쵸, 곱>비, 산컨>산변, 맛자>장쵸, 엿투->공급ᄒ-, 질이->간직ᄒ-

예(3)에서 알 수 있듯이 한자어와 고유어의 수정의 방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  
다. 이러한 현상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첫째, 같은 의미의 두 형태가 대중의  
언어에 혼재되어 있었거나 둘째, 단어의 의미가 변화하는 과정상의 혼재 현상이 있었던 것  
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음운이나 표기의 변화보다 단어의 변화 속도가 느려 일괄 변화된 예  
보다는 혼재되고 있는 형태가 많은 것으로 이해된다.

## 3) 번역 태도와 관련된 수정

방언의 영향이나 고유어와 한자어의 대응 관계 외에 어휘의 의미 세분화 및 번역 태도와  
관련하여 다른 어휘로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4) ㄱ. 고을>곳, 그>그디, 너>우리,<sup>20)</sup> 디>때

ㄴ. 구완>구원, 귀호>썰, 누걸>결인, 능장[稜杖]>진려[蒺藜], 막>의막(>장막), 미혹>시험,  
부인>녀인, 성촌>성과 촌, 인악>안(>속<눅11:40>), 자고로>고로

ㄷ. 길역>길엽, 기>마리, 날마당>오늘날, 낫출>눈을,<sup>21)</sup> 놀이>노리, 돌>도야지, 만큼>만치,

20) ㄱ. 예수 갈오샤디 금치 말나 무론 너를 치지 온는 자는 너를 향히나니라 ᄒ더라 <1887눅09:50>

ㄴ. 예수 | 곱으샤디 금치 말나 므릿 우리를 치지 안는 자는 우리를 향히느니라 ᄒ더라 <1890눅  
09:50>

21) ㄱ. 그 낫출 갈이우고 물어 갈오디 너를 친는 자가 뉘냐 <1887눅22:64>

말>말씀, 말지간>말지조, 벼랑>빙애, 어음>씩, 여우>여호, 예수>쥬, 짬>툼, 전과갓치>더와갓치, 큰걸이>거리

(5) ㄱ. 간증ᄃᆞᆫ->간슈ᄃᆞᆫ(->두-), 강청ᄃᆞᆫ->군청ᄃᆞᆫ(->강권ᄃᆞᆫ-), 게ᄃᆞᆫ->교계ᄃᆞᆫ-, 고창증ᄃᆞᆫ->고창증알ᄃᆞᆫ, 관케ᄃᆞᆫ->관계ᄃᆞᆫ-, 광경ᄃᆞᆫ->효경ᄃᆞᆫ-, 성ᄃᆞᆫ->거룩ᄃᆞᆫ-, 성결하->성ᄃᆞᆫ-, 슈성ᄃᆞᆫ->강강ᄃᆞᆫ-, 심ᄃᆞᆫ->괘려ᄃᆞᆫ-

ㄴ. 것치-[걸리-]>빠지(->범죄ᄃᆞᆫ-), 곳건ᄃᆞᆫ->곳-, 곳건ᄃᆞᆫ->곳계ᄃᆞᆫ-, 깃부를 주->분깃ᄃᆞᆫ여 주-, 깃치->씨치-[끼치-/남기-], 나->가-, 나아가->드러가-, 나아가->드러오-, 늣->두-, 달니->달나ᄃᆞᆫ-, 멋->긋치-, 멋->낫-, 붓치->풀-, 앓->쌌앗-, 얼미이->미이-, 이서>잇서, 일오->굴오-, 제비ᄃᆞᆫ->제비썩-, 죽어가->죽게되-

(4ㄱ)은 고유어 대명사, (4ㄴ)은 한자어 명사, (4ㄷ)은 고유어 명사 수정의 예이다. (5ㄱ)은 한자어 용언, (5ㄴ)은 고유어 용언을 수정한 예이다. (4ㄷ)의 ‘낫출>눈을’은 문맥의 의미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수정된 예로 보인다. (4ㄱ)의 ‘그>그디’나 ‘너>우리’의 수정은 어휘 차원의 대치라기보다는 번역의 관점, 혹은 기독교적 관점에서 해석상의 이유로 수정된 것으로 보인다. ‘녀인>쥬’의 수정은 여인을 지체 개념의 딸로 표현한 것으로, 기독교적 관점에서 수정된 예라고 볼 수 있다. 로스본의 어떤 어휘를 아펜젤러본에서 같은 품사의 어휘로 대치한 어휘들 중에는 이처럼 동의 관계로 볼 수 없는 예들이 적지 않다. 해석상의 문제일 것이다. (5ㄴ)의 ‘것치-[걸리-]>빠지(->범죄ᄃᆞᆫ-)’는 고어형과 연관된 로스본의 어형을 아펜젤러본에서 수정한 것이다. (5ㄴ)의 ‘깃치->씨치-[끼치-/남기-]’는 이전 시기에는 ‘씨치-, 찌치-’ 형태로 확인되는 것으로, ‘한나 돌을 돌 우에 깃치지 은코 다 물어지리라 ᄃᆞᆫ니’와 같은 문맥에서 활용되었다. (5ㄴ)의 ‘곳건ᄃᆞᆫ->곳계ᄃᆞᆫ-, 나->가-, 나아가->드러가-, 나아가->드러오-’ 등의 예는 ‘가다-오다’, ‘들다-나다’표현과 같이 번역 저본과의 언어 표현적 문제로 볼 수 있다. 또한 (5ㄴ)의 ‘제비ᄃᆞᆫ->제비썩-’과 같이 로스본에서 ‘명사+하-’ 형태인 것이 아펜젤러본에서 ‘명사+V-’ 형태로 수정된 예가 확인된다. 이는 서술어의 표현이 다양해지고 어휘의 의미가 세분화되는 개화기 한국어의 특징, 즉 국어사의 관점에서 어휘 변화의 예로 볼 수 있다.

(6) ㄱ. 예수 같오되 아바니 이 사람덜을 샤ᄃᆞᆫ쇼셔 그 ᄃᆞᆫ 비를 아디 못ᄃᆞᆫ니이다 ᄃᆞᆫ더라 이여 제비ᄃᆞᆫ여 그 옷슬 논우니 <1882눅23:34>

ㄴ. 예수 같오디 아바니 이 사람덜을 샤ᄃᆞᆫ쇼셔 그 할 비를 아지 못ᄃᆞᆫ니이다 ᄃᆞᆫ다라 이여 제비ᄃᆞᆫ여 그 옷슬 논오니 <1883눅23:34>

ㄷ. 예수 같오샤디 아바니 이 사람덜을 샤ᄃᆞᆫ쇼셔 그 할 비를 아지 못ᄃᆞᆫ니이다 ᄃᆞᆫ더라 이여 사ᄃᆞᆫ이 제비ᄃᆞᆫ여 그 옷슬 논오니 <1887눅23:34>

ㄹ. 예수ㅣ 굴오샤디 아바니 이 사ᄃᆞᆫ들을 샤ᄃᆞᆫ쇼셔 그 할 바를 아지 못ᄃᆞᆫ니이다 ᄃᆞᆫ더라 이에 사ᄃᆞᆫ이 제비썩아 그 옷슬 논ᄃᆞᆫ니 <1890눅23:34>

ㄴ. 그 눈을 7리우고 그 낫슬 치며 무려 굴오디 너를 치는 자ㅣ 뉘냐 <1890눅22:64>

예(6)은 ‘제비ㅎ-’와 ‘제비뽑-’이 대응되는 구체적인 예인데, (5ㄴ)을 참고해 보면, 양방향으로의 변화형이 확인된다. 현대로 올수록 ‘Xㅎ-’ 동사의 ‘X’가 점차 ‘-하-’ 대신 다른 구체적인 동사와 결합하며 변화하는 것은 한국어의 한 특징이기도 하다. 이것은 ‘-ㅎ-’의 다의성을 축소하여 의미 부담량을 줄이는 동시에 표현의 다양화를 추구하는 노력의 일면으로 볼 수 있다.

(7) ㄱ. 맞참 거긔 돛트 무리 이서 산에서 먹거날 들어가물 구ㅎ미 허ㅎ니 <1887녹08:32>  
 ㄴ. 뭇춤 거긔 도야지 무리 잇서 산에서 먹거늘 드러감을 구ㅎ매 허ㅎ니 <1890녹08:32>

ㄷ. 한 부자가 이서 자디 옷과 가는 뵈를 입고 날마당 변화이 열낙ㅎ고 <1887녹16:19>  
 ㄹ. 한 부자가 잇서 즈쥬 옷과 가는 뵈를 닙고 날마다 변화이 연락ㅎ고 <1890녹16:19>

ㄹ. 지옥 고상 가운데서 눈을 들어 멀니 압라함의 품에 나사로 이스물 보고 <1887녹16:23>  
 ㅂ. 디옥 고상 가운데서 눈을 들어 멀니 압라함의 품에 나사로 잇숨을 보고 <1890녹16:23>

ㅅ. 니 형데 다삿 사름이 이스니 더의게 간증ㅎ여 쏘흔 이 고장 밧는 곳에 널으기를 면케  
 ㅎ쇼셔 ㅎ니 <1887녹16:28>

ㅇ. 내 형데 다솿 사름이 잇스니 더의게 간증ㅎ여 쏘흔 이 고상 밧는 곳에 니르기를 면케  
 ㅎ쇼셔 ㅎ니 <1890녹16:28>

예(7)에서는 ‘잇->잇ㅅ-’의 수정을 확인할 수 있는데, 로스본에서는 ‘잇-’으로, 아펜젤러본에서는 ‘잇ㅅ-’으로 [在]를 의미하는 동사의 어간을 나타내고 있다. ‘잇ㅅ-’이 재구조화되어 현대 국어의 ‘잇-’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중세 국어 시기에는 ‘이시-’와 ‘잇-’이 쌍형어였는데<sup>22)</sup> (7)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로스본에서는 ‘잇-’, 아펜젤러본에서는 ‘잇ㅅ-’의 활용 형태만이 확인되고 있어 서북 방언에서는 ‘잇-’, 중앙어에서는 ‘잇ㅅ-’으로 구분되어 쓰였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살펴본 어휘 수정의 예 외에 당시 대중 선교를 목표로 한 한국어 번역 성경에서 ‘애골절치ㅎ-, 일월성신, 단련역제’ 등과 같은 한글 표기 한자 속어(漢字熟語)가 확인되기도 한다. 이는 근대 계몽기 혹은 개화기 텍스트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되는 현상으로, 양반이 몰락하고, 이전 시기보다 계층의 경계선이 흐려지고, 견문 및 학습의 기회가 확산되어 일반 대중도 한문구에 익숙해지고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는 이 시기 언어적 특징의 일면이다.

22) 엄밀히는, 쌍형어라기보다 현대국어의 ‘가지-~갓-’과 같이 활용 패러다임이 두 계열을 이루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IV. 로스의 한글 성경과 국한 혼용문 성경의 대비: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 1. 마가복음

마가복음을 대상으로 어절 단위 분석을 진행한 결과, 『新約全書 국한문』(1906, 유성준)의 한자어는 877종이고, 표기된 한자어의 출현 횟수는 2,396회이다. 『奇一 新譯 신구약전서』(1925, 게일)의 한자어는 444종이고, 표기된 한자어의 출현 횟수는 1,289회이다. 『簡易鮮漢文』(1935, 공인역)의 한자어는 392종이고, 표기된 한자어의 출현 횟수는 1,226회이다. 역대 국한 혼용문 성경 중 유학자 출신의 유성준이 번역한 『新約全書 국한문』에 가장 여러 종류의 가장 많은 양의 한자어가 쓰였고, 이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것은, 『新約全書 국한문』(1906)의 번역자는 대중을 독자로 삼아 번역한 것이 아니라 한글 텍스트를 읽지 않는 식자층을 대상으로 국한 혼용문으로 만들었으리라는 것이다. 각각의 글쓰기 방식이 지향한 독자 계층, 그리고 성경의 편집자가 가지고 있었던 언어 능력의 반영 등 번역 성경의 문체가 당대의 문어 사용 양상과도 무관하지 않게 만들어졌을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하다.

또, 세 종류의 국한 혼용문 성경에서 공통으로 같은 한자로 표기한 것은 총 293종의 한자어이다. 유성준 번역본에서만 확인되는 한자어는 509종, 게일 번역본에서만 확인되는 한자어는 83종, 간이 선한문 번역본에서만 확인되는 한자어는 27종이다. 일차적으로, 국한 혼용문에 사용된 한자 표기 한자어의 종류와 빈도만으로도 텍스트의 난이도와 텍스트가 어떤 계층을 예상 독자로 설정하고 있는지를 추측할 수 있다. 간이 선한문 번역본이 가장 쉽게 구사된 국한 혼용문이기 때문에 간이 선한문에서만 확인되는 한자어는 거의 없을 것 같으나 27종이 확인되었다.

(8) ㄱ. 로스 번역본에 해당 번역어가 없는 예: 形象(∅-∅-∅-형용-형상<sup>23</sup>)-形狀-(변)형), 命牌(∅-∅-명패-명패-명패-名牌-죄패<sup>24</sup>), 己往<sup>25</sup>(∅-∅-문져-이왕-이왕-∅-그), 大概(∅-∅-대개-대개-대개-이느)<sup>26</sup>

ㄴ. 로스 번역본 어휘의 전송: 交倚(의자-의자-교의-교의-교의-交椅-의자), 妒忌(질투-질투-투기-질시-투기-妬忌-질투)

ㄷ. 어휘화 혹은 구문화: 香氣로운 기름(피식날 두기-피식날 두고-귀훈날 쇠란기름-나달향<sup>27</sup>) 기름-향기로운 기름-香油-향유), 一時동안<sup>28</sup>(잠시-잠시-편시<sup>29</sup>)-한시동안-일시동안-한時동

23) ‘형상’이라는 한자어를 사용한 최초의 번역본은 『신약전서(시험역)』(1900)이다.

24) 로스 번역본의 해당 부분(15:26)을 보면, ‘죄목을 그 우에’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본에서 ‘그 우에 있는 명패에’와 같이 ‘명패’로 번역한 것과 달리 『개역』에서부터 ‘죄패’라고 한 것을 보면, 즉, 현대어 『개역개정』에서도 ‘그 위에 있는 죄패에’라고 한 것을 보면, 로스 번역본의 번역어의 선정이 지방색만 드러냈던 것은 아니고 의미 전달력이 더 정확했을 수 있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25) 1906년 국한문본에는 ‘以往’으로 번역되었다.

26) ‘大概’는 아펜젤러 번역본(1895) 이후 한글로 ‘대개’로 표기된 경우가 가장 많고, 생략되거나, ‘므룻/무룻’, ‘대더’, ‘임의’ 등으로 번역되었는데, 맥락에 따라 자연스러운 표현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27) 아펜젤러본에서 ‘나달향’이라고 번역된 것이 1900년 시험역본과 1904년 임시역본에서는 ‘나도(약물

안-한시간도), (내 일흠을) 依託하야(니 일흠으로써-니 일흠으로써-나의 일흠으로써-내 일흠을 의탁하야-내일흠을 의탁하야-내 일흠을 依托하야-내 이름을 의탁하여)30), 盤石 속에31)(반석에-반석에-반석 사이에-반석 가운데-반석 속에-석에-바위 속에), 발凳牀32)(반등-반등-발도듬하는 등상-발등상-발등상-발牀-발 아래에), 抑志33)(로 主管하고)(쥬하고-쥬하고-쥬장하며-쥬장하며-억지로 주관하고-∅-임의로 주관하고), 無酵餅 먹는 節34)(누룩 금하는 절-누룩 금하는 절-제교절-누룩 업는 썩 먹는 절-누룩 업는 썩 먹는 절-無酵節-무교절)

ㄹ. 한자어와 고유어 대응: (財物을) 依支하는 사람(지물 의지는 자-지물을 의지하는 자-지물을 밋고-지물을 밋는 이는-지물을 의지하는 사람-財物을 依持하는 사람-재물이 있는 자), 性稟(턴성-턴성-성품-성품-성품-性品-목숨), 公事마당35)(원-원-원-아문안ㅎ-마당안-公庭안-뜰안),

ㄹ. 명사-명사형: 犧牲(제사함-제사함-희싱-희싱-희싱-燔祭-기타제물),

ㅂ. 표기상의 문제: 血淚(디히증-디히증-혈루증-혈루-혈루-血漏-혈루), 地震(디진-디진-디진-디동흠-디동36)-地動-지진), 纏帶37)(자로-자로-주머니-주머니-전디38)-錢帛-전대), 怨讎39)(원슈-원슈-덕국-원슈-원슈-仇敵-원수), 私處房40)(직방-직방-샤랑-샤랑-샤처방-處所-객실), 各邑(각양-각양-허다흔-모든-각식-各種-각종), 譏謗41)하는 말(참남한 말-참남흔 말-더러운 말-훼방하는 말-훼방하는 말-毀謗하는 말-모독하는 일)

ㅅ. 기타: 骸骨곳(두골잇는곳-두골잇는곳-히골곳-히골잇는곳-히골곳-骸骨處-해골), 豐盛하니(자리여-자리여-기늑니-자르-풍성하니-∅-무성하여), 午正(오시-오시-오시-오시-오시-午前-제육시42)),

일흠)향'으로 번역되어 있다. 1906년본에서는 '향기로온'이라고 번역되었는데 특기할 만한 것은 1904년에 수정된 펜 흔적을 보면 '향기로온'으로 고쳐져 있다는 것이다. (향기향기) '약물'로 보아야 할지, '약풀'로 보아야 할지 어려워 동일 텍스트에서 '표'이 들어간 단어와 '모'이 들어간 단어들을 찾아 대조하며 읽은 후 본 연구에서는 '모'으로 읽었다.

28) 『簡易鮮漢文 新約』(1935)에서만 확인되는 한자어로 구분된 것은 '일시동안도'를 한 어절로 설정했을 경우이다. 1906년 공인역본에서는 '一時間도', 1925년 게일역본에서는 '한時동안도'라고 번역되어 '一時동안도'라는 표현은 없기 때문이다.

29) 1887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함께 수정한 『마가의 전한 복음서 언히』에 '편시'로 되어 있는 것은 비슷한 시기의 일본의 성경(1864년, 『新約全書』)과 중국어 성경(1872년, 『新約全書官話』)의 '片時'의 영향일 것이다. 현대 중국어 성경에서는 '一小時'이나 '一點鐘'으로 번역되어 있다.

30) 국한혼용문 성경에서는 단어형이 확인되지만 번역 구문상에서 이해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그 예에 해당한다.

31) 1906년 국한문본에는 '磐石 裏에'으로 표기되었다.

32) 1906년 국한문본에는 '足凳牀'으로 번역되었다.

33) 1906년 국한문본에는 '臆志'로 표기되었다.

34) 1906년 국한문본에는 '酵가 無흔 餅을 吃하는 節'이라고 번역되었다.

35) 1906년 국한문본에는 '公事場'으로 번역되었다.

36) 1900년 시험역, 1904년 임시역, 1906년 공인역까지 '디동흠'으로 번역되었고, 1925년 게일역본에서도 地動으로 번역되다가 1935년 간이 선한문에서부터 '地震'으로 번역되었다.

37) 1906년 공인역본과 1925년 게일역본에서는 '錢帛'로 쓰여 『簡易鮮漢文 新約』에서만 확인되는 예로 구분되었다.

38) '전디'라는 표현은 1895년 아펜젤러 번역본에서부터 쓰이기 시작했다.

39) 1906년 국한문본에는 '원수' 표기를 '冤讎'로 하여 1935년 간이 선한문본에서만 확인되는 예로 선정되었다.

40) 1906년 국한문본에는 '舍處房'으로 표기되었다.

41) 다른 국한 혼용문에는 '毀謗'으로 표기되었다.

예(8)은 간이 선한문에서만 확인되는 27종의 한자어에 대응하는 한글 성경 및 게일 번역본의 번역어를 제시한 것이다. 게일 번역본은 국한 혼용문인데 공인역의 틀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가장 한국어다운 문장으로 번역하였다고 하고 있어 그 번역 양상을 살피기 위해 대비 대상으로 다루었다. 괄호 안에 제시된 순서는 ‘1884년 로스역-1887년 로스역-1887년 아펜젤러&언더우드역-1895년 아펜젤러역-1906년 공인역-1925년 게일역-1998년 개역개정’이다. 『개역개정본』(1998)에 쓰인 번역어는 대부분 1939년 『신약개역』, 1952년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과 같으나, 다른 표현이 쓰인 경우에는 경우에는 ‘A(1998) / B(1939) / C(1952)’와 같이 ‘/’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8)을 보면, 1895년 아펜젤러 번역의 『마가복음』이 1906년 공인역의 번역어와 유사성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아펜젤러 번역의 힘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현대어 성경의 마가복음 11:15에서 ‘둘러 앉으시며’라고 번역된 것도 『예수성교성서말코복음』(1884, 로스)과 『예수성교전서』(1887, 로스)에서는 ‘씩구러치-’, 『마가의 전후 복음서 언히』(1887, 아펜젤러 & 언더우드)에서는 ‘업지르-’로 번역되었는데 1895년 『마가복음』(아펜젤러)에서 ‘둘러 업흐-’로 번역되었고, 이후 현대까지 모두 ‘둘러 앉-’으로 번역되고 있다. 아펜젤러는 로스 역본의 한계를 그 누구보다 크게 느꼈던 번역자이다.

그러나 한국어 성경에서 ‘질투’와 같은 단어는 역대 번역본 중에서 로스본에서만 쓰였다가 현대어 번역에서 다시 로스의 번역어로 돌아가게 된 예이다. 로스 번역본의 언어가 지역적 한계가 있긴 하였으나 가장 대중적인 번역을 추구하였기 때문에 한자어의 경우, 일반인들에게 가장 쉽고, 대중적이고, 일상적인 단어를 채택하였을 것임을 알 수 있다.

【표 1】 3종의 국한 혼용문 성경의 한자어에 대한 한글 성경의 대응어 목록

	0	19	19	19	1884(예수성교전서)	1887(예수성교전서)	1887(마가의전서)	1895(마가복음)	1906(신약전서)
家産	3	1	1	물건, 집	물건, 집	물건, 집	집	세간, 가산	세간, 가산
各各	2	1	2	각각	각각	각각	각각	각각	각각
各種	1	1	0	각양	각양	허다한	모든	각식	각식
各處	2	2	2	열어곳, 각 곳	열어곳, 각 곳	도처, 수방	각처	각처	각처
懇求	8	8	8	구하여, 구하	구하여, 구하	군구하며, 구하	군구하여, 구하		0
艱難	5	5	5	가는	가는	간난	가난, 가는	간난	
姦邪	0	1	0	거짓	거짓	간사	거짓 착함	외식	
姦淫	4	3	4	음논	음논	간음, 음행	통간음, 간음	간음	
懇切	2	1	2	힘써	힘써	굳세게	굳결	굳결	
堪當	1	1	1	감당	감당	감당	감당	감당	
感動	1	1	1	감동	감동	감동	감동	감동	
橄欖山	3	3	3	감람산	감람산	엘나온산	감람산, 감람산	감람산	
強盜	4	4	4	강도	강도	도적	강도	강도	
芥子	0	1	0	겨자	겨자	계주	계주	계주	
拒逆	1	1	1	치	치	치	치	거역	
拒絕	0	1	0	허치 안이	허치 안이	못하게	허락지 아니	허락지 아니	

42) 『신약 개역』(1939)에서부터 ‘룩시’로 번역되고 있다.

掘穴	0	1	0	소혈	소혈	보금자리	굴혈	굴혈
權能	6	7	6	능하물	능하물	조화	권능	권능
權勢	#	#	#	능간	능간	없음	권세	권세
詭計	1	1	1	괘홀	괘홀	괘홀	괘계	괘계
鬼神	9	#	#	귀신	귀신	사귀	샤귀	귀신
貴人	1	1	1	놉꾼 자	놉꾼 자	귀인	귀인	귀인
規例	1	1	1	전과 가치	전과 가치	여상이	여상이	규례
近方	0	1	0	닐으니	갓가온	갓가와	갓가이 가서	갓가히 와서
根源	1	1	1	근원	근원	없음	없음	근원
禁食	6	6	6	지계	지계	절곡	금식	금식
記念	0	1	0	싱각을 삼으라	싱각을 삼으라	기록흠이 되리라	지역	지역
祈禱	#	#	#	빌기, 비(논디)	빌기, 비(논디)	기도	기도	기도
記錄	7	7	7	써사(되)	써사(되)	기록	기록	기록
奇事	1	1	1	괴거혹물	괴거혹물	신기흠	괴희흠 일	괴스
期約	2	1	2	씨	씨	계약	계약	계약
記憶	4	2	4	기록, 싱각	기록, 싱각	지역, 싱각, 기록	지역, 싱각	지역
氣運	0	1	0	짓놀너	짓놀너	7리워	숨이 막혀	괴운
奇異	7	5	6	괴괴, 경동호口	괴괴	신기흠, 괴이	괴이, 괴이	괴이
其罪	0	1	0	스사로 죄	스사로 죄	제 죄	제 죄	제 죄
其他	0	2	0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期限	0	1	0	씨	씨	계약	계약	계약
機會	1	1	2	괴희	괴희	없음	승극흠 날	괴희
男女	1	1	1	일남 일너	일남 일너	남녀	사나희와 계집	남녀
男子	1	1	0	자	자	남즈	이	사나희
念慮	2	1	0	넴네	넴네	넴려, 싱각	넴려	넴려
怒目	1	1	0	근심하여	근심하여	근심혹심	근심혹심	노혹심
農夫	6	7	6	농인	농인	원두한	농부	농부
能力	2	2	2	이길지니	이길지니	나흔지라	능력	능력
同生	#	#	#	동심	동심	형데	동심	동심
同時	0	1	0	함괴	함괴	긋치	흠괴	흠괴
銅錢	0	1	0	은	은	은	없음	엿
燈檠	1	1	1	화디	화디	쵸디	춷디	등경

【표 1】은 『新約全書 국한문』(1906), 『新譯 신구약전서』(1925), 『簡易鮮漢文 新約』(1935)에서 추출된 한자어가 한글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되었는지를 정리한 것이다. 번역본에 따라 해당 한자어에 대한 대응어가 없는 경우에는 ‘없음’으로 표시하였다. 왼쪽부터, 추출된 한자어와 그 단어의 출현 횟수를 나타낸 것이다. 표를 들면, ‘家産’은 1906년본에서는 3회, 1925년본과 1935년본에서는 각각 1회씩 확인되었고, 한글 성경에서는 ‘물건, 집, 집지물, 가산, 세간’ 등으로 번역 및 표기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1】과 같은 목록 추출은 동의어 연구, 고유어와 한자어의 동의 표현 연구, 번역 문체 및 구문의 차이, 번역 자체의 변화 등을 고찰하는 과정에 큰 도움을 준다. 자료를 다루는





번역어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언어문화적 특징을 파악하는 방법도 마가복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마찬가지로 간이 선한문 성경에 쓰인 한자어의 종류와 빈도가 가장 낮았고, 다른 국한 혼용문 번역본에는 없고 간이 선한문 번역본에만 있는 한자어의 숫자가 가장 적다. 또, 그 예의 대부분은 『新約全書 국한문』(1906)과 다른 한자를 써서 구분된 것이다. 아래 【표 3】은 게일 번역본 한자어를 중심으로 한글 성경에서의 대응어를 추출하여 정리한 일부이다.

【표 3】 게일 번역본 한자어와 역대 한글 번역 누가복음의 대응어

	0 11882(예수성교누)	1887(예수성교)	1890(누가복음전)	1895(누가복음)	1919(편역)
1 一一히	한나식	한나식	후나식	일일이	각각
2 一刻	한자	한자	훈자	일각	한 자
3 다 一齊히	못사람	못사람	못사롬	못사람	다
4 七十	칠십인	칠십인	칠십인	칠십인	칠십
5 七十人	칠십인	칠십인	칠십인	칠십인	칠십
6 丈母	당모	장모	장모	장모	장모
7 三十歲라	나히 삼십이니		0 나히 삼십이니	나히 삼십이니	삼십 년 잡수시논디
8 三年	삼년	삼년	삼년	세히	세히
9 三日	삼일		0 삼일	삼일	
10 三更	시간 표현 없음	시간 표현 없음	시간 표현 없음	시간 표현 없음	시간 표현 없음
11 上座	슈자	슈좌	슈좌	눅흔 자리	눅흔 것
12 下陸하ㅅㅅ	못테 ㄹ리니	못히 ㄹ리미	못히 ㄹ리매	짜흐로 ㄹ리시매	짜에 나가시미
13 不可不	모루미	부득불	부득불	모롬죽이	
14 不足흔 것	쓸 바는 한나이라		0 쓸 바는 후나이라	쓸 바는 후나히라	소용 잇논 거시 한아 썸 잇논지라
15 世上創造흔	창세써 오무로		0 창세써 음으로	기벽으로브터	세상 지으실 재브터
16 世世로		0	0 기리	영영이	길게
17 이 世代	이 세상		0 이 세상	지금 세상	이 세디
96 各種病人	병 잇넨 자	열어가지 병후논 자	여러가지 병후논 자	각식 병인	무숨 병 잇논 사롬
97 各處에	각 곳에	열어 곳에	여러 곳에		0 여러 곳에
98 습宜후심이니이다	깃버후넨 ㅅ니	감샤후노니	깃거후기논	도화후논지라	깃브신 줄 되심이니이다
99 습當흔	합당케		0 합당흔		0 유공홀
100 同伴	동무	동무	동모	동모	동모
101 同生	동싱	동싱	동싱	형	아오
102 同行中	능행후넨 자의 동예		0 동행 중예	동행 중예	무리 가온디

## V.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역대 국한 혼용문 번역 성경에서 한자어를 추출하여 한글 성경에서의 대응어를 찾아 해당 번역어들을 살피며 언어 표현에 반영된 시대적 혹은 번역자가 처한 문화적 특징을 파악해보려 하였다. 국한 혼용문 성경 중에서 가장 쉽게 씌어졌다는 간이 선한문 성경에 쓰인 한자어의 종류와 빈도가 가장 낮았는데도, 다른 국한 혼용문 번역본에는 없고 간이 선한문 번역본에만 있는 한자어가 있었다. 그 예의 대부분은 『新約全書 국한문』(1906)과 다른 한자를 표기한 예인데, 1906년 번역본은 한 명의 유학자가 번역한 것이기에 더 정확한 한자를 표기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근대 국어 시기의 다른 문헌들에서도 일상적인 구어 생활 속에서 음으로 익힌 한자어를 써 넣는 과정에서 오류 표기의 예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시대적 산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텍스트를 전산화하고, 프로그램을 사용하기도 하면서 정확한 통계를 산출하고 그 지표에 근거하여 객관적이고 신뢰도 높은 결과를 보이게 하였고 때로는 두 눈으로 한 줄 한 줄 꼼꼼하게 확인하며 대비해야 했다. 그러면서도 문헌적 객관성 확보와 학술적 중립성 유지에 엄격하고자 하였다.

국한 혼용문 성경은 한국어 번역 성경이 민중에 국한되지 않고, 지도층에게까지, 우리 민족의 각계각층에 전파되어 오늘날의 기독교 부흥에 이를 수 있게 한 간행물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이번 연구를 통해 로스 번역본에 한글로 표기된 한자어가 다른 한글 성경보다도 많다는 것을 밝힐 수 있었다.

15세기(1443년)부터 이미 우리는 우리 문자를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는 우리말과 우리글을 제대로 쓸 줄 몰랐고, 쓸 수 없었다. 우리만의 문자가 있으면서도 활용할 줄 몰랐던 우리에게 순한글문으로 성경을 번역하여 배포한 로스와 한국인 조사(助事) 및 권서인(勸書人)들은 우리 민족에게 제2의 독립투사와도 같은 존재들이다. 또, 로스 번역본에서만 확인되는 번역어가 중간에는 버려졌다가 현대어 번역을 할 때 다시 활용되는 예들도 살폈다.

대조를 통하여 방언사전에도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서북 방언의 여러 유형과 활용형을 로스본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고쥬구흐-’, ‘향가랍-’, ‘깃치-’, ‘것치-’, ‘제비흐-’ 등도 그 예이다. 또, 현대 국어의 ‘잇-’에 해당하는 ‘잇-/이시-’의 어형과 관련하여, 서북 방언에서는 ‘잇-’, 중앙어에서는 ‘잇스-’ 활용 형태만이 확인되는데, 이는 ‘잇-’, ‘이시-/잇스-’ 형태의 추이를 짐작해 볼 수 있고, 이는 국어사적으로 논증 자료이기도 하다.

한국어 번역 성경은 개화기 국어에서 현대 국어로 이어지는 국어사적 연구 자료로서 활용 가치가 큰데, 그 까닭은 고정된 원전의 내용이 있고, 집필자들의 보고서에 번역을 위해 참조한 저본과 번역 방법 및 과정이 기술되어 있고, 분명한 장절 대비가 가능하여 언어 변화 및 변천에 대한 영향 관계를 고찰하기에 적합한 문헌 자료이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단행본류>

그리스도교와 거래문화연구회 편, 『한글성서와 거래문화: 천주교와 개신교의 만남』 1집 (서울: 기독교문사, 1985).

\_\_\_\_\_, 『그리스도교와 거래문화: 개화기를 중심으로』 2집 (서울: 기독교문사, 1987).

\_\_\_\_\_, 『그리스도교와 거래문화: 개화기를 중심으로』 3집 (서울: 기독교문사, 1991).

김광해, 『고유어와 한자어의 대응 현상』 (서울: 탑출판사, 1992).

김봉희, 『한국 기독교 문서 간행사 연구』 (서울: 이화여대 출판부, 1987).

\_\_\_\_\_, 『개화기 번역서 연구 : 근대의 첫 경험』 (서울: 이화여대 출판부, 2006).

나채운, 『우리말 성경 연구』 (서울: 기독교문사, 1990).

류대영·육성득·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II : 번역·배포와 권서사업』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4).

리진호, 『한국성서 100년사 I, II』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6).

민영진, 『국역성서연구』 (서울: 성광문화사, 1984).

- 송강호, 『중국어 성경과 번역의 역사』 (서울: 도서출판 모리슨, 2007).
- 양주삼·정태응 편, 『閔休先生實記』 (서울: 대영성서공회, 1937).
- 옥성득·이만열 편역, 『대한성서공회사 자료집 제2권: 영국성서공회 한국지부 초대총무 켄뮤어 서신: 한국(상임실행)성서위원회 회의록(1900~1905)』 (서울: 대한성서공회, 2006).
- 이기문, 『개화기의 국문 연구』 (서울: 일조각, 1970).
- 이만열 외, 『대한성서공회사 I: 조직·성장과 수난』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3).
- 이병근 외, 『한국 근대 초기의 언어와 문학』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 \_\_\_\_\_, 『일제 식민지 시기 한국의 언어와 문학』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 이응호, 『개화기의 한글 운동사』 (서울: 성청사, 1975).
- 임상석, 『20세기 국한문체의 형성과정』 (서울: 지식산업사, 2008).
- 임형택 외, 『흔들리는 언어들: 언어의 근대와 국민 국가』 (서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8).
- 정길남, 『개화기 국역성서의 표기법과 문법형태』 (서울: 개문사, 1987).
- \_\_\_\_\_, 『19세기 성서의 우리말 연구』 (서울: 서광학술자료사, 1992).
- \_\_\_\_\_, 『개화기국어자료집성-성서문헌편 해제』 (서울: 박이정, 1995).
- 정선태 역, 코모리 요이치 저, 『일본어의 근대 : 근대 국민국가와 ‘국어’의 발견』 (서울: 소명출판, 2003).
- 한영제 편, “한국기독교 문서운동 100년”, 『한국기독교 사료전시 자료집』 2 (서울: 기독교문사, 1987).
- 洪允杓, 『國語史 文獻資料 研究 (近代篇 I)』 (태학사, 1993).
- 山本秀煌, 『日本基督敎會略史 前編』 (日本基督敎會大會事務所出版, 1911)..
- 海老沢有道, 『日本の聖書-聖書和譯の歴史<新訂増補版>』 (日本キリスト敎團出版局, 1981/2006).
- 小沢三郎, 『幕末明治耶蘇敎史研究』 (日本キリスト敎團出版局, 2006).
- 日本聖書協會, 『日本聖書協會 聖書圖書館 日本語聖書藏書目錄-1990年末現在』 (財團法人日本聖書協會, 1994).
- 丸山真男·加藤周一, 『翻譯と日本の近代』 (岩波書店, 1998).
- 村田雄二郎, C. 라마루, 『漢字圈の近代』 (東京大学出版会, 2005).

#### <논문류>

- 김남숙, “성서에서 본 한·일 외래어표기의 변화양상: 루카복음 중 한·일·중의 인명·지명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8:2 (한국번역학회, 2007).
- 김동언, “현대 국어 번역 문체 변천 연구 : 천로역정과 성경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47 (2003).
- 김영덕, “언해문체와 성서 번역체와의 관계연구”,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14 (1969).
- 민영진, “<예수성교전서>에 관한 한 고찰 : 대응어 선택에서 본 번역문의 성격”, 『한글역 성서 연구』 8 (1980).
- \_\_\_\_\_, “로스 역 누가복음서의 서지 사항과 번역의 성격”, 『성경원문연구』 2 (1998).
- 민현식, “개화기 국어사 자료에 대하여”, 『국어사 자료와 국어학의 연구』 (문학과지성사, 1993).
- \_\_\_\_\_, “개화기 국어 문체에 대한 종합적 연구 I”, 『국어교육』 83·84 (국어교육학회, 1994ㄱ).
- \_\_\_\_\_, “개화기 국어 문체에 대한 종합적 연구 II”, 『국어교육』 85 (국어교육학회, 1994ㄴ).
- \_\_\_\_\_, “한국어의 발달과 성서의 영향”, 『한글 성경이 한국 교회와 사회, 국어 문화에 끼친 영향 : 한글 성경 완역 및 출간 100주년 기념논문집』 (2011).
- 박창해, “로스 <예수성교전서>에 쓰인 한국어의 문법구조”, 『한글성서와 겨레문화』 (서울: 기독교문사, 1985).

- 서수량, “초기 한글 성경 <예수성교전서>의 중국어 대본 연구 :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한국성서대학교 기독교학과 선교학 석사논문, 2002).
- 서정욱, “첫 한글성서의 국어학적 특성 연구-로스 역 <누가복음>의 번역론적 고찰”, 『계명어문학』 2 (계명대학교, 1986).
- 서정욱, “신약 국역의 어휘의미론”, (서울대학교 대학원 언어학과 박사논문, 1991).
- 송 민, “19世紀 天主教資料의 國語學的 考察”, 『국어국문학』 72·73합집 (국어국문학회, 1973).
- 유경민, “國漢混用文 聖經의 定着 過程 : 『簡易鮮漢文 新約聖書』(1913/1936)를 중심으로”, 『국어사연구』 13 (2011 ㄱ).
- \_\_\_\_\_, “『新約全書 국한문』의 非漢字語化 要素 研究”, 『한국어의미학』 36 (2011 ㄴ).
- \_\_\_\_\_, “『新約全書 국한문』(1906)의 용언의 한자어화”, 『국어국문학』 162 (2012).
- \_\_\_\_\_, “『東國新續三綱行實圖』의 언해문의 방언 반사론에 대한 재검토”, 『어문학』 121 (2013).
- \_\_\_\_\_, “로스 번역본을 수정한 아펜젤러 『누가복음전』(1890)의 문법, 음운, 어휘 요소의 수정과 교체”, 『우리말연구』 36 (2014 ㄱ).
- \_\_\_\_\_, “최초의 완역본 『신약전서』(1900/1904/1906)의 완성 과정에 대한 국어학적 연구”, 『한국어문학』 90 (2014 ㄴ).
- \_\_\_\_\_, “국한혼용문 성경과 현대 한국어 문체의 상관성”, 『반교어문연구』 38 (반교어문학회, 2014 ㄷ).
- \_\_\_\_\_, “제임스 게일의 국한혼용문 번역 성경(1925)의 문체 연구”, 『국어국문학』 173 (국어국문학회, 2015 ㄱ).
- \_\_\_\_\_, “한국어 번역 성경의 문장 구조 및 어휘 연구”, 『국어사연구』 24 (2015 ㄴ).
- 이응호, “최초의 한글성경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 『국어교육』 44·45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83 ㄱ).
- \_\_\_\_\_, “한글 번역 성경에 대하여”, 『한힌샘 연구』 3 (1990).
- 이장호, “우리말 성경과 중국어 성경에 사용된 한자어의 비교 연구”, 『삼육대학교 논문집』 27 (삼육대학교, 1995).
- 이환진, “한글성서 1887-1993”, 『세계의 신학』 24 (1994).
- 전무용, “『新約全書국한문』(1906)의 본문 계보 관계 연구”, 『성경원문연구』 10 (2002).
- \_\_\_\_\_,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간이국한문』의 한자어”, 『성경원문연구』 17 (2005).
- 전혜영, “한글성서 번역에 나타난 호칭어”, 『성서원문연구』 13 (2003).
- 정규훈, “한글성경번역에 있어 한자어 개념 검토”, 『총신대논총』 26 (2006).
- 조태희, “초기 개신교의 성서 국역에 대한 연구: Ross Version과 이수정 역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84).
- 한영균, “현대 국한 혼용 문체의 정착과 어휘의 변화”, 『국어학』 51 (국어학회, 2008).
- \_\_\_\_\_, “문체 현대성 판별의 어휘적 준거와 그 변화”, 『구결연구』 23 (구결학회, 2009).
- 히로 다카시, “李樹廷譯 『마가전』의 底本과 翻譯文의 性格”, 『국어사연구』 4 (국어사학회, 2004).

<성경류>

가. 한국어본<sup>43)</sup>

『新約全書 국한문』 (1906), 미국성서공회(2종), 연세대학교 소장(2종), 한국 교회사문헌연구원 편

43) 한국어 번역 성경 중 대표적인 것들은 한국 교회사문헌연구원 편(2002)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 나열한 것들은 계획서에 언급된 것들 중에서 한국 교회사문헌연구원 편(2002)에 누락되었거나, 동일 판본이지만 간행 연대가 다른 것 중에서 필자가 직접 확인하고 수집한 것들을 중심으로 제시한 것이다.

(2002) 수록.

『簡易 鮮漢文 新約聖書』(1913/1936), 대영성서공회, 대한성서공회 소장.

『新約全書 국한문』(1921), 대영성서공회, 연세대학교 소장(서울 인쇄본), 『開化期 國語資料集成 성서문헌편』 10 (요코하마 인쇄본).

『簡易 鮮漢文 新約』(1935), 대영성서공회, 대한성서공회 소장, 한국 교회사문헌연구원 편(2002) 수록.

『簡易 國漢文 新約』(1935/1948), 대영성서공회, 대한성서공회 소장.

#### 나. 웹 사이트

대한성서공회([www.bskorea.or.kr](http://www.bskorea.or.kr))

온라인 성경 원문 사이트([www.bible4u.pe.kr](http://www.bible4u.pe.kr))

([www.biblegateway.com/versions](http://www.biblegateway.com/versions))

일본국회도서관 명치기 자료 라이브러리([kindai.ndl.go.jp/index.html](http://kindai.ndl.go.jp/index.html))

중국어본 성경 사이트([bible.fhl.net/ob](http://bible.fhl.net/ob))

호주국립도서관([www.nla.gov.au](http://www.nla.gov.au))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 원전 검색([study.calvinseminary.edu/?verse=Eccl.8.1](http://study.calvinseminary.edu/?verse=Eccl.8.1))

다국어 인터넷 성경 검색([www.holybible.or.kr](http://www.holybible.or.kr))

국립국어원 외래어 표기법 용례([www.korean.go.kr/front/foreignSpell/foreignSpellList.do?mn\\_id=96](http://www.korean.go.kr/front/foreignSpell/foreignSpellList.do?mn_id=96))

국립국어원 외래어 표기법 규정

([www.korean.go.kr/front/page/pageView.do?page\\_id=P000104&mn\\_id=97](http://www.korean.go.kr/front/page/pageView.do?page_id=P000104&mn_id=97))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stdweb2.korean.go.kr/main.jsp](http://stdweb2.korean.go.kr/main.jsp))

영어성경 검색 사이트([biblehub.com/erv](http://biblehub.com/erv))

#### <사전류>

김민수 편, 『우리말 語源辭典』(서울: 태학사, 1997).

金履浹 편저, 『平北方言辭典』(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南廣祐, 『教學古語辭典』(서울: 敎學社, 1997).

류형기 편, 『성서사전』(서울: 기독교 대한감리회 총리원, 1960).

문세영, 『우리말 辭典』(조선어사전간행회, 1938).

\_\_\_\_\_, 『수정증보 朝鮮語辭典』(조선어사전간행회, 1940).

박재연 주편, 『필사본고어대사전』, 1~7권 (선문대학교중한번역문헌연구소, 서울: 학고방, 2010).

백문식, 『우리말의 뿌리를 찾아서 : 한국어 어원사전』(서울: 삼광출판사, 2006).

서정범, 『국어 어원사전』(서울: 보고사, 2000).

劉昌惇, 『李朝語辭典』(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64/1990).

장로교신학교 교사회 편, 『聖經辭典』(朝鮮耶蘇敎書會, 1927).

조선총독부, 『朝鮮語辭典』(조선총독부, 1920).

조영언, 『한국어 어원사전』(부산: 다솜출판사, 2004).

한글학회, 『우리말큰사전4 : 옛말이두』(서울: 어문각, 1991).

홍윤표 외, 『17세기 국어사전』(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Gale, James S., *A Korean-English dictionary* (韓英字典) (Yokohama: Kelly & Co., 1897).

\_\_\_\_\_, *A Korean-English dictionary* (韓英字典(2판)) (Yokohama : Fukuin Printing, 1911).

\_\_\_\_\_, *The Unabridged Korean-English Dictionary* (韓英大辭典)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1931).

- Hastings, James, *Dictionary of the Bible* (Edinburgh: T. & T. Clark, 1909).
- Jones, George H., *An English-Korean dictionary* (영한조던) (Tokyo, Japan : Kyo Bun Kwan, 1914).
- Scott, James, *English-Corean dictionary: being a vocabulary of Corean colloquial words in common use* (Corea : Church of England Mission Press, 1891).
- Ridel, Félix-Clair, *Dictionaire Coréen-Francais* (한불조던), 歷代 韓國 文法大系 ; 第2部 第6冊 (1880).
- Underwood, Horace G., *A Concise Dictionary of Korean Language* (한영·영한사전) (Kelly & Walsh LTD, 1890).
- 上海廣學會 編譯, 『聖經辭典 (*Dictionary of the Bible*)』, James Hastings 原著 (上海: 上海廣學會, 1916).

## 「역대 한국어 성경 번역문 대비를 통한 로스 번역의 언어·문화적 특징 연구」 토론문

민현식(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명예교수)

논문은 1장 서론, 2장 연구 방법 소개, 3장 한글 성경 로스본<sup>1)</sup>의 개역 이본간 어휘의 차이 비교(누가복음을 중심으로), 4장 로스본 한자어와 국한 혼용체 성경 한자어의 차이 비교(마가복음을 중심으로), 5장 결론으로 구성되었다. 논문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로스본1882(『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 로스본1887(『예수성교전서』), 아펜젤러 누가복음1890(『누가복음전』), 언더우드 누가복음1895, 펜윅 누가복음1919를 비교해 중국어 성서 원어가 고유어나 한자어로 수용되는 양상을 집중적으로 규명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로스는 평민층을 성서 독자층으로 하여, 그의 성서 번역 원칙(난해한 한자어보다는 쉬운 고유어로, 방언보다는 중앙어로, 대중에게 쉬운 한글로 번역함)<sup>2)</sup>에 따라 중앙어와 고유어 중심의 번역을 권장하였다(디희를 복음 → 큰 깃분 복음). 신명(神名)에서 ‘上帝, 天主’ 대신 고유어 ‘하나님(하느님, 하느님)’을 선택하였다. 로스의 중앙어, 고유어 지향 번역 정신은 로스본의 개역 과정에서도 드러난다(계란 → 알, 근체 → 니웃, 녀인 → 쫄).

셋째, 로스본1882, 로스본1883, 로스본1887로 개역하면서 짧은 기간에 번역어가 상당수 교체되는데 이는 서북 방언이라는 변방 지역어에서 점차 중앙어로의 교체를 보여 준다(갓티 → 갓치). 그러나 방언 특징이 강한 어미(-디, -디니), 한자어의 방언형(턴사, 디혜), 토박이 어휘(버버리, 망, 독구, 기굴, 오맘, 어드런, 이무)는 로스본1887에서 그대로 남아 로스본은 19세기 서북 방언을 보존한 국어 방언사의 귀중 자료로 남게 되었다.

1. 유가(儒家) 중심의 한문체와 국한 혼용체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천대받던 한글체가 복음의 옷을 입고 사회변혁의 도구가 되는데, 백성 계몽 통치용의 『삼강행실도언해』(1481)는 순한글체를 한문체 상단에 제시한 점에서 한문본 『삼강행실도』의 번역 과정은 성서 번역과정과 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성서 개역 과정과 불가 언해(간경도감 언해본)와 유가 언해(번역소학, 소학언해, 사서삼경언해), 시가류 언해(두시언해)의 번역 과정을 통시적으로 연계

1) 여기서 로스본은 1882년부터 1887년분까지 발간된 8종 성서와 87년 이후 90년대 중반까지 나온 개정본까지 집합적으로 가리킨다. 이만열·옥성득, 『대한성서공회사 1: 조직·성장과 수난』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3), 71, 72.

2) 로스본 성서의 번역 원칙에 대해서는 이만열·옥성득, 『대한성서공회사 1: 조직·성장과 수난』, 54-55 참고.

비교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발표자는 성서 번역본에 나타나는 **행실도류, 유가, 불가 언해류의 전통성과 그들과 구별되는 독창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2. 발표자는 <한글 성서 종합 DB>의 필요성을 일깨웠다. 발표자는 이미 주요 개역본을 개별적으로 구축해 <성경과 한국어>(2019), <한국어 성경의 변천: 마가복음>(2019)와 같은 연구 성과를 내었다. 국어사 연구에서도 자료의 영인화와 전산화는 중요한데 한국사 DB가 국사편찬위원회 등의 공공기관에서 구축해 활용되고 있는 것과 달리 국어사 자료는 <고전 한국어 종합 DB>가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유가 경전을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존경각(尊經閣)에서 구축하고 불가 경전은 동국대 역경원(譯經院)에서 구축하고(한글대장경 700책 발간으로 불교 대중화 추구) 있음을 비교할 때 <한글성서 종합 DB> 구축도 기독교 대학이나 대한성서공회를 통해 구축된다면 한글 성서 번역은 물론 국어사 연구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발표자의 경험에 비추어 <한글성서 종합 DB> 구축은 어떻게 함이 효과적인가?**

3-1. 로스본1882는 민중의 복음 접근성을 높이고자 가독성 높은 한글체로 번역하고, 기독교 전도 금지로 인해 중앙지역의 전도는 요원하므로 우선 지역적으로 친숙한 서북 지방 선교를 위해 서북 방언체로 번역하였고 계층적으로는 천대받던 남녀 평민, 공상층(工商層), 천민을 대상으로 보급해 결과적으로 평양 대부흥을 비롯한 한국 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씨앗은 로스본 성서 전파에서 뿌려져 “지역 방언을 통한 복음 전파의 본보기”가 되었다. 로스본은 서북 방언 연구의 보고(寶庫)인데 국어 방언사에서 로스본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방언 형태로는 로스본1882에서 처격이 {에}와 {여} 두 가지로 나타난다. 다음 예는 ‘여-에’가 한 문장에 다 등장하는 예로 ‘여’는 |모음계 단어 뒤에 온다: “말궁이여 누이문 직덤에 용납할 곳이 업스미라 그씨여 양치년 자 들어에 거혀여 밤에 그 물이를 덕키는데”(로스본82 녹2:7,8). ‘여’는 로스본1887, 로스본1890에서 점차 ‘에’로 바뀌어 중앙어화가 진행되었다.

이씨여 압페 나아와(로스본82 녹02:38)→ 당시여 압페 나아와(로스본83 녹2:38) →  
당시여 압페 나아와(로스본87 녹2:38) → 당시에 압희 나아와(로스본90 녹2:38)

3-2. 다음 사례는 ‘3.2.1.서북 방언형 및 고어형과 관련된 수정’에 들어갈 사례로 보기 어려울 것 같다. 이들은 현대에도 혼란을 주는 ‘-이/히’ 혼기 사례이기 때문이다.

- (1) ㄹ. 가이>가히(5), 경이>경히(1), 자세이>즈세히(2), 친이>친히(1)
- ㅁ. 갓가히>갓가이(2), 공연히>공연이(3), 그기히>그기이(2), 맛당히>맛당이(8), 사사로히>사사로이(1), 이상히>이상이(1)

3-3. 주체 높임법 ‘-시-’의 사용은 로스본에서 억제된 편이다. 로스본 개역본에서 점차 존



귀자 ‘하나님’과 ‘예수’께 적용되어 우리말다움을 회복하게 되었다. 초기에 주체 높임의 ‘-시-’가 불철저하였음은 높임법 문법이 낮은 로스의 영향이 큰 때문으로 볼 수 있는가?

3-4. 상대 높임법은 로스본에서 고전어(중세 국어)의 대표 화계(話階, speech level)인 하쇼셔체와 하라체 두 가지만으로 일관되게 도입되는데 이런 두 단계 화계는 오늘날 『개역개정』(1998)에서도 유지되고 있다. 반면에 『공동번역』(1977), 『표준새번역』(1993), 이를 개정한 『새번역』(2001)에서는 하십시오, 하오, 하계, 해라, 해요체의 화계가 도입되었다. 고전체에 익숙한 기성세대에게는 장중한 성경체이지만 현대어 화계에 익숙한 신세대들에게는 『개역개정』 성서 읽기가 어렵다. 번역의 전통과 다양성을 고려한다면 고전체와 현대체 성서를 독자의 선호에 맞추어 별도로 지속해야 할 것으로 본다. 로스본에서 시작한 고전체 화계(하쇼셔체-하라체)는 계속 보전할 필요가 있는지, 현대 화계로 수정해야 할 것인지?

3-5. ‘3.2.2. 한자어와 고유어의 대치’는 발표 논문에서 고유어와 한자어의 동의 경쟁에 따른 번역어 선택의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었다. 로스본1882-1895 개역 과정에서 치열한 고민을 한 사례가 풍부하다. 가령 로스본의 저본인 중국어 성서 『新約全書文理』(1852)의 누가복음에서 ‘職事’(눅1:23)는 다음의 변모를 보인다.

문리본52 눅1:23 職事日滿而歸

로스본82 직사의 날이 차미 집으로 돌아가니

로스본87 마즘에 과만이 차 집에 돌아가니

구역11 그 직분의 날이 다 되매 집에 도라가니라

개역38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개정98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위는 ‘職事’를 ‘직사’로 직역 차용하였다가 ‘과만’(瓜滿)<sup>3)</sup>으로 교체하고 이것도 갑오개혁 이래로 일본어 유입으로 일본식 한자어 ‘직분·직무’로 대체되어 간 과정을 보여 준다.

문리본52 눅2:41 每歲逾越節、其親詣耶路撒冷

로스본82 미년 유월절에 그 부모 예루사렘에 가더니

로스본87 미년 넘년절에 그 부모 예루살임에 나아가더니

구역1911 그 부모가 히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넴으로 가더니

개역1938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넴으로 가더니

개정1998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위에서 ‘미년→히마다→해마다’로의 개역은 고유어 지향을 보여 주지만 ‘유월절→넘년절/

3) 과만(瓜滿): ① 여자가 혼인할 나이가 다 됨. 또는 그 나이. ② 『역사』 벉술의 임기가 끝나는 시기를 이르던 말. 누가복음에서는 ②의 뜻.

넘는절→유월절’은 원문 한자어를 직접 차용 후 ‘넘는절’을 거쳐 다시 원어로 회귀한 예이다.

논찬자가 볼 때 중국어 성서(문리본 1852) 원문의 영향은 다음과 같은 분류가 가능하다.

[원문 한자어의 번역 유형]

- (1) 원문 한자어 직접 차용: 逾越節 → 유월절. 禧年 → 희년. 職事(日) → 직사(의 날)  
福音 → 복음. 當時 → 당시. 處女 → 처녀, 처녀. 降臨 → 강림, 강림
- (2) 한국 한자어 간접(대체) 차용: 聘 → 빙문, 덩혼, 약혼. 布 → 강보. 牧者 → 목인  
客舍 → 객담/객점. 天軍 → 천사. 讚美 → 송양(頌揚), 칭찬(稱讚).
- (3) 고유어 대체: 上帝 → 하나님/하느님. 嬰兒 → 열인아이, 어린아이, 아기.  
自由 → 노와, 當時 → 이찌, 그찌. 布 → 비, 뵈. 大喜 → 큰 기쁨.
- (4) 고유어 한자어 혼종어 대체: 逾越節 → 넘는절. 牧者 → 양치년 자.  
救主 → 구완하느 주. 注目視 → 눈을 부어 보넨디라. 殿頂 → 성던 꼭닥이
- (5) 외래어(외래혼종어) 대체: 安息日 → 사밧(Sabbath)일. 洗禮 → 밥뵈(Baptism)레

발표자의 고유어와 한자어 수용 양상을 이러한 유형으로 발전시킬 수 있으면 번역어 유형 연구에 큰 기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3-6. 로스본 성서가 로스1882, 1883, 1887로 개역 과정에서 변방 방언의 모습을 탈색하여 중앙어를 지향하고, 고유어 중심의 번역을 지향하였지만 무조건 한자어를 기피하지는 않았다. 고유어가 되레 한자어로 바뀐 것도 있다: 가마귀→아쵸(鴉鳥). 곱→비(培). 산변→산변(山邊). 맛자→장쵸(長者). 옛투→공급(供給)ㅎ-. 때로는 더 나은 압축 한자어를 쓰기도 하였다: 피ㅎ며 흥ㅎ게 ㅎ고→성쇠(盛衰)를 위ㅎ여. 이 경우는 그 후 개역본에서 도로 로스본 1882로 돌아가 오늘날 『개역개정』(1998)도 로스본1882 표현을 살렸다.

[눅 2:34] 로스본1882 피ㅎ며 흥ㅎ게 ㅎ고 → 로스본1887 성쇠를 위ㅎ여 → 『구역』(1911) 패ㅎ고 흥ㅎ게 ㅎ며 → 『개역』(1938)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 『개역개정』(1998)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3-7. 성서 개념어나 일반어에서 한자어의 간결성 때문에 중국어 성서 원문에서 직역 한자어를 대거 사용하였다: 희년(禧年). 할례(割禮). 회당(會堂). 성신(聖神). 응험(應驗). 뉴(類). 변박(辨駁). 기황(饑荒). 현성(顯聖). 덕인(適人). 던딩(殿頂) 등. 앞으로 한중일 한자어 영향 관계 연구에서는 원어의 파악과 목록화가 중요하므로 한중일 성서 어휘의 상호 영향은 어떻게 전망하는가?

3.8. (5)ㄱ에 나온 ‘간증ㅎ→간슈ㅎ(-→두-)’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눅 2:51 사례로 검증한다면 ‘간증ㅎ-’가 아니고 ‘간딕ㅎ-’가 맞을 것이다. 로스본, 『구역』(1911), 『개역』(1938)에서 ‘간딕ㅎ-’는 ‘간슈ㅎ-’, ‘마음에 두-’로 바뀌고, ‘간증ㅎ-’는 ‘증거ㅎ-, 증언ㅎ-’로 바뀌어 구별되기

때문이다. ‘간증’은 오늘날 쓰이지만 『개역개정』(1998)에서는 폐기하였다.

4-1. 4장에서는 로스본과 3종의 국한 혼용문 성서인 유성준(兪星濬)의 『新約全書 국한문』(1906), 게일의 『新譯 신구약전서』(1925), 『簡易鮮漢文 新約』(1935)의 마가복음에서 추출된 한자어가 한글 성서에서는 어떻게 번역되었는지를 연구하였다. 발표문 4.1.에는 마가복음, 4.2.에는 누가복음도 제시해 “마가복음을 중심으로”라는 부제목은 불필요해 보인다.

4-2. ‘4. 로스의 한글 성경과 국한 혼용문 성경의 대비: 마가복음을 중심으로’에서는 성서의 한자어 빈도를 조사하였다. 『新約全書국한문』(1906, 유성준) 성서가 한자어 877종으로 제일 많고 『簡易鮮漢文』 성서가 392종으로 제일 적고 공통 한자어는 293종이다. <성서 한자어 DB>를 구축한다면 교회 학교에서 성서 한자어 이해 교육 및 초등생 일반 어휘력 증진에도 유용하리라 본다. 한글 성서가 문맹퇴치에 기여하였듯이 성서 어휘 이해가 일반 어휘 교육에 도움되고 국민의 지력 향상에 기여한다는 구체적 근거는 무엇이 있는가?

4-3. 4장에서 제시한 한자어 목록과 한글 성서의 대비 자료는 DB의 중요성을 일깨운다. 중국어 원문 한자 표기를 기본으로 한 다음과 같은 원문 대비 DB를 구축하여 <(번역) 성서 어휘망>(가칭) DB가 구축된다면 국어사 특히 어휘사 연구에 유용할 것이다.

성구 장절	원문 (문리본) 1852	예수 성교 전서 1887	마가의전 훈복음서 연히 1887	공인역 <신약 전서> 1906	유성준 <新約全 書국한> 1906	게일본 <신구 약전서> 1925	<簡易 鮮漢文 新約> 1935	신약 전서 (구역) 1911	성경 개역 1938	성경전서 개역개정 1998
막 12:40	家資	집	가산	가산	家産	家産	家産	가산	가산	가산
눅 1:17	才能	능간 (能幹)	없음	권세	權勢	權勢	權勢	지능	능력	능력
눅 3:14	詐	거짓	간사	외식	奸邪	奸邪	奸邪	무소 (誣訴)	무소	거짓으로 고발하지
			(생				략)			

로스본 관련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을 되새겨 보며 논찬을 마치고자 한다.

(1) 국어학사적으로 로스의 한국어 학습서 *Corean Primer*(1877), *Korean Speech With Grammar And Vocabulary*(1882)에 이어 언더우드와 『한영문법』(1890), 『한영사전』(1890) 발간으로 이들의 조선과 조선어 사랑은 주시경과 제자들의 조선어학회를 거쳐 현대 국어학의 학문적 시원을 이루어 오늘의 한국어학이 발전하는 뿌리가 되었음을 길이 기억해야 할 것이다.

(2) 로스본 등 한글 성서 표기법은 국어 표기법의 규범화를 선도하였다. 로스본1882의 표기법은 매우 주목할 만한 특징이 있다. 19세기 국어에서 ‘ㆍ’와 ‘ㅏ’는 변별력이 사라졌고 표기법의 보수성 때문에 ‘ㅎ-’라든가, 이중 모음 ‘기, 니, 디...’ 등의 표기에 관습적으로 쓰였는데 로스본1882는 아래아 사용을 ‘ㅎ-’와 ‘이’ 표기(디기, 빅성, 유디왕, 잉티, 힝ㅎ고

등)에서만 쓴 점은 같으나, 중앙어에서 관습적으로 구별 표기하던 ‘를/를, 을/을, 는/는, 은/은’의 구별 표기, 관형형 어미 ‘는/는’의 구별 표기를 거부하고 ‘를/을, 은/는’으로 단일화한 현대식 표기를 보여 아래아 폐기의 선구적 시도를 하고 있다. 단어에서도 ㅂ로 쓰던 것을 ㅍ로 바꾸어(사릅→사람, 꺾티→갓티, 자세이→자세이, 장차→장차) 현실음을 반영한 실용적 표기법을 보여 준다. 오히려 로스본1883, 로스본1887로 가면서 중앙어의 보수적 표기 관습에 이끌려 아래아가 되살아나는 모습을 보여 주는데 이는 로스본1882가 보여 주는 진취적 태도를 퇴보시키는 것이다[그 체는(로스본1882)→그 처논(로스본1883, 1887)].

한문의 붙여쓰기 문화권을 답습하던 한글이 띄어쓰기에서 로스의 한국어 교재, 언더우드 의 한국어 교재에 한영 대역문 제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갑오개혁 이래로 문체 개혁이 시도되면서 기독교계가 주도한 독립협회의 독립신문 창간호(1896.4.7)부터 띄어쓰기를 실천하였고 1900년의 신약성서부터 어절형 띄어쓰기를 함으로써 한글 성서는 현대 정서법과 한글 전용 문체의 모범이 되었고 새문안 교인 최현배는 1930년대 한글 맞춤법의 대표 이론가로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 제정과 한글 운동을 선도하고 해방 후 문교부 교과서 편수 책임자가 되어 나라의 한글 전용 정책을 수립하였다.

(3) 로스본 성서의 발간은 한국판 종교개혁과 한국인의 읽기 및 글쓰기 개혁의 선구자 역할을 하였다. 이 종교개혁은 가톨릭을 개혁하는 루터, 칼빈의 종교개혁과 달리 조선의 여러 종교에 대한 범종교개혁의 성격을 띤다. 천대받던 한글은 복음 전파의 도구로 민족을 살리고 문맹퇴치로 읽기 및 글쓰기 개혁의 도구로 개인의 자유와 평등의 천부인권 의식을 자각케 하였다. 최현배(1962)<sup>4)</sup>에서 밝힌 대로 한글은 기독교를 살리고 기독교는 한글을 살렸다. 컴퓨터 시대를 맞아 한류의 날개를 타고 한글 시대는 활짝 열렸다. 21세기 4차 산업 혁명기 문명사에서 한글은 학문과 예술로 민족주의를 넘어 인류에게 무슨 기여를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전 세계 미전도 종족을 위해 한국인은 한글로, 성서로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되새겨야 할 때이다.

(4) 로스본1882 번역 보급에 참여한 조선 청년들의 복음의 열정을 되살려야 할 것이다. 예수님 시대에도 북방 나사렛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고(요 1:46) 천대받던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자라고 활동하셨는데 조선의 나사렛, 북방 의주에서 천대받던 서상륜·서경조·이응찬·백홍준 등 서북 청년들이 복음에 의주 토박이말의 옷을 입혀 복음의 빛을 비추기 시작하였다. 청년들은 복음 전파의 도구로 자신을 바쳤고 ‘소래교회’라는 자생 교회를 기지로 복음을 서울 지역까지 전파하였으며 새문안교회는 그 첫 결실이였다. 북방 선교의 선구자 로스와 조선 첫 청년 선교사 언더우드가 남북에서 사역하다 정동에서 만나 새문안교회를 창립하게 하신 하나님의 대서사(大敍事) 드라마와 섭리의 역사적 의미를 새문안교회와 한국 교회는 영원토록 되새기며 오늘의 성서 번역과 선교 사역에 되살려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4) 최현배, “기독교와 한글”, 「신학논단」 7 (1962), 51-76.

# 로스역 한글 성경의 보급과 현재 소장본에 대한 연구

박형신(남서울대학교 교수)

I. 머리말
II. 로스역 한글 성경의 보급
1. 누가 보급하였나?
2. 언제 보급되었나?
3. 보급량은 어떠한가?
4. 어디에 보급되었나?
III. 로스역 한글 성경의 현재 소장본(所藏本)
1.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1882년, 광서8년)
2. 『예수성교요안니복음전서』(1882년, 광서8년, 서북방언판)
3. 『예수성교요안니복음전서』(1882년, 광서8년, 서울방언판)
4. 『예수성교성서누가복음데자헝적』(1883년, 광서9년)
5. 『예수성교성서요안니복음』(1883년, 광서9년)
6. 『예수성교성서맛디복음』(1884년, 광서10년)
7. 『예수성교성서말코복음』(1884년 전반기, 광서10년)
8. 『예수성교성서말코복음』(1884년 후반기, 광서10년)
9. 『예수성교성서요안니복음이비쇼셔신』(1885년, 광서11년)
10. 『예수성교성서맛디복음』(1886년, 광서12년)
11. 『예수성교전서』(1887년, 광서13년)
12. 『예수성교성서맛디복음』(1892년, 광서18년)
IV. 맺음말

## I. 머리말

만주에서 번역된 ‘로스역(Ross’s Version) 한글 성경’은 1880년대와 1890년대에 만주의 한 인촌과 한반도에 보급되었고, 현재 국내외에 그 원본(原本)의 소장처들이 존재한다.<sup>1)</sup> 성경

1) 권서들이 성경을 판매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때로는 무료로 제공하기도 하므로, 영국성서공회의 한 권서시찰은 ‘판매’(sale)보다는 ‘보급’(circulation)이라는 단어를 선호했다. 영국성서공회가 1804년에 사업을 시작될 때에도 ‘circulation’이라는 단어를 애용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그러한 의미와 함께 일상에서 친숙한 ‘보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의 번역으로부터 소장에 이르기까지 선교적 열정, 목숨을 건 보급, 그리고 정성어린 보존이 있었고, 그러한 유산 속에서 오늘날의 기독교 신자와 연구자들, 그리고 대중들은 한글로 기록된 성경을 누리고 있다. 로스역 한글 성경이란 존 로스(Rev. John Ross) 목사의 주도 하에 존 매킨타이어(Rev. John Macintyre) 목사 및 한국인 번역자들이 만주의 영구(營口)와 심양(瀋陽) 등지에서 번역하고 심양의 문광서원에서 출판된 신약 단편 성경들과 신약전서의 모든 판본들을 일컫는 용어이다.<sup>2)</sup> 출판된 판본들은 전도자 및 성서공회에 고용된 권서(勸書, colporteurs) 등을 통해서 보급되었다. 로스역 한글 성경의 보급과 소장본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초기 한국 개신교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과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성도의 교제가 보인다.

## II. 로스역 한글 성경의 보급

로스역 한글 성경은 조선후기의 사회 변동 속에서 새로운 종교를 갈망하고 언문(諺文)을 사용하던 한국인들에게 영적 샘물이 되었다. 이 샘물을 퍼 나른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전도자요 권서였다. 김양선은 해방 후 로스역 한글 성경의 번역과 보급을 담당했던 전도인 및 권서에 관하여 연구를 수행한 첫 한국인이었다.<sup>3)</sup> 그는 대한성서공회가 발행하는 잡지 「성서한국」에 1955년 제1호부터 1960년 4월까지 총 20회에 걸쳐, “한국의 성서 번역사”를 연재하였는데, 그 가운데 6회(1956년 4월)부터 8회(같은 해 10월)까지는 백홍준의 복음서 보급, 로스의 서간도 한인촌 방문, 서상륜이 복음서를 한반도에 보급한 이야기, 제물포항을 통한 성경의 전달과 뮐렌도르프(Paul George von Möllendorf, 목인덕, 穆麟德)의 관련 문제 등에 대하여 묘사하였다.<sup>4)</sup> 이만열은 로스역 한글 성경의 번역·출판 및 보급에 대하여, 로스의

2) 이 글에서는 개별적으로 출판된 성경 각 권에 대한 용어를 ‘날권 성경’이나 ‘쪽복음’보다는 ‘단편 성경’으로 통일하기로 한다. 각각의 용어들이 특징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이 주제에 관하여 주요한 선행 연구라고 할 수 있는 『대한성서공회사』의 사용을 따르기로 한다. 이만열 외, 『대한성서공회사 I: 조직·성장과 수난』(서울: 대한성서공회, 1993), 76-105 등.

3) 해방 이전에 출판된 『閔休先生實記』는 영국성서공회의 창립 및 발전, 휴 밀러(Hugh Miller, 閔休)의 생애, 그리고 그의 시기에 행해진 성서공회의 활동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존 로스의 한글 성서 번역과 보급에 대하여는 소제목 “조선에 성서사업”(18-22쪽) 하에 간략히 다루고 있다. 양주삼·정태웅 편, 『閔休先生實記』(경성: 대영성서공회, 1937). 한편, 이른 시기의 글로서, 홍이섭(洪以燮)은 “그[로스]의 역서 신약 복쇄(譯書新約復刷)의 소식을 듣고,” 즉, 대한성서공회의 『예수성경전서』 복쇄본(1956) 발행에 맞추어, 존 로스를 “신약성서를 번역 간행하여 ... 한국 내로 잠입시킨 사람,” “조기(早期) 한국어 연구가” 그리고 “한국의 역사와 관습제도의 연구가”로서 신문지상에 소개하였다. 길지 않은 지면 하에, 성경번역 및 보급에 대해 많은 분량을 할애하지는 않았다. 홍이섭, “로스와 한글聖經(上),” 「조선일보」(1956. 8. 29) & “로스와 한글聖經(下),” 「조선일보」(1956.8.30).

4) 김양선이 “한국의 성서 번역사”에서, 1882년 『예수성경누가복음전서』와 『예수성경요안나복음전서』가 인쇄된 직후에 서간도의 한인들에게 파송된 사람이 백홍준이며 또한 1884년 겨울에 로스 목사를 동반하여 서간도 한인촌에 방문했던 사람이 매킨타이어라고 서술한 점은 정확하지 않다. 나아가, 이 연재 글에서 서술 내용의 출처를 각주로 밝히지 않은 점 역시 학문적으로는 아쉬움을 남긴다. 하지만, 1950년대라는 이른 시기에 미국 선교의 영향력을 탈피하여 한국 기독교의 중국과의 관련성 및 스코틀랜드 선교사의 영향력을 인지하고 성경 번역과 보급이라는 주제에 관하여 주체적인 시각을 동원하여 20회 연재 글을 저술했다는 것은 한국 교회와 기독교 역사학계를 위한 큰 공헌이었다. 이 연재 글은 김양선, 『한국의 성서 번역사』(서울: 한국 교회사문헌연구원, 1988)로 묶여 출판되었다. 김양선의 논문 “Ross Version과 한국 Protestantism”, 『백산학보』 3 (1967. 11), 141-161은 이 분야 연구에서 선구적인

서신과 글들, 영국성서공회(British and Foreign Bible Society) 연례 보고서 등의 일차 자료를 섭렵하고, 그것을 학문적인 방법을 따라 서술하여 이 소재와 주제를 학문적으로 굳건한 반열에 올려놓았다. 그의 글 “1880년대 서간도 한인촌 기독교공동체 연구”(1991), 『대한성서공회사 I』(1993)과 『대한성서공회사 II』(1994) 가운데 그가 서술한 부분, “로스의 한글성경 번역과 한국인”(1998) 등은 로스역 한글 성경의 이해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sup>5)</sup> 그 외에도 이덕주·최성일·옥성득 등이 이 분야의 연구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sup>6)</sup>

## 1. 누가 보급하였나?

한글 성경의 번역을 주도했던 로스는, 외국 종교 서적을 금했던 조선 후기의 정부 정책 속에서, 만주의 한인촌 외에는 한반도에 성경을 들고 직접 들어가기는 어려웠다.<sup>7)</sup> 로스역 한글 성경을 만주와 국내에 보급한 이들은 6가지 부류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초창기에 영국성서공회와 관련 없이 로스에게 직접 파송을 받았던 전도자 또는 개종자들로 당시 영국성서공회의 공식적인 ‘권서’(colporteurs)로는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다.<sup>8)</sup> 만주 서간도 한인촌으로 갔던 김청송(金靑松), 의주로 갔던 백홍준(白鴻俊) 등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sup>9)</sup> 둘째, 영국성서공회의 북중국지부, 그 중에서도 ‘만주(Manchuria)’를 담당하는 권서시찰

---

논문으로 필수적이고 다양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김양선 이전의 시기, 즉 해방 이전에 수행된 바, 선교사들이 주도했던 로스역 성경에 관한 연구들의 목록은, 이덕주, “초기 한글성서 번역에 관한 연구”, 그리스도교와겨레문화연구회 편, 『한글성서와 겨레문화』 (서울: 기독교문사, 1985), 410-411을 참조하라.

- 5) 이만열, “1880년대 서간도 한인촌 기독교공동체 연구”, 『한국기독교와 민족의식 - 한국기독교사연구논고-』 (서울: 지식산업사, 1991), 35-59; 이만열, “로스의 한글성경 번역과 한국인”, 『한국기독교수용사연구』 (서울: 두레시대, 1998), 46-94; 이만열 외, 『대한성서공회사 I: 조직·성장과 수난』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3); 류대영·옥성득·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II: 번역·반포와 권서사업』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4.
- 6) 이덕주는 번역·출판·보급에 참여한 한국인들에 관한 연구들을 수행하였다. 이덕주, “초기 한글성서 번역에 관한 연구”, 409-505; 이덕주, 『초기 한국 기독교사 연구』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5). 최성일은 그의 박사 학위 논문과 이어진 연구들을 통하여 한글 성경의 번역과 보급을 통한 신앙공동체 형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Sung Il Choi (최성일), “John Ross and the Korean Protestant Church: The First Korean Bible and Its Relation to the Protestant Origins in Korea”, (Ph.D. Diss., University of Edinburgh, 1992); 최성일, “존 로스와 한국 개신교 (II)”, 『기독교사상』 36:2 (1992. 2.), 87-101; 최성일, “로스역본이 한국 교회에 끼친 영향”, 『장로교회와 신학』 10 (2013), 92-112. 옥성득이 이만열과 함께 편찬한 『대한성서공회사 자료집 제1권: 로스서신과 루미스 서신』은 로스가 한글 성경의 번역·출판 및 보급을 위하여 스코틀랜드성서공회 및 영국성서공회 등과 왕래한 서신들을 입수·번역한 것으로서 이 분야 연구에 있어서 필수적인 일차 자료이다. 옥성득·이만열 편역, 『대한성서공회사 자료집 제1권: 로스 서신과 루미스 서신』 (서울: 대한성서공회, 2004).
- 7) 로스가 1887년에 서울을 방문한 적이 있지만, 주요 목적은 성경의 보급이 아니라 국내 선교사들의 성경 번역을 자문하고, 자신의 추가적 성경 번역을 위하여 협의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 1880년대와 1890년대 초, 그는 자신을 파송한 연합장로교회의 해외선교부에 한국 선교를 고려해 줄 것을 수차례 건의하였으나, 선교부는 만주에의 집중 및 미국 선교사들의 한반도 입국 등의 이유로 거절하였다.
- 8) 영국성서공회의 1884년 보고서는 로스역 성경의 일부가 자발적 전도자들을 통해서 보급되어 왔음을 확인해주고 있다. “이들 중 일부가 개인의 사역자들(by means of private agency)을 통해서 보급되었다.” “Corea”, *The Report of the British and Foreign Bible Society* (1884), 24. 로스 자신도 1882년의 편지에서 이러한 경우들을 묘사하였다. “저는 그 책들을 기쁘게 가지고 가려는 한국인 개종자들이나 친구들을 통해 수백 권을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저는 그 운반비로 돈을 지불하지 않았으나, 팔거나 혹은 친구들에게 원하는 대로 그냥 주어도 좋다고 허락했습니다.” “J. Ross to W. Wright, Oct. 9, 1882”, 옥성득·이만열 편역, 『대한성서공회사 자료집 제1권』, 58-59.

(superintendent colporteur)의 직접적 감독을 받는 권서들이다.<sup>10)</sup> 만주 지역 권서시찰로 임명된 이들은 하몬(F. Harmon)과 그의 후임 터리(Robert. T. Turley)인데, 그들은 만주에 상주하면서 중국인과 만주인들의 보급 상황뿐만 아니라, 한국과 만주에서 활동하는 한인 권서들을 감독하고 그 보급량을 공회에 보고하였다.<sup>11)</sup> 이 경우에 해당하는 한인 권서로는, 평양과 평안도 등지에서 활동하였던 류춘천·이영호·이이 등이 있다. 셋째, 만주 지역 권서시찰이 로스 또는 다른 선교사들에게 감독을 위탁하는 권서가 있다. 만주에서 로스의 감독을 받으며 활동하던 “2명의 비전무권서(half-time)”가 이에 해당한다. 넷째, 위와 같이 영국성서공회의 관리하에 있지만 급여를 받지 않는 “자원권서(Native helpers (volun.))”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전무권서’도 ‘비전무권서’도 아니었고, 분류상 “현지인 권서(Native Colporteurs)”에 포함되지도 않았다.<sup>12)</sup> 주목할 것은, 이들 ‘자원권서’들에 의한 보급량이 결코 적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1887-1888년의 경우, 그들의 보급 총량이 1,931권이었던 데 반해, 다른 권서들의 총 보급량은 2,506권이었던 것이다. 다섯째, 한국 내 선교사들에 의해서 고용되고 그들의 감독을 받으며, 영국성서공회로부터 공급된 성경을 보급하는 권서들이다. 예를 들면, 1890년 보고서, 즉 1889-1890년 기간에 활동하였던 서울 지역 6명의 권서들이 그런 경우이다.<sup>13)</sup> 여섯째, 부산을 중심으로 한국의 남부 지방에서 활동한 스코틀랜드성서공회 일본 지부의 유급 권서들로서, 나가사키 등이 있다.

## 2. 언제 보급되었나?

로스역 한글 성경의 보급은 1882년 봄에 시작되었으며, 이 시기는 첫 단편 성경인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1882)의 인쇄에 참여한 식자공 김청송이 로스의 파송을 받아 서간도의 한인촌에서 성경 보급 활동을 시작한 때이다. 보급이 종결된 시기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한국 내에서는 최소한 1890년대 전반기까지는, 그리고 만주에서는 1895년을 넘어 1900년 정도까지는 실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1890년대 중반은, 심양의 문광서원에서 진행되는 로스역의 재인쇄 또는 수정본 인쇄에 대하여 대한성서공회 관계자들의 논쟁이 있었고, 추가적인 성경 번역과 출판 작업은 사실상 중지되어 가고 있었다. 한국 내에서 더 이상 로스역에 의

9) 김청송을 포함하여, 성경을 보급했던 초기 전도자들의 무보수, 자발성에 대하여는 류대영·옥성득·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II』, 330을 보라.

10) ‘Superintendent colporteurs’를 ‘권서시찰’로 번역하는 것은 이만열의 번역에서 가져왔다.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한다. 이 ‘권서시찰’ 역시 영국성서공회의 ‘colporteur’ 범주에 속하였다. 이만열, 『한국기독교와 민족의식-한국기독교사연구논고-』 (서울: 지식산업사, 1991), 139.

11) “Corea”, *Annual Report of the British and Foreign Bible Society* (London: Bible House, 1886), 261; “North China Agency”, *Annual Report of the British and Foreign Bible Society* (London: Bible House, 1887), 261-262; R. T. Turley, “Manchuria”, *The Bible Society Monthly Reporter* (Sep. 1887), 151.

12) 자원권서(native helpers)들은, 아래의 연구에 따르면, ‘助事’라는 직제가 굳어지기 이전에 선교사를 돕던 사역자들을 지칭한다. 권서 및 권서 제도에 대한 연구는 이만열과 『대한성서공회사』 저자들을 통하여 수행되었다. 이만열, “권서에 관한 연구”, 『한국기독교와 민족의식-한국기독교사연구논고-』, 109-200; 류대영·옥성득·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II: 번역·반포와 권서사업』은 제목이 시사하듯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권서의 활동에 할애하고 있다. 그 가운데, 영국성서공회(BFBS)가 고용한 권서들의 명단은 411-555를 보라. ‘비전무권서,’ ‘자원권서’ 등을 포함하여, 권서의 유형에 대하여는 『대한성서공회사 II』, 209-244와 이만열의 책, 114-116을 참조하라.

13) “Corea”, *Annual Report of the British and Foreign Bible Society* (1890), 239-415.



존하지 않고, 국내 선교사들이 번역한 단편 성경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주에 서만큼은 로스역 한글 성경의 보급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다. 일례로, 1894-1895년의 보급 상황을 보여주는 영국성서공회 연례 보고서의 도표를 보면, 만주의 한인촌에서 활동하는 “로스의 한국인들(Rev. J. Ross, D.D. Coreans)”이 “신약성경 216권, 단편성경 1,560권, 전체 1,776권을 판매”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sup>14)</sup> 적지 않은 보급량이었다. 아래에서 언급하겠지만, 1890년대 후반에 수행된 만주에서의 권서 활동이 교단의 해외선교부와 영국성서공회에 여전히 보고되고 있었다.

### 3. 보급량은 어떠한가?

‘로스역 한글 성경’의 보급량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권서 등의 보급인이나 보급 체계들을 파악한 후, 각각의 보급량을 합산하여 전체 보급량(colportage)을 얻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영국성서공회에서 공식적으로 권서들을 고용하기 이전 시기에, 로스는 김청송과 같은 ‘사적인 전도인들’(private agency)을 통하여 한글 단편 성경들을 보급하였다. 그러한 상황은, 보급량을 공식적으로 보고하는 체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러한 보급 활동에 대해서는 신뢰할 만한 통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영국성서공회에서 작성한 한국 및 한인촌에 관한 보급량 통계에도 큰 문제점이 존재한다. 바로 한문 성경 때문이다. 당시 성서공회에 고용된 한국인 권서들은 ‘성경전서’, ‘신약전서’ 및 ‘단편 성경’에 이르는 모든 형태의 한문 성경도 보급하고 있었으며, 영국성서공회의 보급량 통계는 언어별이 아닌 지역별 및 권서별 체계였다.<sup>15)</sup> 예를 들면, 대체로 1886년을 반영하는 1887년도 연례 보고서를 보면, “한글 및 중국어 성경(Corean and Chinese Books)” 판매량을 “성경전서 4, 신약성경 212, 단편성경 3,981, 전체 4197”로 분석하였고, “서상륜은 이 중에서 200권의 문리(Wenli)역 중국어 신약성경을 서울 등지에서” 배포했던 것으로 보고한다.<sup>16)</sup> 언급된 성경전서 4권이 중국어 성경이었음은 물론이고, 심지어 단편 성경 중에서도 중국어 성경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보급량을 중심으로 보급량을 파악하는 것은 자료의 부족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역(逆)으로 출판 측 통계에 근거하여 보급량을 간주하는 방식을 택하기로 한다.

출판(printed editions of the Scriptures) 측 통계는, 출판된 로스역 한글 성경의 보급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가정하에 보급량으로 간주할 만하다. 이 접근은 다시 ‘판본 합산 방식’과 ‘누적 출판량 조정 방식’의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14) “Colportage in China, 1894-1895”, *Annual Report of the British and Foreign Bible Society* (1895), 425.  
 15) 영국성서공회의 1892년 연례 보고서는 한국의 권서들이 상당량의 중국어 성경도 보급하고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준다. “한국에서 판매되는 성경전서는 중국어이며, 신약성경 320권 및 단편성경 3,560권도 중국어이다.” 이 해에 보급된 신약성경과 단편 성경 중에서 중국어 성경이 차지하는 비율은 1/3을 훨씬 넘는 것이었다. “Korea”, *Annual Report of the British and Foreign Bible Society* (1892), 249.  
 16) “Corea”, *Annual Report of the British and Foreign Bible Society* (London: Bible House, 1887), 272.

### 1) ‘판본 합산 방식’

‘판본 합산 방식’은, 1882년부터 1892년까지의 출판물이 확인된 한글 성경의 출판 부수에, 출판물이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출판이 매우 유력한 판본의 부수를 더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에 따르면, 출판량 또는 보급량은 67,000권으로 추산된다. 이 수치는 그 합산 방식 때문에 매우 보수적인 수치로 볼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국내외 소장처에 확인된 12종 판본의 출판 부수를 합산한 총 출판 부수는 59,000권이다. 이 판본들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의 III장에서 별도로 다루기로 한다. 다만, 각 판본별로 분석한 출판 부수는 다음과 같다. 참고로, 이 글에서는 국내에서 기획되고 출판된 ‘로스역 개정역본’은 제외하고, 만주 심양에서 로스에 의하여 출판된 한글 성경에 국한하기로 한다.<sup>17)</sup>

- ①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1882) 3,000부 ② 『예수성교요안니복음전서』(1882, 서북방언판) 2,000권 ③ 『예수성교요안니복음전서』(1882, 서울방언판) 1,000권 ④ 『예수성교성서요안니복음』(1883) 5,000부 ⑤ 『예수성교성서누가복음데자히적』(1883) 3,000부 ⑥ 『예수성교성서맛디복음』(1884) 5,000부 ⑦ 『예수성교성서말코복음』(1884, 전반기) 5,000부 ⑧ 『예수성교성서말코복음』(1884, 후반기) 5,000부(추정) ⑨ 『예수성교성서요안니복음이비쇼셔신』(1885) 10,000부 ⑩ 『예수성교성서맛디복음』(1886) 10,000부 ⑪ 『예수성교전서』(1887) 5,000부 ⑫ 『예수성교성서맛디복음』(1892) 5,000부.

둘째, 문헌상으로 판단해 볼 때 출판의 가능성이 유력한 판본들이 존재하는데, 이 출판 부수를 대략 8,000권으로 판단한다. 문헌에 남은 증거보다도 더 많은 단편 성경들이 출판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문헌상으로 보아 번역이 완료되었고 인쇄 대기 상태에 있다고 판단되는 2종만을 포함하였으므로, 매우 보수적인 수치임에 틀림이 없고, 이는 문제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앞으로, 출판물이 새롭게 발견되거나 문헌상의 분명한 증거가 드러나는 판본이 있을 경우, 이 유력한 판본의 출판량은 증가될 수 있다. 유력한 판본으로서, 1884년경에 <고린도전후서> 3,000부, <로마서> 5,000부가 출판되었을 가능성이 높다.<sup>18)</sup> 이렇게 하여, 출판물이 확인되는 부수 59,000과 출판이 유력한 부수 8,000을 더한 값이, 총 출판 부수이자 보급량으로 제시되는 67,000권이다.

17) 한국 내에서 출판되고 보급된 ‘로스역 개정 역본’, 즉 『누가복음전』(1890), 『보라달로마인서』(1890), 및 『요한복음전』(1891)은 이 보급량 산출에서 제외한다.

18) 1884년에 게재된 선교 보고서에 따르면, <고린도전후서>와 <로마서>는 번역이 끝나고 인쇄에 들어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반면에,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는 수정하고 있는 중이었다. John Ross, “Moukden”, *The United Presbyterian Missionary Record* (Oct. 1, 1884), 311. 로스가 1884년 3월에 영국 성서공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를 번역 중인 정황이 나온다. 이 글에서는, 번역이 완료된 <고린도전후서>와 <로마서>는 출판된 것으로 추정하는 명단에 포함시키고, 여전히 번역 중인 성경은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런던의 승인이 나지 않거나 논쟁이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J. Ross to W. Wright. March 10, 1884”, 옥성득·이만열 편역, 『대한성서공회사 자료집 제1권』, 96-97. 한편, 김양선은 “1885년에는 로마인서 코린도전후서(고린도전후서)와 가라타(갈라디아)서와 이비소(에베소)서가 간행되었으며”라고 구체적인 서명까지 서술하고 있어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도 출판되었을 가능성을 높여준다. 단, 출판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김양선, “Ross Version과 한국 Protestantism”, 『백산학보』 3 (1967), 435.

## 2) '누적 출판량 조정 방식'

출판 측 통계의 두 번째인 '누적 출판량 조정 방식'은 영국성서공회 연례 보고서의 부록에 나오는 '한글(Corean) 성경'의 누적 출판량을 일부 조정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이 누적 출판량 통계치의 문제점은, 1890년대의 경우에 그 수치 안에 이 글이 찾고 있는 '로스역 한글 성경' 판본들의 부수와 다른 군(群)의 한글 성경들의 출판 부수가 혼재한다는 것이다. 이 통계는 또한 출판된 성경들의 제목은 언급하지 않고, 단지 해당 언어로 된 누적 성경 인쇄량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혼재의 문제점을 통계 안에서 해결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보고서의 누적 통계치 자체는 상당히 안정적이며, 문제가 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역사적 지식을 활용함으로 순수한 로스역 한글 성경의 출판 부수에 대한 근사치는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아래에 제시한 【표 1】과 함께 '로스역 한글 성경'의 출판량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일단, 연례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는 1895년까지의 누적 출판 부수는 94,040권임을 확인해 두기로 한다.<sup>19)</sup> 필자는 이 부수에 크게 세 종류의 한글 성경 군(群)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첫째, 심양에서 출판된 '로스역 한글 성경'이다. 둘째, 한국 내 성서번역자회 등에서 번역하여 1890-1891년에 한국의 미이미교회인쇄소 등에서 출판한 '로스역 개정 역본'이다.<sup>20)</sup> 셋째, 역시 성서번역자회에서 번역하여 1892년에 미이미교회인쇄소에서 출판한 『마태 복음전』(1892)과 『수도행전』(1892)이다.<sup>21)</sup> 따라서, '로스역 한글 성경' 출판 부수만을 얻기 위해서는, 위의 94,040권에서 두 가지의 다른 요소를 제외해야 한다.

【표 1】 로스역 한글 성경 출판 부수 누적통계 (1887-1895년)

연례 보고서	신약성경	단편 성경	성경 전체	증가분	출처
1887(1886.4-1887.3)	0	47,000	47,000		1887(478)
1888(1887.4-1888.3)	5,000	62,040	67,040	신약성경: 5,000 단편 성경: 15,040	1888(560)
1889(1888.4-1889.3)	5,000	67,040	72,040.	단편 성경: 5,000	1889(470) 1889(474)
1890(1889.4-1890.3)	5,000	67,040	72,040	0	1890(466)
1891(1890.4-1891.3)	5,000	73,040	78,040	* 단편성경: 6,000	1891(503) 1891(507)
1892(1891.4-1892.3)	5,000	73,040	78,040	0	1892(413)
1893(1892.4-1893.3)	5,000	73,040	78,040	0	1893(443)
1894(1893.4-1894.3)	5,000	89,040	94,040	** 단편 성경:16,000	1894(447)
1895(1894.4-1895.3)	5,000	89,040	94,040	0	1895(487)

출처: 영국성서공회 연례 보고서(1887-1895)

19) 『대한성서공회사 I』에서는, 이와 비슷하지만 좀 더 간략한 도표를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이 책은 "1882년부터 1893년까지 출판된 로스역의 발행부수"에 대하여, 연례 보고서에 나타나는 누적 출판량 94,040부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데, 필자는 이 수치를 위에서 언급한 논리에 따라, 일정 부분 조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만열 외, 『대한성서공회사 I』, 76.

20) "한국어 성경 서지목록 I (1882-1945)"를 참조하였다. 류대영·옥성득·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II: 번역·반포와 권서사업』, 683.

21) 류대영·옥성득·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II: 번역·반포와 권서사업』, 684.

\* 1890년 로스역 개정 역본 『누가복음전』 3,000권, 『보라달로마인서』 3,000권으로 추정함.

\*\* 『예수성교성서맛디복음』 5,000권; 성서번역자회의 국내 번역본인 『마태복음전』(1892) 5,000권, 『스도헝전』(1892) 5,000권과, 1890년판 개정 역본의 재인쇄인 『누가복음전』(1893) 1,000권으로 추정함.

위 1891년 보고서의 증가분 ‘단편 성경 6,000권’은 로스역 개정 역본인 『누가복음전』 3,000권과 『보라달로마인서』 3,000권을 말하는 것으로 본다. 그 이듬해에 나온 펜윅과 서경조의 한한(韓漢) 병용본 『요한복음전』 3,000부는 1892년과 1893년에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연례 보고서 통계에서 누락된 것으로 판단했다. 그리고 1894년 보고서에서의 증가분 ‘단편 성경 16,000권’에는, 성서번역자회가 번역한 2종의 순수 국내 번역본인 『마태복음전』(1892) 5,000권과 『스도헝전』(1892) 5,000권(추정), 그리고 1890년에 나온 로스역 개정 역본 『누가복음전』의 재인쇄본 『누가복음전』(1893) 1,000권을 합산한 11,000권이 반영되어 있다고 판단했다.<sup>22)</sup> 여기에, ‘로스역 한글 성경’인 『예수성교성서맛디복음』(1892) 5,000권을 더하면, 총 16,000권이 된다. 이제, 중요한 수치로서, 이 통계에 포함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비(非) 로스역 한글 성경’의 총합은 ‘로스역 개정 역본’ 2종 6,000권, ‘국내 번역본’ 2종 10,000권, 및 ‘개정 역본의 재인쇄’ 1종 1,000권을 더한 수치인 17,000권이다. 최종적으로, 1895년 보고서가 보여주는 누적 통계치 94,040권에서 ‘비(非) 로스역 한글 성경’ 17,000권을 빼면, 77,040권이 남는데, 이 수치를 ‘로스역 한글 성경’의 출판량이자 보급량으로 볼 수 있다.

종합해보자면, ‘판본 합산 방식’으로 살펴본 출판 부수는 67,000권이고, ‘누적 출판량 조정 방식’을 따른다면 77,040권이다. ‘로스역 한글 성경’은 최소한 67,000권 이상이 보급되었으며, 향후 새로운 자료의 발굴에 따라 8만 권을 상회하는 보급량 정도가 보급량의 범주라고 생각한다.

#### 4. 어디에 보급되었나?

로스역 한글 성경이 보급되었던 대표적인 지역에 대하여 전도자 및 권서를 중심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각 지역을 대표하는 전도자 및 권서 중에도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기도 하였다. 성만 밝혀지거나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전도자와 권서들도 있다.<sup>23)</sup>

##### 1) 서간도의 한인촌 및 만주지역

만주의 서간도(西間島)는 압록강 이북 지역, 즉 백두산으로부터 시작하여 서남쪽의 단동(丹東) 방향으로 늘어선 백산(白山)·임강(臨江)·통화(通化)·집안(集安)·관전(寬甸), 또는 그 북쪽까지의 지역을 일컫는 지명이다.<sup>24)</sup> 이 지역에서 초기에 활동하였던 전도자는 김청송이며,

22) 로스역 개정역본 및 소위 순수 국내 역본의 출판 상황에 대해서는, 이만열 외, 『대한성서공회사 I』, 223-235를 참조하였다.

23) 이 부분의 서술은 성경이 보급된 지역과 보급인들에 대한 전수 조사가 아님을 밝혀 둔다.

24) 초기에는 만주 지역에서의 로스역 한글 성경 보급이 주로 서간도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로스가 감독하는 권서들의 활동 범위에 대한 영국성서공회 연례 보고서의 표현들에 따르면, 1890년도를 전후하여 북간도 지역까지도 확대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북간도의 구체적인 지역이 언급되지 않으므로, 이 논문에서는 만주의 보급 범위를 서간도로 판단한다.

‘이정근(추정)’ 등 이름이 분명히 알려지지 않은 ‘비전무권서(half-time)’들이 로스의 감독하에 활동하였다.

로스의 식자공이었던 김청송은, 1882년에 “수백 권의 단편 성경과 더 많은 양의 소책자들을 가지고 심양의 동쪽 직선거리로 약 4백 마일 떨어져 있는 자신의 고향마을”로 떠났으며, 6개월 이후에 돌아와 다시 “다른 마을”로 파송을 받았다.<sup>25)</sup> 그의 매우 긍정적인 보고와 임오군란의 여파로 망명한 사람들이 만주 한인촌에 정착하였다가 김청송의 전도를 받은 후 로스를 직접 찾아온 사건이 있어서, 로스는 1884년 겨울에 동료 제임스 웹스터(James Webster)와 함께 한인촌을 방문하게 되었다. 75명의 한국인에게 세례를 베푼 이 놀라운 방문을 마치고, 로스가 언급한 다음의 말은 전도인 김청송의 성경 보급 활동 범위를 시사한다. “우리와 동북쪽으로 400마일 거리에 있는 백두산(the long, white mountain) 사이에 놓여 있는 28개의 각 마을(28 valleys)에, 교회에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다소간의 신자들(believers)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거의 모든 것을 믿을 준비가 되어 있다.”<sup>26)</sup> 다시 말하면, 김청송은 자신이 초기에 방문했던 자신의 고향 마을뿐만 아니라, 서간도 지역에 속하는 다양한 마을들을 찾아다니며 적극적으로 성경 보급 활동을 하였던 것이다.<sup>27)</sup>

1882년과 같은 초기에는 로스가 직접 성경 보급을 관장하였지만, 점차 영국성서공회에서 권서시찰을 통하여 중국어 성경 및 로스역 한글 성경의 보급을 관리하였다. 『대한성서공회사 II』는, 1889년에 “2명의 비전무권서들”이 “만주 북동쪽과 장백산 북쪽에서” 2,000여 권의 신약전서와 단편 성경을 보급하고 있었음을 도표와 함께 보여 준다.<sup>28)</sup> 이들은 영국성서공회의 공식 권서들이었으며, 언급된 지역들은 서간도에서도 가장 먼 백산 등지를 말하는 것이다.

1890년 가을에 영국성서공회에 보낸 편지에서, 로스는 만주의 압록강 대안 한인촌에서 그의 전도자 또는 권서들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이로 인한 긍정적인 결과들을 알렸다.<sup>29)</sup> 또한, 1892년에는 동료 선교사 잉글리스(Ingليس)와 더불어 통화를 경유하여 한인촌을 방문할 때, ‘이씨(Li)’ 성을 가진 한인 권서가 그들을 영접하였으며, 그가 해당 지역에서 좋은 평판을 얻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sup>30)</sup> 한편, 1899년부터 1902년까지 만주 한인촌을 배

25) John Ross, “The Christian Dawn in Korea”, *The Missionary Review of the World* XIII 4 (Apr. 1890), 243. 김청송의 이름 표기는, 김양선이 1967년에 저술한 논문의 본문에서 ‘김청송(金靑松)’으로 등장하며, 이 논문은 그것을 따른다. 그러나 동일 논문의 각주 중에 *The Korea Mission Field*의 편집자가 한 석진 목사와 인터뷰한 내용 중에 이름이 이청송(‘Lee Chung Song’)으로 나오기도 한다. 김양선, “Ross Version과 한국 Protestantism,” 422·424·435-438.

26) John Ross, “The Christian Dawn in Korea”, 246. 이만열은 “1880년대 서간도 한인촌 기독교공동체 연구”라는 글에서, 1870년도에 평안북도에서 관리한 압록강 대안의 한인촌이 28개, 1889년에는 24개가 있었음을 밝혔다. 이만열, 『한국기독교와 민족의식 - 한국기독교사연구논고』, 37-38.

27) 김청송은 그 후에도 일정기간 다른 권서와 함께 활동을 하였으며, 로스는 그들의 활동으로 압록강 양안에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평가하였다. John Ross, “The Christian Dawn in Korea”, 246.

28) “BFBS 한국(한인촌) 반포내용(1883-1894),” 류대영·육성득·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II』, 209-211; “Corea,” *Annual Report of the British and Foreign Bible Society* (1890), 239.

29) “동부[한인촌] 계곡으로부터 귀하도 익히 아시는 내용과 비슷한 보고서를 방금 받았습니니다. 수천 부의 복음서와 소책자가 한국 북부 지방에 반포되었고, 압록강 양안으로부터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수천 명’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인촌에 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것이 유감천만입니다. 저의 모든 복음서 판본들은 바닥이 났습니다.” “J. Ross to W. Wright, Mookden, N. China, Nov. 4, 1890,” 육성득·이만열 편역, 『대한성서공회사 자료집 제1권』, 172-173.

30) “A Journey to the North-East: Part II”, *The Missionary Record of the United Presbyterian Church*

경으로 이씨(Li) 성을 가진 권서에 대한 언급이 수차례 출현한다. 예를 들면, 로스가 1899년에 교단 선교부에 보낸 보고 편지에 “Li, Corean colporteur”가 등장한다.<sup>31)</sup> 또한, 영국성서공회의 1899년 보고서 한인촌 제하에서는 “Li Ching-Ken”이라는 이름으로 “오래되고 신실한 한국인 권서”(our old and faithful worker)가 등장한다.<sup>32)</sup> 마지막으로, 로스가 1902년에 선교부에 보낸 보고 편지에서는, 만주 의화단 운동의 핍박을 겪은 후에, 한인촌에서 활동하던 “Li Cheng Gun”이라는 권서를 살아서 재회하는 기쁨을 표현하고 있다.<sup>33)</sup> 이 세 가지 문서에 나오는 권서들은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있는데, 아마도 1887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연례 보고서에 출현하는 “2명의 비전무권서” 중의 한 명일 수 있다.<sup>34)</sup> 물론, 두 명의 비전무권서가 모두 ‘이씨’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마지막 두 문서에 완전한 영어식 이름으로 표기되는 권서들을 동일 인물로 단정하고, 그의 한국어 이름을 당시의 웨이드-자일(Wade-Giles) 중국어 로마자 표기법을 고려하여 ‘이정근(李情根)’으로 제시해 본다.

## 2) 평양과 북부 지역

1879년에 “교리를 배우기 위하여” 스스로 영구의 존 매킨타이어를 찾아가 세례를 받았던 백홍준은 3~4개월간 그와 머무르며 성경 번역 일을 돕다가 자신의 고향인 의주로 돌아왔다.<sup>35)</sup> 전도자 백홍준의 한글 성경 보급 활동은 로스가 영국성서공회에 1883년에 보낸 다음의 편지로 입증된다. “작년에 방문한 한 한국인 수세자에게 저는 수십 권의 복음서와 다른 기독교 서적들을 보냈습니다.” 이 한국인 수세자는 백홍준으로 보인다.<sup>36)</sup> 김양선은 백홍준이 한글 성서를 국내에 유입하는 과정에서, “수차에 걸쳐서 다량의 한글 성서를 고지(古紙) 속에 넣어서 국경을 넘기는데 성공”했다고 서술하였다. 조선 정부 관료들이 중국 봉황성 남쪽의 책문(柵門)과 압록강 국경 등지에서 종교 서적의 유입을 감시하고 있던 상황에서, 성경을 기필코 국내에 보급하려는 백홍준의 열정을 볼 수 있다.<sup>37)</sup>

(Aug. 1, 1892), 290.

31) “The Word Growing Mightily”, *The Missionary Record of the United Presbyterian Church* (Oct. 2, 1899), 303.

32) “Korean Valley”, *Annual Report of the British and Foreign Bible Society* (1899), 254.

33) John Ross, “Manchuria: The Korean Sufferers., etc”, *The Missionary Record of the United Free Church of Scotland* (1902), 18-19.

34) 류대영·옥성득·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II』, 210; *Annual Report of the British and Foreign Bible Society* (1887), 435.

35) John Macintyre, “Mr Macintyre’s Report”, *The United Presbyterian Missionary Record* (July 1, 1880), 278. 해외선교부 회의록에 인용된 로스의 편지에 따르면, “그 한국인 설교자는 그의 출신 도시에서 기독교의 전망에 대하여 매우 낙관적으로 보고 있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세례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보고한다.” 연합장로교회(The United Presbyterian Church) 해외선교부(Foreign Mission Board) 회의록 “#3611 (Sept. 25, 1883)”, Dep.298 no.72 *United Presbyterian Church. Foreign Mission Board, 1883-1884*, 103. The National Library of Scotland, Edinburgh 소장. 박형신 편, 『The Rev. John Ross: A Primary Sourcebook 존 로스 선교사 자료집 I』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19), 333.

36) “J. Ross to W. Wright, June 11, 1883”, 옥성득·이만열 편역, 『대한성서공회사 자료집 제1권』, 78-79.

37) 이러한 성경의 유입은 『閑休先生實記』에서 보여주는 방식과도 동일하다. “그 때에 조선상인(朝鮮商人)들이 정기(定期)로 봉천(奉天)에 와서 관용(官用)의 고지(古紙)를 만히 무역(貿易)하야 인부(人夫)의 배부(背負)로 영거(領去)하는지라 인쇄(印刷)된 복음(福音)을 제본(製本)하지 않고 그 상인(商人)의 고지(古紙)와 동봉(同封)하면 검사(檢査)하는 관리(官吏)의 주목(注目)을 피(避)할가 하야 그 방책(方策)으로 선문(鮮文)의 성서(聖書)가 조선(朝鮮)에 시입(始入)케 되엿나니...” 양주삼·정태응 공편, 『閑休先生實記』, 20. 위의 인용 중, 한자에 대한 한글 병서와 띄어쓰기는 필자에 의함.

평양 지역에서는, 류춘천·이영호·이이 등이 한글 성경을 보급했다. 로스는 심양 문광서원에서 식자공으로 일하던 류춘천을 1883년 5월 22일에 평양으로 파송했다.<sup>38)</sup> 로스에게는 만주의 김청송에 이어 두 번째 권서였지만, 이 시절 아직 영국성서공회 소속 권서는 아니었다. 류춘천이 가지고 간 단편 성경은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1882) 237권과 『예수성교요안니복음전서』(1882) 700권이였다.<sup>39)</sup> 영국성서공회의 류춘천에 대한 언급은 1884년 연례 보고서에서 로스를 인용하면서 등장한다. 평양으로 파송되기 바로 전에 평양에 계신 건강이 좋지 않았던 어머니를 문안하고 돌아왔었는데, 불과 며칠 만에 그는 자신이 평양에 가서 “복음서 2박스를 판매”할 수 있도록 “스스로 특별한 요청”을 했다는 것이다. 그가 “두려움이 전혀 없었고, 그의 책들은 노상에서가 아닌 가정집과 여관에서 판매되었다”고 묘사되었다.<sup>40)</sup> 류춘천의 성경 보급을 위한 자발성과 시급성, 그리고 신앙적 결단까지 엿보이는 대목이다. 로스가 1883년 가을 잡지에 기고한 글에 의하면, 그의 성경 보급자들 중 2명이 영국성서공회의 권서로서 평안도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그 가운데 한 명은 류춘천이 유력하다.<sup>41)</sup> 한편, 연례 보고서의 통계에 따르면, 그와 또 다른 권서 이영호가 영국성서공회에서 일하기 시작한 해는 1885-1886년으로 나타난다. 1887년 보고서에 그들의 근무 이력이 나오는데, “Two Corean colporteurs. Corea. 2 Years of Service”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르면 1885년부터 일했던 것으로 읽힌다.<sup>42)</sup> 따라서, 1883년과 1885년 사이에 이들의 활동을 밝혀 줄 자료가 더 필요하다.

이영호는 류춘천과 함께 일한 전무권서로서 나타난다.<sup>43)</sup> 흥미로운 것은 그와 동료 류춘천의 보급량이 통계에서 완전히 동일한 수치, 즉 합산되어서 나타난다. 예를 들면. “류춘천(Lieu Chuin tien), 이영호(Li Yung). ... 성경전서 5, 신약전서 25, 단편성경 1593, 전체 1623”와 같은 식이다.<sup>44)</sup> 그런데, 이러한 경우는 중국의 다른 권서들에서도 보여지므로, 두 권서가 공동으로 활동하였음을 보여준다. 이영호는 한 선교사에 의해서 그의 담대한 믿음을 칭찬받을 정도였으며, “1893년까지 9년여 간 꾸준히 수천 권의 성경을 반포한 인물”이었다.<sup>45)</sup> 이영호와 함께 논의해야 할 또 한 명의 전무권서는 이이(Li Yih)이다. 1890년 연례 보고서는 류춘천의 사망 후에 “다른 한국인 형제가 그의 자리를 대체”하였다고 서술하였다.<sup>46)</sup> 1892년 보고서는 “서북지방에서 일하는 두 명은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확인해주고 있다. 이 해의 보급 통계표에는, 단 두 명의 한국의 전무권서가 표기되는데, “이영호, 이이(Li yung huo, Li

38) “J. Ross to W. Wright, June 11, 1883”, 옥성득·이만열 편역, 『대한성서공회사 자료집 제1권』, 78-79.

39) “J. Ross to W. Wright, June 11, 1883”, 옥성득·이만열 편역, 『대한성서공회사 자료집 제1권』, 78-79.

40) “Corea,” *Annual Report of the British and Foreign Bible Society* (1884), 250.

41) John Ross, “Corean New Testament”, *The Chinese Recorder and Missionary Journal* XIV (Nov-Dec. 1883), 496-497. 『대한성서공회사 II』 역시, “1883년 평양을 방문하여 성경을 배포한 후 정식권서로 채용”되었다고 서술한다. 류대영·옥성득·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II』, 211.

42) *Annual Report of the British and Foreign Bible Society* (1887), 435. 1889년 보고서에서는 4년으로 언급되어 이와 상응한다.

43) 연례 보고서에서 이영호의 온전한 영문 이름은 “Li Yung Ho”로 나타난다. *Annual Report of the British and Foreign Bible Society*(1889), 241.

44) “Colportage in North China, 1887-88”, *Annual Report of the British and Foreign Bible Society* (1888), 475.

45) 류대영·옥성득·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II』, 211-212.

46) “Corea”, *Annual Report of the British and Foreign Bible Society* (1890), 239.

yih)”이며, 그들의 보급량은 합산되어 나타난다.<sup>47)</sup> 이이(Li yih)의 근무 이력은 3년으로서, 1890~1891년 기간에 권서 활동을 시작하였음을 보여주므로, 류춘천의 사망 시점과 유사하다.<sup>48)</sup>

이 외에도, 평안도에서 로스역 한글 성경의 보급에 참여했을 것으로 보이는 권서들은 아펜젤러가 로스의 추천을 받아 1887년에 파송했던 “최씨”와 “장씨” 등이 있다.<sup>49)</sup> 또한, 강계 및 인근 지방에서, 전도 책자와 한글 성서의 보급을 통한 기독교 공동체 성립의 가능성이 있지만, 이 글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 3) 서울과 중부지역

서울과 소래 등 중부 지방에서 처음 권서 활동을 시작한 이는 서상륜이다. 그는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1882)를 비롯한 성경 번역에 참여했고, 1882년 초에 로스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같은 해 10월에 ‘영국성서공회 최초의 권서’로서 3개월간 고용되어 “500권의 복음서들과 동일한 양의 소책자”를 가지고 국내에 잠입해 의주 및 서울 등지에서 활동하였다.<sup>50)</sup> 공교롭게도, 그는 이후 수년 동안 매해마다 로스로부터 성경을 공급받게 된다. 이듬해 서울에 머무르던 그는 평양 권서 류춘천을 통해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1882) 100부와 『예수성교요안나복음전서』(1882) 300부를 전달받아 보급하였다.<sup>51)</sup> 1884년에는, 로스가 상당량의 성경을 제물포항을 통해 서상륜에게 보내게 되는데, 통관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상)』는 “봉천(奉天) 선교사 로스 요한이 상해성서공회에 위탁하여 선문(鮮文)으로 역간한 성경 6천여 본을 조선 경성 서저(徐邸)에 수송케 한 것이 인천해관에서 발각되야 압수하고 불측(不測)의 사(事)가 생(生)케 되였더니”라고 서술한다.<sup>52)</sup> 이만열은 이에 대하여, 성경 6천 권은 비현실적이라고 보았고, 서경조의 글 등을 인용하여 상자에는 『덕혜입문』과 같은 서적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았다.<sup>53)</sup> 어쨌든, 『사기』에 따르면, “독실(篤實)한 신자(信者)”인 밀렌도르프 부인의 도움으로 “서상(書箱)은 서저(徐邸)에 송치(送致)됨으로 서군은 은밀히 전도에 종사”하였다.<sup>54)</sup> 서상륜은 이 한글 성경을 서울 등지에서 보급하였던 것이다.

47) “Korea”, *Annual Report of the British and Foreign Bible Society* (1892), 249. 『대한성서공회사 II』의 부록 “BFBS 권서들의 명단”에서도 권서 이이에 대하여, “Yi Yih. 이이. 평안. R. T. Turley(감독). 1891-1893. [1891~1892](Yi Zi)”으로 실고 있다. 류대영·옥성득·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II』, 508.

48) 한편, 류춘천이 사망하던 해의 “Colportage in North China, 1889-1890” 통계에서, 이영호와 류춘천의 이름 밑에 “his brother Li-zi”라는 권서의 이름이 나오고 세 명의 보급량은 합산되어 나온다. 이 권서가 이이임에는 틀림없다. 아마도, 활동에 합류한 이이에 대하여 ‘이영호의 아들’(zi, 子) 정도로 표시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49) 헨리 G. 아펜젤러, 노종해 역, 『자유와 빛을 주소서』(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8), 79-80; 옥성득, “한국인 권서와 선교사들의 개척 전도여행,” 『기독교사상』 722 (2019. 2.), 161.

50) “J. Ross to W. Wright, Oct. 9, 1882”, 옥성득·이만열 편역, 『대한성서공회사 자료집 제1권』, 58-61.

51) “J. Ross to W. Wright, June 11, 1883”, 옥성득·이만열 편역, 『대한성서공회사 자료집 제1권』, 78-79. 로스가 1883년 가을 무렵에 서울에서 보급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은 다음의 기고글에서도 나타난다. John Ross, “Corean New Testament”, *The Chinese Recorder and Missionary Journal* XIV (Nov-Dec. 1883), 496-497.

52) 차재명,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상)』(재판)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5), 8.

53) 이만열, 『한국기독교와 민족의식』, 78-79.

54) 김양선은 “한국의 성서 번역사 (7)” 『성서한국』 2:3 (1956. 7.), 19-20]에서 이 사건을 소개하고 그 후속편에서 밀렌도르프와 한국기독교의 관계에 대하여 자세히 언급하였다. 김양선, 『한국의 성서 번역사』 (서울: 한국 교회사문헌연구원, 1988).



1885년에 로스가 영국성서공회에 보낸 편지에 따르면, 서상륜은 서울뿐만 아니라 “서울의 서쪽에 있는 도시(a city to the west of the Capital)”와 “남쪽에 있는 도시(a city to the South of the Capital)”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 도시 이름은 언급되지 않는다.<sup>55)</sup> 서울 서쪽의 경우는, 소래[松川]가 될 수도 있고 좀 더 가까운 곳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서상륜을 통하여 신앙의 격려를 받은 동생 서경조는 소래 지역에서 전도인으로서 한글 성경을 보급하였을 것이다.<sup>56)</sup> 또한, 앞서 언급되었듯이 서울의 선교사들이 고용한 “서울 권서들(6인)”은 “여러 도를 순회”하였으며, 1889~1890년 기간에만 “성경전서 39권, 신약전서 315권, 단편성경 1431권, 전체 1785권”을 판매한 것으로 기록되었다.<sup>57)</sup> 이 통계치에는 한문 성경과 한글 성경이 혼재하며, 그들이 활동한 지역을 특정할 수는 없다.

#### 4) 부산과 남부지역

로스역 한글 성경 첫 판본인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1882)와 『예수성교요안나복음전서』(1882)는 각각 3,000부씩 출판되었는데, 이 가운데 1,000부씩은 출판 비용의 상당 부분을 후원하였던 스코틀랜드성서공회(National Bible Society of Scotland)의 일본 지부에 제공되었다.<sup>58)</sup> 일본 지부의 톰슨(John A. Thomson) 총무는 1882년 7월에 도쿄의 보급소에서 일하던 나가사카(Nagasaka)를 선발하여 한글 성경뿐만 아니라 한문 성경 및 일본어 성경을 보급하기 위하여 부산으로 보냈다.<sup>59)</sup> 그는 7월 말부터 8월까지 부산과 원산에서 성경을 성공적으로 보급하였으며, 부산에서의 일을 일본인 고토(Koto)에게 맡기고 일본으로 돌아갔다.<sup>60)</sup> 1884년 4월에도 톰슨이 스가노(Sugano) 등과 함께 부산을 방문하여 성경 보급 활동을 펼쳤으나, 이 시기에 보급한 한글 성경은 로스역이 아니라, 이수정이 번역한 『신약마가전복음서언히』(1885)이었을 것이므로 여기에서 더 이상의 언급은 생략하기로 한다.<sup>61)</sup>

### Ⅲ. 로스역 한글 성경의 현재 소장본(所藏本)

Ⅲ장에서는 로스역 한글 성경 판본들의 국내외 소장 현황을 다루고자 한다. 전도인과 권서들을 통하여 만주와 한반도의 각처에 보급된 단편 성경들 및 『예수성교전서』(1887)는 7만

55) “J. Ross to W. Wright, March 8, 1885”, 옥성득·이만열 편역, 『대한성서공회사 자료집 제1권』, 98-99. 한편, 북중국 지부장 브라이언트(Bryant)가 1886년에 서울을 방문하였을 때, 서상륜과 협의하는 것을 주요 목적 중의 하나로 삼고 있었으므로, 최소한 그 당시까지는 서상륜이 영국성서공회의 권서로 일하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Corea”, *Annual Report of the British and Foreign Bible Society* (1887), 271-272.

56) 김양선은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서경조는 형의 권고로 송천에서 Ross Version의 한글 복음서들을 친우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하였는데, 1885년에는 20명의 개종자가 생겼다.” 김양선, “Ross Version과 한국 Protestantism,” 442.

57) “Corea”, *Annual Report of the British and Foreign Bible Society* (1890), 239-415.

58) John Ross, “Moukden”, *The United Presbyterian Missionary Record* (July 1, 1882), 243-244; “J. Ross to W. Wright, Moukden, June 6, 1882”, 옥성득·이만열 편역, 『대한성서공회사 자료집 제1권』, 38-41.

59) G. A. Frank Knight, *The History of the National Bible Society of Scotland: Part I. 1809-1900*, 278.

60) 이만열 외, 『대한성서공회사 I』, 101-102.

61) 이만열 외, 『대한성서공회사 I』, 104, 170.

권 이상에 달하지만, 현재 그 원본의 소장량은 매우 적고, 그 소장본과 소장처에 대하여는 종합적으로 보고된 바가 없다. 일부 소장본의 경우, 그 소장본의 상태가 열악하여 서지 사항과 내용의 확인이 모호하고, 결과적으로 소장본에 대한 공적인 기록이 부정확하고, 대중에게 잘못 알려지는 경우도 있다. 또한, 1882년 이후 로스역 한글 성경의 출판이 거듭되면서, 로스의 번역과 출판에 대한 철학이 달라지고 수많은 수정이 가해졌으므로 출판된 판본들의 세부사항은 매우 복잡하게 되었다. 같은 해, 심지어 같은 달에 출판된 두 가지 판본들도 존재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복잡한 판본들의 차이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할 때, 로스역 한글 성경에 대한 서술들은 난맥상을 보이게 된다. 그러므로 소장본에 대한 실사(實査)는 때때로 예기치 못했던 차이점과 동일성을 발견케 하고, 그 소장본의 상태가 증언하는 출판·보급 및 사용에 깃든 이야기도 들을 수 있다. 필자는, 국내에서 확인 가능한 모든 소장본을 찾아 판본을 구별하고, 원본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거나 영인본을 비교하였다. 해외 소장본에 대하여도 일부 정보를 제공하려고 한다. 로스역 한글 성경의 전체 목록과 개별 판본의 특성들을 파악하는 것은 로스역 한글 성경의 이해에 꼭 필요한 요소이다.

필자는, 2022년 2월 말 현재, 총 12종의 로스역 한글 성경이 국내와 해외에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sup>62)</sup> 이미 알려진 판본들을 정리함과 동시에, 알려지지 않았던 판본 및 소장본에 대하여도 발굴하여 소개하려고 한다. 지난 2016년 12월 15일자로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된 2종의 로스역 한글 성경,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1882, 대한성서공회 소장) 및 『예수성교전서』(1887, 연세대학교 도서관 소장)에 대한 이야기도 포함할 것이다.<sup>63)</sup>

## 1.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1882년, 광서8년)<sup>64)</sup>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는 로스역 한글 성경 가운데 첫 단편 성경으로서, 1882년 3월에 심양의 문광서원에서 3,000부가 출판되었다.<sup>65)</sup> 존 로스가 시작하였지만, 실제 번역은 존 매킨타이어(Rev. John Macintyre) 목사가 많은 부분을 담당하였으며, 서상륜·이응찬 등의 한국인들이 중국어 성경으로부터의 번역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매킨타이어의 의견을 따라, “완전히 서부 방언으로 인쇄”되었으며, 동일한 책 제목으로는 이후에 출판된 적이 없

62) 1998년에 로스역 판본들에 대하여 조사한 이만열은 로스역 판본들이 10종이 넘을 것으로 보았다. 그에 따르면, “NBSS 도서관에 소장 중인 책들을 직접 확인한 결과, 이상의 8종 외에도 1884년의 『예수성교성서말코복음』과 1886년(광서 12년)의 『예수성교성서맛디복음』이 각각 더 긴 행(行)의 조판 페이지(longer page)로 간행되어 있었다. 여기에 쿠랑(Courant)의 기록에 나타나는 2~3종의 목록까지 합한다면 로스역은 10종이 넘게 된다.” 이만열, 『한국기독교수용사연구』(서울: 두레시대, 1998), 78; 서지학자 강순애는 9종의 한글성서를 언급하였으나, 확인된 것은 그 수치를 훨씬 넘는다. 강순애, “한글성서 『예수성서요안나복음전서』 발굴본 (1882-1883년)에 관한 서지적 연구”, 『서지학연구』 44 (2009. 12.), 163.

63) 필자가 로스역 한글 성경 원본 및 영인본을 실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한 대한성서공회, 연세대학교 도서관 국학자료실,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64) 로스역 성경에서, 중국 연호는 ‘광세’와 ‘광서’로 표기되었다. 성경 제목 등에 대하여 이 논문은 최대한 당시의 표기를 따르지만, 괄호 안의 설명을 위한 연도 표기에서는 한국어 ‘광서제(光緒帝)’ 또는 연호 ‘광서’를 따라서 ‘광서’로 표기하고자 한다.

65) John Ross, “Corean New Testament”, *The Chinese Recorder and Missionary Journal* XIV (Nov-Dec. 1883), 496; “J. Ross to W. Wright, March 24, 1882”, 옥성득·이만열 편역, 『대한성서공회사 자료집 제 1권: 로스 서신과 루미스 서신』, 34-35.

다.<sup>66)</sup> 국내에서는, 대한성서공회(Korean Bible Society)가 2권을 소장하고 있다. 그 가운데 한 권은 영국성서공회(British and Foreign Bible Society/Bible Society)에서 1998년에 기증한 것이다.<sup>67)</sup> 다른 한 권은 스코틀랜드성서공회(National Bible Society of Scotland/Scottish Bible Society)에서 2003년 또는 그 이전에 기증하였다.<sup>68)</sup> 스코틀랜드성서공회가 기증한 것이 상태가 더 좋은 관계로, 2016년 12월 15일자로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다.<sup>69)</sup> 해외에서는, 미국성서공회(American Bible Society)에서 2권을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70)</sup> 이 외, 영국성서공회의 소장본들을 유지하고 있는 캠브리지대학교(University of Cambridge)에서도 1권을 소장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이 캠브리지대학교 소장본의 표지에는 다음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Gospel of S. Luke in Corean. Rev W. Wright, Secy Bible Socy London with complts of J R Newchang 24 Mch 82.”<sup>71)</sup> 이 문구는, 런던의 영국성서공회 편집부 총무 윌리엄 라이트(William Wright) 목사에게 만주 우장(牛莊)에 우편 주소지를 둔 존 로스가 1882년 3월 24일에 한글 <누가복음>을 기증하였음을 표시한다. 민영진은 1998년에 쓴 글에서, 스코틀랜드성서공회가 이 판본을 1권 소장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필자는 정황상 바로 이 소장본이 한국에 기증된 것이 아닐까 추측한다.<sup>72)</sup>

## 2. 『예수성교요안니복음전서』(1882년, 광서8년, 서북방언판)

이 판본은 1882년 5월에 문광서원에서 간행된 『예수성교요안니복음전서』 3,000권 중에서 매킨타이어의 주장을 따라 서북방언으로 인쇄된 2,000권을 말한다.<sup>73)</sup> 국내에서는 현재까지

- 
- 66) “J. Ross to W. Wright, Oct. 9, 1882”, 옥성득·이만열 편역, 『대한성서공회사 자료집 제1권』, 58-59.
- 67) 영국성서공회에서 1998년에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1882)를 기증한 이야기는 민영진 교수의 논문에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영국성서공회는 소장하고 있는 2권 중에서 상태가 더 좋은 본을 기증하였으며, 공회가 보관하고 있는 본의 마이크로필름 1개도 기증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한성서공회의 김호용 총무와 영국성서공회의 총무 닐 크로스비(Neil Crosbie) 총무가 교섭하였으며, 민영진이 현장에서 확인하고, 서원석이 공수하였다. 민영진, “로스 역 누가복음서의 서지 사항과 번역의 성격”, 『성경원문연구』 2호 (1998. 2.), 129-131을 보라.
- 68) 대한성서공회는 2003년에 출판한 영인본의 속표지에, “영국성서공회와 스코틀랜드성서공회로부터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 원본을 한 부씩 기증받아 이를 기념하기 위해 영인본을 출판”한다고 하여 스코틀랜드성서공회의 기증 사실도 밝혔다.
- 69) [https://search.cha.go.kr/srch\\_org/search/search\\_top.jsp](https://search.cha.go.kr/srch_org/search/search_top.jsp) 문화재청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예수聖敎 누가福音傳書)” 항목 참조.
- 70) 미국성서공회의 소장 상황에 대한 필자의 질의에 대하여, 미국성서공회에서 성경 컬렉션(Scripture Collection)의 책임자로 일하다가 2016년에 은퇴한 리아나 루파스 박사(Dr. Liana Lupas, Curatrix emerita)는 미국성서공회가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1882)을 소장하고 있음을 확인해주었다(2022년 2월 18일에 이메일 답변). 수량 2권의 표기는 민영진의 1998년 논문에 근거하였으므로, 현재 상황에 대하여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 71) 캠브리지대학교 도서관의 서지사항 참조. 로스는 1882년 3월 24일자로, 영국성서공회에 “완성된 누가복음 한 부를 동봉합니다.”라는 문구를 포함한 편지를 보냈다. “J. Ross to W. Wright, March 24, 1882”, 옥성득·이만열 편역, 『대한성서공회사 자료집 제1권: 로스 서신과 루미스 서신』, 34-35 참조할 것.
- 72) 필자는 소장 상황과 관련하여 스코틀랜드성서공회(Scottish Bible Society)에 질의를 하였으며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 73) John Ross, “Corean New Testament”, *The Chinese Recorder and Missionary Journal* XIV (Nov-Dec. 1883), 496.

이 판본의 원본을 소장하고 있는 기관이나 개인이 알려진 바가 없다. 해외에서는 캠브리지 대학교와 미국성서공회에서 『예수성교요안니복음전서』 1882년 판본을 한 권씩 소장하고 있는데, 이들 역시 서북방언판인지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sup>74)</sup> 아래의 【표 2】에서는 임시로 이 해외의 소장본들을 서북방언판으로 분류하였다. 캠브리지대학교 소장본의 표지에는 다음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John’s Gospel in Corean. Rev Wm. Wright, Brit & For Bible Socy London with complts of J Ross Newchang 12th May 82.”<sup>75)</sup> 이는 위의 『예수성교요안니복음전서』(1882) 판본의 경우와 유사하게, 존 로스가 런던의 영국성서공회 [편집부] 총무 W. 라이트에게 만주 우장(牛莊)의 존 로스가 한글 <요한복음>을 1882년 5월 12일에 기증하였음을 표시한다.

### 3. 『예수성교요안니복음전서』(1882년, 광서8년, 서울방언판)

『예수성교요안니복음전서』(1882, 서울방언판)은 위의 ‘서북방언판’과 함께 1882년 5월에 문광서원에서 1,000부가 인쇄되었다. 이는 성경을 서울말로 번역하려는 로스의 의지를 보여주는 작품이다.<sup>76)</sup> 서울방언판은 서북방언판과 비교하여, 신명(神名) ‘하느님’ 대신에 ‘하나님’을 채택하였고, ‘하나님’ 단어의 앞쪽이 아닌 뒤쪽에 간자(間字)를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sup>77)</sup> 국내에서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이 판본 1권을 소장하고 있으며, 1999년에 미국성서공회가 기증한 것이다. 1990년대 초, 대한성서공회에서는 해외에 있는 고본 한글 성서를 모아 보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곧 추진되었다. 공회의 국장급 한 분이 미국성서공회에 직접 방문하여 『예수성교요안니복음전서』(1882, 서울방언판)를 기증받았다.<sup>78)</sup> 개인 소장본으로서는, 강순애 교수가 1권을 소장하고 있다. 2009년 11월 27일에 열린 <한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원 제10회 학술대회>와 동년 12월에 「서지학연구」에 기고한 논문 “한글성서 『예수성교요안니복음전서』 발굴본(1882-1883년)에 관한 서지적 연구”에서, 강 교수는 “인사동의 한 고서점에서 우연하게” 이 판본을 발견하였다고 그 경위를 밝혔다.<sup>79)</sup> 해외 소장본으로는, 위에서 한 차례 언급된 바와 같이 캠브리지대학교와 미국성서공회에 있는 판본이 서울방언판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후 실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74) 미국성서공회의 『예수성교요안니복음전서』(1882) 소장상황에 대하여는, 위의 『예수성교요안니복음전서』(1882)의 경우와 같이, 필자가 2022년 2월 18일에 미국성서공회로부터 받은 이메일 답변에 근거하였다.

75) 캠브리지대학교 도서관의 서지사항 참조함.

76) “J. Ross to W. Wright, Oct. 9, 1882”, 옥성득·이만열 편역, 『대한성서공회사 자료집 제1권』, 58-59.

77) “‘하나님’의 명칭의 경우, 1882년에 번역된 『예수성교요안니복음전서』에는 ‘하느님’으로 되어 있던 것이 1882-1883년본인 『예수성교요안니복음전서』에서 이미 ‘하나님’으로 바뀌었다. …1882년본과 1883년본은 각각 ‘하느님’과 ‘하나님’의 글자 앞에 간자가 나타나는데 발굴본인 1882-1883년본에는 ‘하나님’의 글자 뒤에 간자가 나타나고 있다. 1885년본과 1887년본에는 간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강순애, “한글성서 『예수성교요안니복음전서』 발굴본(1882-1883년)에 관한 서지적 연구,” 『서지학연구』 44 (2009. 12.), 177-178.

78) 이 내용은 필자가 대한성서공회 박진희 부총무와 2022년 2월 21일에 진행한 인터뷰에 근거하였다.

79) 강순애, “한글성서 『예수성교요안니복음전서』 발굴본(1882-1883년)에 관한 서지적 연구”, 161-192.

【표 2】 로스역 한글 성경의 소장본(所藏本) 현황(2022년 2월 말 현재)

발행일	제목	소장기관/개인	소장 역사 및 특기 사항	수량	
1	1882.3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	대한성서공회	• 영국성서공회 기증(1998년) • 국가등록문화재(2016년) • 스코틀랜드성서공회 기증(연도?)	1권
			캠브리지대학교		1권
			미국성서공회		2권 (추정)
2	1882.5	예수성교요안나복음전서 (서북방언판)	캠브리지대학교	• 서북방언판으로 임시 분류	1권
			미국성서공회	• 서북방언판으로 임시 분류	1권 (추정)
3	1882.5	예수성교요안나복음전서 (서울방언판)	대한성서공회	• 미국성서공회 기증(1999)	1권
			강순애 교수	• 인사동 고서점을 통해 입수	1권
4	1883.10	예수성교성서요안나복음	송실대학교 한 국기독교박물관	• 김양선 교수 기증(1967년)	1권
			캠브리지대학교		1권
			옥스포드대학교		1권
5	1883.10	예수성교성서누가복음 대자형적	송실대학교 한 국기독교박물관	• <누가복음>과 <대자형적> 이 분리되어 2권으로 소장됨 • 김양선 교수 기증(1967년)	1권
			미국성서공회		1권 (추정)
			캠브리지대학교		1권
			옥스포드대학교		1권
6	1884.3	예수성교성서맛디복음	심한보 선생	• 1991년 보수동 헌책방/ 박 의영 목사를 통해 입수 • 2014년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전시	1권
			캠브리지대학교		1권
			옥스포드대학교		1권
7	1884 전반기	예수성교성서말코복음	대한성서공회	• 호주성서공회 기증(2003년)	1권
			캠브리지대학교	• 전반기 판본으로 임시 분류	2권
			옥스포드대학교	• 전반기 판본으로 임시 분류	1권
8	1884 후반기	예수성교성서말코복음	대한성서공회	• 호주성서공회 기증(2015년)	1권
9	1885	예수성교성서요안나복음 이비쇼셔신	대한성서공회	• 호주성서공회 기증(2003년)	1권
			캠브리지대학교		1권
10	1886	예수성교성서맛디복음	캠브리지대학교		1권
11	1887	예수성교전서	연세대학교	• 국가등록문화재(2016년) • 백낙준 교수 기증(문화재본 아님)	4권
			대한성서공회		2권

	발행일	제목	소장기관/개인	소장 역사 및 특기 사항	수량
			송실대학교 한 국기독교박물관	• 김양선 교수 기증(1967년)	1권
			한신대학교		1권
			미국성서공회, 예일대학교, 외 다수 해외기관 (본문 언급)		
12	1892	예수성교성서맛디복음	송실대학교 한 국기독교박물관	• 김양선 교수 기증(1967년)	1권
			연세대학교	• 백낙준 교수 기증	1권

\* 이 현황은 확인된 것에 한하며, 국내 소장본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 4. 『예수성교성서누가복음데자힝적』(1883년, 광서9년)

이 판본은, 그 출판의 일부를 후원하였던 스코틀랜드의 아딩턴(Arthington)의 요청에 따라, <누가복음>과 <데자힝적>을 합본하여 문광서원에서 3,000부를 출판한 것이다.<sup>80)</sup> 국내에서, 이 판본이 온전한 형태로 보존된 소장본은 알려진 바 없다. 그러나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 박물관에서 한 부 소장하고 있는데, 합본을 다시 분리하여 『예수성교성서누가복음』과 『예수성교성서데자힝적』의 두 권으로 소장하고 있다. 김양선 교수가 1967년에 기증하였다.<sup>81)</sup> 한편, 박물관에서는 『예수성교성서누가복음』에 대하여 1882년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1883년으로 수정이 필요하다.<sup>82)</sup> 해외에서는, 미국성서공회·캠브리지대학교·옥스퍼드대학교에서 1권씩 소장하고 있다.<sup>83)</sup>

80) “누가복음만 반포하는 대신에 이 가장 중요한 역사 3,000부를 같은 저자가 쓴 우리 주님의 사역에 대한 설명인 누가복음과 한 권으로 인쇄, 합본하는 비용으로 기쁘게 지원하고 싶습니다.” “R. Arthington to W. Wright, Sept. 21, 1882”, 옥성득·이만열 편역, 『대한성서공회사 자료집 제1권』, 56-57; “그러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인쇄가 끝나면 이 둘을 합본하려고 합니다.” “J. Ross to W. Wright, Feb. 9, 1883”, 옥성득·이만열 편역, 『대한성서공회사 자료집 제1권』, 68-69.

81) 김양선은, 그의 논문에서 “필자는 Ross Version의 번역자의 한 사람인 백홍준의 외손자로서 대대로 전하여 내려오는 외조부의 수역본(手譯本) Ross Version 한글복음서들과 「예수성교전서」를 소장하고 있으며”라고 밝혔다. 그리고 논문의 뒤편에서는 그 소장본들의 이미지를 제공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그 이미지들 가운데 “Ross Version 누가복음 (1883)”과 “Ross Version 데자힝적 (1883)”은 원래 합본으로 출판된 것을 분리한 것으로서, 현재 송실대학교에서 소장하고 있는 상황과 일치한다. 논문에서 소개한 로스역 한글 성경들을 그가 직접 설립한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에 1967년에 기증한 것이다. 김양선, “Ross Version과 한국 Protestantism,” 404, 453-458을 참조하라.

82) 『예수성교성서누가복음』 소장본에 대하여 박물관에서 출판한 도록과 전시실의 명패는 1882년으로 표기하고 있다. 그러나 신명(神名)이 ‘하나님’으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1882년 초판일 수 없다. 이 소장본 외의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 1882년 판본은 동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지 않다.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서울: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2004), 261 및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 고문헌 목록』 (서울: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2005), 14을 참고하라.

83) 미국성서공회의 소장 상황에 대하여는, 위의 경우들과 같이 필자가 2022년 2월 18일에 미국성서공회로부터 받은 이메일 답변에 근거하였다.

## 5. 『예수성교성서요안니복음』(1883년, 광서9년)

이 판본은, 『예수성교성서요안니복음전서』(1882)를 개정하고, 제목도 수정하여 1883년 10월에 문광서원에서 5,000부를 출판한 것이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에서 한 권을 소장하고 있다. 필자는 박물관 학예팀의 도움을 받아 소장본에 대한 영인본을 조사하였다. 이 소장본은 현재 1882년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다음 세 가지의 이유로 1882년이나 1885년이 아닌 1883년 판본으로 고증된다. 첫째, 신명(神名)으로 ‘하느님’ 대신에 ‘하나님’을 채택하였다. 이것은 위의 1882년 ‘서울방언판’의 경우와 같으며 적어도 1882년 ‘서북방언판’이 아님을 말해준다.<sup>84)</sup> 둘째, 로스는 1882년에 출판한 두 가지 판본들에서 제7장 53절부터 제8장 11절까지의 이른바 ‘간음한 여인 이야기’ 성경 구절을 의도적으로 삭제하였지만, 1883년 판본부터는 영국성서공회의 요구로 이 구절을 다시 포함시킨 바 있다.<sup>85)</sup> 이 송실대학교본이 이 구절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1883년본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이다.<sup>86)</sup> 해당 성경구절의 보존 상태가 좋지 않지만, 다음 단어들이 확인이 된다. “각각집으로도라…오직 예수감남산에나가…잡피운바부인을…손가락으로써쌍을그으되…너의중에죄업슨자…”의 구절들은 해당 구절임에 틀림없다. 셋째, 1885년 판본과의 변별도 필요하다. 송실대학교 소장본은 표지가 상당히 훼손되었지만, 남은 흔적을 통해 『예수성교성서요안니복음이비쇼셔신』(1885) 판본이 아님이 확인된다.<sup>87)</sup> 결론적으로, 송실대학교 소장본은 『예수성교성서요안니복음』(1883)으로 판명된다.<sup>88)</sup> 해외에서는, 캠브리지대학교에서 이 판본 1권을 소장하고 있는데, 이는 앞서와 같이 영국성서공회의 소장본이다. 도서관의 서지 사항에 따르면, 이 소장본에는 “2nd edition”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는 1882년 5월에 출판된 두 가지 판본 3,000본을 초판이라고 볼 때 적절한 표현이고 또한 당시 로스 등의 인식이 그러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외, 옥스퍼드대학교에서도 1권을 소장하고 있다.

84) 이 소장본에서 신명 사용이 바뀐 점은 2016년에 행해진 문화재위원회 소속 익명의 연구위원의 조사에서도 관찰된 바 있다. 문화재청, “2016년도 등록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대전: 문화재청, 2017), 168.

85) 이 판본에서의 ‘간음한 여인 이야기’ 삭제에 대하여는, 이만열이 “로스의 한글성경 번역과 한국인,” 『한국기독교사연구』, 75에서 관찰한 바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상세한 연구에 대하여는 졸고, “존 로스 번역본 『예수성교성서요안니복음전서』 초판(1882)의 ‘간음한 여인 이야기’(요7:53-8:11) 삭제 문제.” 『한국 교회사학회지』 43 (2016. 4.), 61-92을 참고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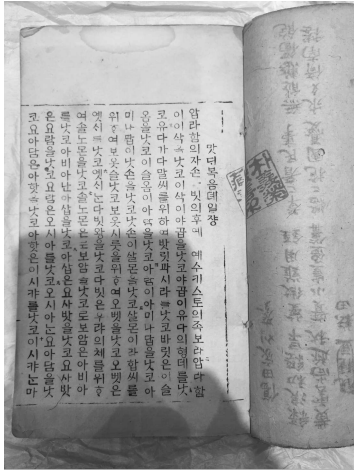
86) 이 부분 역시, 문화재위원회 소속 익명의 연구위원의 조사에서 관찰된 바 있다. 문화재청, “2016년도 등록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대전: 문화재청, 2017), 168.

87) 중앙에 배열된 글자 ‘예수성교성서’를 자세히 비교해 보면 두 판본 간의 차이점이 드러난다. 나아가, 오른쪽에 배치되어 ‘광서’로 시작되는 연도 부분은 대부분 소실되었지만 ‘구년’의 일부가 남아 있어 1883년임을 알려준다. 또한, 왼쪽에 배치되는 책 제목도 상당히 훼손되고 정중앙에 ‘복음’만 남아 있는데, 『예수성교성서요안니복음이비쇼셔신』(1885)의 경우 ‘요안니복음’과 ‘이비쇼셔신’이 세로로 나란히 쓰여져 있는데 반해, 다른 영인본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예수성교성서요안니복음』(1883)의 표지에는 ‘요안니복음’이 단독으로 세로쓰기 되어 있으므로, 이 소장본은 결코 『예수성교성서요안니복음이비쇼셔신』(1885)이 될 수 없다.

88)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에서 발행한 도록들과 전시실의 명패는 『예수성교성서요안니복음』의 연도를 1882년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연구결과 및 위에서 언급한 문화재청의 원본 실사를 반영하여 1883년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262;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 고문헌 목록』, 21을 참조하라.

## 6. 『예수성교성서맛디복음』(1884년, 광서10년)

마태복음 초판인 이 판본은 1884년 3월에 문광서원에서 5,000부가 출판되었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심한보 선생이 한 권을 소장하고 있는데, 부산의 보수동 헌책방에서 박의영 목사가 발견하였다. 이 소장본에는 로스역 한글 성경에 공통으로 보이는 표지가 없다. 대신 그림에서 나타나듯이, 약간 두꺼운 표지와 앞쪽 면지(面紙)의 뒷부분, 즉 당시 단면 인쇄 문화에서 제본 시에 접혀서 안으로 들어가는 뒷면에 한자가 필사되어 있다. 본문은 대체로 뒷면의 한자가 없이 보존 상태도 좋으며, 책의 후반부에 있는 <강명편>, 뒷면지(面紙), 뒷표지의 뒷면에도 마찬가지로 한자들이 필사되어 있다. 이러한 점은 『閑休先生實記』에 서술된 관련 묘사, 그리고 강순애가 자신의 소장본 『예수성교요안니복음전서』(1882, 서울방언판)에 대한 논문에서 보여준 관찰과도 일맥상통하다.<sup>89)</sup> 이러한 제책(製冊)은 봉황성 인근의 책문(柵門)을 비롯, 국경선을 넘어 당시의 금서(禁書)인 성경을 들여올 때, 관리들의 눈을 피하기 위하여 표지와 면지 등의 책 바깥쪽은 중국어 서적 또는 조선의 한문 서적으로 위장하고 책의 안쪽에는 성경 본문을 두거나, 심지어 이 부분도 뒤집어 제본하였다가 입국 후에 재제본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앞서 1부에서 언급되었듯이, 백홍준의 성경 반입에 대한 김양선의 이야기와도 비슷하다. 심선생의 소장본은 2014년에 은평한옥역사박물관의 개관 전시회에 초청되어 대중과 언론에 공개된 바 있다. 해외에서는, 캠브리지대학교와 옥스퍼드대학교에서 이 판본을 1권씩 소장하고 있다.



『예수성교성서맛디복음』(1884)  
(심한보 선생 소장본)

『예수성교성서맛디복음』(1884년, 광서10년)

## 7. 『예수성교성서말코복음』(1884년 전반기, 광서10년)

로스는 『예수성교성서말코복음』을 1884년 전반기와 후반기에 다른 판본으로 출판하였으며, 현재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대한성서공회가 각 판본을 1권씩을 소장하고 있다. 2,000년대 초, 대한성서공회에서는 호주장로교회 선교사들이 한국 기독교 초기에 입국하여 활동한 사실에 착안하여, 호주성서공회에 이메일을 보내 고본(古本) 한글 성경의 소장 여부를 묻고 기증을 요청하였다. 당시 대한성서공회 성서학 도서관 책임자로 있던 박진희 박사가 2003년 9월에 호주 캔버라에 있는 호주성서공회 본부를 방문하여 『예수성교성서 말코복음』(1884) 1권과 뒤에서 언급할 『예수성교성서 요안니복음 이비쇼셔신』(1885) 1권을 기증받아 돌아왔다. 또한, 12년 후인 2015년 7월에 한국에서 대한성서공회 주최로 세계성서공회연합회 성서출판회의(The United Bible Societies Publishers' Convention)가 열렸는데, 이 행사에 방한한 호주성서공회 사장(CEO) 그렉 클락(Greg Clark)이 『예수성교성서 말코복음』(1884)을 한 권

89) 양주삼·정태웅 편, 『閑休先生實記』, 20; 강순애, “한글성서 『예수성교요안니복음전서』 발굴본(1882-1883년)에 관한 서지적 연구”, 163·171-172·187.



더 기증해 주었다.<sup>90)</sup>

이만열은 1998년에 출판된 그의 책에서, “1884년 봄에 5,000부가 간행되었다. 그리고 연말에 (소할자를 사용한?) 긴 행(行)의 조판 페이지로 된 다른 판이 출간되었는데, 39페이지가 27페이지로 준 것이었다”고 언급하여 1884년에 출판된 『예수성교성서말코복음』에 두 가지 판이 있었음을 시사하였다.<sup>91)</sup> 현재 대한성서공회 성서학도서관이 밝히고 있는 서지 사항은 2003년에 기증된 소장본의 형태 사항이 ‘40장, 19cm’이며, 2015년 7월에 기증된 소장본의 형태 사항은 ‘27장, 19cm’이라고 기술하여, 두 소장본들이 서로 다른 판본임을 보여 준다. 이만열의 견해를 따라 판단해 보면, 2003년에 기증된 것은 짧은 행을 가진 것으로서 1884년 전반기에 출판된 판본이며, 2015년에 기증된 것은 긴 행으로서 동년 후반기에 출판된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필자는, 대한성서공회의 협조로 2022년 2월 말, 대한성서공회가 소장하고 있는 『예수성교성서 말코복음』 2권을 실사할 기회를 가졌다. 두 판본의 차이점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후반기에 출판된 판본이 그 행의 길이가 더 길며, 페이지 수가 40장(강명편 포함)에서 27장(강명편 없음)으로 줄어들었다. 강명편의 유무는 1장의 차이로서 결정적이지는 않다. 활자의 크기는 같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내용을 비교해보면, 표지에 나타나는 책의 이름은 ‘예수성교성서말코복음’으로 같지만, 매 장에 인쇄된 제목은 ‘말코복음데일장’(1884년 전반기)와 ‘말코복음데일장’(1884년 후반기)으로 서로 다르다. 그 외에, 1장 1~4절만 비교하더라도 다른 점이 매우 많다. ‘예수키리스토’와 ‘예수크리스토’, ‘사자를’과 ‘사자를’, ‘길을 예비하고’와 ‘길을 예비하고’, ‘들게서불으난자의’와 ‘들어서불으는자의’, ‘밥팀레’와 ‘밥팀레’ 등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한글 번역, 아래아 및 복모음의 사용 여부에서 서로 다르다. 마지막 장인 16장 9절의 경우에도, “사밧일첫날시벽에예수다시닐어만져막다린의마리아므게나타나니 곳더로말미암아닐굽귀신을쫓춘자라”와 “예수다시닐어만져막다린의마리아므게나타나니 곳더로 말무암아닐굽귀신을쫓춘자라”로서 구절 구분, 인명 표기, 아래아 사용 여부 등에서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결론적으로, 『예수성교성서말코복음』(1884) 전반기와 후반기의 판본은 확실히 서로 다른 것이다. 이 판본들의 해외 소장본으로서는, 캠브리지대학교에서 2권, 옥스퍼드대학교에서 1권을 소장하고 있다. 이 소장본들이 전반기와 후반기 판본들 중에서 어떤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표 2】에서는 임시로 1884년 전반기 판본으로 분류하였다.

## 8. 『예수성교성서말코복음』(1884년 후반기, 광서10년)

앞서의 판본에 대한 설명에서 충분히 언급되었으므로, 이것이 별도의 판본이며 대한성서공회가 호주성서공회에서 2015년에 기증한 한 권을 소장하고 있다는 사실 정도만 언급한다.

90) 대한성서공회가 호주성서공회에 고본 성서를 요청하고 기증받게 된 이야기는 대한성서공회 박진희 부총무와 2022년 2월 21일에 진행한 인터뷰에 근거하였다.

91) 이만열, 『한국기독교수용사연구』, 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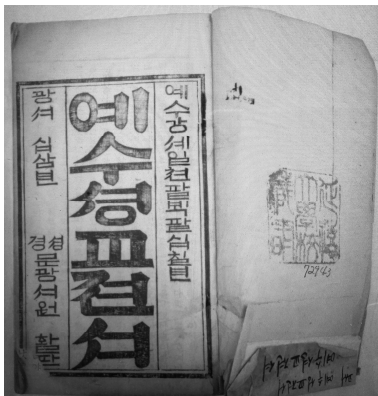
## 9. 『예수성교성서요안니복음이비쇼셔신』(1885년, 광서11년)

『예수성교성서누가복음데자헝적』(1886)의 경우와 같이, 이 판본은 복음서와 서신서의 합본 형태로 1885년에 문광서원에서 출판되었다. 아딩턴의 요구로 시작이 되었지만, 로스도 이러한 형태의 장점에 대해 공감하였다. 1884년에 <에베소서>(Ephesians)를 10,000부 인쇄했다는 영국성서공회 브라이언트의 기록으로 본다면, 이 판본의 부수는 10,000부이었을 것이다.<sup>92)</sup>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대한성서공회가 1권을 소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호주성서공회에서 2003년 9월에 기증한 것이다. 해외에서는 캠브리지대학교에서 1권을 소장하고 있다.

## 10. 『예수성교성서맛디복음』(1886년, 광서12년)

『예수성교성서맛디복음』(1886년)은 『예수성교요안니복음전서』(1882, 서북방언판)과 함께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소장본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 판본이다. 영국성서공회 보고서에 근거하면, 이 판본의 부수는 10,000부이다.<sup>93)</sup> 해외 소장본으로서는, 캠브리지대학교에서 1권을 소장하고 있다.

## 11. 『예수성교전서』(1887년, 광서13년)



연세대학교 도서관 제공

1882년부터 단편 성경을 출판해온 로스 팀의 활동은 1887년에 출판된 신약전서 『예수성교전서』에서 그 절정에 달한다. 『예수성교전서』는 성경(盛京, 심양)의 문광서원에서 5,000부가 출판되었다. 단편 성경들에 비해서 보존량이 많은 편인데, 연세대학교 도서관 국학자료실에 4권, 대한성서공회에 2권,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에 1권, 한신대학교 장공도서관에 1권으로, 총 8권이 알려져 있다. 연세대학교의 소장본들 중에서 보존 상태가 가장 좋은 한 권이 2016년 12월 15일자로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다.<sup>94)</sup> 다른 소장본 가운데 한 권은 백낙준 교수가 기증한 것이다.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본 가운데 1권은 김양선 교수가 1967년에 기증하였다. 해외에서는, 미국성서공회, 캠브리지대학교, 옥스퍼드대학교, 예일대학교, 하버드대학교,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버클리), 프랑스 기메박물관에서 각각 1권씩을 소장하고 있다.<sup>95)</sup> 이 외에도, 다수의 기관이나 개인들이 이 판본을 소장하고

92) “E. Bryant to W. Wright, Tientsin, July 11, 1891,” 옥성득·이만열 편역, 『대한성서공회사 자료집 제1권』, 188-189.

93) “North China Agency”, *The Report of the British and Foreign Bible Society* (1887), 263.

94) 이 국가등록문화재본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의 “예수성교전서(예수聖敎全書)”를 참조하라.

[https://search.cha.go.kr/srch\\_org/search/search\\_top.jsp](https://search.cha.go.kr/srch_org/search/search_top.jsp)

있으리라 생각된다.

## 12. 『예수성교성서맛디복음』(1892년, 광서18년)

『예수성교성서맛디복음』(1892년)은 심양 문광서원에서 5,000부가 출판되었다.<sup>96)</sup> 이 판본은 『예수성교전서』(1887년)에 포함된 <맛디복음> 부분의 재인쇄가 아니다. 예를 들면, 이 판본의 1장 1절 “압라함의자손다빛의후에예수키리쓰토의죽보라”에 나오는 단어 ‘후에’는 1887년 판본의 ‘후에’와 다르다. 2절에서도 ‘이삭을’과 ‘형데를’ 단어가 이전의 ‘이삭을’ 및 ‘형데를’과 다른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에서 1권을 소장하고 있으며, 상태가 좋은 편이다. 연세대학교 도서관 국학자료실도 1권을 소장하고 있다. 이 소장본은 겉표지 및 속표지도 소실되어 그 연도를 확인할 수 없지만, 송실대학교 소장본과 동일한 내용이며, 따라서 1892년 판본으로 확인된다.

## IV. 맺음말

로스역 한글 성경의 보급에 관한 연구에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로스역 한글 성경을 만주와 국내에 보급한 이들은 여섯 가지 부류로서, 전도자, 권서시찰 감독을 받는 권서, 공회가 고용하여 감독을 위탁하는 권서, 자원권서, 한국 내 선교사들의 권서 및 스코틀랜드성서공회 일본 지부의 권서가 있었다. 둘째, 보급의 시기는, 1882년 봄에 시작하여 국내에서는 1890년대 전반기까지, 그리고 만주에서는 1900년경까지 이어진다. 셋째, 보급량은 ‘판본 합산 방식’으로는 67,000권, ‘누적 출판량 조정 방식’으로는 77,040권으로 추산된다. 넷째, 보급 지역 및 대표적인 권서들로서는, 서간도 한인촌 및 만주 지역의 김청송과 ‘이정근’(추정), 평양과 북부 지역의 류춘천·이영호·이이, 서울과 중부 지역의 서상륜과 서경조, 부산과 남부 지역의 일본인 나가사카 등이 있었다.

로스역 한글 성경의 현재 소장본에 관한 연구에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외에 현재 소장처가 확인되는 판본은 총 12종이며, 그 가운데 2종인 『예수성교요안니복음전서』(1882)와 『예수성교성서맛디복음』(1886)은 국내 소장본이 알려지지 않았다. 둘째, 영국성서공회와 스코틀랜드공회에서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1882) 1권씩을 대한성서공회에 기증하였다. 미국성서공회에서도 『예수성교요안니복음전서』(1882, 서울방언판)을 대한성서공회에 기증하였다. 그리고 호주성서공회에서는 『예수성교성서말코복음』(1884, 전반기)와 『예수성교성서말코복음』(1884, 후반기) 각 1권씩과 『예수성교성서 요안니복음 이비쇼셔신』(1885)을 대한성서공회에 기증하였다. 셋째, 김양선이 기증하여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에서 소장

95) 미국성서공회의 소장상황에 대하여는, 위의 경우들과 같이 2022년 2월 18일에 미국성서공회로부터 받은 이메일 답변에 근거하였다.

96) “S. Dyer to W. Wright. Shanghai, Nov. 18, 1892”, 옥성득·이만열 편역, 『대한성서공회사 자료집 제1권』, 198-199.

하고 있는 로스역 한글 성경은 그의 외조부인 ‘한국 교회 최초의 전도자’ 백홍준이 소장하던 성경으로 보인다. 단, 박물관은 기증된 판본 일부에 대한 기록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대한성서공회 소장본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1882)와 연세대학교 소장본 『예수성교전서』(1887)가 2016년 12월 15일자로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다. 다섯째, 『예수성교요안니복음전서』(1882)와 『예수성교성서말코복음』(1884)에는 두 가지의 판본들이 존재한다. 여섯째, 『예수성교성서맛디복음』(1884)은 국내 개인 소장본이 확인되며, 기관 소장본은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예수성교성서맛디복음』(1892)은 『예수성교전서』(1887년)의 <맛디복음>의 재인쇄가 아니며, 독자적인 판본이다.

이 연구가 담아내지 못하고 연구 과제로 남긴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로스역 한글 성경의 보급에 관하여, 한국인 권서들과 보급의 정황에 대한 한국 측의 사료가 부족함을 절감하였다. 김청송·류춘천·이영호, 심지어 잘 알려진 서상륜에 대해서도 한국 측 문서가 매우 부족함을 느낀다. 기독교 내의 미발굴 사료, 만주 이민사, 조선후기 사회사, 북한 인물 및 사회사 등에 기대어 향후 연구 성과를 기대해 본다. 둘째로, 여성 권서나 전도부인이 성경 보급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선교사 측의 문서에는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로스역 한글 성경이 보급된 기간이 1882년부터 1900년 정도에 이르는 약 20년 가까운 세월이므로, 여성 권서들이나 여성 그룹들이 참여했을 가능성은 적지 않다. 당시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성들에게 접근하는 것은 여성들의 몫이었을 텐데, 성경을 전달하는 여성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다. 미시사와 같은 새로운 역사접근 방법을 동원한 연구가 요청된다.

마지막으로, 로스역 한글 성경의 보급을 통해서, 성경을 스스로 읽은 서민과 대중은 기독교 신앙에 더 쉽게 눈떴고, 성경을 전해 준 전도자와 권서들은 교회와 사회를 위한 지도자의 길로 나아갔다. 초대교인들이 가슴으로 읽었던 성경은 후손들을 통해 공개되어 신자들과 대중들이 누리는 신앙 및 문화적 유산이 되었고, 세계의 성서공회들이 대한성서공회에 기증한 한글 성경은 세계 그리스도인의 교제와 일치에 상징이 되었다.

## 참고문헌

- 강순애, “한글성서 『예수성교 요안니복음전서』 발굴본(1882-1883년)에 관한 서지적 연구”, 「서지학 연구」 44 (2009. 12.).
- 김양선, 『한국의 성서 번역사』 (서울: 한국 교회사문헌연구원, 1988); 김양선, “한국의 성서 번역사”, 「성서한국」(1955-1960년)의 재인쇄.
- \_\_\_\_\_, “Ross Version과 한국 Protestantism”, 「백산학보」 3 (1967. 11.).
- 꾸량, 모리스·이희재 역, 『韓國 書誌』 (서울: 일조각, 1994).
- 류대영·옥성득·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II: 번역·반포와 권서사업』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4).
- 문화재청, “2016년도 등록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대전: 문화재청, 2017).
- 민영진, “로스 역 누가복음서의 서지 사항과 번역의 성격”, 「성경원문연구」 2 (1998. 2.).
- 박형신, “존 로스 번역본 『예수성교요안니복음전서』 초판(1882)의 ‘간음한 여인이야기’(요7:53-8:11) 삭제 문제”, 「한국 교회사학회지」 43 (2016. 4.).
- 박형신 편, 『The Rev. John Ross: A Primary Sourcebook 존 로스 선교사 자료집 I』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19).

-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서울: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2004).
- \_\_\_\_\_,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 고문헌 목록』 (서울: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2005).
- 아펜젤러, 헨리 G·노종해 역, 『자유와 빛을 주소서 - H. G. 아펜젤러의 일기(1886-1902)-』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8).
- 양주삼·정태응 편, 『閔休先生實記』 (경성: 대영성서공회, 1937).
- 옥성득, “존 로스, 한국 개신교사의 첫 장을 열다”, 『복음과 상황』 297 (2015. 8.).
- \_\_\_\_\_, “한국인 권서와 선교사들의 개척 전도여행”, 『기독교사상』 722 (2019. 2.).
- 옥성득·이만열 편역, 『대한성서공회사 자료집 제1권: 로스 서신과 루미스 서신』 (서울: 대한성서공회, 2004).
- 이덕주, “초기 한글성서 번역에 관한 연구”, 그리스도교와겨레문화연구회 편, 『한글성서와 겨레문화』 (서울: 기독교문사, 1985).
- \_\_\_\_\_, 『초기 한국기독교사 연구』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5).
- 이만열, 『한국기독교 수용사연구』 (서울: 두레시대, 1998).
- \_\_\_\_\_, 『한국기독교와 민족의식 - 한국기독교사연구논고』 (서울: 지식산업사, 1991).
- 이만열 외, 『대한성서공회사 I: 조직·성장과 수난』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3).
- 최성일, “로스역본이 한국 교회에 끼친 영향”, 『장로교회와 신학』 10 (2013).
- \_\_\_\_\_, “존 로스와 한국 개신교 (II)”, 『기독교사상』 36:2 (1992. 2.).
- 홍이섭, “로스와 한글 聖經(上)”, 『조선일보』 (1956. 8. 29.).
- \_\_\_\_\_, “로스와 한글 聖經(下)”, 『조선일보』 (1956. 8. 30.).
- “A Journey to the North-East: Part II,” *The Missionary Record of the United Presbyterian Church* (Aug. 1, 1892).
- Annual Report of the British and Foreign Bible Society* (London: Bible House, 1884-1894, 1899).
- Choi, Sung Il, “John Ross and the Korean Protestant Church: The First Korean Bible and Its Relation to the Protestant Origins in Korea” (Ph.D. Diss., University of Edinburgh, 1992).
- Knight, G. A. Frank, *The History of the National Bible Society of Scotland: Part I. 1809-1900*.
- Macintyre, John, “Mr Macintyre’s Report”, *The United Presbyterian Missionary Record* (July 1, 1880).
- “The Word Growing Mightily”, *The Missionary Record of the United Presbyterian Church* (Oct. 2, 1899).
- Ross, John, “Corean New Testament”, *The Chinese Recorder and Missionary Journal* XIV (Nov.-Dec. 1883).
- \_\_\_\_\_, “The Christian Dawn in Korea”, *The Missionary Review of the World* XIII, 4 (Apr. 1890).
- Turley, R. T., “Manchuria”, *The Bible Society Monthly Reporter* (Sept. 1887).



## 「로스역 한글 성경의 보급과 현재 소장본에 대한 연구」 토론문

류대영(한동대학교 교수)

박형신 교수는 이 분야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 온 분으로, 이 분야의 대표적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그의 글은 두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다. 먼저 그가 “로스역”이라고 말한 한글 성서 각 판본을 누가, 어떻게, 어디에 보급했으며, 보급된 양은 얼마인지 살펴보았다. 대체로 지금까지 연구되어 알려진 내용을 정리하고, 일부 자신의 해석을 덧붙인 것으로 보인다. 내용은 잘 정리되어 있으며, 해석은 무리 없어 보인다. 보급 부수를 좀 더 세밀하게 계산하여 67,000~77,040권이라고 한 것, 압록강 한인촌에서 활동하던 이(Li) 씨 성의 권서를 ‘이정근(李情根)’이라고 추정한 점 등은 새로운 기여 혹은 과제 제시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박 교수가 다룬 것은 “로스본” 한글 성서 각 판본이 현재 어디에 소장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는 대한성서공회, 숭실대학교, 연세대학교, 한신대학교와 몇 개인이 소장하고 있고, 국외에는 캠브리지대학교, 옥스퍼드대학교, 예일대학교 등이 상당수의 판본을 소장하고 있다. 평소 이런 분야에 관심이 적어서 그렇겠지만,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 많다. 소장처를 밝히기 위한 그의 노고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박 교수 글의 주된 목적은 알려진 내용들을 정리하는 데 있지 새로운 논지를 주장하는 데 있지 않다. 따라서 글 내용 가운데 특별히 논찬할 만한 부분은 없다. 다만 몇 가지라도 굳이 말해야 한다면 다음과 같다.

1. 사실 관계: 박 교수는 아펜젤러가 1887년에 파송한 두 권서를 “최씨”와 “장씨”라고 했다. “장씨”가 누구인지는 몰라도 강매(姜邁), 아펜젤러(Henry G. Appenzeller) 등의 기록에 의하면 “최씨”는 의주에서 온 초기 개종자 최성균(崔成均)이 틀림없다. 최성균은 아펜젤러가 시작한 한국 최초 감리교회인 벨엘예배당(정동제일교회) 교인이었다. 그는 1881년 만주에서 매킨타이어에게 세례받은 후 성서번역에 참여했었다. 그가 언제, 어떻게 서울에 왔는지는 모르지만, 그의 전력을 알게 된 아펜젤러는 성서 번역과 권서사업을 위해 그를 고용했고, 내지 여행이 어렵던 시절, 그를 권서로 파견하여 기독교를 전하게 하였다. 최성균의 부인은 벨엘예배당이 시작된 직후 세례를 받고 한국인 최초의 여성 감리교 세례교인이 되었다.

2. 단어 선택: 성서 소장 문제를 다루면서 박 교수는 시종일관 “기증”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있다. 영국성서공회가 대한성서공회에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를 준 것은 기증이다. 그러나 같은 책을 로스가 영국성서공회에게 보낸 것을 기증이라고

할 수는 없다. 영국성서공회는 로스에게 번역·출판·반포 비용을 준 기관이기 때문에 로스는 출판한 성서를 보내야 할 ‘의무’가 있었다. 만약 로스가 영국성서공회 총무에게 개인적(선물, 감사의 표현)으로 성서를 보냈다면 기증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경우에 해당되는 상황은 아니다.

3. 문제점: 글을 읽으면서 가장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은 “로스역”이라는 표현이다. “로스역”은 과거 흔히 사용하던 표현인데, 선교사 중심적인 표현인지라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 놀랍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하다. “로스역”이라는 표현은 문광서원에서 번역·출판한 한글 성서 전체를 존 로스라는 선교사의 업적으로 여기는 셈이다. 물론 로스가 그 작업을 기획하고 주도한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문광서원에서 출간된 한글 성서의 번역부터 인쇄와 반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한국인들이 실질적인 주역이었다는 것 또한 잘 밝혀져 있다. 가장 중요한 일이었던 번역만 하더라도 로스는 저본인 대표역본 한문 성서를 순한글로 번역할 정도의 한국어 실력을 갖지 못했다. 그의 언어적 재능이 탁월했지만, 만주에 살면서 제한된 수의 한국인에게 배운 한국어 구사능력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었다. 1882년 로스는 자신이 직접 번역은 할 수 없었고 “[한국인] 번역자들을 지도하고 수정하고 개선시킬 수 있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실제 번역은 한국인 번역자들이 하고, 로스는 그것을 그리스어 원문이나 몇몇 서구어 번역과 비교하여 보충·수정하는 역할을 한 것이다. 물론 이후 그의 한국어 실력이 향상되면서 번역 기여도가 증가했다고 추측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한계는 극복할 수 없었으리라 판단된다.

문광서원에서 발행된 최초 한글 성서인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에 대해 로스는 그것이 “매킨타이어의 번역(the translation of Mr. MacIntyre)”이라고 표현했다. 매킨타이어의 한문 및 한국어 실력이 로스보다 못했을 것이고, 누가복음을 한글로 번역할 수준이 되지 못했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최초 한글 성서를 “매킨타이어의 번역”이라고 한 것은 매킨타이어가 번역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책임 아래 번역되었다는 정도의 뜻이다. 당시 선교사들의 인종적·문화적 우월의식, 한국인 동역자를 동등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 등이 드러나는 표현이다. 로스나 매킨타이어는 한국인 번역자들의 이름조차 기록하지 않는 경우가 흔했다. 물론 이것은 로스·매킨타이어에 한정된 문제는 아니었고, 이후 국내에서 이루어진 한글 성서 번역도 마찬가지였다. 이때도 한국인 번역자 없이 번역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선교사들은 그들에게 ‘조사’라는 직함을 주었다. 이름이 조사이지 사실은 그들이 실제 번역의 주역이었다. 레널즈(William D. Reynolds)와 함께 구약성서 번역을 최종적으로 책임졌던 이승두·김정삼이 조사 신분에서 벗어나 정식 번역위원이 된 것은 1907년이 되어서였다.

기독교 역사를 선교사 중심으로 바라보는 과거 관점을 반영하는 “로스역”이라는 표현은 더 이상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옛날식 표현이기 때문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여 반영하기 때문이다. 문광서원에서 발행된 여러 한글 성서를 통칭하는 용어로는 “문광서원본”이나 “예수성교본”이 가장 적절한 것 같다.

4. 제안: 박 교수는 문광서원본 한글 성서 판본들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공들여 추적했다. 물론 그런 작업은 중요하고 의미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



본을 발견하고 보존하는 작업 이상 중요한 것은 그들을 디지털화하는 일이다. 역사적으로 연구 가치가 있는 과거 출판물들에 대한 디지털화 작업은 세계적으로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국사편찬위원회, 국립중앙도서관 등을 중심으로 많은 고문서 디지털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노력 때문에 *Korea Mission Field, Missionary Review (of the World)* 같은 잡지부터 브라운(Arthur J. Brown)의 한국 방문 보고서(“Report of a visitation of the Korea mission of the Presbyterian Board of Foreign Missions”)에 이르기까지 많은 한국 기독교 역사 관련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쉽게 원문 검색할 수 있다. 문광서원본 한글 성서들도 속히 디지털화되어 연구자나 관심 있는 사람이 편리하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대한성서공회나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같은 단체가 애써주기를 기대한다.



# 로스의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1882)가 한글 성경 번역에 끼친 영향과 앞으로의 과제 -누가복음 20~24장을 중심으로-

이두희(대한성서공회 부총무)

- I. 들어가는 말
- II.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의 저본 문제
  - 1. 그리스어 저본 문제
  - 2. 중국어 저본 문제
- III. 로스역의 주요 번역 특징들
  - 1. 그리스어 원문에 충실한 번역
  - 2. 우리말의 자연스러움과 문화의 특징을 고려한 번역
- IV. 나가는 말: 로스역이 한글 성경 번역에 끼친 영향과 앞으로의 과제

## I. 들어가는 말

2022년은 우리말로 번역된 최초의 성경인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1882년)를 존 로스(John Ross) 목사가 만주에서 번역하여 출간한 지 140주년이 되는 해이다. 선교사가 국내에 들어오기도 전에, 스코틀랜드 출신 중국 선교사 로스 목사가 만주에서 성경을 우리말로 먼저 번역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기 그지없다.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들어와 본격적인 선교활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자기 나라말로 번역된 성경 말씀을 읽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난 일은 세계 선교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작된 한국의 그리스도교는 그 뒤로도 계속해서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에 토대를 두는 성경 기독교의 특징을 보이며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 왔다. 이처럼 한국 교회를 성경 기독교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출발점이 된 로스의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 출간 140주년에 즈음하여, 이 성경이 한국 교회에 끼친 영향과 과제를 다시 한번 성찰해 보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 할 수 있다. 로스역의 영향과 과제는 국어, 교회사(선교), 성경 번역의 측면에서 다

양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인데, 이 글에서는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가 성경 번역의 측면에서 한글 성경 번역에 끼친 영향과 앞으로의 과제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로스가 자신의 성경 번역을 위해 사용한 그리스어 저본이 무엇인지, 참고한 외국어 번역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번역이 이루어졌는지, 로스역의 주요 번역 특징이 무엇인지를 연구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그 당시 번역 과정과 정황을 엿보게 하는 흥미로운 기록들이 있다. 로스의 동료 선교사였던 웹스터(James Webster)는 로스의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가 번역되던 당시의 ‘문광서원’의 인쇄 상황으로 보이는 작업 광경에 대해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로스는 손에 그리스어 성경을 들고 책상 앞에 앉아 있으며, 개역 영어성경과 한문역본들이 그 옆에 놓여 있다. 한국인 번역자들이 붓을 들고 바쁘게 작업 중이며, 다른 1명의 한국인은 옆방에서 활자를 식자하고, 2명의 중국인은 인쇄기를 작동시키고 있다.<sup>1)</sup> (강조는 필자의 것)

조금 더 구체적으로 로스의 번역 방법과 과정을 알려 주는 기록도 남아 있다. 『대한성서공회사』 I 권에서는, 로스가 라이트 박사에게 보낸 편지를 참조하여 그 번역 과정을 여섯 단계로 요약하고 있다. “① 전직 한국인 관리였던 학자가 한문문리성경에서 1차로 번역하면, ② 로스·이응찬이 그리스어 성경을 참고하면서 2차로 번역하고, ③ 이것을 1차 번역인이 정서해 주면, ④ 다시 로스·이응찬이 재수정(3차 번역)하고, ⑤ 로스가 그리스어 성경과 그리스어 성구사전 및 메이어(Meyer) 주석 등을 참조, 대조하면서 어휘를 통일한 후(4차 번역), ⑥ 식자공의 손에 넘기는 순서를 취했다.”<sup>2)</sup>

로스는 이 편지에서 누가복음의 경우 “매킨타이어와의 공동 번역입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를 보면, 로스의 안식년 기간 동안에 매킨타이어(John MacIntyre)가 이미 번역해 둔 내용이 로스의 최종 원고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매킨타이어의 번역 방법도 로스의 방법과 크게 달라 보이지는 않는다. 『대한성서공회사』 I 권에 따르면, 한국인 번역자들이 『대표자 역본(Delegates' Version)』(1852)을 대본으로 1차 번역을 하고, 이를 선교사가 그리스어 성경에 비추어 다듬고, 이 원고를 두고 한국인 번역자와 선교사가 다시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서 번역을 완성해 갔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식으로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신약의 번역 원고들이 준비되어 간 것이다.<sup>3)</sup>

여기서 우리는, 매킨타이어와 한국인 번역자들의 도움을 받은 원고를 기초로 로스 선교사가 그리스어 성경과 외국어(영어·중국어) 번역본과 주석을 참고하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를 완성해 갔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로스가 언급한 그리스어 성경과 외국어 번역본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판본이었을까? 이에 대해 이미 선행연구들을 통해 많은 내용이 밝혀지기는 했으나, 다소 부정확하거나 논란 중에 있는 부분이 남아

1) J. Webster, “The Maker of the Manchurian Mission - An Appreciation of the late Rev. John Ross, D.D.”, *The Missionary Record of the United & Free Church of Scotland 15* (1915), 394; 이만열 외, 『대한성서공회사 I: 조직·성장과 수난』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3), 67에서 재인용.

2) “J. Ross to W. Wright. March 24, 1882.”, 옥성득·이만열 편역, 『대한성서공회사 자료집 제1권: 로스 서신과 루미스 서신』 (서울: 대한성서공회, 2004), 38; 이만열 외, 『대한성서공회사 I』, 55-56.

3) 이만열 외, 『대한성서공회사 I』, 49-53.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먼저 로스가 사용한 그리스어 저본과 외국어 번역본 문제를 로스 역의 본문 자체에 기초하여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이다. 그런 연후에 우리에게 전해진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의 주요 번역 특징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볼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최초의 우리말 성경 번역이 그 뒤로 이어져 온 오늘날 한글 성경 번역, 나아가 앞으로 이루어질 한글 성경 번역에 끼치는 영향과 과제가 무엇인지를 간략히 살펴볼 것이다. 소논문 성격의 한계를 고려하여 연구 범위는 수난과 부활을 포함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뒤에 겪으신 일을 전하고 있는 누가복음 20~24장을 중심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다른 본문의 보기들도 참고하기로 한다.

## II.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의 저본 문제

로스가 참고한 저본은 그리스어 원문, 영어 번역본, 중국어 번역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뉜다. 참고한 저본의 종류와 참고한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번역된 결과인 번역본문과 저본의 세밀한 비교 연구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문제는 같은 저본을 참고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대상 언어(target language)로 바꾸는 과정에서 번역자마다 번역 어휘나 어순의 선택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저본 확인이 쉽지 않은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그러나 내용 자체가 본문에 추가되거나 생략됨으로써 본문 상호 간의 차이가 매우 분명하다면 저본 확인이 비교적 쉬워질 수 있다. 그리스어와 중국어 저본은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스어의 경우에는 사본학의 최신 연구 결과를 반영한 새로운 개정판이 1881년에 출간되었다. 이 『개정 그리스어 성경』(Greek Revised Version)<sup>4)</sup>은 기존에 저본으로 사용되던 ‘수용본문’과 어휘나 어순의 차원을 넘어 본문 내용 자체의 침삭에 따른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상당하다. 중국어 저본의 경우, 주요 역본들 사이의 번역 원칙과 문체의 차이에서 오는 번역 결과의 차이가 쉽게 관찰되기 때문에 저본 확인이 쉬워지는 부분들이 있다. 주된 연구 대상이 될 『대표자 역본』과 『브리지만-컬버슨 역본』(Bridgman and Culbertson’s version)의 경우, 전자는 의미 전달에 더 중점을 두는 번역에 속하고, 후자는 그리스어 원문 글자 그대로 옮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번역에 속한다. 이럴 경우, 전자가 의미 전달에 중점을 두면서 그리스어 원문에서 자유롭게 풀이한 부분과 후자가 그리스어 원문에 충실적으로 직역한 부분 사이에 확연한 차이가 드러나게 되는데, 로스역이 어느 쪽 번역과 더 비슷한지를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영어 역본의 경우에는 형편이 조금 다르다. 로스가 참고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영어 역본으로는 『제임스왕역』(King James Version)과 『영어 개정판』(English Revised Version)이 있는데, 두 번역본 모두 그리스어 원문을 비교적 글

4) 1881년에 출간된 『개정 그리스어 성경』은 세 종류로 <https://archive.org>에서 pdf 파일로 볼 수 있다.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Edwin Palmer, *Hē Kainē Diathēkē. The Greek Testament with the Reading Adopted by the Revisers of the Authorized Vers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881); F. H. A. Scrivener, *The New Testament in the Original Greek, According to the Text followed in the Authorized Version Together with the Variations Adopted in the Revised Vers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881); Brooke Foss Westcott and Fenton John Anthony Hort, *The New Testament in the Original Greek*, 2 vols. (Cambridge: Macmillan, 1881).

자 그대로 옮기는 번역 원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두 영어 역본이 저본으로 삼은 그리스어 원문의 차이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면, 두 영어 역본 가운데 로스가 어느 역본을 참고했는지를 판가름하는 일이 쉽지 않고, 더 세심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것은 이 글의 범위를 넘어선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비교적 분명하게 판가름할 수 있는 그리스어 저본과 중국어 저본의 문제를 우선 다루고, 영어 저본의 문제는 다른 기회로 미루어 두기로 한다.

## 1. 그리스어 저본 문제

### 1) 로스는 팔머판 『개정 그리스어 성경』을 실제로 어느 정도 활용하였는가?

로스가 사용한 그리스어 저본에 대해서는, 로스 자신이 라이트(William Wright) 박사에게 보낸 1882년 3월 24일자 편지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다. “제 번역의 저본은 옥스퍼드의 레그(James Legge) 교수가 친절하게 보내준 개역판 그리스어 역본입니다.”<sup>5)</sup> 따라서 로스역의 저본이 된 그리스어 성경이 1881년에 옥스퍼드 출판사에서 출간된 팔머판 『개정 그리스어 성경』이었다는 사실은 확실해 보인다. 그리고 이 팔머판 그리스어 성경이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 이후로 진행된 다른 로스역의 저본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큰 이견이 없어 보인다. 다만 이 팔머판 『개정 그리스어 성경』이 출간된 시점(1881년 5월)과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가 조판 중이던 시점(1881년 가을)을 고려하면,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의 번역에서는 『개정 그리스어 성경』이 제대로 참조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sup>6)</sup> 개연성 있는 짐작이기는 하지만 『개정 그리스어 성경』을 따라 번역했다는 로스 자신의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sup>7)</sup> 따라서 우리는 본문에 기초하여 어느 주장이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영어 개정판』의 바탕이 된 『개정 그리스어 성경』과 『제임스왕역』의 저본이 된 ‘수용본문(Textus Receptus)’ 사이에 차이 나는 부분, 특히, ‘수용본문’에 포함되어 있으나 『개정 그리스어 성경』에서 삭제한 부분이 로스의 번역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어느 정도 판가름이 가능할 것이다.<sup>8)</sup> 본 연구에서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

5) “Ross to W. Wright, March 24, 1882”, 옥성득·이만열 편역, 『대한성서공회사 자료집 제1권』, 34-35; 박형신, “존 로스 번역본 『예수성교요안나복음전서』 초판(1882)의 ‘간음한 여인 이야기’(요7:53-8:11) 삭제 문제”, 『한국 교회사학회지』 43 (2016), 72에서 재인용. 1883년 1월 24일에 보낸 편지에서도 『개정 그리스어 성경』을 기준으로 번역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Ross to W. Wright, Jan. 24, 1883.”, 이만열 외, 『대한성서공회사 I』, 54에서 재인용. 로스의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의 번역이 진행 중에 있을 때에 영국에서는 『제임스왕역』의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어 Revised Version(1881)이 출간되었고, 이 영어 개정역의 바탕이 된 그리스어 성경 인쇄본도 같은 해에 출간되었다. 1881년에 출간된 『개정 그리스어 성경』 세 종류로 팔머판, 스크리브너판, 웨스트코트-호르트판이 있었다. 그 가운데서 로스가 대본으로 사용한 그리스어 성경은 팔머판이었던 것이다. 이 판본들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정용한의 글을 참조하라. 정용한, “초기 우리말 성서의 저본 사용에 대한 통시적 연구: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06 (2017), 67-69.

6) 최성일, “『로스역』 신약성서의 특징과 저본에 관한 소고-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Canon & Culture』 4:2 (2010), 115. 최성일은 영어 역본의 경우에도,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의 경우에는 1881년에 나온 『영어 개정판』이 아니라 1611년에 출간되어 지속적인 영향력을 끼쳐 왔던 『제임스왕역』이 더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7) 옥성득·이만열 편역, 『대한성서공회사 자료집 제1권』, 34.

8) 그리스어 원문이 달라지더라도 우리말로 번역되는 과정에서는 번역자의 번역 원칙과 맞물려 그 차이를 분명하게 드러내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으므로, 그런 차이에 대해서는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면, 시제에서 미완료와 부정과거의 차이, 합성 동사와 기본 동사의 차이, 어순의 차이 등

토하여 팔머판 『개정 그리스어 성경』 본문이 로스역에 어느 정도로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해 볼 것이다.<sup>9)</sup> 그 차이들을 표로 정리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표에서는 편의를 위하여 Textus Receptus(TR), King James Version(KJV), Greek Revised Version(RV), English Revised Version(ERV),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로스역)의 본문을 제시하되 괄호 안의 약호를 사용할 것이다. 로스 자신이 “개정역의 그리스어를 가지고 절과 단어별로 꼼꼼하게 비교”하며 작업했다고 보고했던 대로<sup>10)</sup> 『개정 그리스어 성경』을 비교적 철저히 자신의 번역에 반영했음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 2) 로스역이 팔머판 『개정 그리스어 성경』을 실질적으로 활용하였다는 증거 본문들

### (1) 눅 20:13

TR	εἶπεν δὲ ὁ κύριος τοῦ ἀμπελῶνος Τί ποιήσω πέμψω τὸν υἱόν μου τὸν ἀγαπητόν· ἴσως τοῦτον <u>ιδόντες</u> ἐντραπήσονται
KJV	Then said the lord of the vineyard, What shall I do? I will send my beloved son: it may be they will reverence <i>him</i> when they <u>see</u> him.
RV	εἶπεν δὲ ὁ κύριος τοῦ ἀμπελῶνος· τί ποιήσω; πέμψω τὸν υἱόν μου τὸν ἀγαπητόν· ἴσως τοῦτον ἐντραπήσονται.
ERV	And the lord of the vineyard said, What shall I do? I will send my beloved son: it may be they will reverence him.
로스역	동산 주인이 갈으되 장차 엿디허리요 니 사랑허닌 아들을 보니면 데 아마 공경허리라 허더니

TR과 KJV에 포함되었으나 RV와 ERV에서 삭제된 ‘이돈테스(보다)’를 로스도 번역에서 생략하고 있다.

### (2) 눅 20:19

TR	Καὶ ἐζήτησαν <u>οἱ ἀρχιερεῖς καὶ οἱ γραμματεῖς</u> ἐπιβαλεῖν ἐπ’ αὐτὸν τὰς χεῖρας ἐν αὐτῇ τῇ ὥρᾳ καὶ ἐφοβήθησαν τὸν λαόν· ἔγνωσαν γὰρ ὅτι πρὸς αὐτοὺς τὴν παραβολὴν ταύτην εἶπεν
KJV	And <u>the chief priests and the scribes</u> the same hour sought to lay hands on him; and they feared the people: for they perceived that he had spoken this parable against them.
RV	Καὶ ἐζήτησαν <u>οἱ γραμματεῖς καὶ οἱ ἀρχιερεῖς</u> ἐπιβαλεῖν ἐπ’ αὐτὸν τὰς χεῖρας ἐν αὐτῇ τῇ ὥρᾳ, καὶ ἐφοβήθησαν τὸν λαόν, ἔγνωσαν γὰρ ὅτι πρὸς αὐτοὺς εἶπεν τὴν παραβολὴν ταύτην.

을 생각해 볼 수 있다.

9) 번역 어휘의 결정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다른 역본들의 영향, 주석의 영향, 사전의 영향 등), 어휘만으로는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사본상의 차이 가운데에도 번역되는 과정에서 그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번역에서 확연히 구별될 수밖에 없는 사본상의 차이에 주목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10) Ross, “Moukden,” *The Missionary Report of the United Presbyterian Church* (July 1, 1882), 244; 박형신, “존 로스 번역본 『예수성교요안니복음전서』 초판(1882)의 ‘간음한 여인 이야기’(요7:53-8:11) 삭제 문제,” 72에서 재인용.

ERV	And <b>the scribes and the chief priests</b> sought to lay hands on him in that very hour; and they feared the people: for they perceived that he spake this parable against them.
로스역	씨여 모든 <b>선비와 제사당이</b> 그 비사를 히여 자그를 같이치넨 줄을 알고 잡고자 히되 빅성을 무셔워

TR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어순으로 되어 있고, RV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의 어순으로 되어 있다. 『로스역』은 RV와 같은 어순으로 번역하고 있다. 『로스역』은 ‘서기관들’을 ‘선비’로 번역하였는데, 이는 중국어 성경에서 사자(士子)로 번역한 것의 영향으로 보인다.

(3) 눅 20:23

TR	κατανοήσας δὲ αὐτῶν τὴν πανουργίαν εἶπεν πρὸς αὐτούς <b>τί μέ πειράζετε</b>
KJV	But he perceived their craftiness, and said unto them, <b>Why tempt ye me?</b>
RV	κατανοήσας δὲ αὐτῶν τὴν πανουργίαν εἶπεν πρὸς αὐτούς·
ERV	But he perceived their craftiness, and said unto them,
로스역	예수 그 궤계를 알고 같으되

RV는 TR에 나오는 τί μέ πειράζετε(티 메 페이라제테, ‘너희가 왜 나를 시험하느냐’)를 본문에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로스역』은 RV를 따라 그 부분을 생략하고 번역하였다. TR과 RV에 공통으로 나오는 πρὸς αὐτούς(프로스 아우투스)도 우리말 번역에서 누락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로스는 문맥에서 파악이 가능할 경우 ‘그들에게’처럼 간접 목적어에 해당하는 부분은 통상 생략하고 번역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사본의 차이에 따른 것은 아니다.

(4) 눅 20:30 (TR을 따른 것으로 보이는 경우)

TR	καὶ ἔλαβεν ὁ δεῦτερος τὴν γυναῖκα, καὶ οὐτὸς ἀπέθανεν ἄτεκνος.
KJV	And the second took her to wife, and he died childless.
RV	καὶ ὁ δεῦτερος
ERV	and the second;
로스역	그 둘지가 그쳐를 취히여 쏘한 지식 업시 죽고

여기서는 로스가 TR을 따른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RV를 그대로 직역하고 말면 우리말 문장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 우리말로는 어쩔 수 없이 문장을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을 보충해야만 한다. 따라서 TR을 따랐다가보다는 우리말에서 필요한 요소를 보충할 때 TR을 참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 눅 21:19 (TR을 따른 것으로 보이는 경우)

TR	ἐν τῇ ὑπομονῇ ὑμῶν <b>κτήσασθε</b> τὰς ψυχὰς ὑμῶν
KJV	In your patience <b>possess</b> ye your souls.
RV	ἐν τῇ ὑπομονῇ ὑμῶν <b>κτήσεσθε</b> τὰς ψυχὰς ὑμῶν
ERV	In your patience ye shall <b>win</b> your souls.
로스역	너의 참으무로써 목숨을 <b>보전</b> 하라

TR의 ‘κτη사스쎄’는 2인칭 복수 명령형 동사인 반면, RV는 이것을 2인칭 복수 미래형 동사 ‘κτη세스쎄’로 대체하였다. 그런데 『로스역』은 TR과 같이 이 부분을 명령형 ‘보전하라’로 번역하여 RV를 따라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로스가 비교적 철저히 RV를 따르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구절에서는 식자공이 한 글자를 빠뜨리는 실수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의심된다. 이 구절과 가까운 곳에서 그런 종류의 식자 오류가 발견되기 때문이다. 23장의 장 표시가 “누가데이삼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누가데이십삼장”의 식자 오류가 확실하다. 다른 경우에는 모두 “누가데이십일장”, “누가데이십이장”, “누가데이십사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6) 눅 21:36

TR	ἀγρυπνεῖτε οὖν ἐν παντὶ καιρῷ δεόμενοι ἵνα <b>καταξιωθῆτε</b> ἐκφυγεῖν ταῦτα πάντα τὰ μέλλοντα γίνεσθαι καὶ σταθῆναι ἔμπροσθεν τοῦ υἱοῦ τοῦ ἀνθρώπου
KJV	Watch ye therefore, and pray always, <b>that ye may be accounted worthy to escape</b> all these things that shall come to pass, and to stand before the Son of man.
RV	ἀγρυπνεῖτε δὲ ἐν παντὶ καιρῷ δεόμενοι ἵνα <b>κατισχύσητε</b> ἐκφυγεῖν ταῦτα πάντα τὰ μέλλοντα γίνεσθαι καὶ σταθῆναι ἔμπροσθεν τοῦ υἱοῦ τοῦ ἀνθρώπου.
ERV	But watch ye at every season, making supplication, <b>that ye may prevail to escape</b> all these things that shall come to pass, and to stand before the Son of man.
로스역	다못 씨여 늘 빌어 너의 <b>능히</b> 장차 올 모든 일을 <b>피하고</b> 인자의 압페 서게 하라 하고

KJV는 TR의 본문 ‘καταξιωθητε(καταξιωθητε)’를 따라 ‘... 피하기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도록’으로 번역하고 있다. 그러나 로스는 ‘κατισχυσητε(κατισχυσητε)’로 개정한 RV를 따라 “... 능히 ... 피하고”로 번역하였다.

(7) 눅 22:14 (TR을 따른 것으로 보이는 구절)

TR	Καὶ ὅτε ἐγένετο ἡ ὥρα ἀνέπεσεν καὶ οἱ <b>δώδεκα</b> ἀπόστολοι σὺν αὐτῷ
KJV	And when the hour was come, he sat down, and the <b>twelve</b> apostles with him.
RV	Καὶ ὅτε ἐγένετο ἡ ὥρα ἀνέπεσεν καὶ οἱ ἀπόστολοι σὺν αὐτῷ
ERV	And when the hour was come, he sat down, and the apostles with him.
로스역	씨 날으러 돛게 안즈미 <b>열두</b> 몸데자 함께 하니

RV에서 생략하고 있는 ‘도데카(열둘)’를 『로스역』이 번역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구절에서는 『로스역』이 TR을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8) 눅 22:18 (TR을 따르는 것으로 보이는 구절?)

TR	λέγω γὰρ ὑμῖν ὅτι οὐ μὴ πίω ἀπὸ τοῦ γεννήματος τῆς ἀμπέλου, ἕως ὅτου ἡ βασιλεία τοῦ Θεοῦ ἔλθῃ.
KJV	For I say unto you, I will not drink of the fruit of the vine, until the kingdom of God shall come.
RV	λέγω γὰρ ὑμῖν, ὅτι οὐ μὴ πίω <u>ἀπὸ τοῦ νῦν</u> ἀπὸ τοῦ γεννήματος τῆς ἀμπέλου ἕως οὗ ἡ βασιλεία τοῦ θεοῦ ἔλθῃ.
ERV	for I say unto you, I will not drink <b>from henceforth</b> of the fruit of the vine, until the kingdom of God shall come.
로스역	니 너의게 말하노니 니 <b>다시</b> 포도나무에 나뉜 비를 마시디 안코 하느님의 나라 님하메 및 츠리라 하고

TR에 없었던 ‘아포 투 νῦν(이제부터)’이라는 구절이 RV에 추가되었다. 그런데 로스는 이 부분을 번역에 포함하지 않고 TR을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로스역』에 ‘다시’라는 부사가 추가된 것은 그렇게 단정하는 것에 주의를 환기시킨다. 문자적으로 ‘이제부터’라고 번역하는 대신 ‘다시’라는 부사로 번역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9) 눅 22:31

TR	εἶπεν δὲ ὁ Κύριος, Σίμων Σίμων ἰδοὺ ὁ Σατανᾶς ἐξητήσατο ὑμᾶς τοῦ σινιάσαι ὡς τὸν σῖτον·
KJV	<b>And the Lord said,</b> Simon, Simon, behold, Satan hath desired <i>to have</i> you, that he may sift <i>you</i> as wheat:
RV	Σίμων Σίμων, ἰδοὺ ὁ σατανᾶς ἐξητήσατο ὑμᾶς τοῦ σινιάσαι ὡς τὸν σῖτον·
ERV	Simon, Simon, behold, Satan asked to have you, that he might sift you as wheat:
로스역	시몬 시몬아 사탄이 너를 차자 쌀이기를 밀갓티 하고자 하나

RV는 TR에 포함된 ‘에이펜 데 호 퀴리오스(주께서 말씀하셨다)’를 생략하고 있다. 『로스역』은 RV를 따라서 이 부분을 생략하여 번역했다.

(10) 눅 22:61 (TR을 따르는 것으로 보이는 구절)

TR	καὶ στραφεὶς ὁ κύριος ἐνέβλεψεν τῷ Πέτρῳ καὶ ὑπεμνήσθη ὁ Πέτρος τοῦ λόγου τοῦ κυρίου ὡς εἶπεν αὐτῷ ὅτι Πρὶν ἀλέκτορα φωνῆσαι ἀπαρνήσῃ με τρίς
KJV	And the Lord turned, and looked upon Peter. And Peter remembered the word of the Lord, how he had said unto him, Before the cock crow, thou shalt deny me thrice.
RV	καὶ στραφεὶς ὁ κύριος ἐνέβλεψεν τῷ Πέτρῳ, καὶ ὑπεμνήσθη ὁ Πέτρος τοῦ ῥήματος τοῦ κυρίου ὡς εἶπεν αὐτῷ ὅτι πρὶν ἀλέκτορα φωνῆσαι <b>σήμερον</b> ἀπαρνήσῃ με τρίς.
ERV	And the Lord turned, and looked upon Peter. And Peter remembered the word of the Lord, how that he said unto him, Before the cock crow <b>this day</b> , thou shalt deny me thrice.

로스역	쥬 피들을 도라보니 피들이 이어 쥬의 날은 비 달 올기 전에 네 장차 세 번 나를 비반 허리란 말을 심각하고
-----	---

RV는 TR에 포함되지 않은 ‘세메론(σήμερον)’을 본문에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로스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번역이 빠져 있다. RV를 따르지 않고, TR을 따른 것으로 보이는 드문 경우에 해당한다.

(11) 눅 22:64

TR	καὶ περικαλύψαντες αὐτὸν <b>ἔτυπον αὐτοῦ τὸ πρόσωπον</b> , καὶ ἐπηρώτων αὐτὸν, λέγοντες Προφήτευσον τίς ἐστὶν ὁ παῖσας σε
KJV	And when they had blindfolded him, <b>they struck him on the face</b> , and asked him, saying, Prophesy, who is it that smote thee?
RV	καὶ περικαλύψαντες αὐτὸν ἐπηρώτων λέγοντες· προφήτευσον, τίς ἐστὶν ὁ παῖσας σε;
ERV	And they blindfolded him, and asked him, saying, Prophesy: who is he that struck thee?
로스역	그 눈을 가리우고 물어 같으되 너를 티년 자가 뉘냐 너 말하라 하며

RV는 TR에 포함된 ‘에튀프톤 아우투 토 프로소폰(그의 얼굴을 때렸다)’을 생략하고 있다. 『로스역』은 RV를 따라서 이 부분을 생략하여 번역했다.

(12) 눅 22:68

TR	ἐὰν δὲ καὶ ἐρωτήσω οὐ μὴ ἀποκριθῆτε <b>μοι, ἢ ἀπολύσητε.</b>
KJV	And if I also ask <i>you</i> , ye will not answer me, <b>nor let me go.</b>
RV	ἐὰν δὲ καὶ ἐρωτήσω οὐ μὴ ἀποκριθῆτε
ERV	and if I ask <i>you</i> , ye will not answer.
로스역	만약 너의게 물으면 디답디 안으리라

RV는 TR에 포함된 ‘모이(나에게), 에 아포뤼세테(풀어주지 않으리라)’를 생략하고 있다. 『로스역』은 RV를 따라서 이 부분을 생략하여 번역했다. 주어를 생략하고 번역하는 것은 『로스역』에서 자주 발견되는 번역 특징이다.

(13) 눅 23:6

TR	Πιλάτος δὲ ἀκούσας <b>Γαλιλαίαν</b> ἐπηρώτησεν εἰ ὁ ἄνθρωπος Γαλιλαῖός ἐστιν·
KJV	When Pilate heard of <b>Galilee</b> , he asked whether the man were a Galilaean.
RV	Πιλάτος δὲ ἀκούσας ἐπηρώτησεν εἰ ὁ ἄνθρωπος Γαλιλαῖός ἐστιν·
ERV	But when Pilate heard it, he asked whether the man were a Galilaean.
로스역	피나토 듯고 물으되 이 가니니 사람이냐 하니

RV는 TR에 포함된 ‘갈릴라이안(갈릴리라는 말을)’을 생략하고 있다. 『로스역』은 RV를 따라서 이 부분을 생략하여 번역했다.

(14) 눅 23:8 (TR을 따른 것으로 보이는 구절)

TR	ὁ δὲ Ἡρώδης ἰδὼν τὸν Ἰησοῦν ἐχάρη λίαν ἦν γὰρ θέλων ἐξ ἰκανοῦ ἰδεῖν αὐτὸν διὰ τὸ ἀκούειν <b>πολλὰ</b> περὶ αὐτοῦ καὶ ἤλπίζεν τι σημεῖον ἰδεῖν ὑπ' αὐτοῦ γινόμενον
KJV	And when Herod saw Jesus, he was exceeding glad: for he was desirous to see him of a long <i>season</i> , because he had heard <b>many</b> things of him; and he hoped to have seen some miracle done by him.
RV	ὁ δὲ Ἡρώδης ἰδὼν τὸν Ἰησοῦν ἐχάρη λίαν ἦν γὰρ θέλων ἐξ ἰκανοῦ ἰδεῖν αὐτὸν διὰ τὸ ἀκούειν περὶ αὐτοῦ καὶ ἤλπίζεν τι σημεῖον ἰδεῖν ὑπ' αὐτοῦ γινόμενον
ERV	Now when Herod saw Jesus, he was exceeding glad: for he was of a long time desirous to see him, because he had heard concerning him; and he hoped to see some miracle done by him.
로스역	예수를 보고 심이 즐겨흐문 <b>만</b> 이 일을 뜻고 오리 보고자 흐며 쏘 그 한 덩도 흥흐넌 것 보기를 바리미라

RV는 TR에 포함된 ‘폴라(많이)’를 생략하고 있다. 『로스역』은 이 경우에 ‘만’을 번역에 포함하여 TR을 따르고 있다.

(15) 눅 23:15

TR	ἀλλ' οὐδὲ Ἡρώδης, <b>ἀνέπεμψα γὰρ ὑμᾶς πρὸς αὐτὸν</b> καὶ ἰδοὺ οὐδὲν ἄξιον θανάτου ἐστὶν πεπραγμένον αὐτῷ·
KJV	No, nor yet Herod: <b>for I sent you to him</b> ; and, lo, nothing worthy of death is done unto him.
RV	ἀλλ' οὐδὲ Ἡρώδης, <b>ἀνέπεμψεν γὰρ αὐτὸν πρὸς ἡμᾶς</b> , καὶ ἰδοὺ οὐδὲν ἄξιον θανάτου ἐστὶν πεπραγμένον αὐτῷ·
ERV	no, nor yet Herod: <b>for he sent him back unto us</b> ; and behold, nothing worthy of death hath been done by him.
로스역	헤롯이 쏘한 그러흐여 <b>도루 보니</b> 여스니 데 죽을 죄여 합당티 안은디라

TR에 ‘아네팸사 가르 휘마스 프로스 아우톤(내가 너희를 그에게 보내었기 때문이니라)’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RV에서는 ‘아네팸센 가르 아우톤 프로스 헤마스[그가(=헤롯이) 그를(=예수님을) 다시 보냈기 때문이니라]’로 개정되었다. 『로스역』은 RV를 문자적으로 번역하지는 않았지만, RV와 일치하는 내용으로 번역하였다.

(16) 눅 23:17

TR	ἀνάγκην δὲ εἶχεν ἀπολύειν αὐτοῖς κατὰ ἑορτὴν ἓνα.
KJV	(For of necessity he must release one unto them at the feast.)
RV	이 절 전체를 생략
ERV	이 절 전체를 생략
로스역	로스역도 이 절을 생략. 개역개정에서는 ‘절 없음’이라고 표시되고 있다.

RV는 TR에 포함된 17절 전체를 생략하였고, 로스역도 RV를 따라서 17절을 생략하였다.

(17) 눅 23:23

TR	οἱ δὲ ἐπέκειντο φωναῖς μεγάλαις αἰτούμενοι αὐτὸν σταυρωθῆναι καὶ κατίσχυον αἱ φωναὶ αὐτῶν <b>καὶ τῶν ἀρχιερέων.</b>
KJV	And they were instant with loud voices, requiring that he might be crucified. And the voices of them <b>and of the chief priests</b> prevailed.
RV	οἱ δὲ ἐπέκειντο φωναῖς μεγάλαις αἰτούμενοι αὐτὸν σταυρωθῆναι, καὶ κατίσχυον αἱ φωναὶ αὐτῶν.
ERV	But they were instant with loud voices, asking that he might be crucified. And their voices prevailed.
로스역	못사람이 큰 소리로 간절이 구하기를 습지틀에 못질하라 하니 데달이 소리 승하였넌디라

TR에 포함된 ‘카이 톤 아르키에레온(그리고 대제사장들의)’이 RV에서는 생략되고 있다. 『로스역』은 RV를 따라서 ‘대제사장들의’를 생략하고 번역하였다.

(18) 눅 23:35

TR	καὶ εἰστήκει ὁ λαὸς θεωρῶν ἐξεμυκτήριζον δὲ καὶ οἱ ἄρχοντες σὺν αὐτοῖς, λέγοντες Ἄλλους ἔσωσεν σωσάτω ἑαυτὸν εἰ οὗτός ἐστιν <b>ὁ Χριστὸς ὁ τοῦ θεοῦ ἐκλεκτός</b>
KJV	And the people stood beholding. And the rulers also with them derided <i>him</i> , saying, He saved others; let him save himself, if he be <b>Christ, the chosen of God.</b>
RV	Καὶ εἰστήκει ὁ λαὸς θεωρῶν. ἐξεμυκτήριζον δὲ καὶ οἱ ἄρχοντες λέγοντες· ἄλλους ἔσωσεν, σωσάτω ἑαυτὸν, εἰ οὗτός ἐστιν <b>ὁ χριστὸς τοῦ θεοῦ ὁ ἐκλεκτός.</b>
ERV	And the people stood beholding. And the rulers also scoffed at him, saying, He saved others; let him save himself, if this is <b>the Christ of God, his chosen.</b>
로스역	빅성은 셔서 보고 관당은 비우서 같오되 데 다른 사람을 구완하시니 만약 <b>하느님의 키리스토요 췌비 자면</b> 가이 스서로 고완하리라 하고

TR에서 ‘호 크리스토스 호 투 췌우 에크렉토스(그리스도,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로 되어 있던 것이 RV에서는 ‘호 크리스토스 투 췌우 호 에크렉토스(하나님의 그리스도, 택함받은 자)’로 어순이 바뀌고 있다. 『로스역』은 RV의 어순을 따라서 번역하였다. 로스가 어순에도 주의를 기울였음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19) 눅 23:38

TR	ἦν δὲ καὶ ἐπιγραφὴ <b>γεγραμμένη</b> ἐπ' αὐτῷ <b>γράμμασιν Ἑλληνικοῖς, καὶ Ῥωμακοῖς καὶ Ἑβραικοῖς</b> , οὗτος ἐστὶν Ὁ βασιλεὺς τῶν Ἰουδαίων
KJV	And a superscription also was <b>written</b> over him <b>in letters of Greek, and Latin, and Hebrew</b> , THIS IS THE KING OF THE JEWS.
RV	ἦν δὲ καὶ ἐπιγραφὴ ἐπ' αὐτῷ· ὁ βασιλεὺς τῶν Ἰουδαίων οὗτος.
ERV	And there was also a superscription over him, THIS IS THE KING OF THE JEWS.
로스역	그 우에 방을 써 갈으되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하였더라

TR에는 ‘그리스 말과 로마 말과 히브리 말로’로 번역될 수 있는 그리스어 어구 ‘그람마신 헬레니코이스 카이 로마이코이스 카이 헤브라이코이스’가 들어 있는 반면 RV에서는 이 구절이 생략되었다. 『로스역』은 RV 본문을 따라서 이 부분을 생략하고 번역하였다.

(20) 눅 23:42

TR	καὶ ἔλεγεν <b>τῷ Ἰησοῦ</b> μνήσθητί μου <b>Κύριε</b> , ὅταν ἔλθῃς ἐν τῇ βασιλείᾳ σου
KJV	And he said <b>unto Jesus, Lord</b> , remember me when thou comest into thy kingdom.
RV	καὶ ἔλεγεν· <b>Ἰησοῦ</b> , μνήσθητί μου ὅταν ἔλθῃς εἰς τὴν βασιλείαν σου.
ERV	And he said, <b>Jesus</b> , remember me when thou comest in thy kingdom.
로스역	이여 닐너 갈으되 <b>예수</b> 나라에 나아갈 쩌여 나를 심각호소셔 하니

TR에는 호격이 ‘퀴리에(주님)’로 되어 있으나 RV에서는 이 호격이 ‘예수’로 바뀌었다. 『로스역』은 RV 본문을 따라서 번역하였다.<sup>11)</sup>

(21) 눅 23:45

TR	καὶ ἐσκοτίσθη ὁ ἥλιος, καὶ ἐσχίσθη τὸ καταπέτασμα τοῦ ναοῦ μέσον
KJV	<b>And the sun was darkened</b> , and the veil of the temple was rent in the midst.
RV	<b>τοῦ ἡλίου ἐκλιπόντος</b> , ἐσχίσθη δὲ τὸ καταπέτασμα τοῦ ναοῦ μέσον.
ERV	<b>the sun's light failing</b> : and the veil of the temple was rent in the midst.
로스역	<b>날이 그믐하며</b> 성년 당막이 절반이 지어디니

TR에는 ‘해가 어두워지며’로 번역될 수 있는 그리스어 낱말 ‘에스코티스쎄’가 쓰이고 있으나, RV에서는 해가 가려져서 빛을 잃게 되는 식(蝕, eclipse)을 뜻하는 동사 ‘에클레이포’로 대체되었다. 『로스역』의 ‘날이 그믐하며’라는 번역은 RV 본문의 ‘에클레이포’를 원문에 따라 번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1) TR과 RV 사이에는 ‘토 예수(예수께)’라는 어구의 유무에 따라 사본상의 차이를 보인다. 그런데 로스는 이런 ‘여격’의 경우에 종종 우리말의 특성을 고려하여 번역에서 생략하는 경향을 보여 준다. 굳이 ‘이여 (예수께) 닐너 갈으되’로 여격을 밝혀 번역하지 않더라도, 뒤에 나오는 호격 ‘예수’와 문맥을 통해 충분히 잘 이해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런 부분에서는 번역 대본의 차이를 유추하기는 어렵다.

(22) 눅 24:1

TR	τῆ δὲ μιᾷ τῶν σαββάτων ὄρθρου βαθέως ἦλθον ἐπὶ τὸ μνήμα φέρουσαι ἃ ἠτοίμασαν ἀρώματα <b>καὶ τινές σὺν αὐταῖς</b>
KJV	Now upon the first <i>day</i> of the week, very early in the morning, they came unto the sepulchre, bringing the spices which they had prepared, <b>and certain others with them.</b>
RV	Τῆ δὲ μιᾷ τῶν σαββάτων ὄρθρου βαθέως ἐπὶ τὸ μνήμα ἦλθον φέρουσαι ἃ ἠτοίμασαν ἀρώματα.
ERV	But on the first day of the week, at early dawn, they came unto the tomb, bringing the spices which they had prepared.
로스역	사abat 후 첫날 발찌여 갓춘 비 향료를 가지고 무덤에 날으러

TR에는 ‘그들과 함께한 어떤 사람들도’에 해당하는 ‘카이 티네스 쉰 아우타이스’가 본문에 포함되어 있으나, RV에서는 생략되고 있다. 『로스역』은 RV 본문을 따라 이 구절을 생략하고 번역하였다.

(23) 눅 24:42

TR	οἱ δὲ ἐπέδωκαν αὐτῷ ἰχθύος ὀπτοῦ μέρος· <b>καὶ ἀπὸ μελισσίου κηρίου.</b>
KJV	And they gave him a piece of a broiled fish, <b>and of an honeycomb.</b>
RV	οἱ δὲ ἐπέδωκαν αὐτῷ ἰχθύος ὀπτοῦ μέρος·
ERV	And they gave him a piece of a broiled fish.
로스역	이여 구운 물고기 ᄃ?을 주니

TR에는 ‘벌꿀 조금을’에 해당하는 ‘카이 아포 멜리시우 케리우’가 본문에 포함되어 있으나, RV에서는 생략되고 있다. 『로스역』은 RV 본문을 따라 이 구절을 생략하고 번역하였다.

(24) 눅 24:49

TR	καὶ ἰδοὺ ἐγὼ ἀποστέλλω τὴν ἐπαγγελίαν τοῦ πατρός μου ἐφ' ὑμᾶς· ὑμεῖς δὲ καθίσατε ἐν <b>τῇ πόλει Ἱερουσαλήμ,</b> ἕως οὗ ἐνδύσησθε δύναμιν ἐξ ὕψους
KJV	And, behold, I send the promise of my Father upon you: but tarry ye in the city <b>of Jerusalem,</b> until ye be endued with power from on high.
RV	καὶ ἰδοὺ ἐγὼ ἀποστέλλω τὴν ἐπαγγελίαν τοῦ πατρός μου ἐφ' ὑμᾶς· ὑμεῖς δὲ καθίσατε ἐν <b>τῇ πόλει</b> ἕως οὗ ἐνδύσησθε ἐξ ὕψους δύναμιν.
ERV	And behold, I send forth the promise of my Father upon you: but tarry ye <b>in the city,</b> until ye be clothed with power from on high.
로스역	나의 아밤의 허한 비로써 너으게 보니니 <b>성에</b> 거ᄃ여 능ᄃ미 우리로부터 너의 주물 기 디리라 ᄃ고

TR에는 ‘예루살렘 성에’로 되어 있으나, RV에서는 예루살렘이 생략되고 그냥 ‘성에’라고 되어 있다. 『로스역』은 RV 본문을 따라 예루살렘을 생략하고 그냥 ‘성에’라고 번역하였다.

(25) 눅 24:53

TR	καὶ ἦσαν διαπαντός ἐν τῷ ἱερῷ <b>αἰνοῦντες καὶ</b> εὐλογοῦντες τὸν θεόν <b>Ἀμήν.</b>
KJV	And were continually in the temple, <b>praising and</b> blessing God. <b>Amen.</b>
RV	καὶ ἦσαν διὰ παντός ἐν τῷ ἱερῷ εὐλογοῦντες τὸν θεόν.
ERV	and were continually in the temple, blessing God.
로스역	늘 성전에서 하느님을 칭찬하더라

TR에는 ‘아이눈테스 카이’와 ‘아멘’이 본문에 포함되어 있으나, RV에서는 이 두 부분이 생략되어 있다. 『로스역』은 RV 본문을 따라 이 두 부분을 빼고 번역하였다.

### 3) 소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로스는 누가복음 20-24장의 경우, 팔머판 『개정 그리스어 성경』의 최신 원문을 최대한 반영하여 번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12)</sup> 몇몇 경우에서 로스가 RV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구절들도 있으나, 이것은 다른 부분들에서도 발견되는 불완전함의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로스가 자신이 입수한 최신 원문을 철저히 활용하여 번역을 마무리해 갔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sup>13)</sup>

요컨대, 로스는 『개정 그리스어 성경』 본문을 손에 넣은 뒤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를 조판하기까지 시간이 촉박했지만, 자신이 구할 수 있는 최신 그리스어 원문을 새로운 번역에 반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쏟았음을 알 수 있다. 1882년 3월 24일자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로스는 다음과 같이 자신 있게 말했다. “제 생각에 이 한글 역본은 영어 역본을 제외하면 신약에 대해 가장 최근에 발견한 결과와 최고의 사본 연구가 반영된 번역입니다.”<sup>14)</sup>

## 2. 중국어 저본 문제

로스가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1882)를 번역할 때 참고할 수 있었던 주요 중국어 번역본으로는 우선 ‘한문 문리역본’을 들 수 있다. 앞서 인용한 1882년 3월 24일자 편지에서 로스

12) 웨스트코트-호르트판에서 본문 일부에 꺾쇠 표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표시는, 꺾쇠표 안에 있는 본문을 인쇄본 본문에 포함하여 적어 두기는 했으나, 그 본문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알림이다. 눅 22:19b-20, 43-44; 23:34; 24:3, 6, 9, 12, 36, 40, 51, 52에서 그러한 보기를 볼 수 있다. 팔머의 옥스퍼드판이나 스크리브너의 캠브리지판도 이 부분을 본문에 포함하여 적어두었다. 웨스트코트-호르트판과는 달리 다른 두 판본은 본문 안에는 별도의 표시를 하지 않고, 각주에서 설명을 덧붙이는 식으로 이 본문들의 처리에 대한 메모를 달았다. 웨스트코트-호르트가 꺾쇠표로 묶어 표시한 부분을 『영어 개정판』은 본문 번역에 포함하였으나, 각주에서 이 본문들이 생략될 수도 있다는 부연설명을 덧붙였다. 로스는 이 본문들을 자신의 번역에 그대로 포함시키고 있으며, 별도의 표시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본문들은 당연히 저본 연구의 대상 구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13) 그러나 위에서 제시한 내용들은 로스가 1881년에 개정된 내용을 자신의 번역에 반영했다는 것은 잘 보여 주지만, 그것이 『영어 개정판』의 영향인지 『개정 그리스어 성경』의 영향인지는 말해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개정 그리스어 성경』은 『영어 개정판』의 바탕에 깔린 그리스어 본문을 재구성하려는 노력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내용상 『영어 개정판』과 『개정 그리스어 성경』은 일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위의 연구 결과는 개정된 그리스어 성경에 바탕을 두고 번역을 진행했다는 로스 자신의 말과 일치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14) 옥성득, 이만열 편역, 『대한성서공회사 자료집 제1권』, 38.



는 한국인 번역자가 ‘한문 문리역본’에서 1차로 번역한 원고를 바탕으로 번역을 완성해 나갔다고 진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통은 여기에 언급된 문리역본이 1852년에 출간된 『대표자 역본』(The Delegates’ version)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15)</sup> 그러나 문리역본은 번역본의 정식 명칭이 아니라 번역의 문체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문리(Wenli)는 입말체를 가리키는 ‘관화체’ 또는 ‘백화체’와 구별하여 사서삼경 등에 나오는 고전적인 문어체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런 문리체로 번역된 성경 가운데 로스가 참고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중국어 성경으로 『대표자 역본』<sup>16)</sup> 외에 『브리지만-컬버슨 역본』<sup>17)</sup>(신약 1859, 구약 1868)도 있었다. 실제로 히로 다카시와<sup>18)</sup> 김경연은<sup>19)</sup> 로스역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연구한 결과 로스역이 『브리지만-컬버슨 역본』을 참조하였을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기도 하였다. 로스는 문리역본 외에 관화체 역본도 참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1883년 1월 24일자 로스의 편지는 문리역본과 더불어 구어체 역본을 한국인 번역자에게 준 사실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번역 진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 학교에서는 한문 고전 책만 가르치므로, 한국 학자들은 중국인들과 마찬가지로 한문고전에 익숙합니다. 따라서 한국 학자는 한문 고전 문체 번역에 능통합니다. 이런 학자의 손에 고전 한문역 [문리역본] 복음서 한 권과 구어체 역본 한 부를 줍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한글로 번역하여 제게 탁월한 초고를 제공합니다.<sup>20)</sup> (강조는 필자의 것)

여기서 ‘구어체 역본’은 『북경관화역본』(1872)을<sup>21)</sup>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로스 자신의 편지와 선행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로스가 중국어 역본으로는 『대표자 역본』, 『브리지만-컬버슨 역본』, 『북경관화역본』을 참고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북경관화역본』은 문리역본에 비해 의미를 풀어 길게 번역하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어, 어휘를 제외하고 로스역에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로스는 비교적 “절대 직역의 원칙(an absolutely literal translation)”을<sup>22)</sup> 추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대표자 역본』과 『브리지만-컬버슨 역본』을 로스역과 비교하여 그 영향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어느 문리역본이 어느 정도로 로스역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해 볼 것이다.

『대표자 역본』과 『브리지만-컬버슨 역본』을 비교했을 때, 큰 틀에서 두 역본이 주요 용어

15) 이만열 외, 『대한성서공회사 1』, 25, 49; 김경연, “존 로스 「말코복음」(1887)의 대역 중국어 성서 - 부사의 비교,” 『성경원문연구』 44 (2019), 165-166; 정용한, “초기 우리말 성서의 저본 사용에 대한 통시적 연구: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69; 히로 다카시, “개화기 한국어 성서의 번역어 연구 -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46.

16) 참고. 이환진, “한문성경 『대표본』(代表本, 1854)의 번역 특징 - 전도서를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30 (2013), 25-44.

17) 참고. 이환진, “한문성경 브리지만-컬버슨역(1864)의 번역 특징 - 시편 23편을 중심으로”, 『신학과 세계』 73 (2012), 7-45.

18) 히로 다카시, “개화기 한국어 성서의 번역어 연구 -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55-58.

19) 김경연, “존 로스 「말코복음」(1887)의 대역 중국어 성서 - 부사의 비교”, 164-181.

20) “J. Ross to W. Wright. Jan.24, 1883”, 옥성득·이만열 편역, 『대한성서공회사 자료집 제1권』, 64-65; 박형신, “존 로스 번역본 『예수성교요안니복음전서』 초판(1882)의 ‘간음한 여인 이야기’(요7:53-8:11) 삭제 문제”, 70-71에서 재인용.

21) 참고. 이환진, “쉐레쉴브스키 주교의 북경관화역 구약(1875): 시편 1편을 중심으로,” 『신학과 세계』 76 (2013), 6-37.

22) 옥성득·이만열 편역, 『대한성서공회사 자료집 제1권』, 62-63.

를 서로 다르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선지자/예언자, 성신/성령, 상제/신, 경/성서 등이 그러한 보기에 속한다. 이런 경우에 로스역은 선지자, 성신, 하느님/하나님, 성경으로 번역하였다. 다시 말해, 로스는 『대표자 역본』의 번역어를 택하거나 아니면 두 중국어 번역본과 다른 새로운 번역어를 찾아 번역한 것이다. 이로 보건대, 기본적으로 로스가 『대표자 역본』을 매우 존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브리지만-컬버슨 역본』은 완전히 무시되었던 것일까? 아래에서 확인하게 되겠지만, 한 구절 한 구절 비교 대조를 해 볼 경우, 『브리지만-컬버슨 역본』이 로스역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두 중국어 성경이 서로 다른 번역을 하고 있는 경우에, 로스가 『대표자 역본』이 아니라 『브리지만-컬버슨 역본』을 따라간 경우를 매우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때로는 어느 한 역본을 따르지 않고, 두 역본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번역하기도 한 듯하다. 그 중요한 구절들을 표로 제시해 보면 아래와 같다.

### 1) 『대표자 역본』과 『브리지만-컬버슨 역본』이 다를 때 후자를 따른 구절들

#### (1) 눅 21:1

로스역	예수 눈을 들어 부자 지물노써 고에 더디물 보다가
대표자역	耶穌望見富人，以財輸庫
브리지만	耶穌舉目見，諸富者，以所輸投於庫
그리스어	Ἀναβλένας δὲ εἶδε τοὺς βάλλοντας εἰς τὸ γαζοφυλάκιον τὰ δῶρα αὐτῶν πλουσίου.

『로스역』에 나오는 ‘들어’, ‘더디물’은 『브리지만』에 나오는 거(擧)와 투(投)의 영향으로 보인다. 『대표자역』에는 이에 해당하는 한자가 보이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브리지만』은 『대표자역』에 비해 그리스어 원문에 더 충실한 직역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구절의 경우에도 『브리지만』은 그리스어 낱말 ‘아나블레프사스’와 ‘발론타스’를 거(擧)와 투(投)를 써서 직역한 반면, 『대표자역』은 망견(望見)과 유(輸)를 써서 의역을 하였다. 이런 차이가 있는 경우 ‘절대 직역의 원칙’을 선호했던 로스는 『브리지만』을 따르는 경향을 보여준다.

『브리지만』은 그리스어 낱말 ‘플루시우스’도 복수형을 드러내어 제부자(諸富者)로 옮긴 반면, 『대표자역』은 부인(富人)으로 번역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로스도 그냥 ‘부자’라고 단수로 번역하여, 번역어 차원에서는 『브리지만』의 부자(富者)를 따랐지만, 단수 복수의 구별 차원에서는 『대표자역』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단수 복수의 번역에 관해서는 로스가 우리말에서 단수와 복수의 구별에 엄밀하지 않은 우리말 관용 어법을 따라 자연스럽게 번역하려고 한 결과로 여겨진다.

(2) 눅 21:3

로스역	즉시 같오되 니 실노 너의게 말하너니
대표자역	耶穌曰, 我誠告爾
브리지만	則曰, 我誠告爾
그리스어	καὶ εἶπεν, Ἀληθῶς λέγω ὑμῖν ὅτι ἡ χίρα αὕτη ἢ πτωχὴ πλεῖτον πάντων ἔβαλεν

『로스역』에 나오는 ‘즉시’는 『브리지만』의 즉(則)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어 원문에는 이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다. 그런데 접속사 ‘그리고’로 직역할 수 있는 ‘카이’를 『브리지만』이 문맥을 고려하여 즉(則)으로 번역했고, 즉(則)의 영향으로 로스가 ‘즉시’로 번역한 듯하다.

(3) 눅 21:4

로스역	오직 이 과부는 족디 못한데 <b>디닐</b> <b>긱구</b> 를 다 더딘다 하더라
대표자역	此則不足而盡輸所有者也
브리지만	惟此嫠則由其 不足而盡輸其養 生之資也
그리스어	πάντες γὰρ οὗτοι ἐκ τοῦ περισσεύοντος αὐτοῖς ἔβαλον εἰς τὰ δῶρα, αὕτη δὲ ἐκ τοῦ ὑστερήματος αὐτῆς <b>πάντα τὸν βίον ὃν εἶχεν</b> ἔβαλεν.

『로스역』의 ‘디닐 긱구’는 그리스어 낱말 ‘비온(βίον)’에 대한 번역이다. 이 낱말을 『대표자역』은 소유자(所有者)로 번역하였고, 『브리지만』은 기양(其養) 생지자(生之資)로 번역했다. 『로스역』은 『브리지만』과 더 가까운 번역이다.

(4) 눅 21:20

로스역	너의 여루사람이 <b>군사의게 돌린 비 되물</b> 본즉 그 망하미 <b>갓가운 줄</b> 을 알나
대표자역	爾見軍環耶路撒冷, 則知其亡無日矣
브리지만	爾見耶路撒冷, 爲軍所圍, 則知其亡近矣
그리스어	Ὅταν δὲ ἴδητε <b>κυκλουμένην ὑπὸ στρατοπέδων</b> Ἱερουσαλήμ, τότε γινώτε ὅτι <b>ἤγγικεν</b> ἡ ἐρήμωσις αὐτῆς.

『로스역』의 ‘여루사람이 군사의게 돌린 비 되물’에서 ‘군사의게 돌린 비 되물’은 『브리지만』의 爲軍所圍(위군소위)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뒷부분에서 『로스역』의 ‘갓가운 줄’은 『브리지만』의 근(近)을 반영한 번역어이다. 『대표자역』은 무일의(無日矣)라 하여 뜻을 따라 에 돌려 번역했다.

(5) 눅 22:18

로스역	니 너의게 말하노니 니 다시 포도나무에 나넌 비를 마시디 안코 하느님의 나라 님흐 메 밋츠리라 하고
대표자역	吾語汝，我不飲葡萄酒。待上帝國至而飲焉
브리지만	蓋我語爾，我不復飲葡萄樹所產者，治神之國臨焉
그리스어	λέγω γὰρ ὑμῖν, ὅτι οὐ μὴ πῖω ἀπὸ τοῦ νῦν ἀπὸ τοῦ γενήματος τῆς ἀμπέλου ἕως ο ὔ ἡ βασιλεία τοῦ θεοῦ ἔλθῃ.

『로스역』에서 ‘니 다시 포도나무에 나넌 비를 마시디 안코’는 『브리지만』의 아부복음포도 수소산자(我不復飲葡萄樹所產者)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표자역』에는 ‘다시’에 해당하는 번역어가 없고, ‘포도나무에 나넌 비’를 ‘포도즙’으로 번역했다.

(6) 눅 22:25

로스역	예수 날러 같으되 외방에 왕이 그 다스리물 주하고 권세를 잡은 자는 은주를 칭하되
대표자역	耶穌曰，異邦之君主基治，秉權之人稱大勳
브리지만	耶穌謂之曰，異邦之君主之，秉權以治之者，人稱之爲恩主
그리스어	ὁ δὲ εἶπεν αὐτοῖς, Οἱ βασιλεῖς τῶν ἐθνῶν κυριεύουσιν αὐτῶν καὶ οἱ ἐξουσ ιάζοντες αὐτῶν εὐεργέται καλοῦνται.

『로스역』에서 ‘예수 날러 같으되’는 『브리지만』에 나오는 야소위지왈(耶穌謂之曰)의 영향으로 보인다. 『대표자역』에 없는 위(謂)가 『로스역』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뒷부분에 나오는 『로스역』의 ‘은주’는 『브리지만』의 은주(恩主)를 그대로 채용한 것이다. 『대표자역』에서는 大勳(대훈)으로 되어 있다. 한편, 『북경관화역본』에서도 은주(恩主)가 나오고, 특히 그리스어 낱말 ‘에쓰노스’를 『대표자역』이나 『브리지만』에서 이방(異邦)이라고 한 것과 달리 외방(外邦)이라고 번역했는데, 『로스역』에 ‘외방’이라는 번역어가 나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로스가 번역어를 선택할 때 『북경관화역본』이 미친 영향도 고려해야 함을 상기시키는 대목이다.

(7) 눅 22:53

로스역	니 날마당 너의과 함께 성면에 이슬 적에는 니게 손을 놀니다 안아스나 이제는 너의 찌니 어두운 권세라 흐더라
대표자역	我日偕爾在殿，爾不執我，今乃爾曹之時，冥冥之勢矣
브리지만	我日偕爾在殿，爾不措手於我，然今乃爾曹之時，黑暗之勢矣。
그리스어	καθ’ ἡμέραν ὄντος μου μεθ’ ὑμῶν ἐν τῷ ἱερῷ οὐκ ἐξετείνετε τὰς κεῖρας ἐπ’ ἐ μέ, ἀλλ’ αὕτη ἐστὶν ὑμῶν ἡ ὥρα καὶ ἡ ἐξουσία τοῦ σκοτόυς.

『로스역』의 ‘니게 손을 놀니다 안아스나’는 『브리지만』에 나오는 爾不措手於我(이부조수 어아)를 따른 번역으로 보인다. 『대표자역』은 단순히 爾不執我(이부집아)라고 하여 뜻풀이

식 번역을 한 반면, 『브리지만』은 비교적 그리스어에 문자적으로 충실하게 번역을 하였고, 로스는 『브리지만』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8) 눅 23:25

로스역	이여 난 <u>지어</u> 살인하고 옥에 갓된 자를 노우니 <u>이는 못사람 구하년 비 자</u> 라 예수를 못사람으게 붓티문 그 뜻을 좃추미라
대표자역	釋民所求亂殺下獄之巴拉巴, 交耶穌於民, 以徇民意
브리지만	遂釋作亂殺人, 而下獄之人, 卽其所求者, 乃交耶穌於衆, 以徇其意
그리스어	ἀπέλυσεν δὲ τὸν διὰ στάσιν καὶ φόνον βεβλημένον εἰς φυλακὴν <u>δὲν ἠτοῦντο</u> , τὸν δὲ Ἰησοῦν παρέδωκεν τῷ θελήματι αὐτῶν.

『로스역』은 『브리지만』의 ‘주석작난랑인(遂釋作亂殺人), 이하옥지인(而下獄之人), 즉기소구자(卽其所求者)’와 더욱 가까운 번역이다. 『로스역』에서 ‘지어’에 해당하는 작(作)은 『브리지만』에만 나온다. 그리고 ‘이는 못사람 구하년 비 자’가 자리한 어순도 『대표자역』이 아니라 『브리지만』과 일치함을 보인다.

(9) 눅 23:55

로스역	가니니로부터 예수과 함께 온 모든 부인이 뒤를 좃차 그 무덤과 어드케 시신 <u>두물</u> 보고
대표자역	自加利利同耶穌來之婦, 隨後觀基墓, 及葬屍如何
브리지만	自加利利偕耶穌而來之婦, 隨後觀基墓, 及 <u>置屍</u> 如何
그리스어	Κατακολουθήσασαι δὲ αἱ γυναῖκες, αἵτινες ἦσαν συνεληλυθυῖαι ἐκ τῆς Γαλιλαίας αὐτῶ, ἐθεάσαντο τὸ μνημεῖον καὶ ὡς <u>ἐτέθη</u> τὸ σῶμα αὐτοῦ,

로스가 ‘두물’로 번역한 것은 『대표자역』의 장(葬)보다 『브리지만』의 치(置)와 더 일치한다.

(10) 눅 24:4

로스역	<u>위혀여</u> 두데홀 씨여 두 사람이 빗난 의복을 입고 <u>곶테</u> 셔스니
대표자역	躊躇間, 有二人立, 衣服燐燐
브리지만	<u>爲之躊躇時</u> , 有二人 <u>旁</u> 立, 衣服燐燐
그리스어	καὶ ἐγένετο ἐν τῷ ἀπορεῖσθαι αὐτὰς <u>περὶ τούτου</u> καὶ ἰδοὺ ἄνδρες δύο ἐπέστησαν αὐταῖς ἐν ἐσθῆτι ἀστραπτύσῃ.

로스가 ‘위혀여’와 ‘곶테’로 번역한 것은 『대표자역』보다 『브리지만』과 더 일치한다. ‘위혀여’는 그리스어 원문에 나오는 ‘페리 투톤’에 대한 번역으로 보이는데, 『대표자역』은 이를 번역에서 아예 생략한 반면 『브리지만』은 위(爲)로 번역하였다. 또한 『브리지만』에는 로스의 ‘곶테’에 상응하는 번역어 방(旁)이 보이는 반면, 『대표자역』에는 상응하는 번역어가 없다.

(11) 눅 24:7

로스역	인자 반드시 <u>죄인의 손에</u> 가 습지틀에 못질헸였다가 <u>데 삼일만에</u> 다시 날갯다 하물 싱각헸라 헸니
대표자역	人子必解於罪人, 釘十字架, 三日復生
브리지만	人子必付於罪人之手, 釘十字架, 而於第三日復生
그리스어	λέγων τὸν υἱὸν τοῦ ἀνθρώπου ὅτι δεῖ παραδοθῆναι <u>εἰς χεῖρας ἀνθρώπων ἁμαρτωλῶν</u> καὶ σταυρωθῆναι καὶ <u>τῇ τρίτῃ ἡμέρᾳ</u> ἀναστῆναι.

로스가 그냥 ‘죄인에게’라고 하지 않고 ‘죄인의 손에’라고 한 것과 그냥 ‘삼일만에’라고 하지 않고 ‘데 삼일만에’라고 한 것은 『브리지만』과 일치할 보이는 부분이다. 『대표자역』은 어죄인(於罪人)과 삼일(三日)이라고 한 것을 『브리지만』은 어죄인지수(於罪人之手)와 제삼일(第三日)이라고 하였다. 『브리지만』이 그리스어 원문에도 더 가까운 직역에 해당한다.

(12) 눅 24:12

로스역	피들은 날어 무덤에 다라가 굽어 오직 <u>가는 비 둔 것만</u> 보고 <u>만년 비를</u> 그기이 네겨 도라오니라
대표자역	彼得起, 趨墓, 俯見泉布而已, 異而歸.
브리지만	彼得起趨至墓, 俯見泉布置焉, 乃歸以 <u>所遇之事</u> 爲奇.
그리스어	Ὁ δὲ Πέτρος ἀναστὰς ἔδραμεν ἐπὶ τὸ μνημεῖον, καὶ παρακύψας βλέπει <u>τὰ ὀθόνια</u> μόνα: καὶ ἀπῆλθεν πρὸς ἑαυτὸν θαυμάζων <u>τὸ γεγονός</u> .

『대표자역』은 그냥 ‘泉布(시포)’로 번역한 반면, BC는 泉布置(시포치)라고 번역했다. 로스가 ‘가는 비 둔 것만 보고’라고 번역한 것은 치(置)를 포함한 『브리지만』에 더 가깝다. 『대표자역』은 그리스어 원문에서 τὸ γεγονός(토 게고노스)에 해당하는 부분을 번역에서 아예 생략한 반면, 『브리지만』은 所遇之事(소우지사)로 번역하였고, 로스는 이와 일치하게 ‘만년 비를’로 번역하였다.

(13) 눅 24:16

로스역	<u>두 데자</u> 눈이 아득헸여 아디 못헸게 헸고
대표자역	門徒目迷下識之
브리지만	二徒目迷致下識
그리스어	οἱ δὲ ὀφθαλμοὶ αὐτῶν ἐκρατοῦντο τοῦ μὴ ἐπιγνῶναι αὐτόν.

로스가 ‘두 데자’로 번역한 부분은 그리스어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함축된 주어를 밝혀 번역한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브리지만』은 이를 이도(二徒)라고 한 반면 『대표자역』은 그냥 문도(門徒)라고 번역했다. 로스의 번역은 『브리지만』과 더 일치하는 셈이다.

2) 『대표자 역본』과 『브리지만-컬버슨 역본』을 절충하여 번역한 구절들

(1) 눅 21:5

로스역	혹이 성년을 알음다운 돌과 네물노써 슈리 <sup>ㅎ</sup> 엿다 말 <sup>ㅎ</sup> 니
대표자역	或有誇譽殿中所陳設之美石珍器者
브리지만	有人論及殿, 言其以美石與禮物修飾者
그리스어	Καὶ τινῶν λεγόντων περὶ τοῦ ἱεροῦ ὅτι λίθοις καλοῖς καὶ ἀναθήμασιν κεκόσμηται, εἶπεν,

『로스역』의 ‘혹이’는 『대표자역』의 혹(或)을 반영한 번역으로 보인다. 한편 『로스역』의 ‘네물’과 ‘슈리’는 『브리지만』의 예물(禮物)과 수(修)의 영향으로 보인다. 『대표자역』은 의미를 풀어서 진기(珍器)를 진설(陳設)했다고 번역했다. 로스는 『대표자역』에서 혹(或)을, 『브리지만』에서 예물(禮物)과 수(修)를 취하고, 이 둘을 종합하여 자신의 번역문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2) 눅 21:6

로스역	예수 같으되 이 너의 보년 비 물건이 날이 장차 날으러 한나 돌이 돌 우에 깃티미 업시 다 물어틸이라 <sup>ㅎ</sup> 니
대표자역	耶穌曰, 爾觀此物, 日將至, 將不遺石於石上, 必盡圯也
브리지만	耶穌曰, 論爾所見之此物, 日將至, 無一石遺於石上而不圯也
그리스어	Ταῦτα ἃ θεωρεῖτε ἐλεύσονται ἡμέραι ἐν αἷς οὐκ ἀφεθήσεται λίθος ἐπὶ λίθῳ ὃς οὐ καταλυθήσεται.

『로스역』에서 볼드체로 표시한 부분은 『브리지만』의 ‘이소견지차물(爾所見之此物), 일장지(日將至), 무일석유어석상(無一石遺於石上)’을 축자적으로 따른 듯한 번역이다. 그 뒷부분의 경우, 『브리지만』은 ‘不圯(무너지지 아니함)’가 無(없다)라고 그리스어를 직역한 반면, 『대표자역』은 必盡圯也(필진비야)라 하여 ‘반드시 다 무너지리라’고 번역했다. 이것을 볼 때 『로스역』의 뒷부분은 『대표자역』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반영한 것일 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이 구절에서 『브리지만』의 영향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3) 눅 23:50

로스역	한 사람의 일음은 요섭이니 정승이라 사람되미 <u>어딜고</u> 쯔 올운디라
대표자역	有人名約瑟, 議士也, 爲人仁義
브리지만	有一人名約瑟, 議士也, 爲人善且義
그리스어	Καὶ ἰδοὺ <u>ἄνθρωπος</u> ὀνόματι Ἰωσήφ βουλευτῆς ὑπάρχων [καὶ] ἄνθρωπος <u>ἀγαθὸς καὶ δίκαιος</u>

『대표자역』이 인명(人名)으로 번역한 것을 『브리지만』은 일인명(一人名)으로 번역했다. 이

에 대해 『로스역』은 『브리지만』과 일치하는 ‘한 사람(一人)’으로 번역했다. 그리고 『대표자역』이 인의(仁義)라고 번역한 것을 『브리지만』은 선차의(善且義)로 번역했다. 로스가 ‘어딜고’라고 번역한 것은 『대표자역』의 인(仁)에 가깝다. 그런데 로스가 ‘어딜고’ 뒤에 굳이 ‘또’라는 말을 덧붙인 것은 『브리지만』에 나오는 접속사 ‘또(且)’의 영향으로 보인다. 로스는 아마도 『대표자역』과 『브리지만』을 같이 살펴보면 두 번역본에서 일부를 취하여 그것들을 절충함으로써 자신의 번역을 완성해 갔던 것으로 보인다.

(4) 눅 24:27

로스역	이여 모쇼로부터 비롯하여 모든 선디에게 밋쳐 무룬 글에 쓴 비 자 그 <u>같으친</u> 일을 다 지세이 강논하고
대표자역	於是由摩西始, 及諸先知, 凡經載己之事, 悉詳明之.
브리지만	於是自摩西始, 及諸預言者, 凡聖書所載指己之事, 悉爲之詳明焉.
그리스어	καὶ ἀρξάμενος ἀπὸ Μωϋσέως καὶ ἀπὸ πάντων τῶν <u>προφητῶν</u> διερμήνευσεν αὐτοῖς ἐν πάσαις ταῖς <u>γραφαῖς</u> τὰ περὶ ἑαυτοῦ.

『로스역』에서 ‘그 같으친’이라는 부분은 그리스어 원문에 비추어 볼 때 꼭 필요한 어구는 아니다. 그런데 『브리지만』은 범성서소재지가지사(凡聖書所載指己之事)라 하여 원문에 없는 지(指)를 추가하여 번역했다. 지(指)가 『대표자역』에는 빠진 것으로 보아, 『로스역』의 ‘그 같으친’은 『브리지만』의 영향으로 보인다. 한편, 그리스어 낱말 ‘프로페테스’를 ‘선디’로 번역한 것은 『대표자역』의 경향을 따른 것이다. 그러면서도, ‘글에 쓴 비’라고 할 때에는 『대표자역』의 ‘경’(經)도 『브리지만』의 ‘성서’(聖書)도 채택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글’로 번역한 점이 인상적이다.

3) 소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로스는 『대표자 역본』외에도 『브리지만-컬버슨 역본』을 주의 깊게 참조하면서 번역했음을 알 수 있다. 로스는 어느 한 번역본을 기계적으로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참조할 수 있는 여러 번역본들을 두고 비교 검토를 통해 한 구절 한 구절 신중한 결정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때로는 『대표자 역본』을, 때로는 『브리지만-컬버슨 역본』을 따르면서, 또 때로는 두 번역본에서 더 적절한 번역어를 절충적으로 선택해서 우리말 최초의 번역 성경인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의 한 말씀 한 말씀을 옮겨 나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누가복음 22:25의 경우에는 『복경관화역본』까지 참고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 Ⅲ. 로스역의 주요 번역 특징들

모든 번역이 추구하는 목표는 그리스어 원문에 충실하면서도 대상 언어로 자연스럽게 번



역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다. 로스도 우리말 성경을 번역할 때 같은 목표를 추구하였다. 1883년 1월 24일자 편지에서 밝힌 번역 원칙이 이를 잘 말해 준다. “그 원칙들은 첫째, 본문의 의미와 한국어 어풍에 적합한 절대적인 직역”이라고 했다.<sup>23)</sup> 이 목표에 따라 로스는 최신 그리스어 원문뿐 아니라, 영어와 중국어 번역본을 참고하면서도, 새로운 번역에 걸맞은 새롭고 참신한 한국어 번역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나타난 특징들을 그리스어 원문에 충실했던 측면과 우리말 어풍에 어울리게 번역했던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자.

## 1. 그리스어 원문에 충실한 번역

### 1) 그리스어 낱말을 뜻으로 풀지 않고 그대로 직역하여 번역

누가복음 22:5에는 “데달이 즐거워 은 주기를 작명하니”라는 구절이 나온다. 여기서 ‘은’이라는 번역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KJV와 ERV는 ‘money’로, 『대표자 역본』과 『브리지만-컬버슨 역본』은 ‘금’(金)으로 번역한 반면, 로스는 그리스어 낱말 ‘아르귀리온’을 낱말의 1차 의미 그대로 ‘은’으로 직역하였다. 『북경관화역본』이 ‘은’(銀)으로 번역하고 있으므로 『북경관화역본』의 영향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다수의 역본들이 의미에 방점을 두고서 ‘금’이나 ‘돈’으로 번역한 것을 알면서도, 로스가 ‘아르귀리온’을 ‘은’으로 번역한 것은 『북경관화역본』의 번역어 ‘은’이 그리스어 원문을 직역한 번역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 2) 그리스어 문장의 어순을 최대한 그대로 지켜서 번역

#### (1) 눅 19:15 (‘히나(ἵνα)’절이 포함된 문장)

로스역	마침 나라를 밧고 돌아와 명하여 은 준 종덜을 불너다가 당사하여 열미나 닝겨년지 알고자 하니
개역개정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ERV	And it came to pass, when he was come back again, having received the kingdom, that <b>he commanded these servants</b> , unto whom he had given the money, to be called to him, <b>that he might know what they had gained by trading.</b>
RV	καὶ ἐγένετο ἐν τῷ ἐπανελθεῖν αὐτὸν λαβόντα τὴν βασιλείαν καὶ εἶπεν φωνηθῆναι αὐτῷ τοὺς δούλους τούτους οἷς δεδώκει τὸ ἀργύριον, ἵνα γνοῖ τί διεπραγματεύσαντο.

“종덜을 불너다가 당사하여 열미나 닝겨년지 알고자 하니”로 번역된 부분은 『개역개정』과 같은 구조로 ‘당사하여 열미나 닝겨년지 알고자 하여 종덜을 부르니’로도 번역할 수 있는 구절이다. ‘당사하여 열미나 닝겨년지 알고자 하여’는 목적을 뜻하는 ‘히나(ἵνα)’절로 쓰여 있기 때문이다. 우리말에서는 주동사를 문장의 맨 마지막에 두고 그 앞에 목적절을 두는 것이 보통의 어순이다. 그런데 로스는 그리스어 원문의 어순을 그대로 따르면서도 그 의미를 전혀 훼손하지 않고 적절히 번역해 낸 것을 볼 수 있다.

23) 옥성득·이만열 편역, 『대한성서공회사 자료집 제1권』, 62.

(2) 눅 20:14 ('히나(ἵνα)'절이 포함된 문장)

로스역	농인이 보고 즉시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후사니 <u>죽여 산업을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자</u> 하고
개역개정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u>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u> 하고
ERV	But when the husbandmen saw him, they reasoned one with another, saying, This is the heir: <b>let us kill him, that the inheritance may be ours.</b>
RV	ἰδόντες δὲ αὐτὸν οἱ γεωργοὶ διελογίζοντο πρὸς ἀλλήλους λέγοντες· οὗτός ἐστιν ὁ κληρονόμος· <b>ἀποκτείνωμεν αὐτόν, ἵνα ἡμῶν γένηται ἡ κληρονομία.</b>

“죽여 산업을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자”로 번역한 부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구절은 ‘(우리가) 그를 죽이자. 산업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이라고 직역해 볼 수 있는 본문이다. 그리스어 원문에 나오는 ‘히나(ἵνα)’절은 목적을 나타내는 용법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어 『취리히성경』(2007)은 목적절로 번역하고 있다.<sup>24)</sup> 이럴 경우 우리말에서는 보통 ‘산업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그를 죽이자’로 번역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게 들릴 수도 있다. 한편, ‘히나(ἵνα)’절은 결과절로 해석할 수도 있다. 영어 번역에서 발견되는 ‘(so) that … may …’ 구문은 목적으로도 결과로도 이해 가능하기 때문에, 영어 번역이 어느 용법으로 해석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런데 로스는 여기서 이 ‘히나(ἵνα)’절을 결과절로 번역하여 그리스어 원문의 어순을 그대로 따르는 선택을 하였다. 이 구절의 경우 어느 쪽으로 번역하더라도 최종적인 의미에는 큰 차이가 없게 되므로, 원문의 어순을 따르는 방식으로 번역한 것은 탁월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어순은 『개역개정』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3) 눅 23:25 (관계대명사가 포함된 문장)

로스역	이여 난 지어 살인하고 옥에 갇힌 자를 노우니 이는 <u>못사람 구혹년 비 자라</u> 예수를 못사람에게 붓티문 그 뜻을 좇추미라
개역개정	<u>그들이 요구하는 자</u> 곧 민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 주고 예수는 넘겨 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ERV	And he released him that for insurrection and murder had been cast into prison, <b>whom they asked for</b> ; but Jesus he delivered up to their will.
RV	ἀπέλυσεν δὲ τὸν διὰ στάσιν καὶ φόνον βεβλημένον εἰς φυλακὴν <b>ὃν ἠτοῦντο</b> , τὸν δὲ Ἰησοῦν παρέδωκεν τῷ θελήματι αὐτῶν.

『로스역』은 그리스어 원문에 나와 있는 어순을 거의 그대로 지켜서 번역하였다. 동사를 문장 맨 앞에 두는 것이 곤란한 우리말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노우니’라는 동사를 나중에 번역한 것을 제외하면 로스역은 그리스어 원문의 어순과 거의 일치한 번역이라 할 수 있다. 밑줄 친 부분의 번역에서 『개역개정』의 어순이 우리말로 더 자연스러울 수도 있지만, 로스는 최대한 그리스어 원문의 어순을 존중했던 것으로 보인다.

24) Als aber die Weinbauern ihn sahen, überlegten sie und sagten zueinander: Das ist der Erbe. Wir wollen ihn töten, damit das Erbe uns zufällt.(Luk 20:14 ZUR)

(4) 눅 23:27 (관계대명사가 포함된 문장)

로스역	수다한 백성이 좃고 또 열어 부인이 이서 가슴을 티며 통곡호거늘
개역개정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ERV	And there followed him a great multitude of the people, and of <b>women who bewailed and lamented him.</b>
RV	Ἠκολούθει δὲ αὐτῷ πολὺ πλῆθος τοῦ λαοῦ καὶ <b>γυναικῶν αἱ ἐκόπτοντο καὶ ἐθρήνον</b> αὐτόν.

여기서 “가슴을 티며 통곡호거늘”은 “열어 부인”을 수식하는 관계 대명사 문장의 번역이다. 우리말로는 『개역개정』과 같이 관계문이 명사를 수식하는 구조로 번역해 볼 만하다. 그러나 로스는 그리스어 원문의 어순을 그대로 지켜, 꾸밈을 받는 명사 ‘여러 부인’을 앞에 두고, 뒤이어 그 부인들에 대해 설명한 내용을 두는 선택을 하였다.

3) 그리스어 낱말의 어원을 드러내어 번역

(1) 로스는 그리스어 낱말 ‘휘파르콘톤(ὑπαρχόντων)’을 ‘잇년 비’로 번역했다(눅 8:3; 11:21; 19:8 등). 『대표자 역본』, 『브리지만-컬버슨 역본』, 『북경관화역본』은 모두 ‘소유’(所有)로 번역했다. 로스는 이를 순우리말 표현으로 순화하여 번역한 것으로 보인다. 『새번역』과 『공동개정』에서 이 낱말을 때때로 ‘재산’으로도 번역한 것을 고려하면, 로스의 ‘잇년 비’라는 번역어는 의미뿐만 아니라 어원까지도 잘 살린 번역에 해당한다. ‘휘파르코’ 동사는 본디 ‘있다’라는 뜻으로도 자주 쓰이기 때문이다.<sup>25)</sup>

(2) 누가복음 10:31의 『로스역』은 ‘마즘 한 제사 이 길노 내려가다가 보고 마주 디니 가고’이다. 여기서 ‘마주 디니 가고’는 ‘안티파렐센(ἀντιπαρήλθεν)’의 번역이다. ‘안티파렐센’은 ‘안티(마주) + 파라(디니) + 엘센(가고)’이라는 세 요소의 합성 동사이다. 로스는 합성 동사를 구성하고 있는 세 요소를 모두 잘 살려서 번역했다. 그냥 ‘지나가다’라는 뜻의 과(過)로 번역한 『대표자 역본』(竟過之)이나 『브리지만-컬버슨 역본』(見之, 則竟過焉)보다 훨씬 더 그리스어 낱말의 어원에 다가간 번역이다.

4) 그리스어 원문의 서로 다른 낱말을 한국어로도 서로 다른 낱말로 구분하여 번역

(1) 누가복음 17:18에 나오는 ‘타국 사람’은 그리스어 ‘알로게네스(ἀλλογενής)’에 대한 번역이다. 『개역개정』에서는 이를 ‘이방인’이라고 번역했다. 그러나 신약에서 통상 ‘이방인’으로 번역되는 그리스 말은 ‘에쓰노스(ἔθνος)’이다. ‘알로게네스’는 신약에서 단 한 번 사용된 낱말이고, ‘이방인’으로 번역한다고 해서 잘못된 번역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개역개정』은 ‘알로게네스’와 ‘에쓰노스’를 우리말 번역에서 구분하지 않고 둘 다 ‘이방(인)’으로 번역했다. 『새번역』과 『공동개정』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로스는 신약에 단 한 번 쓰인 ‘알로게네스’를 ‘타국 사람’으로 번역하고, ‘에쓰노스’를 ‘외방 (사람)’으로 번역하여 두 낱말을 우리말 번역에서도 다른 번역어로 구분했다.<sup>26)</sup>

25) BDAG, 1029쪽 오른쪽 칼럼 참조.

(2) 누가복음에는 선생을 뜻할 수 있는 낱말이 두 개 나온다. ‘에피스타테스(ἐπιστάτης, 5:5; 8:24, 45; 9:33, 49; 17:13)’와<sup>27)</sup> ‘디다스칼로스(20:21, 28, 39; 21:7; 22:11 등)’이다.<sup>28)</sup> 『대표자 역본』에서는 각각 부자(夫子)와 선생(先生)으로, 『브리지만-컬버슨 역본』은 부자(夫子)와 사(師)로 번역했다. 로스는 ‘녕감’과 ‘선칭’으로 번역했다. 이 낱말들이 쓰인 곳에서 일관성 있게 체계적으로 그 차이를 구별하여 번역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구분의 필요성에 대해 의식하면서 번역한 것은 인정할 만하다.

### 5) 인지명 등 고유명사의 음역은 그리스어 원문에 가깝게 번역<sup>29)</sup>

그리스어	로스역	대표자역, 브리지만
Ἰησοῦς	예수	耶穌(야소)
Χριστός	키리스토	基督(기독)
Σίμων Πέτρος	시몬 피들	西門彼得(서문피득)
Ἰωάννης	요안니	約翰(약한)
Ἡρόδης	헤롯	希律(희율)
Μωϋσῆς	모쇼	摩西(마서)
Ἀβραάμ	압라함	亞伯拉罕(아백랍한)
Ἰακώβ	야곱	雅各(아각)
Πιλάτος	피나토	彼拉多(피랍다)
Ἰουδαίας	유디	猶太(유태)
Ἰσραήλ	이살일	以色列(이색열)
Ἰερουσαλὴμ/Ἱεροσόλυμα	예루사렘	耶路撒冷(야로살냉)
Γαλιλαία	가니니	加利利(가리리)
Καφαρναούμ	가빌남 <sup>30)</sup>	迦百農(가백농)

오늘날 외래어 음역 원칙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로스의 인지명 음역은 한자어보다 그리스어 원음을 고려하여 결정한 듯하다. 1882년 10월 9일에 라이트 박사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서양 이름들의 한문 번역은 만족스럽지 못합니다.”라고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 예루살렘, 가버나움, 아브라함’ 등을 예로 들고 있다. 로스는 고유 명사의 음역과 관련하여, “그리스어와 가장 근접한 철자들을 저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채택하려고 하며, 사실 이 방향에 대해서 어떤 합리적인 반대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라고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26) 로스는 눅 2:32(외방); 12:30(외방 사람); 18:32(외방 사람); 21:24(외방 사람); 22:25(외방)으로 번역했고, 21:24-25에서만 ‘모든 날아(=나라)’로 번역한 경우가 있다. <대표자 역본>과 BC도 17:18의 ‘알로게네스’는 異民으로, 다른 곳에 쓰인 ‘에쓰노스’는 ‘이방(인)’으로 번역했고, 21:24-25에서는 諸國으로 번역한 경우가 있다.

27) 5:5; 8:45(녕감); 8:24(호격 형태로 나온 이 낱말을 번역에서 생략); 9:33(쥬); 9:49; 17:13(선칭).

28) 두 낱말의 쓰임새도 독특하다. ‘에피스타테스’는 제자들이나 예수님에게 호의를 가진 이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주로 쓰이고, ‘디다스칼로스’는 예수님에 대해 중립적이고 곁끼러운 관계에 있는 이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주로 쓰인다.

29) 참고. 박형대, “존 로스의 고유명사 음역원칙: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와 『예수성교전서』의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신약연구』 12:4 (2013), 677-707.

30) 누가복음에서 총 4회 나오는데, 4:23에서 ‘가빅농’으로 음역했으나, 나머지 3회(4:31; 7:1; 10:15)에서는 ‘가빌남’으로 음역하였다.

밝힌 바 있다.<sup>31)</sup>

## 2. 우리말의 자연스러움과 문화의 특징을 고려한 번역

### 1) 우리말로 생략 가능한 부분을 생략하여 운율과 입말체를 살린 번역

주어를 생략하고 번역한 사례는<sup>32)</sup> 도처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한두 가지 보기를 들자면, “또 (그가) 다른 종을 보니여 데 또 티고 업세이 네겨 거저이 돌아가게 흐미”(20:11), “즉시 (그가) 갈으되 니 실노 너에게 말흐너니”(21:3)에서 쉽게 확인된다. 23:8에서는 그리스어 원문에 ‘헤롯’이라는 주어가 명시되어 있는데도 로스는 이를 생략하고, “(헤롯이) 예수를 보고 심이 즐겨흐문 만이 일을 듯고 오리 보고자 흐며”라고 번역하였다.<sup>33)</sup>

주어를 밝힌 경우에도 주격 조사를 생략하는 경향이 자주 나타난다. 20:3에서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디답흐여 갈으되 니(가) 또한 너의게 한 말을 물을 거시니 니게 고흐라”와 같이 주격 조사와 간접목적어를 생략한 채 번역하였다. 21:1에서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가) 지물노써 고에 더디물 보다가”라고 하여 두 번이나 주격 조사를 생략하고 번역했다. 이런 보기는 곳곳에서 나타난다. 이런 생략을 통해 운율을 살리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 2) 단수와 복수를 한국어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번역

12:30과 21:24에서는 복수형인 ‘타 에스네(τὰ ἔθνη)’를 단수 ‘외방 사람’으로 번역하였다. 굳이 복수형 ‘사람들’로 하지 않더라도 어느 한 사람이 아닌 외방 사람 전체를 가리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24:5와 24:8에서는 ‘부인덜이’라고 하는 복수형이 사용된다. 24:5는 복수 대명사 ‘아우톤(αὐτῶν)’을 실명사로 밝혀 번역한 경우이고, 24:8은 3인칭 복수 동사 ‘에므네스쎄산(ἐμνήσθησαν)’에 내포된 복수 주어를 실명사로 밝혀서 번역한 경우이다. 이처럼 로스는 단수 복수의 구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복수형 접미사 ‘덜’을 사용하여 단수 복수를 구별하기도 하였다.

### 3) 수동태를 능동태로 바꾸어 번역

우리말은 서양어의 수동태에 해당하는 문장은 회피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특징을 반영하여 『로스역』은 그리스어 원문의 수동형 문장을 능동태로 바꾸어 번역한 보기들을 많이 남기고 있다. 이는 이후 우리말 성경 번역사에서 중요한 특징의 하나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아래에서 몇 가지만 그 보기를 들어보기로 하자.

31) 옥성득, 이만열 편역, 『대한성서공회사 자료집 제1권』, 58.

32) 참고. 괄호 안에 있는 말은 생략된 부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필자가 덧붙인 것임.

33) 그리스어 원문에 주어 ‘헤롯’이 명확하게 나와 있고, <브리지만-컬버슨 역본>도 ‘希律見耶穌’라고 주어를 명시하여 번역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로스는 ‘헤롯’이 원문에서 주어로 명시된 경우에도 문맥상 그 주어가 분명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주어를 생략하고 번역하였다. \* 참고: <대표자 역본>도 주어진 ‘헤롯’을 생략하여 번역한다. 대표자 역본도 원문에 따른 직역보다는 의미역을 더 선호하는 성격을 띤 역본이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개별 구절이 어떤 특정한 저본이나 참고 역본의 영향을 받은 결과라기보다는 로스의 전체적인 번역 성향과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 눅 21:16

로스역	장차부모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들 <b>관에 붓터</b> 너의 등에 멧출 쥐기고
RV	<b>παραδοθήσεσθε</b> δὲ καὶ ὑπὸ γονέων καὶ ἀδελφῶν καὶ συγγενῶν καὶ φίλων, καὶ θανατώσουσιν ἐξ ὑμῶν,
ERV	But ye shall <b>be delivered up</b> even by parents, and brethren, and kinsfolk, and friends; and some of you shall they cause to be put to death.

(2) 눅 23:8

로스역	또 그 한 덩도 <b>헝헝넌</b> 것보기를 바리미라
RV	καὶ ἤλπίζεν τι σημεῖον ἰδεῖν ὑπ' αὐτοῦ <b>γινόμενον</b> .
ERV	and he hoped to have seen some miracle <b>done</b> by him.

(3) 눅 23:23

로스역	못사람이 큰 소리로 간절이 구하기를 <b>습지틀에 못질하라</b>
RV	οἱ δὲ ἐπέκειντο φωναῖς μεγάλαις αἰτούμενοι αὐτὸν <b>σταυρωθῆναι</b> , καὶ κατίσχυον αἱ φωναὶ αὐτῶν.
ERV	But they were instant with loud voices, asking that he might <b>be crucified</b> . And their voices prevailed.

(4) 눅 24:34-35

로스역	쥬 과연 <b>닐어</b> 시몬으게 <b>낮타나물</b> 말허거늘 / 두 데자 또한 길에서 만넌 비와 썩을 쟈여 <b>예수 안</b> 일을 고허더라
RV	λέγοντας ὅτι ὄντως <b>ἠγέρθη</b> ὁ κύριος καὶ <b>ᾤφθη</b> Σίμωνι. καὶ αὐτοὶ ἐξηγοῦντο τὰ ἐν τῇ ὁδῷ καὶ <b>ὡς ἐγνώσθη αὐτοῖς</b> ἐν τῇ κλάσει τοῦ ἄρτου.
ERV	saying, The Lord <b>is risen</b> indeed, and hath <b>appeared</b> to Simon. And they rehearsed the things that happened in the way, and <b>how he was known of them</b> in the breaking of the bread.

4) 우리나라 문화와 역사에 어울리는 대응어를 찾아서 번역

『개역개정』에서 ‘청지기’로 번역된 그리스어 ‘에피트로포스’를 ‘지상’(8:3)으로, 『개역개정』에서 ‘주여’로 번역한 그리스어 ‘에피스타테스’를 ‘냉감’(8:45)으로, 『개역개정』에서 ‘먹을 것을 주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도세나이 파게인’을 ‘밥을 주라’(8:55)로 번역한 것은 그리스어 원문을 한국어 독자들의 문화에 맞춘 시도라고 할 수 있다. 22:19에서 ‘빵’을 뜻하는 그리스어 낱말 ‘아르토스(ἄρτος)’를 ‘썩’으로 번역한 것, 23:38에서 ‘그 우에 방을 써 갈오되’라고 번역한 것, 23:47에서 백부장을 가리키는 그리스어 낱말 ‘헤카톤타르코스’를 당시의 무관 벼슬 가운데 하나인 ‘파총’으로 번역한 것, 23:50에서 요셉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리스어 낱말

‘볼레우테스(βουλευτής)’를 옛 벼슬 이름인 ‘정승’으로 번역한 것 등도 모두 문화에 맞춘 시도라고 하겠다.<sup>34)</sup>

도량형이나 시간 단위를 나타낼 때에도 그리스어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문화적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바꾸어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노력한 것을 볼 수 있다. 그 보기로, ‘쉬인 냥’(7:41), ‘은 열근’(19:13), ‘편시여’(22:59), ‘오시 둥’(23:44), ‘미시 말’(23:44), ‘이습 오리’(24:13) 등을 들 수 있다.

#### 5) 순우리말 또는 쉬운 한자 표현을 찾아서 번역

대표지역, 브리지만	로스역
除酵節	누룩금흔절
逾越節	넘년절
祈禱	빌다
義人	올운 사람
復生	다시 날다

‘누룩금흔절’에는 일부 한자어가 포함되어 있기도 하지만, 위에서 제시한 나머지 네 개의 표현은 순우리말 번역어이다. 오늘날 널리 사용되는 ‘기도’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고, ‘빌다’가 사용된 점도 매우 인상적이다. 『대표지역』과 『브리지만』에서 ‘부생’으로 번역한 말은 『개역개정』에서 동사로 사용될 때는 ‘살아나다’로, 명사로 사용될 때는 ‘부활’로 번역되었다. 이는 그리스어 원문에서 ‘에게이로(일으키다)’ 동사의 수동태나 명사 ‘아나스타시스(다시 일어섬)’에 대응하는 것이다. 그런데 로스는 이 두 말을 그리스어의 본디 뜻에도 부합하면서 순우리말 표현인 ‘다시 날다’ 또는 ‘다시 니년 것’으로 번역했다. 그 뒤로 번역된 어떤 우리말 성경에서도 로스의 이러한 번역은 한 번도 복원된 적이 없었다. 그런데 2021년 11월에 출간된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에서 ‘에게이로’ 동사의 수동형을 ‘일으킴받아 살아나다’라고 번역하여 로스역의 전통을 다시 잇게 되었다. 24:32에서 “두 데자 서루 날너 같으되 길에서 우리로 더부러 말하여 성경을 히리홀 씨여 우리 마음이 었디 싸디 안앗너냐 하고”라는 번역에서, 두 중국어 역본에서 熱로 번역한 단어를 ‘불기운이 세다’는 뜻을 지닌 순우리말 ‘싸다’로 번역한 것도, 로스가 순우리말 표현을 찾아 번역하려고 애쓴 흔적을 보여주는 좋은 보기에 속한다.

## IV. 나가는 말: 로스역이 한글 성경 번역에 끼친 영향과 앞으로의 과제

지금까지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의 그리스어·영어·중국어 저본에는 무엇이 있으며, 그러

34) 1882년 5월에 출간된 『로스역』 요한복음에서는 빌라도를 ‘사또’로 부르고 있다. 이는 2인칭 대명사 ‘소이(σοι)’로 된 것을 실명사로 바꾸어 번역한 것인데,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1882.3) 23:3에서 동일한 빌라도를 ‘디인’이라고 한 것과는 달라진 번역이다.

한 저본이 로스역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는 로스역이 한글 성경 번역사에 남긴 영향과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겠다.

로스역이 남긴 긍정적 영향을 다섯 가지로 요약해 보면 이렇다: 1) 사본학의 연구 결과를 반영한 최신 그리스어 본문을 대본으로 번역하였다. 2) 당시 가용한 여러 외국어 역본들(영어 KJV와 ERV, 중국어 『대표자 역본』, 『브리지만-컬버슨 역본』, 『북경관화역본』)을 종합적으로 번역에 활용하였다. 3) 번역 원칙과 관련하여, 최대한 그리스어 원문을 충실히 따르는 직역을 추구하면서도 아름다운 한국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4) 한국어 독자들의 언어 관습과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번역하였다. 5) 영어와 중국어 번역을 참조하면서도 그것을 뛰어넘어 새로운 순우리말 표현을 찾아 번역하려고 노력하였다.

물론 로스역에서 보이는 아쉬운 점들도 없지 않다. 흔히 지적되듯이 여전히 어려운 한자 어들이 많이 남아 있고,<sup>35)</sup> 한국어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번역의 실수들, 중국어 역본의 영향으로 그리스어 원문에서 어긋난 번역,<sup>36)</sup> 조판이나 식자 오류<sup>37)</sup> 등이 곳곳에 발견된다. 평안도 사투리(‘아밤’, ‘오맘’, ‘사이’ 등)와 일관성의 결여를 보여주는 표기법도<sup>38)</sup> 아쉬움을 남기는 부분이다. 그러나 로스의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가 우리말로 번역된 최초의 성경이었다는 점과 당시의 시대적 한계를 고려할 때, 그 정도 미비한 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다. 여러 가지 제약에도 불구하고, 번역자들이 선택했던 번역 저본, 역본, 절차와 그 번역을 수행하기 위해 기울인 각고의 노력은 큰 여운을 남긴다.

로스의 첫 번역이 이루어진 뒤로 한국에서 진행된 여러 개정과 번역을 되돌아보면, 로스가 닦아 놓은 길을 뒤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대의 흐름에 따른 언어 변화와 최신 학문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원문에 충실하면서도 한국어로 잘 이해되는 정확한 번역을 위해 노력할 때, 로스가 닦아 놓은 번역의 본보기는 오늘날에도 유효한 길잡이가 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런 점에서 로스역은 우리말로 번역된 최초의 성경이라는 명예와 더불어 그 내용에서도 결코 손색이 없는 높은 수준의 번역이라는 명예를 같이 누려 마땅할 것이다. 그 학문적 수준과 신앙적 열정을 잘 계승하여 후대의 번역자들도 개척자 로스가 닦아 놓은 성경 그리스도교의 특징을 한국 교회가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새로운 번역과 번역의 개정에 더욱 정진하여야 할 것이다.

35) 난니(1:58, 65), 덕인(1:34, 2:36), 시비(1:48), 슈자(14:7), 고향(15:14), 군돈(15:14), 그 니써지 병혀(19:23), 하(20:20), 반등(20:43), 경동(21:19) 등을 보기로 들 수 있다.

36) 22:19에서 ‘기록하라’는 그리스어 원문(ἀνάμνησιν)에 비추어 볼 때는 부정확한 번역이다. ‘나를 기념하라’로 번역되는 것이 원문에 부합한 번역이다. 이러한 현상은 아마도 此以記我也로 번역한 『대표자 역본』 및 같은 記(기)자를 활용한 『브리지만-컬버슨 역본』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37) 1:50와 24:52에서 글자가 놓혀진 현상, 15:22에서 ‘명혀여’가 ‘혀명여’로 글자 순서가 뒤바뀐 현상, 15:10에서 ‘말너니’는 ‘말혀너니’에서 한 글자를 누락한 현상(참고. 11:51, 말혀너니), 24:49에서 ‘우리로부터’는 ‘우로부터’가 되어야 했는데, 한 글자가 불필요하게 추가된 현상 등을 보기로 들 수 있다.

38) 한 예로, ‘빌다’ 동사를 ‘비러’(22:40, 41)와 ‘빌어’(22:46)로 달리 표기하여 표기법에 차이를 보인다.



## 참고문헌

- 『공동번역 성서 개정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9).
-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 (서울: 대한성서공회, 2021).
-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1988).
- 『성경전서 새번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2001).
- J. 로스, J. 매킨타이어 역,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 (심양: 문광서원, 1882).
- 『舊新約聖書 文理』 (上海: 聖書公會, 1933); 원출판년 1852 신약, 1854 성경전서. (*Wenli Bible, Delegates' Version*, Shanghai: British and Foreign Bible Society, 1933) (대표자 역본)
- 『舊新約全書』 (福州: 大美國聖經會, 1896); 원출판년 1859 신약, 1864. (*Classical Bible, Bridgman and Culbertson's Version*, American Bible Society, 1896) (브리지만 컬버슨 역본)
- 『新約全書』 (中西字, 上海: 美華書院, 1885); 원출판년 1872. (*The New Testament in English and Madarin*, Shanghai: American Presbyterian Mission Press, 1885) (북경관화역 신약)
- Die Heilige Schrift des Alten und des Neuen Testaments* (18. Auflage, Zürich: Verlag der Zürcher Bibel, 1982). (ZB)
- The Greek Testament with the Reading Adopted by the Revisers of the Authorized Version* (Oxford: Clarendon Press, 1881). (RV)
- The Holy Bible Containing Old and New Testaments in King James Version* (Nashville: Thomas Nelson Publishers, 1984); org. ed. 1611. (KJV)
- The New Testament of our Lord and Saviour Jesus Chris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881). (ERV)
- 김경연, “존 로스 「말코복음」(1887)의 대역 중국어 성서 - 부사의 비교” 『성경원문연구』 44 (2019), 165-166.
- 다카시, 히로, “개화기 한국어 성서의 번역어 연구 -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5).
- 박형대, “존 로스의 고유명사 음역원칙: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와 『예수성교전서』의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신약연구』 12:4 (2013), 677-707.
- 박형신, “존 로스 번역본 『예수성교요안나복음전서』 초판(1882)의 ‘간음한 여인 이야기’(요 7:53-8:11) 삭제 문제”, 『한국 교회사학회지』 43 (2016), 72.
- 옥성득·이만열 편역, 『대한성서공회사 자료집 제1권: 로스 서신과 루미스 서신』 (서울: 대한성서공회, 2004).
- 이만열 외, 『대한성서공회사 I: 조직·성장과 수난』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3).
- 이환진, “쉐레쉐브스키 주교의 북경관화역 구약(1875): 시편 1편을 중심으로”, 『신학과 세계』 76 (2013), 6-37.
- \_\_\_\_\_, “한문성경 『대표본』(代表本, 1854)의 번역 특징 - 전도서를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30 (2013), 25-44.
- \_\_\_\_\_, “한문성경 브리지만-컬버슨역(1864)의 번역 특징 - 시편 23편을 중심으로”, 『신학과 세계』 73 (2012), 7-45.
- 정용한, “초기 우리말 성서의 저본 사용에 대한 통시적 연구: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 신학논총』 106 (2017), 67-69.
- 최성일, “『로스역』 신약 성서의 특징과 저본에 관한 소고 -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Canon & Culture』 4:2 (2010), 115.
- Bauer, Walter., et al.,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0).

- Edwin, P., *Hē Kainē Diathēkē*. The Greek Testament with the Reading Adopted by the Revisers of the Authorized Vers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881).
- Scrivener, F. H. A., *The New Testament in the Original Greek, According to the Text followed in the Authorized Version Together with the Variations Adopted in the Revised Vers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881).
- Webster, J., “The Maker of the Manchurian Mission - An Appreciation of the late Rev. John Ross, D.D.”, *The Missionary Record of the United & Free Church of Scotland* XV (1915), 394.
- Westcott, B. F., and Hort, F. J. A., *The New Testament in the Original Greek* 2 vols., (Cambridge: Macmillan, 1881).

## 「로스의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1882)가 한글 성경 번역에 끼친 영향과 앞으로의 과제」 토론문

이환진(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

우리나라 최초의 복음서인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의 간행 140년을 기념하여 열리는 이번 학술 심포지엄에 대한성서공회 부총무 이두희 박사가 쓰신 “로스의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가 한글 성경 번역에 끼친 영향과 앞으로의 과제”는 성서 번역학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치밀하게 쓴 훌륭한 연구라고 생각한다.

이 논평에서는 먼저 이두희 박사의 글을 요약하고 이어서 느낀 점과 질문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이 글은 먼저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의 번역 과정과 저본 문제를 다룬다. 이두희 박사의 글에서 분석한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20-24장으로 이 부분을 번역 특징을 보여주는 예시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다.

(1) 먼저 번역 과정은 조선인 번역자들이 한문 성경들을 가지고 당시 조선어로 번역을 하면 존 로스나 존 맥킨타이어 선교사들이 그리스어 원문 성서와 영어 성서 그리고 주석서와 사전을 가지고 일일이 대조하여 조선어 초벌 번역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는 방식이다.

(2) 다음 저본 문제이다. 앞의 번역 과정에서도 본 것처럼 어떤 그리스어 성서와 영어 성서 그리고 중국어 성서가 저본이었겠느냐 하는 것이다. 이 부분을 논의하면서 이두희 박사는 당시로서 최근 판인 1881년에 나온 『개정 그리스어 성경』 팔머판 그리스어 성서가 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증명하고 있다.

그리고 조선인 번역자들이 사용한 초벌 번역의 대본의 경우 존 로스는 단지 “한문 역본들”이라고만 언급하고 있는데 이두희 박사는 이 글에서 그 한문 역본들이 『대표본』(Delegates's Version, 1852)과 『브리지만-컬버트슨역』(Bridgeman-Culbertson's Version, 1864)이라는 점을 각 번역문들의 비교를 통하여 잘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1872년에 나온 『북경관화역』(신약, Peking Colloquial Translation)의 용어도 가끔 눈에 띈다는 언급도 하고 있다.

이렇게 본문 비교를 통하여 “한문 역본들”을 구체적인 역본들로 구분하여 제시하여 준 점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 존 로스나 존 맥킨타이어가 『개정 그리스어 성경』과 『영어 개역』(English Revised Version)으로 조선인들의 초벌 번역을 일일이 확인한 작업을 거쳤다는 점을 잘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두희 박사가 언급한 대로 1881년에 나온 『영어 개역』이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에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지는 확인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영어 개역』이 『개정 그리스어 성경』을 그대로 직역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두희 박사는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1882년)의 번역 특징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다.

1. 그리스어 원문에 충실한 번역
  - 1) 그리스어 낱말을 뜻으로 풀지 않고 그대로 직역하여 번역
  - 2) 그리스어 문장의 어순을 최대한 그대로 지켜서 번역
  - 3) 그리스어 낱말의 어원을 드러내어 번역
  - 4) 그리스어 원문의 서로 다른 낱말을 한국어로도 서로 다른 낱말로 구분하여 번역
  - 5) 인지명 등 고유 명사의 음역은 그리스어 원문에 가깝게 번역
2. 우리말의 자연스러움과 문화의 특징을 고려한 번역
  - 1) 우리말로 생략 가능한 부분을 생략하여 운율과 입말체를 살린 번역
  - 2) 단수와 복수를 한국어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번역
  - 3) 수동태를 능동태로 바꾸어 번역
  - 4) 우리나라 문화와 역사에 어울리는 대응어를 찾아서 번역
  - 5) 순우리말 또는 쉬운 한자 표현을 찾아서 번역

그리고 논문의 결론 부분 곧 한국어 성서 번역의 앞으로의 과제 부분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예수성교전서』의 부활과 관련된 용어(“다시 날다”)가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2021년)에 반영되어 있을 정도로 여전히 『예수성교전서』가 한국어 성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한다. 또한 로스 번역 팀이 치밀하게 번역하여 오늘날 읽어도 손색없는 번역 성경을 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이 전통을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결론을 맺는다.

이두희 박사의 논문을 읽고 배운 점을 다음과 같다.

(1)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는 원문에 충실하면서도 자연스러운 당시의 조선어로 번역하고자 노력한 번역 성경이라는 점이다. 곧 2021년에 나온 대한성서공회의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과 같은 번역 전통의 한국어 성서라는 점이 놀랍다.

(2)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가 당시 가장 최근의 그리스어 비평본 성서인 『개정 그리스어 성서』(팔머판, 1881년)를 많이 반영하여 번역하였다는 점이다. 1890년대까지 중국어나 일본어로 번역된 성경은 주로 그리스어 성경 『텍스투스 레셉투스』(Textus Receptus)를 반영한 성경들이기 때문이다.

(3)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는 여러 한문 성경을 반영하여 폭넓은 학문성과 치밀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는 『대표본』(1852년)을 초벌 번역 대본으로 삼아 『브리지만-컬벳슨역』(1864년)과 『북경관화역』(1872년)을 많이 참조하여 번역에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참고로, 중국 개신교회에서 현재 가장 많이 읽고 있는 『화합본』(Chinese Union Version, 1919년)은 중문성경 『복경관화역』을 주로 따랐다. 그리고 첫 번째 일본어 성경전서 『메이시역』(1887년)은 『브리지만-결벚슨역』의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

이와 아울러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다.

(1) 이두희 박사는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의 번역 특징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그리스어 원문에 충실한 번역”이라고 말한다. 곧 “그리스어 낱말을 뜻으로 풀지 않고 그대로 직역하여 번역”한 것이고 “그리스어 문장의 어순을 최대한 그대로 지켜서 번역”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조선인 번역자들이 한문 성경 가운데 “문리역본”을 초별로 번역했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두희 박사가 언급하신 대로 “문리역본”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중국어 역본을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는 중국의 사서삼경과 같은 “문리체”(文理體)로 번역했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의 번역 대본으로 흔히 언급하는 『대표본』(Delegates's Version)은 자유로운 풀이역에 가깝다. 그리고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가 많이 참조한 『브리지만-결벚슨역』은 직역에 가깝다. 따라서 “그리스어 원문에 충실한 번역”이라고 한다면 논리적으로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의 한문 성경 대본은 『대표본』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브리지만-결벚슨역』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한문 성경 대본 문제를 논의할 경우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가 의미와 용어 면에서는 대체적으로 『대표본』을 많이 반영하고 문장 면에서는 대체적으로 『브리지만-결벚슨역』을 많이 반영했다고 말해도 되는지 묻고 싶다.

(2) 위의 질문과 관련하여 그렇다면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의 번역 대본은 그리스어 성경인가 아니면 한문 성경인가 하는 점이다. 조선인들의 초별 번역은 한문 문리 성경을 대본으로 삼아 번역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3) 물론 이두희 박사가 쓰신 논문의 범위에서는 벗어나는 것이지만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가 신약전서인 『예수성교전서』(1887년) 속에서는 얼마만큼 개정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신명(神名) 면에서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는 그리스어 “테오스”를 “하느님”으로 번역했다가 『예수성교전서』에서는 “하나님”으로 바꾼 것이 대표적인 것인데 이것 말고도 어떤 사항들이 바뀌었는지 궁금하다.

(4) 논문에서 이두희 박사는 『영어 개정 성경』(English Revised Version, 1881년)이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에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 밝히기는 어렵다고 했다. 『영어 개정 성경』(ERV)이 『개정 그리스어 성서』(1881년)를 거의 직역한 영어 성경이라는 이유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런데 어떤 학자는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가 『영어 개정 성경』보다는 『제임스왕역』(1661년)을 더 많이 참조하였다고 주장한다(위의 논문 94쪽, 각주 6). 그리 큰 문제는 아니지만 이 점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소 개

### [개회기도] 이상학(李相學, Lee Sanghak)

연세대학교 건축학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과, 에모리대학교 신학대학원 조직신학과, 버클리 연합신학대학원(GTU) 졸업(조직신학 전공). 포항제일교회 담임목사 역임. 현재 새문안교회 담임목사, 장로회신학대학교 조직신학과 겸임교수, 교회교육현장연구소 이사장. 저서 『시작하는 그리스도인에게』, 『비움』 등.

### [개회사] 윤경로(尹慶老, Yoon Kyungro)

고려대학교 사학과, 대학원 졸업(석·박사). 한성대학교 사학과 교수(한국근현대사), 동 대학교 총장 역임(현재 명예교수). 북경대학교 초빙교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 위원장, (사)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상임대표, 서울 YMCA 시민논단위원회 위원장,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위원장, 3.1운동100주년기념사업위원회기억·기념분과 위원장 역임. 현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이사장. 저서 『105인사건과 신민회 연구』, 『한국근대사의 기독교사적 이해』, 『새문안교회100년사』, 『한국근현대사의 성찰과 고백』 외 논저 다수.

### [환영사] 권의현(權義現, Kwon Eui Hyun)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현 아신대학교) 대학원 졸업(선교학 전공). 현재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사장. 세계성서공회연합회(United Bible Societies) 아시아태평양 지역 마케팅 그룹 자문위원, 세계성서공회연합회 아시아태평양 지역 이사회 이사, 세계성서공회연합회 성경 출판 자문위원회 의장, 세계성서공회연합회 세계 지역 이사회 이사 역임.

### [축 사] 권재일(權在 一, Kwon Jaeil)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대학원 졸업(문학박사). 대구대학교·건국대학교·서울대학교(언어학과) 교수 역임(현재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원장, 국립국어원 원장, 한글학회 회장, 거례말큰사전편찬위원장 역임. 『한국어 문법사』, 『남북 언어의 문법 표준화』, 『한국어 문법론』, 『세계 언어의 이모저모』, 『언어학사상의』 외 논저 다수.

### [기조발표] 옥성득(玉聖得, Oak Sungdeuk)

서울대학교 영문과와 국사학과,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과 대학원, 프린스턴신학교, 보스턴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기독교역사 전공). 현재 UCLA 임동순 임미자 한국기독교 석좌 부교수. 저서 『한국기독교 형성사』, 『다시 쓰는 초대 한국교회사』 외 논저 다수.

### [제1발표] 유경민(劉京玟, Yu Kyungmin)

전주대학교 국어교육과,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졸업. 교육부 산하 한국연구재단 학술연구교수 역임. 현재 전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저서 『성경과 한국어』, 『한국어 성경의 변천』, *MISSIONARY TRANSLATORS: Translations of Christian Texts in East Asia* (공저) 외 논저 다수.

### [제1논찬] 민현식(閔賢植, Min Hyunsik)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대학원 졸업(국어학 전공). 강릉대학교·숙명여자대학교·서울대학교(국어교육과) 교수 역임(현재 명예교수). 한국어교육학회장·국립국어원장 역임. 현재 대한성서공회 『새한글성경』 국어 책임 감수. 저서 『국어 문법 연구』, 『한글본 이언(易言) 연구』, 『국어교육을 위한 응용국어학 연구』 외 논저 다수.

**[제2발표] 박형신(朴炯信, Park Hyung Shin)**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에모리대학교 신학대학원, 버클리연합신학대학원(GTU) 졸업(역사 전공). 현재 남서울대학교 교수·한국교회사학회 부회장·한국기독교역사학회 및 아시아기독교사학회 이사. 저서 *The Rev. John Ross: A Primary Sourcebook* (존 로스 선교사 자료집) I & II 외 공저 논문 다수.

**[제2논찬] 류대영(柳大永, Ryu Daeyoung)**

서울대학교 영문과, 하버드대학교(구약학), 밴더빌트대학교(미국종교사) 졸업. 한국기독교역사학회 회장 역임. 현재 한동대학교 교수. 저서 『초기 미국선교사 연구』, 『미국 종교사』, *A History of Protestantism in Korea* 외 논저 다수.

**[제3발표] 이두희(李斗熙, Lee Doo-Hee)**

서울대학교 독문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서양고전학 전공,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프린스턴신학교 신약학, 버클리연합신학대학원(GTU) 졸업(신약학 전공). 장로회신학대학교 신약학 조교수 역임. 현재 대한성서공회 번역 담당 부총무. 저서 *Luke-Acts and 'Tragic History': Communicating Gospel with the World* (WUNT II 346), 『25일 헬라이어정복』 외 논저 다수.

**[제3논찬] 이환진(李桓珍, Yi Hwan Jin)**

감리교신학대학교 대학원, 미국 유니온신학대학원(뉴욕), 뉴욕대학교(NYU)(성서학) 졸업. 현재 감리교신학대학교 구약학 교수. 저서 『히브리 가락 히브리 노래 히브리 성서』와 『우리말과 히브리어로 엮어 읽는 이사야』 외 논저 다수.

**[사회] 이재근(李在根, Lee Jaekeun)**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현 아신대학교) 신학과,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미국 보스턴대학교, 스코틀랜드 에든버러대학교 졸업(철학박사). 현재 광신대학교 신학과 교회사 교수·한국기독교역사학회 회장. 저서 『세계 복음주의 지형도』, 『종교개혁과 정치』, 『전라도 기독교의 아버지 유진 벨』, 『미국 남장로회 교육선교 연구』(공저), 『자신학화』(공저) 외 논저 다수.

**[종합토론 좌장] 한규무(韓圭茂, Han Kyumoo)**

서강대학교 사학과, 대학원 졸업(한국근대사 전공, 문학박사). 한국기독교역사학회 회장 역임. 현재 광주대학교 교수·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소장. 저서 『일제하 한국기독교 농촌운동』, 『광주학생운동』, 『기독교 민족운동의 영원한 지도자 이승훈』 외 논저 다수.

